

| SRI-기획-2016-04 |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New Cities of the world Created by The King

최성환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성환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영림(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지배(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공동연구원	이 훈(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한동수(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구원	피수경(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 2016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60

<http://www.suwon.re.kr>

인 쇄 2016년 12월 31일

발 행 2016년 12월 31일

ISBN 979-11-87778-00-4 (9391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최성환 외. 2016. 「왕이 만든 세계의 신도시들」.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 차례 |

기획 의도	7
제1장 베르사유 성과 시의 이중주	11
제1절 머리말	13
제2절 왜 베르사유인가?	14
제3절 새로운 우주의 탄생	20
1. 베르사유 성: 절대군주의 정치성명서	20
2. 베르사유 시: 성에 종속된 운명	30
제4절 신도시의 인구변화와 산업	36
제5절 성과의 줄다리기	41
제6절 맺음말	47
제2장 러시아의 왕도 페테르부르크의 건설과 그 의미	49
제1절 머리말	51
제2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배경	52
제3절 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과 공간 구조	58
제4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의미	66
제5절 맺음말	75
제3장 청제국 북방의 정치중심지 승덕	77
제1절 머리말	79
제2절 승덕 피서산장의 설립 목적과 배경	81
1. 만주족의 전투력 유지	83
2. 몽고 지배의 근거지	87
제3절 피서산장과 정치중심지 승덕	94
제4절 건륭기 승덕의 발전 -외팔묘와 도시의 형성-	104
제5절 맺음말	120

제4장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구상	123
제1절 서론	125
제2절 정조대의 시대 상황과 수원 화성 건설의 정치적 목적	127
제3절 수원 화성의 도시 위상과 건설 이념	130
1. 수원 화성의 위상 - 양경 체제를 목표로 한 별경(別京)	130
2. 별경의 도시 이념 - 정치·경제 개혁의 모범 지역	137
제4절 화성 신도시의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특징	144
제5절 정조 사후 화성 신도시의 쇠퇴와 그 의미	155
제6절 결론 : 수원과 관련된 시사점	157
제5장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159
제1절 서언	161
제2절 도시와 신도시	161
제3절 신도시 건설의 보편적 논리, 격자형 계획이론	169
제4절 수원 화성 신도시의 성격과 위상	179
제5절 맺음말	186
총 결	189
참고문헌	195

| 표 차례 |

<표 1-1> 유아세례, 결혼, 장례 (1661-1720)	37
<표 1-2> 결혼한 남자의 직업별 비율 (1680-1720)	38
<표 1-3>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정착 (1661-1686)	39
<표 3-1> 1780년(건륭45) 건륭제의 소재지와 머문 기간.	102
<표 3-2> 승덕의 사찰과 기타 종교시설.	108
<표 4-1> 화성 각 건물의 상량문 중 수원 화성에 대한 표현	135
<표 4-2> 조선시대 주요 행궁의 규모	145

| 그림 차례 |

<그림 1-1> 오늘날의 베르사유 지도	15
<그림 1-2> 루이 13세 시대 베르사유 성의 평면도	16
<그림 1-3> 파텔, 베르사유 (1668)	18
<그림 1-4> 베르사유 정원 평면도	22
<그림 1-5> 피에르-드니 마르탱, 베르사유로의 귀환 (1722)	23
<그림 1-6> 베르사유 궁전 2층 평면도	24
<그림 1-7> 아담 프란스 반 데르 물렌, 베르사유 건축 공사 (1680 경) 27	
<그림 1-8> 정원 쪽에서 바라본 베르사유 시	31
<그림 1-9> 1789년 당시의 베르사유 시	35
<그림 1-10> 오늘날의 베르사유 시 청사	47
<그림 2-1> 포트르-파벨 요새, 크론슈타트, 해군성의 위치	59
<그림 2-2> 고로드 섬, 해군성 섬, 바실리 섬 위치	60
<그림 2-3> 겨울궁전 (1717년 작품)	62
<그림 2-4> 12 콜레기야 건물 (1743년 작품)	63
<그림 2-5> 알렉산드르-네프스키 수도원 (18세기 초 작품)	64
<그림 2-6> 네바 강의 풍경 (1727년 작품)	68
<그림 2-7> 포트르 시기 아삼블레야 풍경 (20세기 초 작품)	70
<그림 2-8> 원로대신의 수염을 깎는 포트르 대제 (18세기 초 작품)	71
<그림 3-1> 승덕과 무란위장의 위치	82
<그림 3-2> 1860년대 내몽고와 외몽고 지도	87
<그림 3-3> 행궁분포도.	94
<그림 3-4> 피서산장과 외팔묘	97
<그림 3-5> 피서산장도	98
<그림 3-6> 승덕의 寺廟	106
<그림 3-7> 보녕사	112
<그림 3-8> 보녕사의 대승지각(大乘之閣. amba kulge i asari)	112

<그림 3-9> 안원묘	114
<그림 3-10> 보타중승지묘	114
<그림 3-11> 수상사	116
<그림 3-12> 수미복수지묘	116
<그림 4-1> 수원 화성의 주요 공간 구성	147
<그림 4-2> 화성 행궁의 주요 구역 배치	148
<그림 4-3> 한양-수원 간 발참 노선	153
<그림 5-1> 성과곽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국 강소성 무진시 춘추전국 시대의 업성(淹城)	163
<그림 5-2> 청대 초기 만성으로 바뀐 북경 내성의 팔기 분포도(좌)와 서안부 만성 (우)	166
<그림 5-3> 일본의 고대 도시 평안경 평면도(좌)와 성하정에 기반을 둔 도시 강호 고지도(우)	167
<그림 5-4> 대표적인 신도시 건설인 왕조 교체에 따른 국도의 위치 변천(중국)	168
<그림 5-5> 대표적인 격자도시 밀레투스의 도시 평면도(좌)와 올린투스의 도시 평 면도(우)	170
<그림 5-6> 동서 방향의 도로인 데쿠마누스와 남북 방향의 도로인 카르토를 기반으 로 한 로마 병영 도시의 가로 체계 개념도(좌)와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도시 팀가드 평면도(우)	171
<그림 5-7> 불규칙한 구성의 자연발생적인 도시와 질서 있게 만들어진 기하학적 도시 개념도 및 주례 고공기에 언급된 장인영국 부분을 표현한 왕성도	175
<그림 5-8> 당의 수도 장안(좌)과 발해 상경용천부 평면도(우)	177
<그림 5-9> 세계 각 지역 역대 격자형 도시의 변천과 개념도 및 주요 사건 연표	178
<그림 5-10> 신도시의 탄생 메카니즘과 아시아 격자 도시의 분포 ...	178
<그림 5-11> 중국 도시를 사례로 본 성곽의 도로와 성문의 상호 관계	185

기획 의도

기획 의도

그동안 수원 화성의 건설에 대하여 정치·경제·사회·건축·군사·행차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조가 왕권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화성을 “계획 신도시”=신읍치로 건설하였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수원 화성 건설의 목적과 왕경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 화성의 건설 목적과 위상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왕이 만든 ‘신도시’로서 건설된 수원 화성이 지니는 공간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중심으로, 화성 건설의 목적과 위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17-18세기 세계 각국에서 군주가 주도하여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다. 세계 각국이 신도시를 건설한 과정과 그 정치·사회적 맥락은 수원 화성의 위상을 확인하는 좋은 준거가 될 것이기에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수원 화성의 건설과 도시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는 17-18세기에 건설된 신도시 중에서 정조의 수원 화성과 프랑스 루이 14세의 베르사유(Versailles), 러시아 표트르 대제가 만든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와 강희제와 건륭제가 조성한 청제국의 승덕(承德)을 선정하였다. 베르사유와 페테르부르크는 파리와 모스크바를 대체하는 수도의 지위를 가졌고, 승덕은 북경(北京)·성경(盛京, 심양)과 더불어 삼경(三京)의 지위를 가진 정치적 중심지였다.

1~4장에서는 연구대상인 네 도시가 건설되는 배경이 되는 정치·군사·경제·기술적 상황과 다양한 건설 목적, 도시의 구조와 공간 구성, 건축물의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여, 신도시 건설의 보편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세계 도시의 발전사 속에서 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신도시의 탄생 배경과 계획이론을 규명하여 보편적인 도시 건설의 맥락 속에서 수원 화성 건설의 위상과 의미를 정의하였다.

17-18세기의 각국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형성과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당면하였다.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신도시의 건설은 이러한 배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신도시가 건설·운영되는 구체적인 면모는 왕의 개인적인 경험과 국가적인 특수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시각은 물론이고 왕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원인을 고려하여 신도시의 건설 목적을 다각도로 설명하였다.

신도시의 건설 과정도 중앙집권적 국가가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과 기술 역량, 경제력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도시의 구조와 공간적 구성, 건축물의 관계, 왕의 경영 구상도 검토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도시 건설의 맥락인 격자 도시의 계획

이념과 신도시의 관계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군주들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맥락 속에서 정조 대 왕이 만든 수원 화성의 축성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를 조망하였다. 오늘날 네 도시에는 모두 국왕이 건설한 관광 자원이 남아있고, 이를 충실히 활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가 수원 화성 연구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관광 자원의 개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장

베르사유 성과 시의 이중주

이영림 (수원대학교)

제1절 머리말

제2절 왜 베르사유인가?

제3절 새로운 우주의 탄생

1. 베르사유 성: 절대군주의 정치성명서
2. 베르사유 시: 성에 종속된 운명

제4절 신도시의 인구변화와 산업

제5절 성과의 줄다리기

제6절 맺음말

제1장 베르사유 성과 시의 이중주

제1절 머리말

베르사유하면 누구나 곧 성을 떠올린다. 베르사유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성의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베르사유에는 성뿐 아니라 도시가 존재한다. 베르사유 시는 성 건립 이전부터 읍으로 존재했고 성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베르사유 시의 정체성을 지배하는 것은 부르봉 왕조의 강력한 이미지이다. 특히 베르사유를 탄생시킨 태양왕 루이 14세는 흔히 베르사유 자체와 동일시된다.

실제로 베르사유의 역사는 황량한 벌판에 거대한 우주를 창조한 루이 14세의 의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6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직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1682년 5월 6일 루이 14세는 궁정을 이끌고 베르사유 성으로 이주했다. 궁정의 이동은 단순히 왕실의 거처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었다. 왕의 이주와 함께 행정업무가 통째로 이동함으로써 프랑스의 무게 중심이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옮겨졌다. 한마디로 수도가 이전한 것이다. 궁정과 행정부서를 따라 수많은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주하면서 황량하던 베르사유 시에도 주택들이 속속 들어서고 인구도 급증했다. 베르사유는 이렇듯 궁전의 보조 역할을 위해 인위적으로 계획된 국왕도시였다. 이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베르사유 시는 1세기 이상 궁정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고도의 정치 행위에 결부되었다.

1789년 봄 혁명의 회오리가 불어 닥치고 10월에 왕실이 떠나면서 베르사유 성은 궁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와 더불어 오랜 건축의 역사도 종결되었다. 궁정이 사라지자 성은 곧 텅 빈 채로 남겨졌고 성을 장식했던 가구와 장식물들은 도난당했다. 그 와중에 베르사유 시도 순식간에 인구의 절반을 잃고 잠자는 도시로 전락했다. 쇠락의 운명에 처한 베르사유 시는 이제 홀로서기를 위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이는 베르사유 시만이 아니라 모든 국왕도시가 치러야 할 공통의 운명이자 과제였다.

왕이 사라진 베르사유 성은 1794년 6월 국민 공회에 의해 “국가의 비용으로 유지되고 보존될” 운명을 언도받음으로써 시와 분리되었다.¹⁾ 대신 베르사유 시는 1790년에 다른 경쟁 시들을 제치고 센에우아즈 도(département de la Seine-et-Oise)의 도청소재지가

1) 엘렌 이멜파르, 이영림 옮김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기억의 장소 2』, 나남, 2010, 227쪽.

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이후 베르사유 시는 행정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며 자율성을 모색했다. 그러는 동안 왕의 궁전은 서서히 국민의 궁전으로 바뀌어갔다. 1815년에 이루어진 왕정복고도 베르사유 성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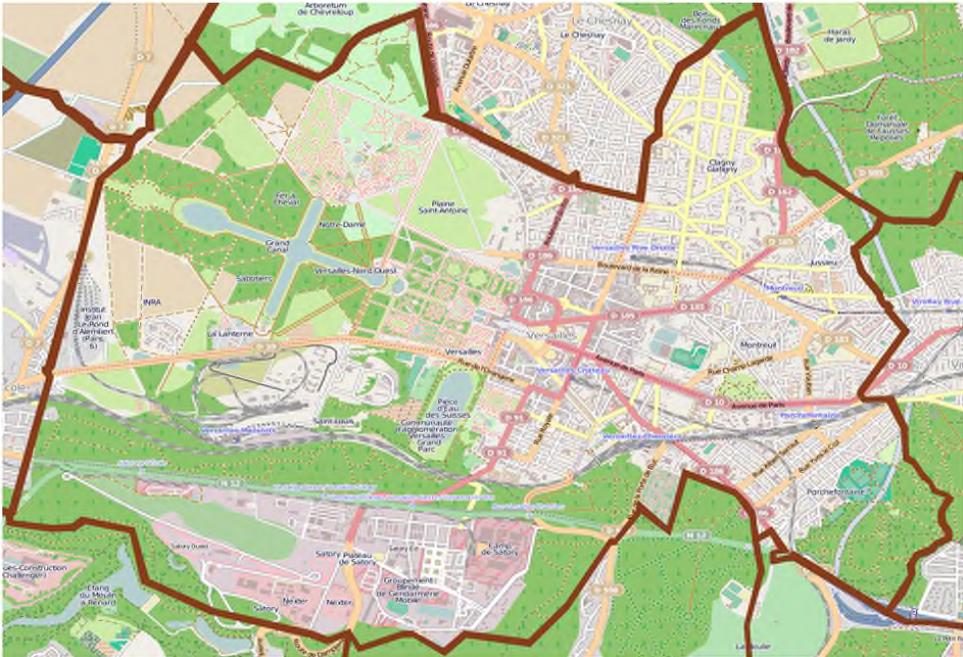
마침내 1837년 6월 11일 베르사유 성은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국립 역사박물관(musée de l'histoire de France)으로 탈바꿈했다. 이렇게 해서 베르사유 성에서 1세기 이상 지속된 온갖 정치적 실체는 신성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어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그때부터 베르사유 시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밀려들었다. 1839년 파리와 베르사유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로 베르사유 시의 관광업과 상업은 더욱 성장했다. 전통적인 존재 방식의 의미가 고갈된 순간 베르사유 시는 다시 한 번 전 유럽을 앞지르며 19세기 유럽을 지배할 새로운 모델이 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베르사유 성은 시와 분리된 국가자산이며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시는 지금까지도 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탄생과 건설 과정에서 형성된 국왕도시로서의 고유의 성격이 프랑스 혁명과 파리코뮌을 거치며 변질되었다. 그 후 도청소재지로서 독자적인 행정도시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성의 역사적 유산과 정치사회적 기억은 여전히 베르사유 시를 지탱해주는 강력한 보루이다.

제2절 왜 베르사유인가?

파리 서남쪽 17.1km 지점에 위치한 베르사유 시는 오늘날 파리를 에워싼 일드프랑스(Ile-de-France) 지역 이블린 도(département des Yvelines)의 수도이다.²⁾ 크게 성과 시로 이루어진 베르사유 시의 면적은 26.8km²(804만평)이며 그 중 성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거주 인구는 85,424명(2013년 통계)으로 프랑스 도시 인구 순위 35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늘날 베르사유 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연 수백만 명(750만 명, 2014년 통계)에 달한다. 관광객들은 베르사유 도처에서 부르봉 왕조가 남긴 유산을 관람하며 권력의 위대함에 감탄한다. 실제로 루이 14세가 1682년 정착한 이후 1세기 동안 베르사유는 프랑스의 수도로 왕국 전체를 지배한 권력의 본산지였을 뿐 아니라 전 유럽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2) 196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센에우아즈 도가 해체되면서 베르사유는 이블린 도의 수도가 되었다.



〈그림 1-1〉 오늘날의 베르사유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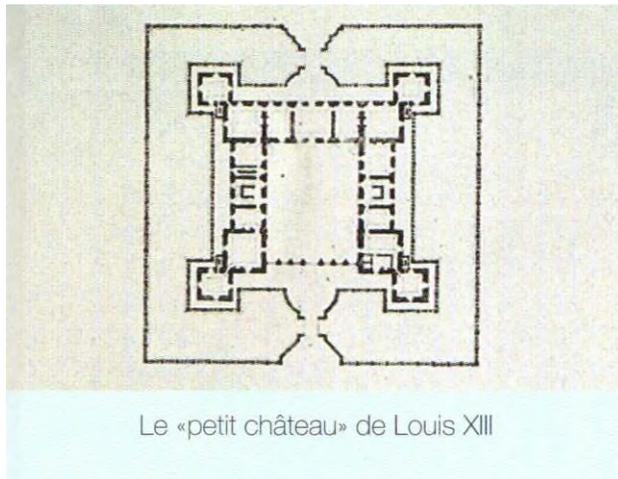
그렇다면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베르사유로의 이주는 곧 루이 14세의 강력한 정치 개혁 의지로 해석되어왔다. 왕조 교체와 더불어 수도가 바뀌어온 우리나라 정치사의 잣대로 보면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파리의 의미는 남다르다.

6세기 경 프랑크 왕국이 파리 한 가운데 위치한 시테 섬에 터전을 마련한 후 파리는 줄곧 프랑스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 중세 프랑스 왕들은 루아르 강변의 무수한 성들을 오가며 끊임없이 이동생활을 했으나 늘 파리를 주근거지로 삼았다. 왕궁의 소재만이 아니라 파리 대학의 존재 역시 파리를 종교, 사상, 문화의 구심점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16세기 말 앙리 4세가 파리에 정착한 이후 파리가 명실공히 프랑스의 수도가 되면서 파리로의 정치사회적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인구도 급속도로 늘었다. 누구보다 먼저 귀족과 관리가 권력을 쫓아 파리로 몰려들었다. 부와 명예를 갈망하던 상인들과 수많은 문인들 및 예술가들도 앞 다투어 파리로 향했다. 앙리 4세와 루이 13세는 파리 한가운데 위치한 루브르 궁전에서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이웃하며 통치했다.

이런 역사의 무게를 거부하고 루이 14세가 파리를 떠나 베르사유로 이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과거의 전통과 결별하고 새로운 뜻을 펴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었을까? 루이 14세는 유난히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물이다. 특히 1661년 친정 이후

그의 정치적 행보는 권력 독점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로 점철되었다. 그러나 베르사유의 탄생과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해석은 과장된 것임이 분명하다.

우선 중세에 작은 읍으로 출발한 베르사유의 역사를 살펴보자. 베르사유는 오랫동안 위그 왕조(les Hugues)의 왕령지에 속했다. 베르사유(Versailles)라는 명칭이 “뒤었다”, 혹은 “개간하다”를 뜻하는 프랑스 고어 *vers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베르사유는 중세 초기 어느 시점에서인가 새로 개간된 개척지로 짐작된다. 베르사유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1038년 위그 가문의 샤르트르 백작이 생페르(Saint-Père) 수도원에 기부한 증서이다. 11세기 말 이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약 100여명이 거주하는 촌락이 형성되었다.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16세기에 약 500명의 촌락을 이룬 베르사유 영지에서는 일 년에 한번 정기시가 열리고 목요일에는 장이 서기도 했다.³⁾



〈그림 1-2〉 루이 13세 시대 베르사유 성의 평면도

1623년 당시 베르사유의 영주인 공디(Jean-François de Gondi)가 젊은 왕 루이 13세를 사냥에 초대하면서 베르사유는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다. 그 후 사냥을 위해 베르사유를 즐겨 찾던 루이 13세는 아예 베르사유 영지를 사들인 뒤 성 건축을 명령했다. 1624년에 건축된 이 성은 일명 ‘카드로 지은 작은 성’⁴⁾으로 불릴 정도로 단순하고 수수했으나 그 골격은 오늘날까지도 베르사유 성의 본관으로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이후 루이 13세의 작은 성은 그의 시대에 이미 두 배로 증축되었다. 1631-1634년에

3) H. Lemoine, *Versailles, cité royale* (Paris: Editeur Quillet, 1955), pp. 24-27.

4) 루이 13세의 성은 벽돌과 석재를 주재로 해서 지붕에 청석돌판을 얹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건물이었다. 이 건물은 훗날 루이 14세 의해 정원 쪽에 개축된 석재건물과 비교되면서 쉽게 허물어질 것 같다는 의미로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

재건축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개수와 증축, 재배치 작업을 거쳤다.⁵⁾ 1634년 마침내 당대 최고의 건축가 필리베르 르루아(Philibert Le Roy)에 의해 중앙의 건축물과 양쪽의 측면 건물로 이루어진 스파르타식의 성이 완성되었다. 성의 건축과 더불어 자연히 베르사유 촌락의 인구도 늘어났다.

루이 14세와 베르사유의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졌다. 사냥광이던 루이 14세가 1653년 베르사유 인근 지역의 사냥터를 누비던 중 한동안 버려졌던 선왕의 성을 발견했던 것이다. 파리 주변의 수많은 성에 비해 작고 허술한 이 성에 그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성은 그에게 쓸모가 있었다. 여성 편력이 심했던 그는 주변의 이목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놀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그곳을 찾았다. 1661년 푸케의 제거 후 전격적으로 시작된 베르사유 공사도 처음에는 여가와 놀이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푸케는 루이 14세 시대의 재무총관으로 왕국 전체의 부를 관장하는 막강한 실력자인 동시에 당대 최고의 문인과 예술가들을 곁에 두고 아낌없이 후원해주던 풍운아였다. 베르사유 인근에 위치한 보르비콩트에 웅장하고 화려한 성을 완성한 푸케는 1661년 8월 17일에 루이 14세를 초대해서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국왕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세를 과시한 푸케의 오만함은 모든 면에서 절대적이기를 추구하던 루이 14세의 질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루이 14세는 곧바로 푸케를 체포한 뒤 영구 추방시켰다. 푸케의 성을 건축하고 장식하는데 동원되었던 예술가들과 주변의 문인들은 모두 루이 14세의 전리품 신세가 되었다. 베르사유 성의 공사가 시작된 것은 그해 11월부터였다. 보르비콩트 성을 탄생시킨 건축가 르보, 정원사 르노트르, 화가 겸 실내장식가 르브룅 등 모두가 베르사유 공사에 동원되었다. 규모 면에서 베르사유 성 공사는 보르비콩트 성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베르사유 공사는 왕실의 거처가 아니라 연회의 장소나 일시적으로 머물 휴식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1661년에 시작된 베르사유 공사는 주로 정원 조성 사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베르사유에서는 1668년부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르보는 정원 쪽 ‘외곽 감싸기 공사’에서 출발해서 별관 건축과 증축 단계로 규모를 확대시켰다. 예컨대 벽돌로 지은 온실, 테티스 동굴, 성 밖의 제 1 마사, 훗날 농민 운하의 남쪽 지류에 세워진 동물원, 북쪽 지류에 세워진 도자기로 지은 트리아농 성 등 말이다.⁶⁾ 그러나 이때까지도 궁정이 베르사유로 이전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5) Jean-Claude Le Guillou는 우리에게 루이 13세의 작은 성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했다: "Les châteaux du roi Louis XIII à Versailles(1623-1634)", *revue Versailles*, nos. 65 & 66 (Nyon, 1979).



〈그림 1-3〉 파텔, 베르사유 (1668)

더구나 1668년 당시 파리 서쪽에 위치한 생제르맹 성에서는 대대적인 개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루이 14세는 주로 생제르맹 성에 머무르고 있었다. 물론 파리에 도 중세 이래 왕궁으로 사용되어온 루브르와 퐁르리 궁전이 있었다. 그러나 루브르는 복잡하게 뒤엉킨 미로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협소해서 왕궁으로서의 실용성을 잃은 지 오래였다. 반면 퐁르리는 1662년의 대화재로 손상되어 불편했지만 꾸준한 개축과 보수 공사로 왕이 지내기에는 손색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가 퐁르리 궁전에

6) 1670년에 완성된 도자기로 된 트리아농 성은 1684년에 허물어졌다. 1672년에 지어진 마사들은 1685년에 아름 광장에 건축된 망사르의 마사들로 대체되었다.

머무는 횃수는 점차 뜰해졌다. 루이 14세는 그 이전부터 수시로 파리를 탈출해서 생제르맹 성이나 파리 동쪽의 뱅센 성, 혹은 그보다는 남동쪽으로 조금 멀리 떨어진 폰텐블로 성에서 번갈아 가며 지냈다. 이처럼 파리 주변을 빙빙 돌며 지내던 루이 14세의 체류 방식은 왕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며 통치하던 중세의 관행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렇다면 루이 14세가 틈만 나면 파리를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루이 14세가 파리와 최초로 결별한 것은 프롱드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648년부터 5년간 지속된 프롱드난은 프랑스 혁명 이전 최대 규모로 프랑스 전국을 무정부상태로 몰아넣었다. 반란의 중심지는 파리였다. 왕궁은 반란의 무리에 에워싸이고 거리에서는 연일 민중들의 함성과 야유가 끊이지 않았다. 어린 루이 14세(당시 10세)는 1649년 1월 5일 밤 모후와 마자랭의 손에 이끌려 몰래 파리를 탈출했다. 그때부터 1653년 프롱드난이 진압되어 파리로 돌아오기까지 수년간 전국을 방황하며 겪은 쓰라린 경험은 루이 14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1653년 이후에도 파리는 그에게 여전히 불안한 곳이었다. 루브르 궁전과 툴리 궁전의 북쪽과 동쪽에는 프롱드 난을 일으켰던 대귀족의 저택들이 마치 궁전을 포위하듯 늘어서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갖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인구 50만의 수도 파리는 늘 무질서와 혼란의 대명사였다. 귀족과 관직 보유자, 재정가, 성직자, 임대수입자, 자유로운 점포 상인, 동업조합에 묶인 상인과 수공업자 외에도 5만 명의 숙련공과 견습공이 존재했다. 게다가 거리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부랑아만도 6만 명에 달했다. 크고 작은 범죄가 판을 치고 1665년에는 형사 대리인 타르디외(Tardieu)와 그의 아내가 집에서 살해되었다. 특히 밤이 되면 파리는 무법천지였다.⁷⁾ 베네치아 대사 비스콘티가 묘사한 1667년의 파리의 풍경은 정말 살벌하기 그지없다.

“파리는 도둑과 암살범의 소굴이었다.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밤에는 도저히 외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낮에도 산책이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거리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였고 농촌에서처럼 진흙구덩이였기 때문이다.”⁸⁾

1664년에 조영총관이 된 콜베르는 곧 르보에게 루브르 개조공사를 맡겼지만 루이 14세의 마음은 파리를 떠나 있었다. 1666년 모후가 사망하자 루이 14세는 아예 파리를 떠

7) J. Jaquart, "La Fronde des princes dans la région parisienne et ses conséquences matérielles",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4 (oct.-déc., 1960), p. 287.

8) Primi Visconti, *Mémoires, 1667: J. Cornette, Chronologique du règne de Louis XIV* (Paris: SEDES, 1997), p. 150에서 재인용.

났다. 프롱드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그 후 오랫동안 파리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왕실의 체류가 점차 뜸해지더니 언제부터인가 아예 발길이 뚝 끊겼다. 1671년에는 툴리리 공사마저 완전히 중단되었다.⁹⁾

그렇다고 해서 그때부터 베르사유로의 이주가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생제르맹 성이 궁전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지였다. 생제르맹은 카페 왕조 이후 역사에 의해 갈고 닦인 곳이며 자연조건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갖춘 곳이었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왕실 주거지 역할을 해온 생제르맹은 군주정의 영속성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권과 자연 경관의 조화를 상징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4세가 생제르맹을 제치고 베르사유를 수도로 선택한 이유는 매우 자의적이며 독단적이다. 궁정이 베르사유로 이주한다는 공식 포고령이 내려진 것은 1678년 루이 14세가 자신의 패권을 전 유럽에 과시한 네이메헨 조약¹⁰⁾이 체결된 직후이다. 파리를 떠나 생제르맹 성에 머무르던 루이 14세는 승전으로 한껏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에서 궁정 이주를 결심했던 것이다. 수도 베르사유의 탄생은 이렇듯 사뭇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일단 베르사유의 성 건설이 공표되자 1678년부터 어마어마하게 확대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다. 루이 14세가 베르사유의 건설 현장을 직접 감독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결론적으로 루이 14세가 처음부터 베르사유를 수도로 못 박았던 것은 아니다. 베르사유로의 이주도 장기적인 전망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루이 14세의 개인사와 17세기 프랑스 정치사가 조우한 미묘한 접점을 계기로 베르사유는 역사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제3절 새로운 우주의 탄생

1. 베르사유 성: 절대군주의 정치성명서¹¹⁾

1661년부터 시작된 베르사유 공사는 건축물 공사가 아니라 조경과 분수 건설을 위한 대토목 사업이었다. 당시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베르사유는 거주지로서 부적절한 곳이었다.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음산하고 척박한 곳인 베르사유에는 전망도 흠도 없었다. 왜냐하면 땅은 전부 유사(流砂)나 늪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좋을 수가

9) H. Himmelfarb, "Versailles, fonctions et légendes", p. 236.

10) 네이메헨 평화 조약(la paix de Nijmegen): 루이 14세가 플랑드르와 프랑슈콩테를 정복한 후 1678년에 네덜란드, 에스파냐, 신성로마제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으로 이후 프랑스는 유럽 제1의 패권국가가 되었다.

11) 이 글에서 베르사유 성 건축에 관한 부분은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09, 241-261쪽을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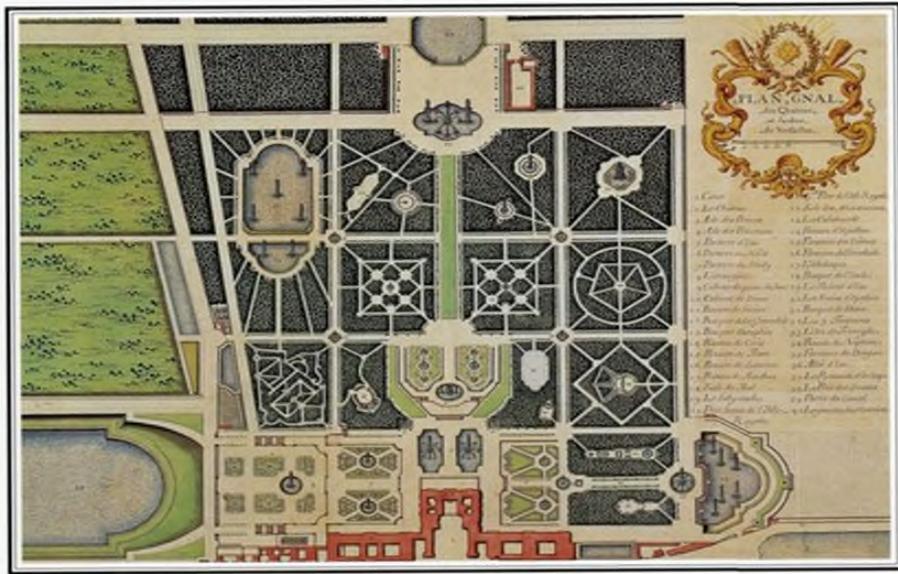
없었다.”¹²⁾ 이처럼 불리한 조건은 루이 14세에게 하등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에게는 오히려 자연을 상대로 한 싸움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을 뿐이다. 생시몽의 증언처럼 루이 14세는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기술과 재물의 힘으로 굴복시키기를 즐겼다.” 아무것도 없던 늪지대와 벌판에 흙을 퍼붓고 물을 끌어대고 형클어진 숲을 인위적으로 다듬어 거대한 연못들과 수많은 분수가 있는 완벽한 정원이 조성되었다. 무질서하고 황량한 자연에서 거대한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탄생한 것이다. 새로운 세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인 1664년 베르사유 정원에서는 자연과 대지에 대한 루이 14세의 정복 의지를 상징하는 화려한 궁정 축제가 거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거침없고 인위적인 힘의 찬가는 8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운하공사였다. 1667년부터 거대한 연못을 운하로 연결시키기 위한 땅파기 공사가 시작되었다. 1685년 외르 강에서 물을 끌어대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장 많은 비용과 인원이 동원된 것도 이 운하공사였다. 그만큼 루이 14세는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대운하에 애착을 보였다.

대운하에서 궁전을 향해 동쪽으로 길게 뻗은 선을 중심축으로 거대한 정원이 조성되었다. 기하학적 모양의 이 정원은 루이 14세의 권위와 정치적 의지가 마음껏 구현된 공간이다. 정원 조경 공사를 맡은 르노트르(Le Nôtre)는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에 의존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으로 대변되는 바로크적 세계관은 조화롭게 단혀 있는 세계가 아니다. 원과 정사각형을 기본 양식으로 안정적이고 단정한 공간을 추구한 르네상스 양식에 비해, 바로크 양식은 타원과 삼각형을 통해 개방성과 역동성을 표현한다. 베르사유 정원에서는 이 타원과 삼각형 모양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킨 숲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베르사유 정원의 엄청난 규모는 협소한 이탈리아 정원과는 차원이 달랐다. 르노트르는 바로크 양식을 받아들여 이탈리아식 조경의 차원을 넘어서야 했다. 여기서 그는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수직선의 개념에 의존한 이탈리아 바로크와는 다른 프랑스 고유의 정원을 선보였다. 신을 향한 염원을 상징하는 수직으로 뻗어간 이탈리아 바로크와 달리 베르사유 정원에서는 시야가 수평으로 펼쳐진다.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의 숲이 연속적으로 뻗어나간 베르사유 정원의 모습은 무한한 공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한다. 17세기 천문학의 발달이 이룬 성과인 새로운 공간 개념이 끝없는 팽창을 갈구하고 실천하는 절대 권력의 지향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12) 생시몽, 이영림 옮김,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정』, 나남, 2009, 440쪽.



〈그림 1-4〉 베르사유 정원 평면도

이국적인 식물과 동물들로 가득 찬 식물원과 동물원, 개선문, 주랑모양, 돔 형식 등 다양한 형상으로 꾸며진 수십 개의 작은 숲은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그 공간 안에 재현된 고대 신화이다. 신화 속의 인물들과 신들의 형상을 주제로 자연과 예술을 조화시킨 베르사유는 야외 조각 전시장에 다름 아니다.¹³⁾ 특히 200여개의 다양한 분수들을 장식한 조각상들은 올림푸스 산을 방불케 한다. 풍성한 알레고리 속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임에서처럼 정원의 숲 모양과 조각상에서는 생과 사, 빛과 어둠, 질서와 혼돈을 대조시키는 바로크적 상징주의가 난무한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아폴론의 존재이다. 가장 꼭대기에 자리 잡은 연못에서 아폴론의 어머니 라토나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와 태양의 신 아폴론의 호위를 받고 있다. 정원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대운하의 중심축은 정원의 한복판에 우뚝 선 아폴론의 조각상으로 이어진다. 4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위에 선 아폴론 상을 호위하는 것은 고래와 바다의 신 트리톤이다. 베르사유 정원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치 자연을 길들이기 위해 물속에서 치솟은 듯한 태양신 아폴론이다.

대운하와 아폴론 상을 잇는 선은 베르사유 궁전의 중심으로 연결된다. 서쪽의 정원에서 출발한 이 중심선은 궁전을 관통해서 동쪽 베르사유 시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파리 대로(avenue de Paris)로 이어진다. 정원과 베르사유 시 중간에 베르사유 궁전이 자리

13) J. Cornette, *Le Roi de guerre* (Paris: Editions Payot & Rivage, 1993), p.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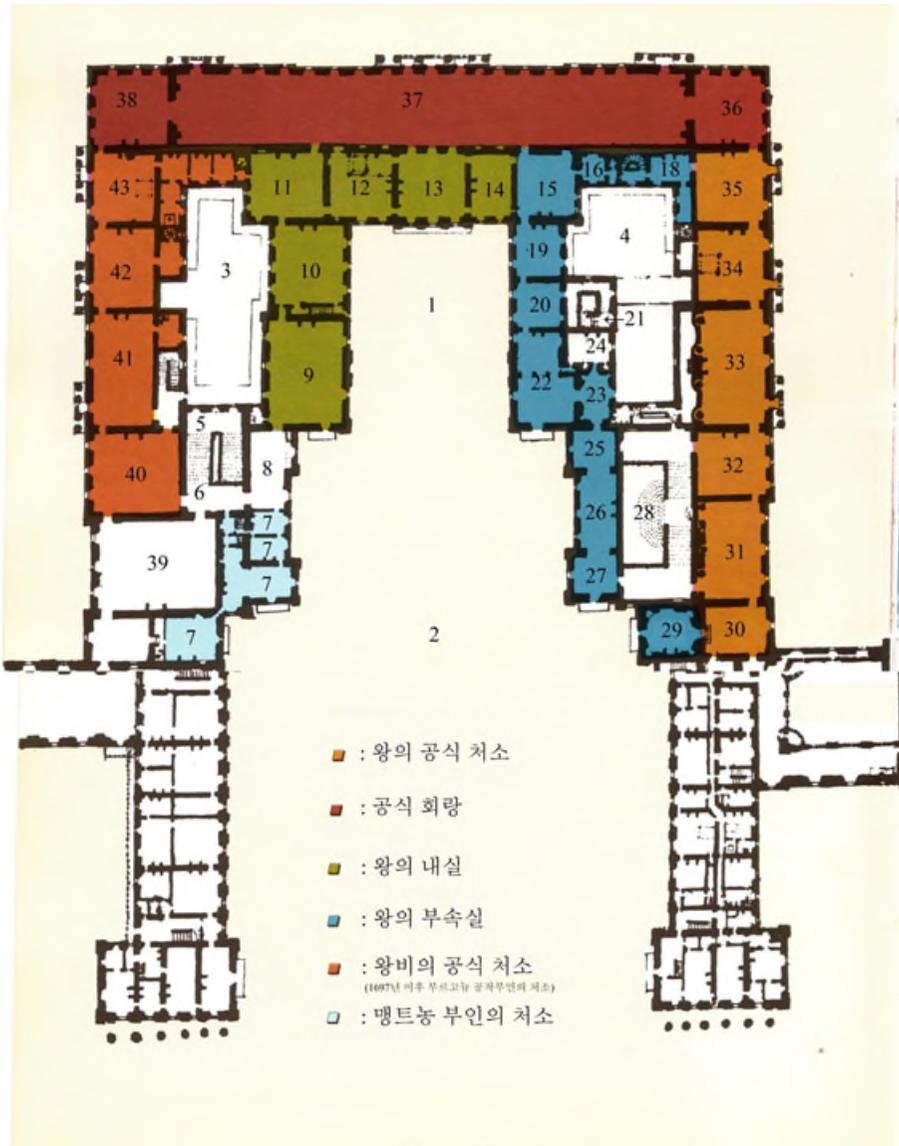
잡고 있다. 서쪽에 위치한 정원은 거대한 우주의 축소판이다. 반면 동쪽에 위치한 베르사유 시는 인간 사회다. 그 중간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의 주인은 우주와 자연을 상징하는 정원을 지배하는 태양-왕이자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인간-왕이다. 동서로 대비되는 두 세계의 지배자인 아폴론과 인간-왕이 일체를 이루듯, 베르사유 궁전도 두 얼굴을 지닌 야누스처럼 정원 쪽과 도시 쪽의 두 얼굴이 하나로 맞붙어 있는 형상이다.

정원 쪽에서 바라본 베르사유 궁전은 바로크 양식의 정수를 보여준다. 흰색 석재로 이루어진 거대한 3개 동의 건축물은 웅장한 자태로 우주 전체를 감싸듯 거대한 정원과 조화를 이룬다. 반면 도시 쪽에서 보이는 베르사유는 건축 구조와 색, 양식 등 모든 면에서 정원 쪽의 궁전 모습과 대조적이다. 붉은 벽돌과 석재 건물에 커다란 청석 지붕이 덮인 건축물의 외관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건축양식을 띠고 있다.



〈그림 1-5〉 피에르-드니 마르탱, 베르사유로의 귀환 (1722)

도시 쪽의 베르사유 궁전은 U자형 건물로 완성되었다. 이는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바로크 특유의 양식이다. 건축물 중앙에 원기둥을 배치한 것도 같은 원리에서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건축물이 주로 단일 육면체를 통해 U자형 건축을 시도한 데 비해, 르보는 U자형 건물을 좀 더 입체적으로 처리한 3분법 구도를 채택했다. 1678년 베르사유 건축 책임을 맡게 된 망사르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5분법 구도로 확대한 돌출 구도를 통해 중앙을 더욱 돋보이게 처리했다.



〈그림 1-6〉 베르사유 궁전 2층 평면도

거대한 건축물 단지의 한가운데가 왕과 왕비의 공적 처소이다. 그중에서도 두 개씩 겹쳐진 1층의 8개 원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2층 중앙이 왕의 공간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펼쳐진 건축물에서는 좌우 대칭과 비례가 엄격하게 준수되었다. 중앙에 본채 건물이 있고 양 옆으로 정확한 비례에 따라 측면 건물과 익랑 건물이 이어졌다. 남과 북 양 옆의 두 익랑건물은 각각 왕족과 궁정귀족의 거처였다. 이러한 공간 구조와 배치는 현실적인 정치사회적 위계를 반영한다. 이렇듯 베르사유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정치권력의 과시였다. 베르사유 전체가 “절대군주정을 선언하는 정치적 성명서”인 셈이다.

건축물 내부는 정원 조경에서처럼 ㄷ자와 ㄱ자 등 다양한 기하학적 모양의 안뜰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반면 복도는 가급적 길게 뻗는 형태로 변형되었다. 1668년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 르보(Le Vaux)는 정원을 향한 건물의 정면 2층에 긴 테라스를 만들었다. 왕과 왕비의 처소는 모두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 쪽에 있는 이 테라스를 통해 연결되었다. 테라스 공사가 시작된 당시 베르사유 공사가 왕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여기서도 증명된다. 왕과 왕비의 처소 앞에 넓은 테라스가 만들어진 것은 정원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였다. 이때의 베르사유는 여름철을 나기 위한 별궁 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1678년 베르사유의 용도가 바뀌면서 이 테라스의 운명도 바뀌었다. 망사르(Mansart)는 이 테라스를 벽으로 감싸 길이 73미터의 긴 회랑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거울의 방으로 불리는 곳은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거울의 방이라는 용어는 19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기까지 이곳은 왕과 왕비의 공식 처소를 연결 짓는 의미에서 단순히 ‘대회랑’(Grande Galerie)이라고 불렸다. 실제로 이곳은 본래 단순한 통로이자 대기실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당시는 아직 대규모 집회나 연회를 위한 실내 공간 개념이 생기기 전이라 도로나 궁전 건축물 앞마당에 조성된 광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회랑의 용도가 바뀌었다. 오늘날 거대한 회화 전시관으로 변모한 이 회랑에서 루이 14세가 처음으로 치른 공식 행사는 1685년 제노아 총독의 접견식이다. 1697년에는 여기서 부르고뉴 공작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거울의 방은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불편했기 때문에 이곳의 용도는 주로 외교사절의 접견과 같은 공식 행사에 국한되었다.

정원과 평행선을 이루는 거울의 방을 중심으로 본채 건물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까지 ㄷ자로 이어졌다. 거울의 방을 포함해서 길이 430미터의 2층 내부는 각각 왕과 왕비의 공식 처소(grand appartement)로 나뉜다. 거울의 방의 남쪽 끝 왕비 처소에는 평화의 방이, 왕의 처소인 북쪽 끝에는 전쟁의 방이 배치되었다. 이는 1659년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오랜 패권 전쟁이 종식된 후 1660년 정략결혼을 한 두 사람, 승리자인 프랑스 왕과 패자로 평화를 갈구하는 에스파냐 출신 왕비의 정치적 입장을 상징한 것이다. 이로써 루이 14세는 스스로가 유럽의 패권자임을 과시했다. 나아가 두 방의 좌우 대칭 구도는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이룩된 유럽의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1871년 1월 18일 독일의 수석대신 비스마르크가 굳이 비좁은 거울의 방에서 독일제국의 선포식을 치른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성 때문이다.

거울의 방에서 부속성당까지의 공간, 이를테면 전쟁의 방-아폴론의 방-메르쿠리우스의 방-마르스의 방-다이아나의 방-비너스의 방-풍요의 방에 이르는 7개의 방이 이른바 왕의 공식 처소이다. 아폴론의 방에는 옥좌가 놓여 있고 그 옆에 있는 풍요의 신이자 다산의 신인 메르쿠리우스의 방에 왕의 침실이 마련되었다. 나머지 방은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왕실과 방문객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 공식 처소의 끝 부분에 있는 넓은 계단은 오늘날 외교사절의 계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대계단(Grand escalier)으로 불렸고 주로 공식의례의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평소에는 맞은편에 위치한 또 다른 대계단이 사용되었다. 왕비의 처소에 곧바로 연결된 이 계단은 오늘날 왕비의 계단이라 불린다. 이 왕비의 계단에서 시작되는 왕비의 공식 처소는 1683년 마리 테레즈의 사망 후 왕의 공식 처소에 통합되었다. 전쟁과 프랑스를 상징하는 왕의 처소가 평화와 에스파냐를 상징하는 왕비의 처소를 삼켜버린 것이다. 이런 루이 14세의 처사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했지만 훗날 역사로 실현되었다. 1700년 카를로스 2세의 사망으로 에스파냐의 왕위가 루이 14세의 손자 앙주 공작에게 계승되었으니 말이다.

공식 처소로 감싸인 도시 쪽 베르사유는 대리석 안뜰에 면해 있다. 이 대리석 안뜰을 중심으로 ㄷ자로 배치된 공간이 왕과 왕비의 사생활을 위한 비공식 처소다. 미로처럼 복잡하게 이어진 비공식 처소는 옷방, 욕실, 서가, 시종드는 방, 창고, 좁은 복도, 비밀계단 등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오밀조밀하게 이루어졌다. 이 작은 방들은 19세기에 궁전이 박물관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아무 흔적 없이 사라졌다. 대규모 전시관을 확보하기 위해 작은 방들이 가차 없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베르사유에는 과시적인 공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궁정인들이 문 뒤나 계단 모퉁이에서 용변을 해결했다는 오해가 빚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¹⁴⁾ 당시의 평면도를 보면 루이 14세 시대에도 엄연히 욕실과 용변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1682년 5월 루이 14세는 수많은 궁정귀족들과 시종들을 이끌고 베르사유 성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때 성은 절름발이 상태나 다름없었다. 루이 13세의 작은 성을 중심으로 한 본관 건물과 왼쪽에 왕족들의 거처인 남쪽 익랑건물만이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1682년에 시작된 대신들의 건물 공사는 1684년까지 계속되었고 1685년에는 궁정귀족들의 거처인 북쪽 익랑건물이 착공되었다. 궁정의 이주는 사실상 대규모 공사 도중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왕의 침실이 북쪽 측면의 메르쿠리우스 방에서 대리석 안뜰 한가운데로 이동한 것은

14) 엘렌 이멜파르,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310쪽.

1701년이다. 이때야 비로소 왕의 침실이 대운하에서 아폴론 상으로 연결된 정원의 중심축에 놓이는 상징적 구도가 완성된 셈이다. 왕의 기상의례와 취침의례가 거행되는 왕의 침실이 한편으로 정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2층 한복판에 위치한 이 침실에서 왕은 대리석 안뜰을 통해 베르사유 시를 주시했다.

부속성당 공사는 1701년부터 10년간 지속되었다. 공사로 인해 궁전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으며 소음도 극심했다. 일시적인 소강상태나 규모상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베르사유 공사는 루이 14세가 사망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루이 14세는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을 직접 결정하고 감독하며 수정했다. 비단 루이 14세만이 아니라 대규모 토목공사는 정치 지배자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권력 과시 수단이다.



〈그림 1-7〉 아담 프란스 반 데르 물렌, 베르사유 건축 공사 (1680 경)

흔히 루이 14세는 전쟁광으로 묘사되지만 그는 전쟁만큼이나 건축에 집착했다. 실제로 베르사유 성 건축은 전쟁과 기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661년부터 베르사유에서는 대대적인 조경 공사가 시작되고 화려한 축제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1667년 전쟁이 시작되면서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베르사유 공사와 전쟁은 숨바꼭질 하듯이 엇갈려 진행되었다. 루이 14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건축 공사는 1668년에 재개되었다가 1672년 네덜란드와의 전쟁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이 모두가 재정과 인력 동원의 부담 때문이었다. 베르사유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678년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면서다. 이때부터 1688년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공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에 비해 베르사유의 건축비는 그다지 과도한 편이 아니었다. 전쟁 비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루이 14세 연구자인 프티피스에 의하면 베르사유 공사에 투입된 총 8,200만 리브르이다. 이 액수는 전투 2~3회에 해당하는 비용에 불과하며 재정 지출 전체의 3퍼센트 정도였다. 재정 지출보다 건축에 대한 루이 14세의 지칠 줄 모르는 욕심과 관심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끊임없는 재건축 공사에도 불구하고 성은 루이 14세의 사망 당시까지도 미완성 상태였고 새로 예정된 공사도 많았다. 북쪽 익랑건물 끝에 들어설 예정이던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오페라 하우스 공사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마련되었으나 1713년까지 계속된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으로 인해 루이 14세는 이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두고 루이 14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진심으로 누우치며 어린 후계자에게 “건축물에 탐닉했던 짐의 취향을 닮지 말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루이 14세 시대에는 못 미치지만, 루이 15세 시대에도 베르사유 공사는 계속되었다.

루이 14세와는 다른 미적 취향을 지닌 루이 15세는 증조부가 물려준 성 내부를 마음껏 고치고 치장했다.¹⁵⁾ 루이 15세가 성년이 되었을 무렵이면 베르사유로 이주한 지 35-50년이 지났을 때이니 모든 장식들이 얼마나 구식이고 부자연스럽게 보였을지 짐작할만하다. 1738년부터 왕의 처소에서는 보수와 재배치 공사가 한창 진행 되었다. 루이 15세는 특히 2층 왕의 처소를 완전히 뜯어 고쳤다. 루이 14세가 엄청나게 많은 개인적 수집품을 모아두었던 곳에 욕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작은 방들, 사적인 식당, 개인 사무실¹⁶⁾ 등이 만들어졌다. 1755년에는 선조의 것은 침실 외에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¹⁷⁾ 장기간의 공사 끝에 웅장하고 위압적인 바로크 풍의 베르사유 궁전은 우아하고 섬세한 로카유 양식으로 바뀌었다.

루이 15세 시대 동안 이루어진 베르사유의 개조 공사가 단지 매혹적인 ‘작은 처소들’을 만들고 유례없는 가구들을 들여놓거나, 그 시기에 늘어나고 왕래도 잦았던 왕실 가족

15) J. Cl. Le Guillou에 의하면 지금까지 부속실들의 개조가 시작된 것은 1738년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173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La creation des cabinets et des petits appartements de Louis XV...”, *Gazette des beaux-arts*, n. 1395 (1985).

16) 1층에 있던 욕실 3개 중 2개가 남아 있다. 식당 2개도 보존되어 있으며 찬장 방과 도박실, 커피 마시는 방 등 일련의 방들도 함께 딸려 있다. 그의 모퉁이 방에는 혼자 일하거나 비밀스런 만남을 위한 뒷방과 비밀 계단, 옷 방과 용변실도 있었다.

17) 오늘날에는 루이 14세 때부터 보존된 것들이나 1755년에 Gabriel이 다시 만들어 참사 회의실에 놓은 것들, 1684년에 만들어져 1738년에 사냥개 대기실로 옮겨진 당구대의 화려한 장식만이 남아 있다.

의 숙소를 끊임없이 이동하고 바꾸는 데 국한된 것은 아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던 궁전 공사가 종종 그의 후손에 의해 재개되고 드디어 마무리되기도 했다. 부속성당의 보수와 그 위의 접견실 장식 공사를 끝낸 것은 루이 15세였다. 1730년 부속성당 위층의 접견실에 <자비> 와 <영광> 등의 조상들이 놓이고 1737년 부속성당의 측면 제대 공사가 완성되었다. 1736년에는 궁적 처소에서 가장 크고 사치스런 접견실,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방이 만들어졌다. 넵투누스 연못의 거대한 조각 장식을 완성시킨 것도 루이 15세였다.¹⁸⁾ 개인적으로 음악도 대형 연극 작품도 거의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평화가 도래할 때마다 오페라 하우스 공사를 재개해서 1770년에 화려한 낙성식을 거행할 때까지 공사를 강행한 것도 바로 그였다. 이후 루이 15세는 성의 외관을 통일하는 대규모 재건축 공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1774년 루이 15세의 사망과 더불어 베르사유 성의 대규모 공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것은 새 왕 루이 16세가 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미국 독립 전쟁에 개입한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재정 원조를 하면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18세기 내내 계속된 공간 재배치와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성은 궁정인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남과 북 양측의 익랑건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왕의 공식 처소에 위치한 거울의 방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것은 바로 루이 14세가 원하던 바였다. 궁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기 위한 그는 궁전 내의 모든 통로들을 자신을 통해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베르사유 건축의 목적은 본래 안락함보다는 군주권의 과시에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그에게 안락함은 기꺼이 포기할 문제였다. 궁정인들의 입장에서도 화려한 궁전은 장엄한 신전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니 궁전에서의 불편함은 구원을 위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금욕의 문제로 인식되어 마땅했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불편함보다는 거주공간의 부족 문제였다. 이미 루이 14세 시대부터 베르사유 성에서는 인구 압박 현상이 심각했다. 루이 14세 시대에 베르사유 성에는 총 220개의 아파트와 450개의 방이 궁정인들을 위한 거처로 마련되었다. 이는 약 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¹⁹⁾ 그런데 베르사유 성에서는 1682년에 이미 6000명 이상의 궁정인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1690년에는 그 수가 만 명으로 늘어났다. “본채 건물은 협소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거대한 익랑 건물들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꼭 차버

18) 넵투누스 연못은 1741년에 완성되었다.

19) 이것은 루이 14세 시대 이후 번호를 매긴 거처들의 수를 토대로 박물관 연구원들이 계산해낸 수치이다.

렸다.”²⁰⁾ 궁정거주를 원하는 귀족들은 거처 마련을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궁정을 위해 봉사하던 요리사, 실내 장식가, 재단사, 청소부, 하인 등 온갖 직업의 사람들도 숙소가 필요했다. 왕실 가족이 번창한 루이 15세 시대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750년대에 궁정귀족용 아파트가 226개로 늘어났으나 1781년에는 188개로 줄어들었다.²¹⁾ 성이 소화하지 못한 초과 인원은 자연히 시의 뒤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2. 베르사유 시: 성에 종속된 운명

베르사유 성과 시의 관계는 루브르 궁전과 파리의 관계와 사뭇 대조적이다. 파리 한복판에 위치한 루브르 궁전이 파리의 중심에 갇힌 형세라면 베르사유에서는 오히려 시가 성에 종속된 형세이다. 규모 면에서도 베르사유 성과 루브르 궁전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루이 14세가 주도했던 성 건축 공사의 영역은 현재 남아 있는 성 규모의 세 배 이상이었다. 마를리²²⁾에서 베르사유에 이르는 서쪽의 늪지대와 작은 골짜기 사이의 낮은 지대에 위치한 84.47km²가 파헤쳐졌다. 늪지대는 대 운하를 파서 물을 뺀 다음 3면이 숲으로 싸인 28.32km²의 공원으로 개조되었다.²³⁾ 마를리에서 베르사유 정원으로 연결되어 트리아농 성까지 포함된 베르사유의 성벽의 길이는 총 44킬로미터에 달했으며 25개의 성문이 세워졌다. 그 앞에 루이 14세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베르사유 시가 현대판 신도시처럼 우뚝 세워졌다.

황량한 벌판 위에 새로운 우주를 창조한 루이 14세의 거침없는 행보는 베르사유 시의 탄생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성의 건설 과정이 무에서 유의 창조였듯이, 시의 건설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존의 존재를 무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베르사유에서 정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671년 5월 22일 최초로 시 건설을 위한 국왕령이 공포된 다음 1673년 공식적으로 촌락의 파괴가 결정되었다.²⁴⁾ 성 남쪽 부근에 11세기 이후 생줄리앵 교회를 중심으로 존재했던 촌락이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20) 생시몽,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정』, 475쪽.

21) 루이 15세의 딸 6명과 손자 4명 모두 성 안에 독자적인 아파트에 거주했고 이들의 지인들과 수행원들이 각각 수십 명에 달했다: W-R Newton, *L'Espace du roi : la cour de France au château de Versailles 1682-1789* (Paris: Fayard, 2000), p. 26.

22) 베르사유 북쪽에 위치한 마를리와 베르사유는 거대한 숲으로 연결되었고 이곳에서 사냥을 즐기던 루이 14세는 마를리에 별궁을 건축했다. 왕실 가족의 사적 휴식처로 사용되던 마를리 궁은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파괴되어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

23) F. Thibergien, *Versailles, le chantier de Louis XIV* (Paris: Perrin, 2002), p. 17. 참고로 오늘날 파리와 서울의 면적은 각각 105.4km²와 605.4km²이다.

24) A. Damien et J. Lagny, *Versailles, deux siècles de vie municipale* (Paris: L'Univers dues Livre, 1980), p. 114.

새로운 거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혜도 마련되었다. 1671년의 국왕령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매년 1에이커 당 5솔²⁵⁾의 납부 조건으로 토지의 무상 취득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베르사유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청석돌판 지붕을 한 전형적인 프랑스 건축양식의 저택(hôtel)²⁶⁾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665년에만 6개의 저택이 건축되었다. 베르사유 시의 탄생 이전에 건축된 이 저택들은 주로 대귀족들의 별장용 저택으로 성 남쪽 경계에 세워졌다. 반면 개 및 사냥개 사육장 총감인 벨퐁 원수(maréchal de Bellefonds)의 저택은 1670년 파리 대로(avenue de Paris)에 자리를 잡았다.



〈그림 1-8〉 정원 쪽에서 바라본 베르사유 시

넓이 122.48m의 파리 대로는 베르사유 성 서쪽의 정원에서 출발해서 궁전을 관통한 다음 파리 방향으로 길게 뻗은 베르사유 시의 중심 도로이다.²⁷⁾ 그런데 파리를 중심으로 한 베르사유 시의 도시 구도가 처음 공표된 것은 1671년의 국왕령에서다. 여기서 루이 14세를 수행해서 수시로 베르사유를 방문하던 벨퐁 원수가 사전에 시 건설 정보를

25) 2005년 기준으로 2달러 정도

26) hôtel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16세기에 귀족의 저택과 공공건물(hôtel de ville, hôtel-dieu)을 가리키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면 왕과 왕족의 거처는 궁전(palais)으로, 부르주아의 거처는 주택(maison)으로 불렸다. 그러나 18세기에 그러한 구분이 무너지면서 hôtel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19세기에 hôtel은 도시에 거주하는 은행가나 예술가들의 거처를 의미했다.

27) 오늘날 파리의 중심 도로인 샹젤리제 대로의 넓이는 66m,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세종로가 100m이다.

입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파리 대로의 양 쪽에는 루이 14세의 총애를 얻기 위해 경쟁하던 귀족들의 저택이 속속 들어섰다.

파리 대로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생클루 대로(avenue de Saint-Cloud)가 남쪽에는 소 대로(avenue de Sceaux)가 사선으로 뚫렸다. 이러한 베르사유 시의 구조는 중세의 성곽 도시나 근대에 새로 만들어진 직각구도의 계획도시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로마의 진지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리아의 유산을 물려받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구태의연한 정사각형 모양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베르사유 시는 성을 중심으로 방사형 모양으로 뻗어 있다.²⁸⁾ 파리 대로, 생클루 대로, 소 대로는 모두 성 정문 앞에 위치한 아름 광장(place d'Armes)으로 집결된다. 세 갈래로 갈라진 새 발모양처럼 생긴 아름 광장은 83,800m²의 엄청난 규모이다. 아름 광장과 세 개의 대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구도는 베르사유 시가 전적으로 성에 의존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1671년의 국왕령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행정명령안을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²⁹⁾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시에 건축될 모든 건물의 지붕들이 궁전 안의 대리석 안뜰 높이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베르사유 시 전체가 성 본관건물의 중심부 2층에 놓인 왕의 침실에서 조망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사항의 준수를 위해 모든 건물의 건축은 조영총관(surintendant des Bâtiments)의 지시를 따를 것이 명시되었다.³⁰⁾

시 건축물 중 가장 먼저 착공된 마사 건물은 이러한 원칙을 정확하게 준수했다. 망사르가 설계한 대마사(Grande Ecurie)와 소마사(Petite Ecurie)가 1682년 아름 광장 양쪽 끝 파리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북쪽과 남쪽에 세워졌다.³¹⁾ 대마사는 전쟁과 승마훈련용 말이 있는 곳이고, 소마사는 그 밖의 용도를 위한 말을 키우며 국왕 시종들을 훈련시키는 승마 학교 기능도 했다. 대마사와 소마사에는 마구간만이 아니라 마사를 책임진 귀족들과 관리들의 숙소가 있었다.

벨퐁 원수의 저택은 소마사와 이웃한 곳으로 오늘날 파리 대로 4번지에 해당된다. 성에서 가장 가까운데다 파리 대로가 시작하는 지점인 이곳은 벨퐁 원수에게 과분했던 것일까? 마사가 완성된 1682년 루이 14세는 이 건물을 사들여 자신의 사생아인 콩테 공비

28) 엘렌 이멜파르,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211쪽.

29) Emile et Madeleine Houth, *Versailles aux trois visages* (Versailles: Lefebvre, 1980), pp. 34-38.

30) J. Castex, P. Celeste et P. Panerai, *Versailles, lecture d'une ville* (Paris: Ed. du Moniteur, 1980), pp. 124-8. 조영총관은 왕실 건축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루이 14세 시대 초기부터 궁내부와 해군 대신뿐 아니라 재무총감을 겸직하며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콜베르가 1664년부터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31) 오늘날에는 베르사유 국립 건축학교가 들어서 있다.

에게 주었다. 이 건물은 이후 콩티 저택(hôtel de Conti)으로 불리며 왕실가족의 소유로 남았고 혁명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시 청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³²⁾

촌락이 파괴된 성 남쪽의 자리에는 왕을 비롯한 궁정귀족들의 식사를 담당할 거대한 궁정부속건물(grand commun)에 이어 대상서청이나 총감 관사와 같은 행정 기구, 창고 등 관리들과 궁정 소속 인원들의 일터 겸 거처용으로 다양한 건축물들이 차례차례 세워졌다. 궁전 보조건물들이 즐비한 이곳은 베르사유 시의 수호성인으로 선택된 성왕 루이 9세의 이름을 본 따 생루이 구역으로 불렸다. 그밖에도 성 남쪽은 일 년 내내 궁정에 최상품의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기 위한 채소밭과, 프랑스 혁명의 발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할 테니스장 등 궁정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되었다.

성 북쪽은 신도시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발되었다. 우선 1684년 생클루 대로 북쪽에 노트르담 교회가 완성되었다. 그 주변에 성에 물품을 조달하는 상인들이 정착하면서 점차 상업지구가 형성되었다. 이렇듯 루이 14세 시대 베르사유 시에는 성 남쪽 생루이 구역과 성 북쪽 노트르담 두 구역이 조성되었다. 시 남동쪽 끝에는 성과 시 공사를 위한 대규모 석재공사가 이루어진 채석장이 존재했으며 그 주변에 석공들과 건축 인부들의 촌락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렇듯 1680년대 베르사유에서는 거대한 성과 함께 서서히 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루이 14세 시대의 시 건축 공사는 시 자체의 구도에 대한 고려나 전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궁정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졌다. 궁정을 따라 몰려든 귀족들과 상공업 종사자들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루이 14세 치세에 베르사유 시에서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무차별한 건축 공사가 이어졌다.

루이 15세 치세에 가서야 비로소 베르사유 시는 진정한 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과 함께 궁정이 떠난 후 침체되었던 베르사유 시는 1722년 궁정이 되돌아오자 활기를 되찾고 건축 붐도 되살아났다. 루이 14세 시대에 거의 무료로 나누어지던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심지어 일부 구역은 투기 열풍에 휩싸이기도 했다.³³⁾ 특히 급작스런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쪽에 치우쳤던 도시 개발이 남쪽으로도 확대되었다. 궁정 부속건물과 행정관서들 남동쪽으로 새로 주택과 시장이 들어서고 이곳에 아름다운 생루이 주교좌성당이 세워졌다. 또한 동쪽 끝에는 채석장(chantier)에서 유래한 이름의 상티에 구역(quartier de Chantiers)이 형성되었다. 상업지구가 발달한 북쪽에는 물이 말라버린 클라니 연못을 건조시켜 만든 신 주거지 테프레

32) A. Maral, *Versailles côté ville, côté jardins* (Paris: Lepasage, 2014), p. 21.

33)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Deux patrimoines distincts, deux mémoires antagonistes à l'époque contemporaine?" *Histoire Urbaine*, no. 9 (2004), p. 84.

(quartier des Près) 구역이 조성되었다.

시에 별도의 저택을 마련하려는 궁정귀족들의 건축공사도 더욱 빈번해졌다. 루이 14세 치세에 이러한 현상은 일부 대귀족들이나 궁정에 거처를 얻지 못한 시골 귀족들에게 국한되었다. 그러나 루이 15세 시대에 궁정귀족들 사이에서는 성의 비좁은 공간과 엄격한 분위기, 그리고 왕의 감시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안락한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유행처럼 번졌다. 18세기 중엽까지 생루이 구역에 들어선 416채의 신축 건물들 중에는 바로 이러한 궁정귀족들의 저택이 상당수였다. 청석돌판 지붕과 하얀 석재, 붉은 벽돌 장식의 이러한 건축물들은 베르사유 시 고유의 외관을 형성했다.³⁴⁾

1759년 남쪽 성벽에서 착공한 국가 핵심 기구의 건축물들도 귀족 저택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성 안의 비좁은 공간에 더부살이하던 육군성, 외무성, 해군성이 루이 15세의 적극적인 추진 덕분에 1762년 독자적인 집무실로 이전할 수 있었다.³⁵⁾ 군주정의 품격에 어울리는 가구보관소(오늘날의 국유 비품실, Mobilier national)를 만들어 그곳을 진귀한 장식 미술 박물관으로 개장한 것도 루이 15세였다.³⁶⁾ 또한 그는 축제와 연극공연, 모든 의례에 필요한 장식을 독점한 국왕 여흥국(Menus Plaisirs du roi)³⁷⁾의 중요한 업무를 위해 거대한 공간을 할당해서 작업장과 창고, 연습실 등을 마련해주었다.³⁸⁾ 주지하다시피 이런 주도적인 업적들을 이룩한 루이 15세의 노력을 더 이상 루이 14세의 작품을 완성시킨 데 불과한 것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비단 계몽주의의 기술적, 정치적 합리주의만이 아니라 백과전서 식 탐구와 역사학을 향한 열정이 반영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파리의 가구보관소가 가구들과 동시에 역사적 예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군과 외교부서가 위치한 베르사유 시의 건물들은 단순한 집무실만이 아니라 금속 골조 건축물에 내화성을 갖춘 체계적인 고문서 보관실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34) A. Maral, *Versailles côté ville, côté jardins*, p. 78.

35) 육군, 외교, 해군 부서(앵데팡당스-아메리켄 로 3번지와 5번지에 있으며 오늘날에는 고등 영재학교와 시립도서관이 되었다)는 1759년과 1762년에 Berthier에 의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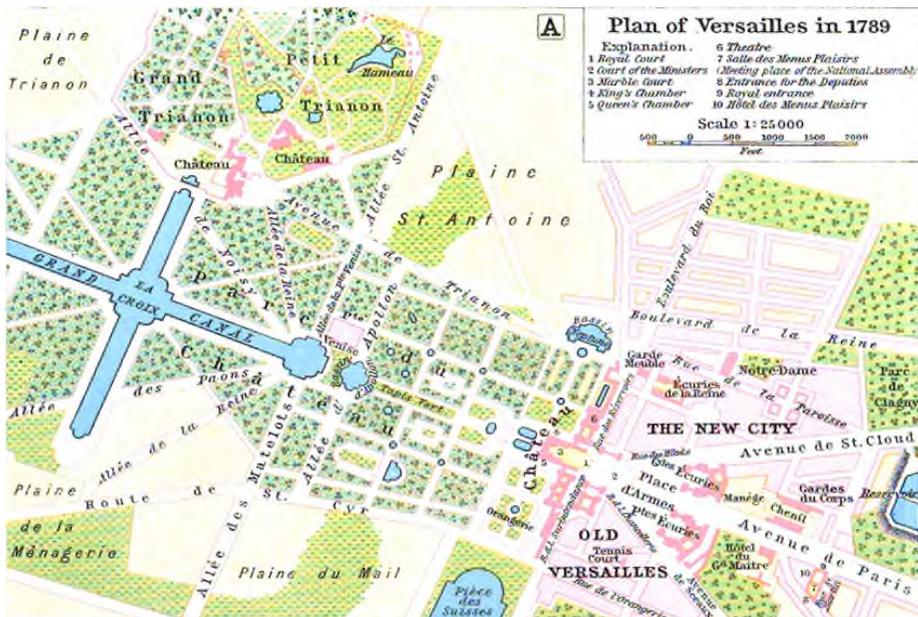
36) 가브리엘은 1765년 궁전 안에 있던 가구보관소를 파리의 루이 15세 광장에 설치했다. 1789년에는 해군 본부가 그곳으로 합류해서 지금까지 그곳에 남아 있다. 베르사유의 가구보관소는 우선 아름답 광장에 있는 콩티 저택으로 옮겨졌다가 1783년에 다르노맹 저택(레제르부아르 로 11-13번지)으로 옮겨졌다.

37) 앙시앵 레짐 하에서 왕의 의례, 축제, 사냥, 무도회 등을 주관할 뿐 아니라 궁전의 실내장식도 담당하던 궁내부 소속의 부서로 왕의 수석 침전시랑이 책임자였다.

38) 1748년에 파리 대로와 삼신분회 로가 삼각형을 그리며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국왕 여흥국”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 그 건물 남쪽 테라스에는 Pâris가 구상한 거대한 조립식 무대가 세워졌는데 1787년에 그곳이 비어 있자 루이 16세가 명사회, 그 다음에 삼신분회를 그곳에 소집했던 것이다.

다른 구역의 상공업 종사자들의 주택에서도 화재 예방을 위해 나무 대신 벽돌 자재가 사용되었다. 이렇듯 베르사유 성벽과 파리 대로를 중심으로 촘촘히 들어선 동일한 양식의 석재 건축물은 간결함, 웅장함, 비율의 조화를 이루며 베르사유 시 고유의 미학적 특징을 이루었다.

18세기 후반 베르사유 시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시 전체에 조명 기구가 설치되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밝게 바뀌었다.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도로포장과 소방시설, 하수도망 구축도 마무리되어 도시의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베르사유와 파리로만 연결되던 교통망 외에 점차 전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망이 뻗어가면서 베르사유 시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 수도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더불어 숙박업소와 사치품점도 늘어났다.



〈그림 1-9〉 1789년 당시의 베르사유 시

시 남쪽 경계 구역에 신축된 근위연대, 스위스 근위대, 헌병대, 국왕 근위경기병을 위한 병영은 군인 가족을 위시한 인구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학교와 구빈원의 수가 늘어나고 도시화의 명백한 증거인 소금 창고 및 포도주창고, 통관세 납부소 등도 속속 들어섰다. 18세기 도시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꼽히던 프리메이슨 지부와 극장도 1744년과 1751년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 서점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규모가 큰 공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묘지도 교외로 이전되었

다. 이렇게 해서 우아하고 합리적인 도시 계획과 설비, 근대적인 기능성을 갖춘 베르사유 시는 18세기에 전 유럽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수도로 각인되며 모방되었다.³⁹⁾

제4절 신도시의 인구변화와 산업

베르사유 시의 성장은 화려한 외관에 국한되지 않았다. 인구 면에서도 베르사유 시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1661년 당시 인구 500여 명의 촌락이었던 베르사유는 1715년에 인구 3만 명을 기록하더니 1789년에는 약 7만 명으로 전국 8위의 대도시가 되었다.⁴⁰⁾ 그러나 정작 도시 운영에서 베르사유 시는 줄곧 성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789년까지 베르사유 시에는 자치기구는커녕 독자적인 도시 공동체나 조직도 형성되지 못했다. 베르사유 시는 성을 관할하던 지사(intendant)에게 속해 있었으며 지사의 관할 구역 내 바이이(bailli)가 사법권과 경찰권을 행사했다. 1694년 최초로 주민들의 대표인 구역장(quartenier)이 선출되었다. 하지만 구역장들은 쓰레기장, 조명, 빈민 조사, 전염병 신고 등 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역을 담당했을 뿐 시 운영에는 참여하지 못했다.⁴¹⁾

그렇다고 해서 성에 대한 시의 종속관계가 무조건적인 억압과 구속에 그친 것은 아니다. 대신 베르사유 시는 국왕도시로서 직접세인 타유세를 면제받는 면세특권을 누렸기 때문이다. 혁명 이전 베르사유 시의 과세 장부 등 재정기록과 구체적인 인구통계 조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베르사유 시에는 혁명 이전의 몇몇 공식 자료들과 행정적인 의견서들이 산발적으로 보존되어 있지만 양시앵 레짐 시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1665년 이후 작성된 소교구 기록과 공증 문서들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인구수와 직업별 분포를 추산해볼 수 있을 뿐이다.

우선 1661년 이후 놀라운 인구 흡입력을 발휘한 베르사유 시의 인구 증가 요인을 살펴보자. 베르사유 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17세기 파리의 급격한 인구 증가 요인처럼 국왕 주변으로 몰려든 귀족과 관리 외에 궁정에 각종 필수품과 사치품을 공급하던 상인들 및 하인들이 그 대열에 합세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베르사유 시의 경우 신도시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1661년 이후 베르사유 시 인구 증가의 주역은 누구보다도 건축 노동자들이었다.

39) 엘렌 이멜파르,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211쪽.

40)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 81.

41) B. Lepetit,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1 (1978), p. 604.

유아세례와, 혼배성사, 장례미사 기록을 보유한 소교구 자료에 의하면 1661년 당시 결혼은 6건으로 유아세례와 장례의 3배이다.⁴²⁾ 이러한 수치는 소교구 공동체 주민이 400명 미만임을 의미하며 인근 촌락과 유사하다. 그러나 1661년 말 정원에서 대토목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1661-1720년 동안 매 십년간의 유아세례, 결혼, 장례 건수를 연평균한 <표 1-1>은 1660년대부터 유아세례, 결혼, 장례 건수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례 건수가 결혼과 유아세례 건수를 압도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1671-1680년 동안 장례 건수는 유아세례의 2배, 결혼의 7배나 많다. 이는 베르사유 공사에 동원된 건축 노동자들의 사망이 빈번했음을 의미한다. 남성 사망률이 대체로 여성 사망률의 2배 이상으로 높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장기간에 걸친 공사 동안 베르사유에서는 연평균 25000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대운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된 1685년에는 36,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⁴³⁾

<표 1-1> 유아세례, 결혼, 장례 (1661-1720)

년도	유아세례	결혼	장례
1661-1670	34.4	8.1	50.6
1671-1680	125.8	33.9	234.1
1681-1690	567.5	1234.6	575.6
1691-1700	924.5	199.8	733.3
1701-1710	1 164.8	250.0	880.7
1711-1715	1 104.4	255.2	856.4
1716-1720	514.8	120.8	636.2

출처 : B. Lepetit,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1 (1978), p. 605.

건축 공사로 인한 이러한 현상은 1680년대 궁정 이주와 함께 베르사유 시의 인구 유입률이 높아지면서 완화되었다. 유아세례는 1690년대에 장례 건수를 추월하고 1700년대에는 1670년대의 9배 이상, 결혼은 7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궁정 이주 후에도 대운하 공사(1685년), 궁정귀족의 거처인 북쪽 익랑건물(1689년), 부속성당(1710년) 등 루이 14세 치세 내내 굼직한 건축 공사가 지속된 만큼, 장례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1715년 루이 14세의 사망 후 궁정이 파리로 이주하면서 베르사유 시의 유아세례, 결혼, 장례 건수는 모두 급격히 줄어들었다.

42) 앞 글, p. 605.

43) 앞 글, p. 607.

〈표 1-2〉 결혼한 남자의 직업별 비율 (1680-1720)

	1680	1690	1700	1720
농민	2.5	1.0	0.0	3.0
노무자	14.0	4.0	11.5	9.0
건축노동자	35.5	11.5	5.0	7.0
수공업자	6.0	11.5	19.0	24.5
상인, 운송업자	18.0	12.0	16.5	25.0
하인	18.0	45.0	41.0	24.0
행정인원 및 군인	5.0	5.0	4.0	3.5
전문직업인: 문인, 의사, 예술가	1.0	6.0	2.0	3.5
무직자	0.0	3.0	1.0	0.5
합계 (100%=)	79	201	402	160

출처 : B. Lepetit,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1 (1978), p. 608.

1680-1720년 동안 베르사유 소교구 결혼 장부를 토대로 매 십년마다 결혼한 남자의 직업을 통계화한 <표 1-2>에 의하면 건축 노동자에 이어 베르사유 시에 대거 유입된 사람들은 상인 및 운송업자들과 하인들이다. 특히 이 시기 동안 건축 노동자들과 하인들 수의 변화는 기묘한 함수관계를 보인다. 궁정 이주 전인 1680년 결혼한 하인들의 비율은 18%에 불과했으나 1690년 45%로 치솟았다. 그러나 궁정이 파리에 머물던 1720년 다시 급격히 감소해 24%에 머물렀다. 반면 1680년 35.5%를 차지하던 건축 노동자들의 결혼률은 1690년 11.5%, 1700년 5%로 급격히 감소하며 하인들의 결혼률과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이는 궁정 이주를 계기로 베르사유 시 거주자들이 대폭 물갈이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2>에 나타난 건축 노동자와 하인 외에 농민, 노무자, 수공업자, 상인, 행정인원과 군인, 학자, 의사 및 예술가 등의 전문직업인 등의 존재도 유의미하다. 여기서 행정인원 및 군인의 비율이 높지 않은 사실은 꼭 의외이다. 궁정 이주 후에도 그들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리와 미묘한 관계 속에서 설명될 문제이다.

궁정 이주 후에도 행정부서의 상당 부분은 파리에 남았다. 특히 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총감의 집무실은 파리에 있었다. 재무총감은 파리와 베르사유를 오가며 업무를 보았고 그가 거느린 수백 명의 사무관들은 경제와 재정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일했다. 또한 대신들이나 참사회, 그리고 수많은 그들의 수하 인원들은 베르사유로 이전했지만 대부분 여전히 파리에 거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베르사유 소교구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소교구 기록에서 귀족의 수가 적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682-9년에 베르사유 시 소교구 결혼 장부에 등록된 귀족은 15명이며 1690-70년에는

20명에 불과하다.⁴⁴⁾ 왕의 이주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와 파리의 경쟁관계는 계속되었던 것이다. 또한 베르사유 시에 병영이 들어선 것은 루이 15세 치세이므로 루이 14세 시대에는 군인의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표 1-3> 상인과 수공업자들의 정착 (1661-1686)

	1661-1671	1672-1681	1682-1686
건축 잡화	21	37	14
나무, 가죽, 금속류 판매	19	37	35
직물 및 의복(구두제조업 포함)	14	88	56
식품업	11	50	46
수예품 및 희귀품	0	7	22
다양한 서비스업	0	4	6
건강 및 위생	2	7	2
TOTAL	67	230	181

출처: B. Lepetit,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1 (1978), p. 609.

1680년대 베르사유 시에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은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1684년 7월 베르사유 시에 내려진 치안령(*ordonnance de police*)에 따라 "상인, 수공업자 및 다른 직업 종사자들"은 시에 도착한 날짜와 작업장 주소를 명시하며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자료를 분석한 모니크 미쇼에 의하면 바이야주의 등록 자료는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다.⁴⁵⁾ 무엇보다 먼저 등록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를 준수한 것은 아니다. 여인숙이나 술집의 등록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다. 베르사유 시에 도착한 날짜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베르사유 시 탄생 초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흥미롭다.

우선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베르사유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1682년 이전이라는 사실이 특기할 만하다. <표 1-3>에 의하면 1661-1687년 1월 사이에 베르사유 시에 도착했다고 등록한 사람들은 모두 478명인데 그중 2/3가 1682년 궁정 이주를 앞질러 베르사유에 도착했다. 베르사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표 1-1>에서 유아세례와 결혼 건수가 궁정이 이주한 1680년대 급증했다면, <표 1-3>은 상공인들의 경우 이미 1670년대에 베르사유 시로 몰려들었음을 보여준다. 시에 정착한 상공인들의 직업도 시기별로 다르게

44) 앞 글, p. 612.

45) M. Michaux, "Le développement de Versailles en fonction du Château: aperçu sur les marchands et artisans de 1661 à 1688", *Actes du 84^e Congrès national des Savantes* (Dijon, 1959).

나타난다. 1660년대 이주한 상공인들이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다면, 1670년대 이주 상공인들의 60%는 의복과 음식 관련 종사자들이었다. 그들은 건축 노동자들을 먹이고 입힐 구두제조업자 32명, 수예 잡화상 23명, 재단사 17명, 식료품상 13명, 빵집 12명 등이었다. 그밖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4명은 작가, 산과, 도자기제조업자, 마구제조업자이다.⁴⁶⁾

궁정 이주 후에도 유사한 현상이 이어졌다. 1682-1686년 베르사유 시에 등록된 상공인들 중 56명이 의복과 음식 관련 종사자들이다. 높은 생활수준의 소비자를 위한 희귀품 상인들도 눈에 띈다. 예컨대 액자 상인 1명, 견직물 상인 2명, 리본 상인 1명, 문구류 상인 1명, 향수 상인 2명, 발레 선생 1명 등이다.⁴⁷⁾

1700년 이후 상인과 수공업 종사자들은 하인들과 함께 베르사유 시의 인구를 증가시킨 원동력이었다. <표 1-2>에서 상업과 수공업 종사자들(35.5%)과 하인들(41%)은 이 시기 결혼률의 76.5%를 차지한다. 이들 덕분에 베르사유 시는 일드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1715년 인구 3만 명으로 왕국 전체의 10위의 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1715년 9월 루이 14세가 사망하고 왕실이 성을 떠나자 시의 인수도 급감해서 1722년 2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표 1-1>에 의하면 1711-1715년 소교구 명부에서 각각 1,104건과 255건이던 유아세례와 결혼이 1716-1720년 514건과 120건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베르사유 시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누구일까? 누구보다도 먼저 궁정과 관련이 있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베르사유 시 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실상 높은 편이 아니다. 그들보다는 그들의 시중을 들던 하인들의 이주야말로 베르사유 시 인구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표 1-2>에 의하면 1720년 하인들의 결혼 비율은 1700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1720년에 상공업 종사자들의 결혼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사치품목을 다루는 일부 상인들이 궁정을 따라 파리로 이주했음은 분명하지만 이미 베르사유 시에 정착해서 경제력을 굳힌 상공업 종사자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터전을 지켰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존재는 18세기 베르사유 시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베르사유 시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46) B. Lepetit,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p. 608.

47) 앞 글, p. 612.

제5절 성과의 줄다리기

1722년 왕실이 베르사유로 돌아온 뒤 베르사유 시의 인구는 곧 3만 명을 회복하고 1744년 37,000을 기록했다.⁴⁸⁾ 이후 1789년 7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베르사유 시의 인구는 프랑스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인구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국왕도시라는 태생적 한계에 묶인 베르사유 시는 행정적·재정적 자립을 이루지 못했다.

베르사유에서 시 자치 기구가 처음 나타난 것은 1787년이다. 1786년 5월 재무총감 칼론이 재정개혁을 위해 명사회 소집을 시도하자 명사회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정부가 마지못해 베르사유 시의 자치 기구 설립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자치 기구는 국왕이 임명권을 지닌, 기존의 구역장들과 대표로 구성된 조직을 토대로 했을 뿐 아니라 재정권도 인정받지 못했다. 혁명 직전에 작성된 진정서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는 자율적인 자치기구의 설립 요구가 빚발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789년 5월 최초로 베르사유 시장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여전히 입시세와 시장세 등 영주로서의 수입에 대한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1790년 9월 18일, 베르사유 시는 가까스로 국왕의 입시세 수입을 양도받았으나 곧 구체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입시세 자체가 혁명 정부에 의해 폐기되었다.⁴⁹⁾

혁명과정은 성뿐 아니라 시에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1789년 7월 14일 파리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자 왕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훗날의 샤를 10세)을 비롯한 왕실 가족이 베르사유를 떠나고 귀족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부터 몰래 베르사유 시를 빠져나가는 마차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일부 과격한 시민들은 자유를 외치며 앙시앵 레짐의 표상인 성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1789년 10월 성난 파리 민중들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강제로 파리로 끌고 간 뒤, 흥분한 베르사유 민중들은 몰려가 닥치는 대로 성을 약탈하고 파괴했다. 명사들이 정치보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성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으나 민중 층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⁵⁰⁾

1792년 9월 3일에 자행된 대학살극에서 민중폭력은 절정을 이루었다. 반혁명 세력으로 체포된 수감자 53명을 실은 호송차가 오를레앙 감옥에서 파리로 이동 중 베르사유 시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44명이 살해되었던 것이다.⁵¹⁾ 왕실 가족과 귀족, 관리, 하인,

48) <http://www.insee.fr/fr/service> 참조.

49) 입시세가 되살아난 것은 1799년이다. V. Maroteaux, *Versailles, le Roi et son domaine* (Paris: Picard, 2000), p. 226.

50) 독창적인 베르사유 시의 초기 자치 기구의 역사에 관해서는 Andre Damien et Jean Lagny, *Versailles revue de l'histoire de Versailles* 참조.

사치품 관련 종사자 등의 뒤를 이어, 부유한 부르주아 층도 갈수록 험악해지는 민중 층을 피해 베르사유 시를 떠났다. 1793년 35,093명으로 곤두박질친 베르사유 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은 1806년 26,974명으로 바닥을 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버려진 국왕의 성은 베르사유에 남은 시민들에게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왕실 재산이 국유화됨에 따라 성은 해체되지 않았지만 시와 분리되었다. 성과 함께 건축된 도시 유산은 이제야 비로소 성에 종속된 운명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우선 시는 자율성을 십분 활용해서 센에우아즈 도의 도청소재지가 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베르사유 자치 기구가 정작 재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자산을 보유하지도 못했다는 데 있다. 학교나 병원을 위한 건물도 심지어 시 자치기구가 들어갈 공간도 없었다. 1790년 11월 제헌의회는 법령에 따라, 앙시앵 레짐 하에서 개인에게 양도되었던 모든 건축 공간 중 소유권을 명확하게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한 베르사유 시의 모든 토지가 국가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이다.⁵²⁾

1790년 이후 성 밖, 즉 시에 세워진 웅장한 건축물들은 국가에 귀속되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전쟁이 계속되던 상황인 만큼 특히 군대가 특혜를 누렸다. 육군성 건물과 남쪽의 병영, 대마사와 소마사는 그대로 혁명군 소속으로 통합되고 궁정 부속 기능을 하던 궁정 부속건물은 무기제작소가 되었다. 수도원과 수녀원에는 가톨릭 수도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섰다. 유일하게 시가 차지한 것은 소교구의 구빈원 건물들이었다. 또한 도로의 사용권과 통제권이 시에 부여되었다.⁵³⁾ 시 자치기구는 1790년 간신히 파리 대로에 위치한 콩티 저택을 빌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베르사유 시가 직면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시 자산 형성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양도나 구입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둘 다 쉽지 않았다. 국유재산의 양도는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으므로 시는 우선 재정 능력을 갖추기 위해 주민 수를 늘리고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유화된 베르사유 성에서는 이미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이중 과정이 추진되고 있었다. 1794년 최초로 국왕의 공적 처소에 프랑스 학교 특별 박물관이 자리를 잡았다.⁵⁴⁾ 또한 북쪽 익랑건물에는 자연사 박

51)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 93.

52) Décrets des 22 novembre et 1er décembre 1790.

53)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 87.

54) 중요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박물관의 안내서는 1802년에 발간되었다: *Notice des tableaux, statues, vases, bustes composant le Musée spécial de l'Ecole française, don't l'ouverture a lieu les quintidi et décadi*, Versailles, an X

물관, 남쪽 익랑건물에 공공 도서관, 부속성당에는 음악학교가 나란히 들어서 개방되었다.⁵⁵⁾ 약탈과 도난으로 성은 텅 빈 상태였지만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성을 구경하며 왕의 궁전에서 국민의 궁전으로의 변화를 실감했다. 반면 거대한 분수와 조각상이 남아 있던 정원은 여전히 절대군주정의 위용을 뽐내며 관광객들을 사로잡았다. 1801년부터 대운하가 다시 열리자 3만 명의 관광객이 베르사유를 찾았다.

자립을 위해 성과 거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유에서 성을 활용하는 시의 이중적 태도는 왕정복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1815년 부르봉 왕조가 왕좌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르사유 시는 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베르사유 성이 국유화된 만큼 루이 18세와 샤를 10세는 더 이상 성의 주인이 아니었다. 몰락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베르사유 시의 옛 거처로 돌아왔지만 과거의 도덕적 권위를 되찾지 못한 채 자신들의 거처에 틀어박혀 지냈다.

1830년 7월 혁명이 일어나자 베르사유 시는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베르사유 시에서 새로운 기억 만들기의 시도가 전개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1832년 8월 5일 시 참사회가 시 북쪽 노트르담 구역에 위치한 왕세자 광장의 이름을 오슈 광장(place Hoche)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프랑스 혁명군에 투신해서 프로이센군을 격퇴시키고 반혁명 세력을 진압한 오슈 장군이야말로 국왕도시였던 베르사유 시에 새로운 정체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 아닌가.

그러나 베르사유 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부유한 귀족 가문들은 베르사유로 되돌아오지 않았고 주민 수는 재정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799년 부활한 입시세는 도로 유지만으로도 벅찼다. 1837년 6월 11일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국립역사박물관으로 변신한 성이 그 돌파구 역할을 했다. 첫날부터 관광객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8월 중순까지 2개월 동안 35만 명이 베르사유 시를 방문했다. 식당과 호텔, 여인숙이 하나씩 새로 문을 열었다.⁵⁶⁾ 1839년에 부설된 파리와 베르사유를 연결하는 철도 덕분에 관광객은 더욱 급증하고 시에서는 건축 붐이 되살아났다. 관광객의 홍수에 자극을 받은 시는 도로포장, 조명, 분수 설치 등 도시 미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극장을 재구입해서 개장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했다. 국가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미 1835년에 시는 북쪽 노트르담 구역을 양도받아 시장 구역의 재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성 남쪽

55) 오늘날 베르사유 국립 음악원의 전신인 이 학교는 베르사유 부속성당의 궁정악단에 속했던 Blèche가 책임을 맡았다. 그 외에도 식물학, 승마, 음악, 태생 학교 등이 있었다. 그 학교들은 무료였으며 식물학 학교의 Richard처럼 종종 충분한 자격을 갖춘 옛 왕실 관리들에게 맡겨졌다 (엘렌 이멜파르,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238쪽).

56) A. Damien et J. Lagny, *Versailles. Deux siècles de vie municipale*, p. 85.

에 위치한 웅장한 외무성 건물과 해군성 건물이 시에 양도되었다. 1836년 국가의 호의로 베르사유 정원에서 성대한 무도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물론 거울의 방과 공식 처소 등 텅 빈 상태로 남아 있던 성의 내부가 관광객들을 실망시켰지만 말이다.⁵⁷⁾

시로서는 관광 사업을 통한 수입 증대뿐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주민수를 늘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18세기에 왕실의 필요에 따라 확장된 베르사유 시는 지나치게 거대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1830년대 중반 철도 부설공사를 위해 건설 노동자들이 동원되면서 인구 회복 징조가 나타났다. 1840년대에 시는 부유층의 이주를 위해 우아한 휴양소들과 종교기관의 유치를 주도했다. 그 결과 시를 빠져나갔던 부유한 귀족들이 서서히 파리에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베르사유로 되돌아왔다. 보수적인 가톨릭 성직자들도 생루이 주교좌 성당 주변의 종교 건물을 차례차례 채워나갔다. 또한 시 동쪽에 새로 개발된 클라니-글라티니 구역(quartier de Clagny-Glatigny)의 토지 분양도 인구 흡입력을 발휘했다. 새로 단장한 신개발구역을 선호하는 임대업자들과 행정관리들, 자유전문직업인들이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왕도시였던 베르사유의 명성도 그들의 이주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1840년 베르사유 시의 인구는 1715년 루이 14세 사망 당시의 인구 3만 명을 넘어서더니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848년 2월 혁명 직후 보통선거를 위한 유권자 조사 과정에서 시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42.5%가 상인, 수공업자, 운송업자들이다. 그밖에 임대수입자 11.39%, 행정직 종사자 9.37%, 전문직 5.3%, 교사와 성직자 4.51% 순으로 이어진다. 나머지는 불특정 서비스업 종사자들이며 귀족은 역시 0.02%에 불과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혁명 이전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하인들의 부재이다. 이는 1789년, 1830년, 1848년 세 차례의 혁명이 베르사유 시에 미친 직접적인 사회적 결과이다. 게다가 하인들의 부재를 대체하듯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존재도 주목할 만하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1848년 베르사유 시의 직업 구성비가 혁명 이전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상공업 종사자들의 세분화된 직업에서도 건축업 32%, 의류업 15.38%, 식품과 음료업 22.81% 등 혁명 이전과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다.⁵⁸⁾ 1789년 궁정과 귀족이 베르사유를 떠난 후 상공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주 고객이 된 도시 부르주아와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베르사유를 곳곳이 지켰던 것이다.

57) Pierre de Nolhac, *La Résurrection de Versailles. Souvenirs d'un conservateur, 1887-1920* (Paris, 1937), p. 3.

58) AMV, 1 F 476-478: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p. 85-6에서 재인용.

혁명 이전과 19세기 베르사유 시의 연속성은 구역별 인구 분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혁명 이전 궁정 부속건물들과 귀족들의 저택이 즐비하던 남쪽, 특히 생루이 구역에는 보수적인 귀족들과 성직자들이 많이 살았다. 남쪽 시 경계지역에 건설된 병영 주변과 생루이 구역은 군인 가족들에게도 인기 있는 거주지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은 왕정 복고 후 시 남쪽에 위치한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왔다. 반면 루이 14세 시대부터 상공업 종사자들의 터전이던 북쪽 노트르담 구역은 19세기에 도청 행정관리와 자유전문직업인 등 새로운 유형의 거주자들을 맞이했다. 베르사유 시의 신명사 층을 형성한 이들은 전통적이고 웅장한 남쪽 저택보다는 편리하고 깨끗한 북쪽의 신주택지를 택했던 것이다.

이렇듯 혁명 이전 베르사유 시를 구분 짓던 남쪽과 북쪽의 뚜렷한 양분 현상은 19세기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북쪽과 남쪽의 직업별 분포와 정치적 성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남쪽과 북쪽의 정치적, 사회적 무게는 달라졌다. 성의 권위와 위계에 편승해서 시에 영향력을 발휘했던 남쪽에서는 19세기에 쇠락과 위축의 기운이 역력했다. 반면 1789년부터 불어 닥친 공화주의 바람의 진원지 역할을 한 북쪽은 성과의 결별을 주장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무기로 점차 발언권을 높여갔다.

나폴레옹 3세의 제 2제정에서 베르사유 성에 대한 시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졌다. 무엇보다도 혁명 초기부터 시청 건물로 사용해오던 콩티 저택을 1859년 구입함으로써 베르사유 시는 마침내 독립 청사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1868년 6월 24일에 거행된 오슈 탄생 100주년 기념식은 더욱 가시적이며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베르사유 시의 영웅, 오슈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의 규모와 호응은 기존의 베르사유 시 수호성인 성왕 루이 9세의 존재를 망각시키며 베르사유 시를 더 이상 국왕도시가 아니라 자유와 혁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불과 20일 후 거행된 1868년 7월 14일의 혁명 축제를 압도함으로써 오슈 탄생 기념식은 이후 베르사유의 대표적인 도시 축제로 입지를 굳혔다.⁵⁹⁾

그러나 1871년 거센 정치적 부침에 휘말리면서 베르사유 성은 다시 한 번 정치적 역할을 떠맡았다. 그 과정에서 성과 시의 관계, 그리고 시의 정체성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군을 패배시킨 독일은 1871년 1월 18일, 루이 14세가 전 유럽에 프랑스의 패권을 과시했던 거울의 방에서 독일제국을 선포하며 빌헬름 1세의 제관식을 거행했다. 독일과의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체결한 정부에 항거하며 3월 18일, 파리 시가 자치를 선언하자 정부군의 포위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5월 28일 파리 코뮌이 처

59)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 96

절하게 진압될 때까지 파리가 진통을 겪는 동안 파리에 있던 정부와 의회를 위시한 모든 주요 국가기구와 위원회, 심지어 각국 대사관들마저 베르사유로 이주했다. 그와 함께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 시로 밀어닥치면서 성과 시는 곧 포화상태에 직면했다. 갑작스런 이주자들의 홍수로 베르사유 시는 일시적이거나 인구 10만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수도의 지위를 탈환했다.

문제는 파리코뮌 후에도 그런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파리가 안정을 되찾자 대사관들이 파리로 되돌아가고 내각과 주요 부서들도 뒤를 이었다. 1874년 대통령 집무실과 재판소 등 핵심 기구들도 베르사유를 떠났다. 의회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다. 1871년부터 북쪽 익랑건물 끝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로 이주한 상원은 북쪽 익랑건물까지 사무실을 확장하고 박물관의 상당한 면적을 공공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하원은 남쪽 익랑건물 뒷면을 차지했으며 8개월 만에 그곳에 독자적인 거대한 의사당을 지었다.⁶⁰⁾ 1879년 의회가 파리로 귀환한 뒤에도 남쪽 익랑건물의 의사당 건물은 의회 소속으로 남았다. 두 의회가 함께 모이는 양원합동회의는 이후에도 그곳에서 개최되었다.

베르사유에 가장 늦게까지 남은 것은 파리 시민들이었다. 국가 기구들이 떠난 이후에도 코뮌을 피해 이주했던 파리 시민들은 쉽사리 베르사유를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보수적인 군인과 정치인들, 군주주의자들, 그리고 부유한 부르주아 층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을 뒤따라 파리에서 활동하던 자유전문직업인들과 은퇴한 관리들도 조용하고 평온한 곳을 찾아 베르사유 시에 새로 정착했다. 이들과 함께 베르사유 시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1871년 독일 점령에 분개한 애국주의의 깃발과 파리 코뮌의 과격함을 제압하는 보수적인 성의 이미지가 다시 시를 짓눌렀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성과의 거리두기와 줄다리기를 통해 형성해온 시의 자율적인 정체성은 퇴색하고 공화주의의 기세도 약해졌다. 19세기 말 베르사유 시의 보수적 이미지는 이렇게 굳어졌다.

대신 제3 공화국의 산실 역할을 한 덕분에 시의 자산은 현저히 증가했다. 명사들은 시가 수도의 휴양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히 교육시설을 확충하며 교육 거점 도시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1873-93년 3개의 초등학교가 개교하고 8개의 건물을 차지했다. 1891년 여자 고등학교가 건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층과 도청소재지의 신명사 층인 행정관리 집단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상대로 시의 요구사항을 납득시키며 국유재산의 양도와 공공시설의 확충을 꾀했다.⁶¹⁾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과 시의 협조체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60) 엘렌 이멜파르,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230쪽.

61) N. Dauphin, "Versailles, le château et la ville", p. 89.

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파리코뮌 이후 보수적 색채가 강해졌을지라도 베르사유 주민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군주주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르사유 시는 1789년 이후 군주주의의 온상이 된 적이 없다.

제6절 맺음말

그렇다면 어떻게 군주정의 이미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도시의 경제적 동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1900년 11월 18일 신축된 시청사는 이처럼 복잡한 베르사유 시의 속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하다. 우선 성 밖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신 르네상스 양식의 시청사는 과장스러운 정도로 거대하다. 마치 성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건물 꼭대기에 성보다 높게 세워진 피라미드 형 소형 첨탑의 존재는 더욱 도전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베르사유 시의 보수적 전통과 군주정의 요람인 성의 위세를 이기지는 못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것은 시청 건물의 청석돌판 지붕이다. 이는 이 건물이 베르사유 시 전체를 관통하는 프랑스 고유의 건축 전통을 고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⁶²⁾ 더구나 시청 건물 자체의 높이는 여전히 성을 추월하지 못했다. 건물 꼭대기에 세워졌던 피라미드 형 소형 첨탑도 1946년에 허물어졌다.



〈그림 1-10〉 오늘날의 베르사유 시 시청사

62) J. Castex, *Versailles, lecture d'une ville*, p. 186.

시청 건물만이 아니라 베르사유 시에서 성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금지하는 규정은 20 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1671년 국왕령에서보다 완화되기는 했지만, 베르사유 시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1779년 7월 7일 법령에 따라 성의 높이를 넘지 않도록 8투아즈(약 16미터)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군주정 시대의 유산인 이 도시 법규는 성에 대한 시의 종속성을 의미한다. 시 고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수많은 기념물들에도 불구하고 시의 이미지는 베르사유 시 도처에 남아 있는 국왕도시의 흔적들에 지배된다. 베르사유 성 밖 야름 광장 한복판에 우뚝 선 루이 14세의 거대한 기마상을 보라. 루이 14세가 아직도 시를 감시하려는 듯 위압적인 자세로 시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파리코뮌의 악몽이 어느 정도 걷힌 1900년 이후 베르사유 시는 풍부한 관광자원 덕분에 경제적 부를 누리며 평화로운 도시로 거듭났다. 부르주아 도시이자 귀족의 사회성이 강하며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라는 평가에도 익숙해졌다. 이 모든 요소가 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시 정부는 더 이상 성과 시의 정치적 기억을 대립 시키기를 포기했다. 19세기에 베르사유 시를 혁명과 자유의 요람으로 기억하게 하며 시민들을 열광시켰던 오슈 기념행사가 더 이상 거행되지 않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다. 그와 동시에 군주주의자들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정치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의 노력은 시 선전 책자와 관광안내서에 나란히 등장하는 루이 15세의 정부 퐁파두르 부인의 저택과 오슈가 탄생한 집, 마사와 정구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사회적 안정의 평판과 행정중심지로서의 위상에 앞서 베르사유 시에 중요한 것은 관광지로서 성이 지닌 국제적 명성이기 때문이다. 공간 운영을 위한 국유지 협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시의 영역은 제한적이며 역사유산의 보존과 도시화에 관한 강력한 법규의 통제에 묶여 있다. 시는 시에 소속된 국유지 전체에 대한 재량권을 추구하지만 역사유산에 대한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좋건 싫건 베르사유 시의 미래는 성과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2장

러시아의 왕도 페테르부르크의 건설과 그 의미

박지배 (한국외국어대학교)

제1절 머리말

제2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배경

제3절 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과 공간 구조

제4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의미

제5절 맺음말

제2장 러시아의 왕도 페테르부르크의 건설과 그 의미

제1절 머리말

세계사에서 군주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로 수도를 옮기거나 아니면 특별한 도시로 삼았던 사례는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베르사유를 왕의 도시로 건설한 것이나, 명나라의 영락제가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것이나, 정조 대왕이 화성을 건설한 것 모두가 그렇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자신의 왕도로 삼았던 것도 이와 유사한 사례일 것이다. 다만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은 사업의 규모면에서나, 극적인 진행과정에서나, 역사적 파장에서 볼 때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거대한 사건이었다.

오늘날 페테르부르크 지역은 세계 여타의 왕도들과는 달리 도저히 도시라고 부르기 어려운, 심지어 주민들조차 얼마 되지 않는 네바 강변의 소택지였다. 더욱이 그 위치는 러시아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북서 변방이었고, 입지로 볼 때 지반 자체가 연약하여 건축 자체가 쉽지 않았다.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날씨는 대개 흐려서 연평균 62일만 햇빛을 볼 수 있었고, 일조량은 중앙아시아와 비교해 절반에 불과했다.⁶³⁾ 또한 연중 142일간의 회오리바람이 불고, 강한 서풍은 네바 강의 유속을 늦추어 잦은 홍수를 일으켰다. 도시가 건설되고 250년 동안 기록된 큰 홍수만 142차례에 달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⁶⁴⁾ 특히 도시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18세기에는 홍수의 피해가 더욱 심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거대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았으며,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사건이었다.

더욱이 표트르 대제는 이러한 신도시를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삼았다. 도시가 건설될 무렵인 17세기 말-18세기 초에 러시아는 1,366만km²의 영토를 보유하고,⁶⁵⁾ 오늘날 한반도 전체면적의 약 62배, 중국 영토의 약 1.4배에 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사람도 얼마 살고 있지 않던 소택지가 갑자기 이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된 것이다. 더욱이 페테르부르크는 단지 왕이 거주하는 왕의 궁전 도시가 아니었다. 페테르부르크는 왕의 궁전뿐

63) В. А. Витязева, Б. М. Кириков, *Ленинград* (Ленинград, 1986), p.8.

64) К. Н. Сербина,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района Петербурга до основания города,"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 1955), p.12.

65) И. Д. Кулишер,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3-изд (Челябинск, 2008), p.189.

아니라 여러 요새들, 정부 기관, 경제 시설물, 종교 시설물, 문화 공간들을 갖춘 그야말로 거대 복합도시로 건설되었던 것이다. 도시 건설 당시 몇 천 명에 불과하던 페테르부르크의 인구는 1811년에는 30만 명으로 러시아의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를 능가했다.⁶⁶⁾ 소택지의 작은 어촌 마을 몇몇이 이러한 거대도시로 성장한 것은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다.

본 논문은 러시아의 왕도로서 페테르부르크가 어떠한 이유로 건설되었고, 그 건설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도시 건설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페테르부르크의 건설에는 포트르라는 걸출한 인물의 열정과 노력이 중요했다. 포트르 대제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러시아 국가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그리고 포트르의 도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인상적인 도시로 우뚝 섰다. 그러나 도시의 건설과정에서 포트르는 너무나 강압적이었고,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페테르부르크 건설이 극적이었던 만큼 그것은 수많은 반대를 짓누르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그래서 포트르의 도시는 눈부시게 화려하지만 지나친 화려함 때문에 그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측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도시는 수많은 평민들의 희생으로 건설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성장했지만, 결코 러시아 일반 국민들과 섞일 수 없는 공간이었다. 본 논문은 러시아 제국의 왕도 페테르부르크의 긍정적 의미와 함께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그 부정적 모습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배경

네바 강의 늪지대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 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되고, 이후 200년 이상 제국의 수도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당시 러시아 국가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수도 건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목적이 확대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최초의 과제는 군사적인 것이었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목적이 중요해졌고,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서구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66) А. И. Копанев, “Население Петербурга от конца XVIII в. до 1861 г.,”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507; К. В. Сивков, “Территория и население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осквы*. Т.3 (Москва, 1954), p.162.

페테르부르크는 무엇보다 러시아 서구화의 상징이었다. 이는 페테르부르크 건설 당시 러시아가 서구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러시아 세계는 오랫동안 하자르, 튀르크, 몽골 등 아시아의 여러 유목세력들과 경쟁하고, 또한 협력하면서 성장했다. 특히 러시아의 기원 국가인 모스크바 공국은 유럽적인 국가라기보다 유라시아적인 국가였다.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의 킵차크 칸국의 지배를 받았고, 몽골에 협력하면서 루시 세계의 종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대공의 직함은 실제 킵차크 대칸이 부여한 것인데 킵차크의 서열에서 에미르에 해당했다.⁶⁷⁾ 이후 킵차크가 붕괴되고 카잔, 아스트라한, 크림 등 여러 계승국가들의 패권 경쟁에서 모스크바 공국이 승리했다. 모스크바 대공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카잔칸국을 정복하고 마침내 대칸(차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모스크바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기병대의 군사 조직과 기동성 있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차용할 수 있었던 것과 새롭게 부상하는 서유럽의 화기를 받아들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모스크바 공국은 유라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주변세력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였고, 또한 동방으로 팽창해 나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서유럽의 군사기술을 흡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⁶⁸⁾

러시아 국가는 근대 국가로 성장하면서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서구의 화기를 받아들이고, 또한 서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귀금속을 확보해야 했다.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안정적인 군사력과 재정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말까지 러시아의 서유럽과의 교류는 폴란드, 스웨덴, 발트 국가들을 거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무엇보다 대륙국가인 모스크바 국가가 바다와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로 나가는 방법은 지리적으로는 남부의 흑해 연안으로 진출하는 것과 북부의 발트 해로 진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17세기 말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부에서는 강력한 오스만튀르크로 인해 흑해 진출이 요원했고, 차라리 북부의 스웨덴을 공략하여 발트 해로 나아가는 것이 나아보였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대북방전쟁으로 알려진 스웨덴과의 장기간의 전쟁을 통해 발트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했으며, 러시아 국가는 극도의 긴장을 통해 자원과 인력을 징발하여 전쟁을 수행했다. 사실 페테르부르크 건설과 표트르의 개혁 모두는 1700년부터 1721년까지 20년이 넘게 진행된 북방전쟁의 긴장 속에서 가능했다.⁶⁹⁾

표트르 1세는 1703년에 오늘날 에스토니아에 속한 나르바(Нарва)에서 칼 12세가 이

67) А. И. Филюшкин, *Титулы русских государей* (Москва, Петербург, 2006), p.41.

68) 박지배, 「근대 초 러시아 국가의 군사개혁과 동서양의 영향」, 『서양사론』 121호, 2014 참고.

69) 박지배, 「표트르 대제」, 살림, 2009, 54쪽 참고.

끄는 스웨덴 군대와 중요한 한판 승부를 벌였으나 참패했다. 그러나 칼 12세는 러시아를 알보고 곧장 모스크바로 진격하지 않고, 러시아의 동맹국인 폴란드로 쳐들어가 시간을 낭비했다. 러시아의 표트르 1세는 이때를 이용해 대대적인 국가개혁에 착수했는데, 개혁의 핵심과제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국가 기구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 군대는 스웨덴이 관리하고 있던 네바 강 연안으로 진격해 갔다. 1702년 말에 네바 강 상류로 진입하여 1703년에 강 하구까지 네바 강 일대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는 새로 확보한 영토를 굳건히 하기 위해 새로운 요새를 건설할 장소를 물색했다. 표트르는 1703년 5월16일에 네바 강이 핀란드만 쪽으로 흐르다 소 네바와 대 네바로 분기하는 지점에 위치한 토끼 섬을 발견했고, 그곳에 새로운 러시아 요새를 건설했다. 이 요새의 이름은 성 베드로(러시아어로 베드로는 표트르임)의 요새라는 뜻으로 상크트-페테르부르크(오늘날의 표트르-파벨 요새)로 불렸다.⁷⁰⁾ 이것이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시작이었다. 이와 같이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첫 번째 목적은 군사적인 것이었다. 표트르는 최초의 요새 건설 이후 스웨덴이 바다로부터 네바 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1703-1704년 겨울에 핀란드 만에 위치한 크론슬로트(Кроншлот, 오늘날의 크론슈타트)를 건설했다.⁷¹⁾ 그리고 단순히 네바 강 유역을 방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핀란드 만과 발트 해에서 스웨덴 함대와의 해상 전투를 대비해서 1705년에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요새 건너편에 조선소이자 또 다른 요새인 해군성을 건설했다. 이렇게 해서 네바 강 유역은 군사 도시로서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도시 건설 초기부터 표트르는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었다. 러시아 최초의 활자 신문인 <베도모스티>는 1703년 8월호에서 1703년 6월자로 기록된 차르의 명령을 실고 있다. “폐하께서는 슬로트부르크(Шлотбур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도시와 요새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는 이후부터 리가, 나르바, 완츠로 가는 모든 상품들이 앞으로 이곳의 선착장으로(페테르부르크로/저자 주) 오고 또한 페르시아와 중국의 상품들도 이리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다.”⁷²⁾ 즉 표트르는 토끼 섬(Заяцкий остров)에 표트르-파벨 요새 건설을 시작한지 얼마 안 있어 페테르부르크를 러시아의 무역항으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차르는 북방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대서구 사절단을 결성하여 1697-1698년에 약 17개월 동안 서유럽 국가들을 방문했다. 표트르 역시 차르의

70) Б. С. Тельпуховский, *Северная война* (Москва, 1946), pp.47-48.

71)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города в 1703-1725 гг.,”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p.33-34.

72) *Ведомости времени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Вып.1. 1703-1707 гг. (Москва, 1903), pp.73-74.

신분을 숨기고 사절단에 참여하여 독일,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을 방문하여 서구의 문물을 배웠다. 포트르는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보고 감탄했지만, 당시 유럽 최고의 무역항인 암스테르담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암스테르담처럼 모든 물자들이 집결했다가 다시 유럽 각지로 빠져나가는 물류의 중심도시를 꿈꾸었다. 그래서 포트르에게 페테르부르크는 제2의 암스테르담이어야 했다. 그는 “신이시여 내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페테르부르크를 제2의 암스테르담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⁷³⁾

그러나 무역도시의 건설은 군사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 쉽지 않았다. 군사도시는 요새를 건설하고 군인들을 파견하고 식량과 군수물자를 공급하면 유지 가능했다. 그러나 무역도시의 항구를 건설한다고 해도 상인들이 몰려들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트르는 일찍부터 페테르부르크 무역이 활기를 띠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703년에 이미 유럽에 나가 있는 러시아 외교관들은 러시아 황제가 페테르부르크 항을 통해 무역을 하기 원하며, 페테르부르크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들을 포상할 것임을 알렸다. 1703년 11월에 페테르부르크에 첫 번째 외국 선박이 입항했다. 이는 소금과 음료를 잔뜩 실은 네덜란드 선박이었고, 선장과 선원들은 포트르 대제에게 포상을 받았다.⁷⁴⁾ 그러나 외국 선박들을 불러들이기는 쉽지 않았는데 1703년, 1704년, 1710년에 각각 1척의 배가 페테르부르크로 입항했을 뿐이다.⁷⁵⁾ 유럽의 상인들은 아직 아무런 상업적 기반을 갖추지 않은 네바 강의 소택지로 자신들의 상선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아직 러시아는 스웨덴과 한창 전쟁 중이었다.

포트르는 러시아 국가의 자원과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며 전쟁과 국가 개혁을 추진했다. 그리고 1709년에 마침내 폴타바(Полтава)에서 스웨덴 주력부대를 격파하면서 승기를 잡게 되었다. 스웨덴 왕은 큰 부상을 입고 전장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스웨덴은 사실상 북방전쟁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⁷⁶⁾ 1709년의 승리로 한숨 돌린 포트르는 페테르부르크의 무역을 진작시키기 위해 한층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외국 상인들을 새로운 항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러시아 상품이 필요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농산물과 원자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러시아 각지에서 이러한 상품들이 운반되면 자연스

73) E. В. Анисимов, *Императорская Россия* (Петербург, 2011), p.29.

74) В. П. Пузырев и др. *Под флагом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зарожд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флота* (Москва, 1995), p.51.

75) Н. Н. Репи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в XVIII в. (Архангелогородский и Петербургский порты)* (Омск, 1989), p.14.

76) 박지배, 『포트르대제』, 살림, 2009, 32-37쪽.

렵게 페테르부르크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포트르는 인위적으로 아르한겔스크로 향하는 기존의 무역로를 새로운 항구 페테르부르크로 바꾸려 했다. 1713년에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대마, 가죽, 타르, 대황, 생선 알 등을 아르한겔스크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페테르부르크를 통해 수출하도록 명했다.⁷⁷⁾ 이에 대해 러시아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거세지자 1713년 칙령을 다소 완화했지만, 그럼에도 페테르부르크로 무역로를 고수하는 정책을 고수했다.⁷⁸⁾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이 당장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북방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가 확고해 지고 평화협정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페테르부르크의 대외무역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⁷⁹⁾

네바 강변의 소택지는 마침내 1713년에 러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수도가 되었다. 포트르가 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언급한 것은 1704년 9월28일 기록이 최초이다. 포트르는 자신의 측근인 멘스코프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우리는 다음 달 2일 또는 3일에 이곳(올로네츠 조선소/필자 주)을 떠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만일 신이 허락한다면 수도(페테르부르크)에서 사나흘 머물 것이다.”고 썼다.⁸⁰⁾ 포트르는 일찍부터 당시 러시아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를 매우 싫어했고, 모스크바를 떠나고 싶어 했다. 이는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과 이로 인해 만들어진 국가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에 기인한다. 15-16세기 모스크바 국가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는 가운데 차르 권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결국 17세기 초에 모스크바 국가는 동란의 위기를 맞아 국가 권력이 폴란드 왕가로 넘어갈 뻔 했으나, 러시아 세계의 단결된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로마노프 왕조가 들어섰다. 17세기 동안 로마노프 군주들은 피폐한 러시아를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했으나, 아직도 왕위계승이나 국가권력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1682년에 차르 포도르(Фёдор Алексей вич)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자 러시아 전국회의는 열 살의 포트르를 차르로 선출했다. 그러나 포트르의 이복누이 소피야 측은 스트렐츠이(소총병) 부대를 사주하여 크렘린으로 난입하게 만들었다. 이성을 잃은 소총병들은 궁정 곳곳을 누비며 포트르의 후견 마트베예브(Артамон Матвеев)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마침내 당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포트르의 외삼촌 이반 나리쉬킨(Иван Кириллович Нарышкин)을 잡아다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러한 소총병들의

77)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Т.5 (Петербург, 1830), № 2732 (이후 ПСЗ로 약함).

78) *ПСЗ*. Т.5. № 2760, 3115, 3268.

79) Н. Н. Репи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через Архангельск и Петербург в 1700- начале 60-х годов XVIII в.*,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 учен. степени Доктор. истор. наук. (Москва, 1985), pp. 505, 522.

80) *Письма и бумаги императора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Т.3 (Петербург, 1893), p.162.

폭동으로 모스크바의 권력구도는 바뀌어 이복형인 이반 5세가 공동 차르로 선포되었고 이복누이 소피야는 이후 7년간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했다.⁸¹⁾ 이 사건은 표트르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표트르는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차르인 자신에게 예의를 다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의식했고 이에 대해 분노하기 시작했다.⁸²⁾ 이 어린 시절의 사건은 표트르가 모스크바적인 것을 싫어하고, 나아가 모스크바를 벗어나고 싶게 만든 원초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표트르가 이러한 개인적 감정만으로 거대한 제국의 수도를 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트르의 탈(脫) 모스크바 정책은 표트르가 성장하면서 서구문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서구화를 통해 국가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표트르의 정책에 모스크바 세력은 사사건건 반대했는데, 러시아의 역사가 A. V. 프레드테첸스키의 표현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젊은 표트르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보루였다.”⁸³⁾ 따라서 표트르는 자신의 개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고, 북방전쟁의 와중에서 페테르부르크가 그 대안이 되었다. 표트르는 북방전쟁의 긴장 속에서 이전의 러시아 차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1704년경에 표트르는 과감한 도시 천도의 꿈을 꿀 수 있었다. 그리고 1709년에 폴타바에서 스웨덴 군대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1710년에 빅보르그를 점령하면서 페테르부르크는 스웨덴의 공격으로 안전한 곳이 되었다. 표트르는 이 시점부터 수도 천도를 본격화했다.

표트르는 이미 1710년에 누이들을 페테르부르크로 데리고 와서 거의 1년 동안 거주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훗날 러시아 제국의 여제가 될 표트르의 조카 안나 이오아노브나가(Анна Иоановна) 쿠를란드 공작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 Kettler)과 페테르부르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아직까지 도시의 기반을 거의 갖추지 못했던 페테르부르크에서 차르 가족의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이는 표트르가 수도를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⁸⁴⁾ 그리고 수도 천도의 결정적인 계기는 1712년에 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표트르 자신의 결혼식(재혼)이었다. 표트르는 당시 목조 건물이었던 페테르부르크의 이삭 성당(Исаакиевский собор)에서 두 번째 부인 예카테리나와의 결혼식을 올렸다. 차르의 대관식이나 결혼식은 당

81) Н. И. Павленко, *Петр Великий* (Москва, 1994), pp. 7–12.

82) 박지배, 『표트르대제』, 2009, 10–11쪽.

83)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p.39.

84)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p.4.

연히 모스크바 크렘린의 우스페니아 성당(Успенский собор)에서 거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차르의 결혼식을 페테르부르크에서 거행한다는 것은 이 도시가 명백히 러시아의 수도임을 천명한 것이었다.

차르의 결혼식에 모스크바의 귀족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표트르와 그의 개혁을 싫어하는 귀족들이 많았지만 그들 역시 차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로 와야 했고 이러한 상황이 귀족들의 페테르부르크 이주를 촉진시켰다. 그리고 1712년에 차르의 궁전도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갑자기 텅 비게 되었다.⁸⁵⁾ 그리고 다음 해인 1713년에는 러시아 정부의 차르 아래 최고 통치기구인 원로원(Правительствующий сенат)이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 차르 궁전이 이전한 마당에 외국의 대사와 영사들이 모스크바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미 1711년에 페르시아 대사가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는데, 이는 네바 강변의 신도시에 외교 사절이 방문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후 1712년에 영국 대표가, 1715년에 프랑스 대표가 이주했고, 1716년에 네덜란드 공사 드-비 남작이 페테르부르크에서 본국으로 첫 번째 외교 문서를 발송했다. 이후에도 프러시아 공사와 하노버 대표는 1718년 초까지 페테르부르크에서 자리를 잡았다.⁸⁶⁾ 이렇게 해서 페테르부르크는 차르의 거주지이자, 러시아 제국의 행정 수도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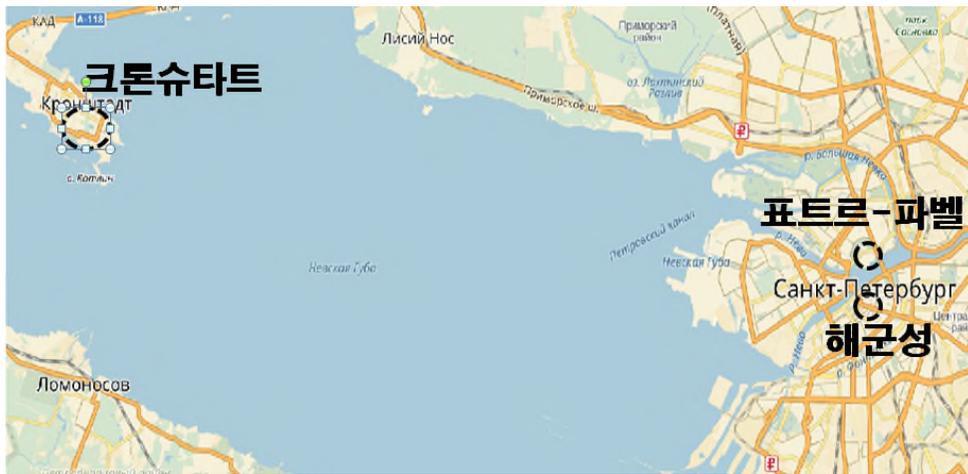
제3절 페테르부르크 도시 건설과 공간 구조

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가 자신의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인 러시아 국가의 수도로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막강한 방어태세를 갖춘 군사도시여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수도는 대륙이 아닌 바다로 향해 열린 암스테르담 같은 무역도시여야 했다. 그리고 표트르가 싫어했던 모스크바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서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그리고 서구 도시들처럼 석조 건물로 가득 찬 문화도시여야 했다. 따라서 페테르부르크는 전통적인 러시아 도시, 특히 모스크바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 되었다. 전통적 러시아 도시들이 크렘린의 성벽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다면, 페테르부르크는 크렘린 없이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 물론 페테르부르크도 건설 초기에는 도시 방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다보니 도시 건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방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이후부

85) Б. Б. Кафенгауз и В. И. Лебедев,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жизнь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осквы*, Т. 2.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I в. (Москва, 1953), p.103.

86)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p.46.

터는 전문 건축가의 도시 설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설이 진행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도시 건설은 네바 강변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유럽에서 가장 큰 호수인 라도가 호에서 발원하여 핀란드 만으로 흐르는 네바 강은 그 길이가 74km에 달하며 핀란드 만 연안에 1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삼각주를 형성시켰다. 도시는 이 강을 따라 이어졌고, 강이 만들어 놓은 섬들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구획이 되었다. 그리고 도시의 구획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자연 하천과 인공 운하 그리고 교량들이 어울려 도시를 ‘북방의 베니스’로 만들었다.⁸⁷⁾



〈그림 2-1〉 포트르-파벨 요새, 크론슈타트, 해군성의 위치

네바 유역은 오랫동안 스웨덴 바이킹들이 러시아로 침투하는 주요 통로였다. 그리고 1617년 스톨보바 협정(Столбовский мир) 이후에는 스웨덴이 이곳을 공식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⁸⁸⁾ 따라서 포트르가 네바 유역을 점령한 이후 핵심적인 과제는 스웨덴 함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토끼 섬에 포트르-파벨 요새를 건설했다. 요새는 포트르가 직접 프랑스 출신 기술자 람베르(Lambert de Guerin)와 함께 설계한 6개의 보루를 가진 목조 건축물이었다. 포트르-파벨 요새는 이후 1730-1740년대에 그리고 다시 1780년대에 석조로 재건되었다. 포트르-파벨 요새는 네바 강의 두 지류인 대 네바와 소 네바로 분기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는데, 각 지류를 통해 침투하는 적의 함대에 효율적으로 포격을 가할 수 있었다. 한편 포트르는 네바 강에서 핀란드 만으로 이동해 탐사를 하던 중에 코틀

87) 방일권, 「페테르부르크의 발전과 도시 건축」, 『외대사학』 제9집, 1999, 80쪽 참고.

88) К. Н. Сербина,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pp.22-23.

린(Котлин) 섬을 발견하고 주변 수심을 측량한 결과 큰 전함들은 섬 인근으로 지나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론숄로트 요새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요새 공사는 1704년 초에 시작되었고, 그해 5월17일에 완성되었고, 6월12일에는 발트함대의 분견대가 이곳에 배치되었다.⁸⁹⁾ 이것이 크론슈타트 요새의 시작이었고, 1705년에 네바 강으로 진입하려는 스웨덴 함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었다. 이후 포트르는 페테르부르크에 아예 발트함대를 건조할 조선소를 건설했다. 1704년 11월 5일에 포트르-파벨 요새 건너편에 포트르가 직접 설계한 해군성 건설이 시작되었다. 해군성은 발트함대를 건조하는 조선소로 건설되었으나, 이후 1706년에 방어를 위한 요새기능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서 네바 강 우안의 포트르-파벨 요새와 좌안의 해군성에서 동시에 포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 도시 방어는 한층 견고해졌다.⁹⁰⁾ 이렇게 해서 페테르부르크의 주요 요새들을 통해 수로를 통해 침투하는 적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먼저 핀란드만을 통해 네바 강으로 진입하는 전함들은 크론숄로트 요새에서 격퇴할 수 있었고, 설령 적합이 네바 강으로 진입한다고 해도 함대가 기동 가능한 대 네바, 소 네바 모두 포트르-파벨 요새와 해군성 요새의 포격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림 2-2〉 고로드 섬, 해군성 섬, 바실리 섬 위치

89) E. В. Анисимов и д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300 лет истории (Петербург, 2003), pp.33-34.

90) С. П. Луппов, Истор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тербурга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VIII века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7), p.15.

페테르부르크의 방어망이 구축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먼저 포트르-파벨 요새에서 가까운 네바 강 우안의 고로드 섬이 대략 10년 간 도시 건설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몇 차례의 홍수로 고로드 섬은 도시의 중심지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1712년 포트르의 결혼식을 계기로 도시 건설의 중심은 네바 강 좌안의 해군성 주변 지역으로 넘어갔다.⁹¹⁾ 그리고 조금 더 늦게 대 네바와 소 네바 사이에 위치한 바실리 섬 쪽으로도 건설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해서 페테르부르크는 포트르-파벨 요새를 중심으로 크게 강 우안의 고로드 섬, 강 좌안의 해군성 섬, 그리고 강 하구의 바실리 섬 세 곳으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도시의 중심지는 해군성이 위치한 좌안 지역이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전반적인 모습은 이탈리아의 장인 도미니카 트레치니(Domenico Trezzini)의 설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트레치니는 1716년에 해군성을 중심으로 도로들이 방사형으로 뻗어가는 계획을 제출했고, 다음해인 1717년 초에 포트르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⁹²⁾ 이렇게 해서 유명한 네프스키 대로를 기준으로 도시 중심부의 윤곽이 형성되었다.

페테르부르크에 대한 포트르의 애착이 대단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차르의 궁정과 측근들이 페테르부르크에 거주지를 마련하게 되었다. 네바 강 좌안에 밀리오나야 거리(Миллионная улица)에는 차르의 궁전과 고관대작들의 저택이 늘어섰다. 그리고 해군성을 축으로 페테르부르크의 뼈대가 되는 삼지창 거리가 자리를 잡았다. 1710년대에 건설된 오늘날의 네프스키 대로(Невский проспект)와 보즈네센스키 대로(Вознесенский проспект)가 두 축이 되었고, 1720년대에 가운데 축인 고로호바야 거리(Гороховая улица)가 만들어졌다. 이 삼지창 가운데 해군성에서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대수도원까지 이어지는 네프스키 대로는 페테르부르크의 가장 번화한 상업 지역으로 많은 중요한 건물들이 이 대로 변이나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페테르부르크의 골격이 되는 세 개의 방사형 도로들을 여러 개의 자연 하천 및 운하들이 교차하면서 페테르부르크를 수많은 섬의 도시로 만들었다. 해군성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자연하천인 모이카(Мойка)이다. 모이카는 원래 소택지에서 발원한 작은 하천인데 이를 연장하여 1711년에 다른 자연하천인 폰탄카(Фонтанка)와 연결했다. 폰탄카는 양 끝이 네바 강으로 연결되는 기다란 자연하천인데 18세기 전반기에는 도시의 남방 경계선 역할을 했다. 그러나 도시가 계속 커지면서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 오늘날의 그리보예도바 운하(канал Грибоедо

91) 방일권, 「페테르부르크의 발전과 도시 건축」, 84쪽.

92) А. И. Гегелло, В. Ф. Шилков, “Архитектура и планировка Петербурга до 6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132.

ва)가 건설되어 페테르부르크는 명실상부한 물의 도시 또는 북방의 베니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해군성에서 방사선 모양으로 뻗은 대로들이 씨줄이 되고, 여러 개의 하천 및 운하들이 날줄이 되어 도시는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었다. 하천과 운하의 정비는 늪지대를 건조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또한 도시 내의 수송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⁹³⁾



〈그림 2-3〉 겨울궁전 (1717년 작품)

중앙집권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는 유럽 어느 왕실에 못지않은 차르의 궁정들을 포함해 근대국가의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할 다양한 정부 청사들이 필요했다. 차르의 최초 주거지는 단층짜리 ‘표트르의 오두막집(Домик Петра)’이다. 표트르는 토끼 섬에서 요새 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5월13일-15일에 공사장 인근 고로드 섬에 통나무로 집을 지었고 이것이 페테르부르크 최초의 차르 주거지였다. 표트르는 이곳에서 머물면서 공사를 지휘했다. 이후 1708년에 오늘날 에르미타주 미술관 자리에 차르의 거처로 2층짜리 목조 건물이 들어섰다. 최초의 겨울궁전은 1712년 표트르의 결혼식에 최측근인 멘시코프가 선물한 석조 궁전(Свадебные палаты Петра I)이었다. 이후 표트르는 1716

93) А. Е. Сукува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до 6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82.

년에 인근에 새로운 동궁을 건설할 것을 명했고, 1720년에 완성되어 표트르와 가족 모두가 이사하고 살았으며, 표트르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했다.⁹⁴⁾ 이후 러시아 궁정 업무가 커져가면서 동궁의 확장공사가 수차례 진행되어 마침내 1754-1762년에 오늘날의 화려한 동궁(현재 에르미타주 미술관)이 완성되었다. 동궁은 6만 평방미터의 규모에 약 1500개의 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4〉 12 콜레기야 건물 (1743년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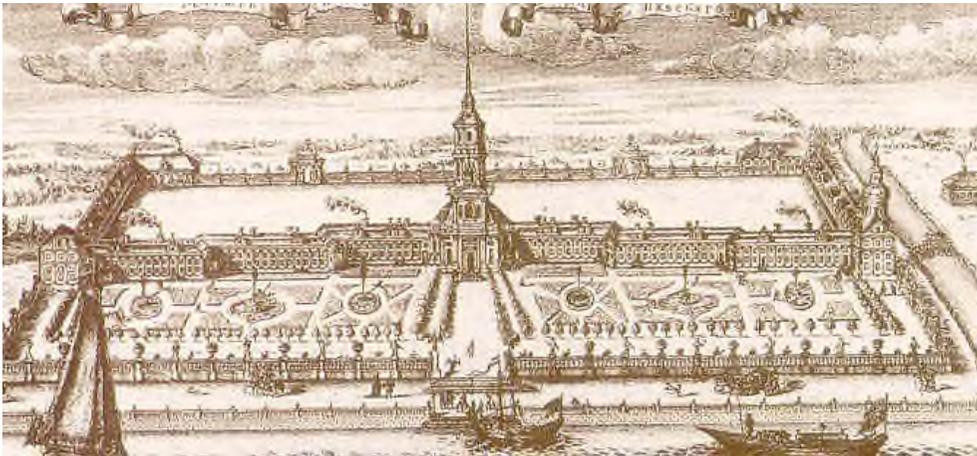
표트르는 북방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서 대대적인 행정개혁에 착수했다. 핵심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중앙 부처들을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표트르에게 페테르부르크는 중앙집권 러시아의 수도여야 했고, 새로운 정부 기구들이 이곳에 배치되어야 했다. 1713년에 표트르는 모스크바에 있던 차르 밑에 최고통치기구인 원로원을 최종적으로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⁹⁵⁾ 그리고 1718-1721년에 중앙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새롭게 12개 분야의 콜레기야(коллегия) 제도를 신설하여 외교, 전쟁, 군사 콜레기야를 먼저 페테르부르크에 배치하고, 나머지 분야의 콜레기야는 모스크바에 배치했다가 이후 하나씩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했다.⁹⁶⁾ 처음에 원로원과 콜레기야들은 고로드 섬의 트로이체 광장(Троицкая площадь)의 흙벽 건물에 위치했다.⁹⁷⁾ 원로원과 콜레기야는 모스크바 시

94) Ю. М. Овсянников, *Великий зодчи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етербург, 1996), pp. 326-327 참고.

95)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p.46.

96)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p.39.

대에는 없던 새로운 국가 조직이었다. 이전에는 콜레기야 대신 수많은 프리카즈(приказ)가 있어 국가행정 업무를 담당했는데, 담당 업무도 명확하지 않았고, 조직도 체계적이지 못했다. 콜레기야는 외교, 전쟁, 재정 등 역할 분담이 비교적 뚜렷했고, 해당 분야에서 러시아 지방까지 관장하는 중앙집권기구였다.⁹⁸⁾ 물론 한꺼번에 모스크바에 있는 국가 업무를 모두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변방의 늪지대였던 페테르부르크는 조금씩 러시아 제국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갔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행정 기구가 계속해서 흠벽 건물에 위치할 수는 없었다. 1722년에 원로원, 콜레기야, 신성종무원 등의 국가 부처가 들어 설 정부종합청사인 ‘12콜레기야’ 건축이 해군성 강 건너편의 바실리섬에서 시작되었다. 건축은 이탈리아 장인 도미니코 트레치니와 독일 건축가 레오나르드 슈베르트페거(Leonard Theodor Schwertfeger)가 담당했다. 그러나 공사가 길어져서 1732년이 되어서야 실제로 콜레기야가 건물에 입주하게 되었고, 주요 공사는 1730년대 중반에야 마무리되었고, 이후에도 증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 시기에 ‘12콜레기야’ 건너편 해군성 인근에 원래 멘시코프의 건물이었던 곳을 대규모 증축하여 오늘날의 원로원과 신성종무원 건물이 들어섰다.



〈그림 2-5〉 알렉산드르-네프스키 수도원 (18세기 초 작품)

페테르부르크가 서구를 향해 열린 창이었지만, 러시아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에 걸맞은 종교적 위상을 갖추어야 했다. 과거에 모스크바 대공들 역시 모스크바를 루시 세계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종교적 위상을 부여하려 많은 애를 썼다. 14세기에 새

97) М. А. Чельцов-Бебутов, *Курс советского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права* (Москва, 1995).

98) Б. Г. Слицан и В. И. Лебедев, “Управление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осквы*. Т. 2.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I в. (Москва, 1953), p.127.

롭게 부상하고 있던 모스크바 국가는 1326년 러시아 교회의 수장인 표트르 수좌대주교의 시신을 모스크바에 모셨다. 이후에 1328년에는 새로운 수좌대주교 페오그노스트(Феогност)를 모스크바에 정착하도록 하여 전 러시아의 중심지로서 모스크바의 위상을 높였다.⁹⁹⁾ 그러나 러시아 변방의 늪지대에 이제 막 건설된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떤 종교적 위상을 찾기는 힘들었다. 표트르는 일찍부터 자신의 도시 페테르부르크의 정교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표트르는 노브고로드 대공 알렉산드르 네프스키(Александр Невский)에 주목했다. 알렉산드르는 1240년에 네바 강을 통해 러시아로 침입하던 스웨덴인들을 격파하여 러시아를 수호하는 상징으로 남았고 나중에는 정교회에 의해 시성되었던 중요한 인물이었다. 표트르는 1710년에 알렉산드르 대공이 스웨덴을 격파했던 장소 인근에 수도원의 기초 공사를 명령했고, 1713년에 목조로 된 수태고지 성당을 건축했다. 그리고 1723년에 5월29일에 표트르는 블라디미르에 있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의 유해를 새로 건설된 수도원으로 옮길 것을 명했다. 이후 1724년 5월 말에 표트르는 자신이 직접 주관하여 알렉산드르 유해를 수도원에 모셨고 그를 새 수도의 수호성인으로 공표했다.¹⁰⁰⁾ 한편 표트르는 표트르-파벨 요새 안의 표트르-파벨 교회의 종탑을 높게 만들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표트르는 요새 건설을 시작한 다음 달인 6월29일에 목조로 표트르-파벨 교회의 건축을 시작했고, 다음 해인 4월1일에 교회의 헌당식이 열렸다. 이후 표트르-파벨 교회는 1714년 5월30일에 석조 건물로 재건축에 들어갔다. 건축가는 이탈리아의 명장 트레치니가 맡았고 석조 교회는 1720년에 완공되었다. 표트르는 표트르-파벨 교회의 종탑을 모스크바의 상징인 이반 대제의 종탑보다 32미터 더 높은 112미터로 높게 만들게 하여 페테르부르크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네바 강 연안의 신도시가 조금씩 종교적 위상을 갖추었다.

페테르부르크가 제2의 암스테르담이 되기 위해서는 항구, 세관, 창고, 거래소 등 다양한 제반 시설이 필요했다. 이러한 시설들은 페테르부르크를 여타의 러시아 도시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다. 도시 건설 초기에 페테르부르크 여러 곳에 선착장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서 표트르-파벨 요새 옆에 위치한 트로이체 광장 인근에 세워진 항구가 가장 중요했다.¹⁰¹⁾ 그러나 좀 더 바다 선착장이 좀 더 바다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네바 강이 소 네바와 대 네바로 분기하는 지점에 위치한 ‘바실리 섬의 스트렐카(Стрелка Васильевского острова)’에 항구를 건설했다. 바실리 섬의 항구는 곧 페테르부르크의 주요 무역항으로 자리 잡았다. 바실리 항구로 수많은 외국 선박들이 드나들었고, 강변에는

99) 니콜라이 라자놉스키, 조호연 역, 『러시아의 역사』 상, 까치, 2012, 148-149쪽.

100) 방일권, 『페테르부르크의 발전과 도시 건축』, 86쪽.

101) А. Е. Сукнова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p.82.

창고들이 늘어지면서 페테르부르크는 점차 유럽의 대항구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¹⁰²⁾ 한편 페테르부르크 세관 역시 도시 건설의 시작과 함께 트로이체 광장에 마련되어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징수했다. 이후 1713년부터 국내 세관과 항구 세관이 분리되어 1720년에 이르러 세관 조직이 완성되었다. 한편 항구가 바실리 섬으로 옮겨가면서 세관 역시 그리로 이전해야 했다. 이 때 국내 세관과 항구 세관은 다시 합쳐져서 1733년에 단일 세관이 바실리 섬에 설립되었다.¹⁰³⁾ 한편 페테르부르크의 대외무역이 자리 잡으면서 서유럽에서도 무역이 발전한 도시에만 있는 거래소가 생겨났다. 페테르부르크 거래소는 1713년에 트로이체 광장에서 상점 상인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724년에 트로이체 광장에 석조 비르자 건물이 완성되었고, 항구 세관이 바실리 섬으로 이전하면서 바실리 섬의 고스티니 드보르로, 그리고 다시 항구 세관으로 이전했다. 마침내 1755년에 세관 건물에서 분리되어 세관 맞은편에 석조 비르자 건물이 완성되었다.¹⁰⁴⁾

제4절 페테르부르크 건설의 의미

페테르부르크는 군사도시, 행정중심지, 문화중심지, 대서구 무역항, 북방의 베니스 등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자면 러시아 서구화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표트르는 결국 서구화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정치·경제·문화적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첨병 도시가 페테르부르크였다. 그래서 1739년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던 이탈리아인 프란체스코 알가로티(Francesco Algarotti) 백작은 페테르부르크에 대해 “이 신도시는 최근에 러시아가 유럽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북쪽으로 열린 거대한 창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러시아의 대문호 푸슈킨이 <청동기사> (1833)에서 페테르부르크를 “유럽을 향해 난 러시아의 창”이라고 언급해¹⁰⁵⁾ 대중들의 기억 깊숙이 자리 잡았다. 물론 페테르부르크가 보여준 서구 문화는 이미 표트르 이전부터 모스크바 국가에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표트르가 없었더라도 러시아는 조금씩 서구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표트르가 아니었다면 페테르부르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러시아의 서구화는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먼저 군사적 측면을 보면 페테르부르크의 등장으로 더 이상 스웨덴이 네바 강을 통해

102) И. И. Любименко, “Торговля в Петербурге,” А. В. Предт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p.85.

103) А. Е. Сукнова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p.90.

104) А. Г. Тимофеев, *История С.-Петербургской Биржи* (Петербург, 1903), pp.5-7, 37-39.

105) 제임스 크라크라프트, 이주엽 옮김, 『표트르 대제』, 살림, 2008, 222-223쪽.

러시아로 침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이후 18세기 동안 유럽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공국은 전통적인 대륙 국가였고, 초원 전투에 익숙했으나, 페테르부르크 건설 이후에 러시아는 발트함대를 보유한 해상 국가가 되었다. 해군성은 주로 전함을 생산했으나, 밧줄, 범포, 철강 등 선박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연결된 산업복합체로 성장했다.¹⁰⁶⁾ 해군성의 건설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조선업 중심지가 되어, 포트르시기에 생산된 러시아 전함 895척 가운데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262척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생산되었다.¹⁰⁷⁾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최대의 조선업 중심지가 되었고, 9개의 크고 작은 조선소가 가동하고 있었다.¹⁰⁸⁾ 한편 페테르부르크를 통해 더 많은 서양의 화기와 군사 기술자들이 들어와 러시아 지상군 역시 유럽의 근대적 보병전투에 익숙하게 되었다. 1717년에 페테르부르크에 해양 아카데미가 설립되었고, 1719년에는 공병학교, 1721년에는 포병학교가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편되었다.¹⁰⁹⁾ 이후 1732년에는 술랴흐타 육군사관학교(Сухопутный шляхетский кадетский корпус)가 설립되어 순수한 귀족학교로서 러시아 장교들을 육성했다.¹¹⁰⁾ 페테르부르크의 군수산업도 발전하여 1710년대 초에 건설된 리테이니 드보르(Литейный двор)는 군수 매뉴팩처로 청동 대포나 탄약 등 군수품을 생산했다.¹¹¹⁾ 이후 1720년대 초에 건설된 세스트로레츠키 공장은 총검류의 무기를 생산했고,¹¹²⁾ 1789년에 건설된 국영 주물공장에서도 여러 종류의 포탄을 생산하고, 1790년부터는 대포를 주조했다.¹¹³⁾ 페테르부르크는 유럽의 첨단 무기들을 도입·생산하여 러시아 군사력의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페테르부르크 건설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했다. 포트르는 자신의 개혁에 반대하는 구 귀족들과 정교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모스크바를 벗어나 페테르부르크에서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선언했다. 어쩌면 네바 강 연안의 소택지는 아무것도 없다시피 했던 불모지였기 때문에 포트르의 이상을 맘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포트르는 이곳에서 강력한 전제군주가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했다.

106) А. Е. Сукнова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p.55.

107) Ф. Ф. Веселаго, *Очерк русской морской истории*. Ч.1 (Петербург, 1875), p.505.

108) В. И. Мака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60–9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255.

109) В. Н. Бернадский и И. И. Любименко, “Просвещение и наука,”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 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pp.210, 212.

110) ПСЗ Т. 8. № 5811.

111) И. И. Любименко и Р. М. Тонкова,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Ленинград, 1948), p.118.

112) А. Е. Сукновал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pp.66–67.

113) В. И. Мака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pp.260.

1721년에 북방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념한 축하행사에서 원로원과 신성종무원(Синод)은 표트르에게 ‘조국의 아버지’, ‘전 러시아의 황제’라는 칭호를 바쳤다. 우스펜스키에 의하면 차르나 황제나 같은 의미이지만, 문화적 차이가 있었는데 차르가 동로마적인 칭호라면 황제는 서로마적인 표현이다. 즉 표트르의 개혁과 전쟁의 승리로 러시아의 차르는 이제 동방의 차르가 아닌 서구적인 의미의 황제가 된 것이다.¹¹⁴⁾ 그동안 러시아 차르의 황제 칭호를 인정하지 않았던 바티칸도 러시아의 차르를 임페라토르로 인정했다.¹¹⁵⁾



〈그림 2-6〉 네바 강의 풍경 (1727년 작품)

이제 러시아 차르국은 명실상부하게 유럽이 인정하는 러시아 제국이 되었고, 페테르부르크는 제국의 수도로서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다. 표트르 사후에 손자인 표트르 2세가 차르가 되면서 러시아의 정부가 잠깐 모스크바로 되돌아간 적이 있었지만, 곧바로 다시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다. 이후 소비에트 혁명이 나고 1918년에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를 천도하기까지 페테르부르크는 300년 가까이 러시아 제국의 수도로 군림했다. 페테르부르크 궁정의 차르가 전제권력을 행사했고, 도시의 정부종합청사인 12콜레기야와 원로원 건물에서 차르가 임명한 원로원들과 12콜레기야의 장들 및 해당 관리들이 러시아 전역을

114) Б. А. Успенский, *Царь и император: Помазание на царство и семантика монарших титулов* (Москва, 2000), p.48.

115) А. И. Филюшкин, *Титулы русских государей*, p.76.

관할했다. 그리고 1802년에 콜레기야는 부처(ministry)로 개편되어 한층 더 체계적인 중앙행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¹¹⁶⁾

경제적 측면에서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유럽세계경제에 편입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바다와 가까운 항구, 그 인근에 상품 창고들, 석조 세관, 비르자(상품 거래소) 등 페테르부르크는 대외무역을 수행하기에 유럽의 어느 항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었다. 유럽 여러 나라들과 러시아 다른 도시들에서 모여든 선원들과 상인들 그리고 부두에서 짐을 실고 내리는 인부들의 분주한 모습은 페테르부르크의 일상이 되었다.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최대의 대외무역항으로 대서구 무역을 전담했고, 이러한 교역을 통해 단지 상품뿐 아니라 서구의 상인, 자본, 기술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북방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테르부르크의 대외무역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703년에 네덜란드 배 한 척이 입항해서 화제가 되었던 초라한 항구에 1722년에는 119척이 입항하여 마침내 북해에 면한 아르한겔스크 항구를 능가했다. 표트르 치세 마지막 해인 1725년에는 페테르부르크에 236척의 선박이 들어와 19척에 불과한 아르한겔스크보다 12배 이상 많았다.¹¹⁷⁾ 선박 수뿐만 아니라 무역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여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전체 대외교역량의 60퍼센트를 차지했다. 페테르부르크를 통해 러시아 수출 상품의 60퍼센트 가까이가 수출되었고, 수입 상품의 65퍼센트가 수입되었다.¹¹⁸⁾

서유럽 상인들과의 거래에서 페테르부르크 비르자(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ая бирж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르자는 1724년에 독자적인 석조건물을 마련했는데,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보다도 빨랐다. 파리에 1724년, 빈에는 1771년, 베를린에는 1805년에야 비르자 건물이 들어섰다.¹¹⁹⁾ 페테르부르크 비르자를 통해서 주로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곳에서 매주 2회씩 상품 가격 리스트가 발행되어, 상인들은 러시아 수출품과 유럽의 수입품들 가격 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거래소를 통해 러시아는 유럽 금융 체계에 편입되어 러시아 화폐와 유럽의 주요 화폐들 사이의 환율이 결정되었다.¹²⁰⁾ 러시아는 이러한 대서구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여 그 차액이 은화의 형태로 러시아로 수입되었고, 이러한 국제화폐의 유입은 러시아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했다. 이제 러시아

116) Н. П. Ерошкин,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1968), p.163.

117) Н. Н. Репи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pp.505, 522.

118) J. B. Park, "Russian Exports to Western Europe with Special Focus on Trade with Great Britain (1761-1800)," *Western History Essay of Kansai University*. Vol.7 (2004), pp.24-40.

119) И. И. Любименко, "Торговля в Петербурге," p.85.

120) *ПСЗ*. Т.7. № 4293

는 서유럽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유럽의 경기 변동은 러시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러시아의 생산 경기 역시 유럽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 문화를 도입하여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페테르부르크는 서유럽 건축 양식의 전시장이었다. 모스크바가 나무로 만들어진 도시였다면, 페테르부르크는 돌로 만들어진 도시였고, 네프스키 대로는 다양한 서유럽 건축 양식의 건물들이 아름답게 늘어섰다. 오늘날의 네프스키 대로와 인근 도로 변에는 표트르 초기의 초기 바로크, 18세기 중후반의 후기 바로크, 19세기 초의 고전 양식, 19세기 중엽의 절충양식, 또는 19세기 말의 모던 양식 등 다양한 건물들의 역사를 보여준다.¹²¹⁾ 이러한 새로운 건물들은 석조로 건설되었고, 이는 러시아의 전통 목조 양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문화였다. 이러한 페테르부르크의 건축 양식은 점차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고, 특히 1762년 귀족해방령 이후 자신의 농촌 영지에 정착하게 된 러시아 귀족들은 페테르부르크를 모방하여 자신의 영지 저택을 짓곤 했다.



〈그림 2-7〉 표트르 시기 아삼블레야 풍경 (20세기 초 작품)

한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건물뿐 아니라 사람들도 서구화되었다. 아무래도 러시아 제국의 궁정의 모습은 이제 서구식으로 변모했고, 귀족들은 이러한 궁정문화를 열정적으로 추종했다. 페테르부르크 항구로 수입된 서유럽의 가구, 보석, 그릇, 의복, 고급 술 등의 사치품과 설탕, 커피, 담배, 열대과일, 향신료 등 식민지 상품들이 즐비한 연회문화가

121) В. А. Витязева, Б. М. Кириков, *Ленинград*, p.61-75 참고.

페테르부르크 상류층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표트르가 1718년 11월26일 칙령을 통해 시행된 유럽식 사교모임 아삼블레야(ассамблея)는 러시아 상류층의 생활을 상당 정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귀족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어, 고위 관등부터 위관급 장교까지 그리고 이름 있는 상인들이나 장인들 그리고 관리들 모두 참여할 수 있었다. 더욱이 표트르의 칙령은 여성들도 남자들과 똑 같이 아삼블레야에 참여할 것을 규정하여 러시아 생활문화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¹²²⁾ 당대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 아삼블레야는 서로 대화도 없는 어색한 모습이었지만,¹²³⁾ 점차 시간이 가면서 귀족들의 사교 파티로 자리를 잡아갔다. 아삼블레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복장은 러시아 전통 양식이 아닌 서유럽의 유행을 그대로 쫓아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화려한 서유럽 의상을 흉내 내었다. 그리고 복잡한 예법들도 만들어졌다.¹²⁴⁾ 이제 전통적으로 테렘(Терем)이라 부르는 제한적 공간에서 생활했던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사교모임에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었다.



〈그림 2-8〉 원로대신의 수염을 깎는 표트르 대제 (18세기 초 작품)

122) ПСЗ. Т.5. № 3246.

123) Дневник камер-юнкера Берхгольца, веденный им в России в царствовани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с 1721-го по 1725 год. Ч.2 (Москва, 1858), p.102.

124)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Население и быт Петербурга,"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ред.), *Петербург у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pp.146-147.

이렇게 페테르부르크는 포트르 대제가 생각했던 군사·정치·경제·사회·문화 개혁을 구현하는 공간이었고, 언급한 것처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포트르는 페테르부르크를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성과가 러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소망했다. 그러나 네바 강의 새로운 도시를 통해 구현하려 했던 그의 개혁은 그 실현 과정에서 상당 정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트르 대제의 급진적인 도시 건설과 강제적인 여러 조치들은 러시아 사회에 축적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포트르의 개혁은 당대인들에게 분명 지나친 측면이 있었고, 포트르는 현실적으로 타협하기보다는 장애를 제거하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다. 이렇게 포트르의 독선적인 방식과 강제적인 조치들 때문에 포트르의 개혁을 지지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 포트르의 측근 이외의 다수 러시아인들은 포트르의 개혁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자들은 포트르를 적그리스도라 불렀고, 페테르부르크는 모든 이단과 불결함이 가득한 적그리스도의 도시였다. 이러한 적대적인 정서는 급격히 유입되는 서구 문화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사실 포트르의 개혁과 페테르부르크 건설이 러시아 대중들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네바 강의 늪지대에 요새, 무역항, 제국의 수도를 건설하는 일에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필요했다. 도시의 초기 주민은 원주민, 군인, 기술자, 부역 농민 등이었다. 특히 도시 건설을 위해 러시아 각 지역에서 징발한 농민들이 도시 인구의 주를 이루었다. 1703-1725년 동안에 해마다 1만에서 3만 명의 노동자가 동원되어 2개월간의 부역을 했다. 1721년에 페테르부르크에 와서 4년 반을 머문 독일 귀족 베르크홀츠(Friederich Wilhelm von Bergholtz)가 남긴 기록을 보면 농민들의 처참함을 알 수 있다. 그는 도시 건설 초기에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언급한다. 다른 외국인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데 소문에 따르면 공사 시작 후 첫 7년간 6만 명, 8년까지는 10만 명, 10년간은 30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소 과장된 것이 분명하지만, 많은 농민들이 도시 건설에 동원되었고, 힘겨운 노동으로 적지 않은 수가 사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역사가 제임스 크라크라프트에 따르면 의학의 진보가 이루어진 20세기 이전에는 세계 어디에서고 네바 강 연안 같은 황량하고 미개척상태의 부지에 대규모 건설이 진행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¹²⁵⁾ 포트르시기에 농민 대중들의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징집된 농민 병사들의 평균 신장이 줄어든 것에서 나타난다. 러시아 경제사가 B. N. 미로노프의 계산에 따르면 농민 병사들의 평균 신장은 18세기 초에 164.4센티미터였는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계속 하락하여 1720년대에는 163센티미터까지 줄었고, 포트르 시대 이

125) 제임스 크라크라프트, 이주엽 옮김, 『포트르 대제』, 216-218쪽.

후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¹²⁶⁾ 표트르시기에 계속되는 전쟁과 증가하는 세금으로 농민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했고, 이는 평균 신장의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페테르부르크가 무역도시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많은 상인들의 활동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인과 장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도시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고, 상업적 전망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신의 거래처를 버리고 무작정 페테르부르크로 이주할 수는 없었다. 표트르는 특유의 과감성을 가지고 러시아 상인들을 페테르부르크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다. 1710년에 모스크바와 다른 러시아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들을 페테르부르크로 이주시키도록 명했고, 1712년, 1714년에도 칙령들을 발표하여 상인들의 강제 이주를 명했다.¹²⁷⁾ 물론 이는 엄청난 반발을 가져왔고, 그 시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으나, 1716년 여름까지 예정된 상인 300명 가운데 186명이 페테르부르크로 이주했다.¹²⁸⁾ 그리고 다시 1717년에도 표트르는 러시아 각 지역에서 부유한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을 페테르부르크로 이주시키라는 칙령을 내렸다.¹²⁹⁾

한편 표트르의 과도한 세금 정책 역시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표트르는 북방전쟁과 페테르부르크 건설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통해 세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세금 규모가 과도해지면서 주민들의 반감이 너무 커지자 소금, 담배 등 수익성 있는 상품들에 대한 국가 독점을 실시했다. 나아가 1714년에는 가죽, 대마, 역청, 포타쉬, 삼씨 등의 상품 수출을 국가 독점으로 정했다.¹³⁰⁾ 이러한 국가 독점 정책과 강제 이주 정책, 무역로 이동 정책 등 표트르가 페테르부르크를 제2의 암스테르담으로 만들기 위해 펼친 많은 조치들은 러시아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는 결국 표트르시기에 러시아 상인들의 몰락으로 나타났다. N. I. 파블렌코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1715년경에 많은 러시아 대상인들이 사업을 중단했고, 표트르 정부 역시 이러한 러시아 부르주아의 쇠퇴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표트르 통치 말기에 상인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러시아 상인들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¹³¹⁾ 이렇게 17세기에 번성했던 러시아 상인들의 많은 수가 표트르시기에 몰락했고, 러시아에서 부르주아의 성장할 싹은 꺾였다.

126) Б. Н. Миронов, “Время величия. Военные победы и уровень жизнь россиян в XVIII столетии,” *Родина* (сентября 2001), p.33.

127) *ПСЗ*. Т.4. № 2593; *ПСЗ*. Т.5. № 2788

128) Н. В. Киреев, М. П. Вяткин,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2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7), p.81.

129) *ПСЗ*. Т.5. № 3118.

130) Н. И. Павленк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VIII в.,” *История СССР*. № 3 (1978), p.59.

131) Н. И. Павленко,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pp.64—65.

표트르의 개혁으로 페테르부르크는 확실히 서구화되었다. 그러나 페테르부르크의 서구화가 러시아의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러시아 전체로 볼 때 페테르부르크는 20세기 초까지도 여전히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귀족들은 서구화되었으나, 인구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여전히 서구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귀족들은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있는 영지를 경영했다. 귀족 가족들은 평상시에는 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다가 여름이 되면 영지에 있는 별장에 놀러갔다. 영지의 별장은 페테르부르크의 저택을 본 떠 만들었고, 그들의 서구적인 취향도 이렇게 러시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¹³²⁾ 그러나 어디까지 이는 귀족들에게 국한된 현상이었다. 이러한 서구화 과정에서 19세기가 되면 귀족들은 심지어 러시아어 보다는 프랑스어를 더 잘했고, 자신들끼리는 불어로 소통하곤 했다. 강력한 러시아 문화의 옹호자였던 다쉬코바 공녀는 “불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나의 러시아어 실력은 형편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¹³³⁾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귀족과 농민 사이에는 상호 간의 소통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도 그럴 것이 농민들은 귀족들이 쓰는 불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귀족들 역시 농민들의 소박한 러시아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체호프의 단편 소설 <죄인(Злоумышленник)>에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는 인상적이다. 철도가 들어서자 농민들이 철로의 나사를 빼가곤 했는데, 이반 아킨포프(Иван Акинфов)라는 농민이 철로의 리벳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반 아킨포프는 법관의 추궁에도 자신의 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는 오히려 기차가 다니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볼트나사가 남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한다.¹³⁴⁾ 농민들은 19세기 말에도 서구화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관습법으로 살아갔던 것이다. 그들에게 공동으로 쓰는 삼림을 혼자 모두 벌채하는 것은 죄이지만, 자신이 쓸 만큼만 가져가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서구화의 상징 페테르부르크가 소수의 서구화된 귀족과 대다수 농민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조차 힘들게 만든 러시아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기여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132) Л. Н. Чижикова, О. Р. Будина, “Жилая, хозяйственн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застройка,” *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7), p.285 참고.

133) 올렌도 파이지스, 채계병 옮김, 『나타샤 댄스』, 이카루스미디어, 2005, 108쪽.

134) А. Чехов, “Злоумышленник,”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4. 1885–1886* (Москва, 1984).

제5절 맺음말

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라는 한 걸출한 개인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왕도였다. 표트르 개혁의 응집체라 할 수 있는 페테르부르크는 이후 러시아 국가의 위대한 영광과 함께 화려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페테르부르크는 정치·경제·군사·문화 모든 면에서 서구화하는 러시아 제국의 방향성을 확고히 대변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수한 농민, 상인, 변화에 뒤쳐진 일부 귀족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페테르부르크의 서구화는 러시아 귀족들만의 서구화였고, 러시아 국가는 귀족들의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러시아 대중들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귀족들과 농민들은 같은 정교도인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같은 러시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정도로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다.

아마도 표트르는 나뉠의 변명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른다. 당시 러시아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며, 자기가 해 놓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도 표트르의 개혁은 필요했고, 페테르부르크의 건설도 그렇다. 그러나 표트르의 개혁과 페테르부르크 건설은 너무나 급진적이었고, 강압적이어서 도저히 러시아 주민들이 멀리서나마 따라가기 어려웠다. 귀족들만이 겨우 그 추세를 따라갈 수 있었고, 결국 그들만의 국가와 그들만의 수도를 만들었다. 만일 표트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다면, 조금만 더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충분히 반추해 볼만 한 일이다. 실제로 강제로 무역로를 변경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했을 것이며, 러시아 상인들이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표트르의 페테르부르크 건설이 러시아 국가의 위상과 귀족들의 일상생활을 바꾸었는지는 몰라도, 러시아 대중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3장

청제국 북방의 정치중심지 승덕

이 훈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제1절 머리말

제2절 승덕 피서산장의 설립 목적과 배경

1. 만주족의 전투력 유지
2. 몽고 지배의 근거지

제3절 피서산장과 정치중심지 승덕

제4절 건륭기 승덕의 발전 -외팔묘와 도시의 형성

제5절 맺음말

제3장 청제국 북방의 정치중심지 승덕

제1절 머리말

1703년(강희42) 9월 4일, 강희제는 북경으로부터 장성 너머 북쪽 몽골 카라친부(部)의 영역인 ‘하룬 골(qalayun gool)’에 행궁을 건설할 것을 명했다. 하룬 골은 몽골어로 ‘뜨거운 강’이라는 뜻이다. 이곳은 겨울에도 얼지 않을 정도로 미지근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몽골인에게 그렇게 불렸고 한어로는 러허[熱河] 즉 열하라고 번역되어 불리고 있었다. 5년간의 공사 끝에 1708년(강희47)에 열하행궁(熱河行宮) 즉 피서산장(避暑山莊)이 완공되었다. 이후 열하는 승덕(承德)이라고도 불리며 황제의 북순 활동에서 더 북쪽에 위치한 황실 수렵장인 무란위장[木蘭圍場, muran hoihan]과 하나의 연계된 활동공간으로 결합되었다. 강희제는 열하행궁이 완공된 후 매년 여름마다 북경과 승덕과 무란위장을 오가는 북순을 시행했다. 북순은 강희제가 사망한 후 옹정제(1722-1735) 시기 동안 중지되었다가, 건륭제에 의해 재개되었다. 건륭제는 60년의 재위기(1735-1795) 동안 40년의 여름을 승덕과 무란위장에서 보냈다. 그의 계승자인 가경제 역시 25년간의 재위기 동안 12번을 북순했다. 승덕은 ‘피서산장’이라는 행궁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단순히 청의 황제가 피서를 즐기기 위해 여름철에 찾는 곳이 아니었다. 몽골을 비롯한 내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의 교류가 승덕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란위장에서 몽골인들과 함께 대규모의 물이사냥을 진행한 후에 화합의 연회를 베푸는 곳도 승덕이었다. 승덕은 내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한 청제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였다.

청조에 있어 승덕이 이처럼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이 그에 대해 연구해왔다.¹³⁵⁾ 1983년에 승덕에서 개최된 피서산장 건립 28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청사학자인 대일(戴逸)이 ‘피서산장학(避暑山莊學)’을 수립할 것을 제창했을 정도로 승덕과 피서산장에 대한 연구는 주제의 폭이 광범위하다. 학제를 기준으로 보면 승덕에 대한 연구는 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피서산장의 건물과 조경 그리고 피서산장의 주위에 분포한 불교사찰 등 종교시설의 공간적 배치와 건축양식에 집중하는 건축학적 연구이다.¹³⁶⁾ 둘째는 무란위장과 피서산장이 건립되고 승덕이 청의 정치중심지로 기능하는 역사적 과정에 집중하는 역사학적 연구이다.¹³⁷⁾ 셋째는 황제 등이 승

135) 피서산장에 대해 2007년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아래 연구사정리 글에서 소개하고 있다. 王穎, 「二十年避暑山莊研究綜述」, 『承德民族師專學報』 27권, 2007年 第3期 (2007).

136) 天津大學建築系, 承德市文物局 編著, 『承德古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2).

덕에 대해 노래한 시문들을 분석하는 문학적 연구이다.¹³⁸⁾ 물론 세 분야는 단일한 연구에서도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며, 때로는 기획된 연구회나 학술대회를 통해 세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업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¹³⁹⁾

승덕에 대한 근래의 주목되는 연구는 구미에서 진행되었다. 이른바 ‘신청사’(New Qing History) 학파로 불리는 일군의 연구자들은 청을 중원 왕조만이 아닌 내륙아시아의 전통 선상에 위치한 왕조로 파악하고, 승덕을 청의 내륙아시아 지배가 이루어진 핵심 공간으로 보고 있다.¹⁴⁰⁾ 필립 포레(Philippe Forêt)와 닝차(Ning Chia)는 승덕이 공식적으로 수도로 불리지는 않았지만 청제국의 ‘제3의 수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¹⁴¹⁾ 청의 공식적 수도는 북경과 성경(심양)이었지만, 승덕은 이 두 도시에 준하는 비공식적 수도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블린 로스키(Evelyn S. Rawski)도 “북경이 제1의 수도였고 성경(盛京)이 상징적인 수도였다면, 승덕은 상징적인 동시에 실용적인 이유에서 여류 수도였다”고 언급했다.¹⁴²⁾ 승덕을 ‘수도’라고 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승덕이 청제국의 내륙아시아 지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임계순은 승덕을 청의 ‘제2의 정치중심’이라고 표현했다.¹⁴³⁾

이 논문은 강희기 승덕에 피서산장이 건립된 배경부터 청의 극성기인 건륭기에 사원들이 건립되어 승덕의 행궁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승덕의 기능 및 상징성을 청제국의 내륙아시아 지배와 관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피서산장을 설립한 목적이 수

137) 半憂, 「外八廟與清代政治」, 『山莊文化』(承德大學, 1996); 劉玉文, 「避暑山莊初建時間及相關史事考」, 『故宮博物院院刊』第4期(2003); 李海泉, 「中國河北省承德市における寺・廟の建設意圖の分析」, 『やまぐち地域社会研究』(2014); 浦廉一, 「清朝の木蘭行圍に就て」, 『山下先生還曆記念東洋史論文集』(六盟館, 1938); 畢梅雪, 侯錦郎(Michele Pirazzoli), 『木蘭圖—與乾隆秋季大獵之研究—』(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2); 羅運治, 『清代木蘭圍場的探討』(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Mark C. Elliott, Ning Chia, *The Qing Hunt at Mulan,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it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pp.66-83.

138) 別廷峰, 「乾隆御製《避暑山莊詩後序》注譯」, 『承德民族師專學報』, 3期(1985).

139) 承德避暑山莊研究會編, 『避暑山莊論叢』(北京: 紫禁城出版社, 1986).

140)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it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urzon, 2004).

141) Philippe Forêt, *Making an Imperial Landscape in Chengde, Jehol: The Manchu Landscape Enterprise* (University of Chicago, 1992);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 (1644-1795)*, *Late Imperial China* 14, no.1 (1993), pp. 60-92.

142) 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구병진 번역, 『최후의 황제들 -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41쪽)

143) 임계순, 「18세기 창조 제2의 정치중심지, 승덕 피서산장」, 『명청사연구』 21집, 2004.

립을 통해 만주족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과 몽고에 대한 지배의 근거지를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수렵과 몽고 지배가 청을 세운 만주족과 그들의 조상인 여진에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3절에서는 피서산장을 건립한 과정과 승덕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리고 청의 황제의 복순에 대해 논할 것이다. 4절에서는 주로 건륭기에 건립되어 외팔묘라고 불린 승덕의 불교사찰의 건립계기와 상징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승덕의 사원들의 건립에 청의 준가르 제국과의 길항과 그 정복사가 투영된 과정과 그것이 승덕을 제국의 북방 지배체제의 중심으로 만든 결과에 대해 논할 것이다.

승덕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되어온 사료는 『흠정열하지(欽定熱河志)』나 『청실록(淸實錄)』과 같은 관찬 한문 사료, 황제들이 지은 시문, 청의 문인들이 남긴 수필류(筆記)에 삽입된 관련 기록,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와 같은 청과 조선인의 기행문 등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에 활용되어온 사료와 함께 그간 학계에 소개만 되고 활용되지 않은 만문 자료인 『že ho i dorgi babe kadalame jung gurun i ba tatara gurun ni seremšeme tehe daci tetele isibume ejehe arahabi,,』(이하 중문제목 『열하내속중국급행궁주방시말기(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로 인용)를 활용할 것이다. “열하 안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의 땅과 행궁을 주방(駐防)한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했다”고 번역되는 긴 제목의 이 자료는 열하행궁의 건립과 주둔군 배치에 대해 12쪽으로 간단히 기록했지만, 다른 사료에서 찾기 어려운 기록이 남아있다.¹⁴⁴⁾

제2절 승덕 피서산장의 설립 목적과 배경

강희제가 1703년(강희42)에 승덕에 피서산장을 설립한 목적과 그 기능을 『열하내속중국급행궁주방시말기(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황상(皇上)은 해마다 순행하여 고북구(古北口) 변경을 나가서 곧 이 길로 갔다 돌아왔다. 피서산장(避暑山莊)에서 머물다가 여기에서 무란으로 들어가서 물이사냥을 하는데, 첫째 兵馬를 훈련시키고, 둘째 몽고인과 친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성조인황제(聖祖仁皇帝)(강희제)가 변경 밖으로 순행하여 무란에 들어가 물이 사냥한 뜻이다.¹⁴⁵⁾

144) že ho i dorgi babe kadalame jung gurun i ba tatara gurun ni seremšeme tehe daci tetele isibume ejehe arahabi.(『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저자 미상, 道光1年)의 만문을 로마자 전사하고 중문 번역을 기입하여 학계에 소개한 글은 아래와 같다. 許富翔,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校注, 『東吳歷史學報』, 第28期 (2012), pp.207-269.

145) “ejen aniyadari enggelejire(enggelenjire) de moltosi jase ci tucibufi, uthai ere jugun



〈그림 3-1〉 승덕과 무란위장의 위치

다시 말해 피서산장을 설립한 첫째 목적은 무란위장과 연계하여 수렵을 통해 팔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둘째 목적은 여러 몽고 부족들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무란위장에서의 수렵은 피서산장을 건설하기 22년 전인 강희제 초기 1681년(강희20)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피서산장의 건립은 무란위장 수렵을 더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시행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만드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피서산장을 설립한 후 매년 무란위장에 가서 수렵하는 것을 정례화했다.¹⁴⁶⁾ 그의 계승자인 옹정제 인젠(Injen, 胤禛)은 강희 말기에 방만해진 국정과 재정을 정돈하며 내치에 치중하느라 재위 13년 동안 피서산장과 무란위장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무란위장에서의 수렵이 황실과 만주팔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 “나의 후손들은 아버지 강희제를 본받아서 무란위장에서 무술을 연마하는 가법(家法)을 잊지 말라.”¹⁴⁷⁾ 건륭제는 6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49차례나 무란위장에서 수렵을 했다.

yabuci jihebi, halhūn be jailara gurung de tembi. ederi muran dosifi i abalambi, emude oci cooha morin be urebure, jai de oci monggosu(monggoso) i baru hūwaliyasun sain acabure jalin. ere serengge šengdzu gosin hūwangdi jasei tule enggelejire,(enggelenjire) muran dosifi abalara de gūnin kai.”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전사문의 괄호는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표기이다.

146) 임계순, 앞의 논문. 156쪽.

147) “後世子孫當遵皇考所行, 習武木蘭, 毋忘家法” 乾隆 「御制避暑山莊後序」(『皇朝通志』 卷35 「都邑略4·避暑山莊」)

둘째 목적, 즉 몽고 지배의 거점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건륭제가 시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주목된다. 건륭제는 어제시(御製詩)에서 할아버지인 강희제가 해외(塞外)에 피서산장을 건립한 목적이 유람하는 데 있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¹⁴⁸⁾ 그리고 자신이 피서산장에 가는 목적이 그의 할아버지인 강희제를 본받아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회유하고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¹⁴⁹⁾ 건륭제가 말한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란 대부분 몽고인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건륭제가 밝힌 피서산장의 설립 목적은 원방과 근지의 모든 몽고 부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안정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적 거점을 만드는 것이었다.

1. 만주족의 전투력 유지

만주족 혹은 그들의 전신인 여진은 전투력과 상무정신을 숭상했다. 10세기에 요나라를 세운 거란인은 그 시기의 여진인에 대해 “여진의 군대가 1만 명이 되면 대적할 수 없다”고 평했다.¹⁵⁰⁾ 여진인의 전투력은 강했고 따라서 여진 부족들의 통합은 주변 국가나 민족에게 두려운 일이었다. 주변 민족의 평가뿐만 아니라 여진인 자신들도 전투력과 불굴의 상무정신을 특히 한인(漢人)과 대비되는 자신의 특질로 인식했다. 1619년 청태조 누르하치가 해서여진의 최강 세력인 여허를 공격할 때, 여허의 수장인 긴타이시는 투항을 종용하는 누르하치에게 “우리는 한인(漢人)이 아니다. 너희와 같은 사나이다. 우리에게도 손이 있다. 너희에게 항복하느니 싸우다 죽겠다”¹⁵¹⁾고 말하며 투항을 거부했다. 여진의 후신인 만주족은 그들이 세운 국가인 청이 17세기를 거치며 대제국으로 팽창한 후에도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질로 국어(國語, *gurun i gisun*)인 만주어와 함께 전투력의 상징인 활쏘기(騎射, *niyamniyan*)를 강조했다.

여진인의 강력한 전투력은 수렵을 통해 배양되었다. 수렵은 생산의 한 방식이자 군사 훈련이었다. 부족시기 여진인의 생산은 지역에 따라 산업별 비중이 상이하지만, 대체로 농경과 수렵과 어로와 채집을 병행하는 혼합경제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렵이 중요했

148) “我皇祖建此山莊於塞外，非爲一己之豫游，蓋貽萬世之締構也” 乾隆 「避暑山莊百韻詩序」(別廷峰，「乾隆御製《〈避暑山莊百韻詩〉序》注譯」，『河北民族師範學院學報』，第3期 (1986)，pp.101-103.)

149) “夫居此山莊，日凜敬天法祖，勤政惠民，柔遠寧邇諸大端” 乾隆 「御制避暑山莊後序」(『皇朝通志』卷35 「都邑略4·避暑山莊」)

150) “遼人嘗言，女直兵若滿萬則不可敵。” 『金史』 「太祖本紀」 권2.

151) “be nikan waka, gese haha kai, mende inu gala bikai, sinde dahara anggala afame bucebidere” 『만주실록역주』 권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실록역주회, 소명출판, 2014. 230쪽.

다. 17세기 초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수립한 시기부터 점차 농경의 비중이 커져갔지만, 수렵은 여전히 여진인의 주요 산업이었다. 때로는 여성도 수렵에 참여했다. 1619년에 벌어진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의 포로가 되어 여진사회를 관찰하고 돌아온 조선인 이민환(李民奐)의 기록에 의하면, 후금의 여성은 채찍을 쥐고 말을 달리는 것이 남자와 다름없었고 조금이라도 짊이 나면 바로 남편을 따라 나가 사냥을 했다.¹⁵²⁾ 수렵을 통해 얻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는 의생활과 식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활 등의 병기에 익숙했고, 또한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었다.

부족시기에 여진인은 씨족마다 혹은 마을마다 10명 정도의 성인남성으로 조직된 니루(niru)라는 수렵조직을 운영했다.¹⁵³⁾ 니루는 ‘큰 화살’을 뜻하는 여진어이고, 화살은 여진인의 지휘권을 상징했다. 수렵 철이 되면 장정들이 모여서 수렵조직을 구성하고 유능한 자를 수장으로 선출한 후에, 지휘권을 일임한다는 의미로 각자의 화살 한 개씩을 수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수렵조직을 니루라고 칭했다. 니루의 수장은 ‘니루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니루이 어전(nirui ejen)’이라고 불렸다. 수렵이 끝나면 니루는 해체되었다.¹⁵⁴⁾ 1601년 누르하치는 팔기제를 만들면서 임시성 수렵 조직인 니루를 300명 장정으로 구성되는 상설적인 군대조직이자 사회조직으로 확대하여 팔기의 기층단위로 조직했다. 팔기는 군대조직이자 사회조직이었고 신설된 후금이라는 국가 그 자체였다. 그러므로 팔기의 기층 단위인 니루가 수렵조직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은 부족시기 여진의 수렵 전통이 신설된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계승되었음을 암시한다.

수렵의 규모는 1616년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國)이 건국된 후에 더욱 커져갔다. 국가를 수립한 후에도 수렵은 산업의 일부로서 중요했고, 군사훈련의 방식으로서도 중요했으며, 부족시기를 막 벗어나 신생 국가의 통치자가 된 누르하치와 지배계층의 지배권을 강화해가는 일환으로서도 중요했다. 아이신 구룬의 건국을 선포한지 7년이 지난 1623년에 누르하치는 대신들 각자가 수렵단을 조직해서 사냥을 나가고 수렵물도 각자 취하던 기존의 관례를 폐지하고 통치 집단 내부의 사냥물 분배제도를 다시 규정했다.¹⁵⁵⁾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사냥물을 분배받을 자격과 분배량은 생산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나 공헌도

152) 李民奐, 『建州聞見錄』(중세사료강독회 번역, 『책중일록』, 서해문집, 128쪽); 劉小盟,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이훈, 김선민, 이선에 번역,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3. 348쪽)

153) 『만주실록역주』 권3, 131쪽. 『조선세종실록』 권113, 28년 8월 신유조에서는 여진인이 집단적으로 수렵을 할 때 인원이 많으면 30명 미만, 적으면 10여명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20여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54) 수렵조직 니루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아래 참조. 劉小盟, 앞의 책, pp.112-118.

155) 『滿文老檔』 천명 8년 2월 6일조(일역본 『滿文老檔』 2. 태조 권2. pp.645-646.)

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수렵물을 집단 균분하던 전통을 등급별 분배제도로 바꾸고 더 나아가 귀족 집단의 특권을 공고히 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수렵물의 분배권을 노동 집단으로부터 점차 누르하치 자신에게 집중시켜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갔다.¹⁵⁶⁾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통치기를 거치며 만주족에게 농경이 확산됨에 따라 수렵은 기존의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잃어갔다. 그러나 만주족 통치자는 수렵활동을 방기하지 않고 1년에 3-4번 대규모의 수렵을 진행했다. 한번 수렵을 나가면 최소한 3-4일에서 길게는 20-30일까지 평균 10일 가량 시행했다. 수렵하는 계절은 대부분 겨울 농한기였고 때로는 봄과 가을에도 했다. 5월에 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6월에는 수렵을 하지 않았다.¹⁵⁷⁾ 홍타이지는 1630년에 심양의 동쪽에 수렵터(aba hoihan, 圍場)를 설치했다.¹⁵⁸⁾ 수렵보다 농경이 경제에서 더욱 중요해졌어도 만주족 통치자가 수렵을 중시한 이유는 수렵이 군사훈련의 일환이기 때문이었다. 홍타이지는 수시로 출병과 수렵을 함께 거론하면서 이 두 가지 일을 질서 있게 하면 대사(大事)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렵이 진행되는 방식은 군사훈련의 방식과 동일했고 엄격한 규율 하에 진행되었다. 무질서가 용납되지 않았고, 짐승을 몰아서 포위한 진을 끊는 행위, 전답을 짓밟는 행위,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수렵하는 도중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했다.¹⁵⁹⁾

1644년에 팔기만주(manjusai jakūn gūsa)와 팔기몽고(monggosoi jakūn gūsa)와 팔기한군(ujen cooha)의 모든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약 100만 명가량의 청의 인구 대다수가 중국으로 이주하면서 청의 중국 정복이 시작되었다. 이른 바 ‘입관(入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만주족의 생산 활동과 그에 따른 직업과 수렵 관습을 변화시켰다. 그 전에 만주족 전원은 만주지역에서 생산과 군사를 병행했으나 중국으로 이주한 후에는 순수한 전업군인이 되었다. 약 100만 명의 기인 가운데 50만 명 정도는 북경에 배치되었고 나머지 50만 명은 서안, 강녕(남경), 형주, 항주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에 배치되었다. 중국에는 이들이 수렵할 수 있는 드넓은 수렵터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팔기병사가 더 이상 산업으로서의 수렵을 할 필요가 없었다. 팔기병사는 전업군인이 되어 국가로부터 일정량의 생계용 전답을 지급받았고 전답에 딸린 노비나 피고용 농민을 관리하기만 하면 되었다. 지급할 전답이 없는 지역에 배치된 팔기병사에게는 월급이 지급되었다. 팔기병사의 월급은 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되었

156) 劉小盟, 앞의 책, pp.332-336.

157) 鄭天挺, 『探微集』(中華書局, 1980), p.166.

158) 羅運治, 『清代木蘭圍場的探討』(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pp.1-2.

159) 劉小盟, 앞의 책, p.426.

다. 중국에는, 특히 북경 주위에는 수렵할 수 있는 광대한 수렵터도 없었거니와 팔기병사가 생계를 위해 수렵을 할 필요도 없었다.

입관 후 각 주둔지의 기인이 수렵을 하지 못했어도 당장 팔기의 전투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주둔도시에서 활쏘기 등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했으며,¹⁶⁰⁾ 청의 정복사업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실전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순치기(1643-1661)에 남명정권(1644-1661)과 전투를 지속했고, 이어 강희기(1654-1722) 전기에는 남방의 삼번의 난(1673-1681)과 북방초원의 준가르와의 전쟁이 기인들에게 계속 일자리와 전투경험을 제공해주었다. 주방의 기인들은 이러한 군사 활동에 자주 동원되었다. 서안, 형주, 항주, 남경에서 주둔하는 병사들은 남부 및 남서부의 전투에 참여했고, 서안 등의 북방에서 주둔하는 병사들은 준가르와의 전투에 참전했다.¹⁶¹⁾

그러나 강희기를 거치며 청의 국내의 상황이 안정되면서 팔기의 전투력이 쇠퇴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각해졌다. 또한 청의 광대한 영역에 분산 배치된 팔기병이 전투에 전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주둔지에 배치된 팔기병의 전투력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했다. 특히 광주나 항주 같은 남방의 주둔지에서는 다른 주둔지보다 더 이른 시기인 강희 초기부터 전투력의 쇠퇴 현상이 나타났다. 강희제를 포함하여 청의 황제는 팔기를 습관적으로 “국가의 근본”(gurun i fulehe da)이라고 불렀다. 명의 군대를 계승하여 청대에도 유지된 한인 군대인 녹영(綠營, niowanggiyan turun i kūwaran)은 그 수가 팔기 병사의 세배인데도 청의 황제는 이들을 ‘국가의 근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팔기 전투력의 쇠퇴는 청의 황제에게 청나라와 황실의 쇠퇴와 동일시되었다. 강희제가 팔기의 전투력 쇠퇴를 막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조상인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했던 것처럼 수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1681년(강희20) 강희제는 무관위장을 설립했다. 그해에 강희제는 대규모의 팔기부대를 이끌고 순행 겸 수렵을 위해 장성 북쪽 내몽고로 떠났다. 1676년과 1677년에 이어 그의 세 번째 북순이었다.¹⁶²⁾ 강희제는 카라친과 옹니우트 몽고에 속한 열하(熱河)지역과 더 북쪽의 나중에 무관위장이라고 불리게 될 지역에서 몽고인들과 함께 수렵을 했다. 수렵

160) 주둔지에서 시행되는 팔기병사의 정기적 훈련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마크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번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2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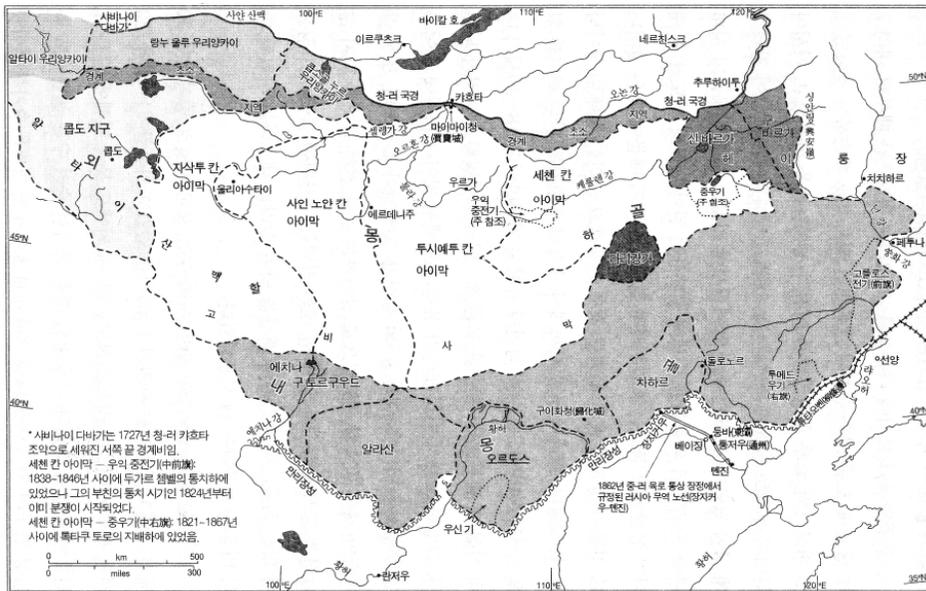
161) 마크 엘리엇, 『만주족의 청제국』, 268쪽.

162) 일반적으로 강희제가 최초로 장성 북방을 북순한 시기가 1677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康熙起居注』 강희16년 9월 14일-28일조 기록에 의하면 그 전해인 1676년에 최초의 북순이 있었다. 1676년(강희15) 강희제는 북순을 해서 나중에 承德으로 불리게 될 지역까지 순행했다. 1677년(강희16)에는 카라호톤 일대를 순행했다.

을 마친 후에 그는 해마다 대규모의 팔기병사를 이끌고 이곳에 와서 수렵을 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카라친과 옹니우트의 수령들은 수렵터를 헌납했다. 무란위장이 설립된 것이다. 강희제의 희망은 무란위장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의 팔기 주둔지에서 수렵을 정례화하는 것이었다. 1684년(강희23) 강희제는 서안, 수원, 남경, 항주, 형주의 주방장군들에게 지역에서 사냥을 시행하라고 명했다. “만약 주방팔기에 있는 장교와 병사들이 매년 사냥에 나가서 무술을 연마하지 않으면 결국 게을러지게 될 것이다.”¹⁶³⁾ 이 때 지방의 주둔지들에서 수렵을 추진하라는 명령은 내려졌지만, 수렵터가 부족한 현지사정 때문에, 이후 팔기의 여러 주둔지에서 수렵이 활성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무란위장의 수렵은 활성화되고 정례화되어갔다.

무란위장 수렵에는 팔기만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열하와 무란 일대에서 거주하는 몽고인들까지 참여했다. 무란위장 수렵은 팔기의 군사훈련일 뿐 아니라 몽고인과의 우호관계와 단합을 목적으로 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2. 몽고 지배의 근거지



〈그림 3-2〉 1860년대 내몽고와 외몽고 지도

청 초기에 알탄 칸 아이막이 외몽고의 서부에 있었으나, 1667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지도에 표기되지 않음. 1725년(옹정3)에 투시예투 칸 아이막에서 분리된 사인노얀 칸 아이막은 표기됨.

출처: 『캠브리지 중국사』 10-1부상, 새물결, 2007, 110쪽.

163) 『八旗通志』 권31, p.583 (鄂爾泰等 修, 李洵, 趙德貴 主點, 吉林省長春市: 東北師範大學出版社·吉林省新華書店發行, 1986.)

청 황제가 팔기의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수렵을 시행하는 장소가 반드시 무란위장이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무란위장이 수렵터로서 짐승의 분포밀도나 기후 등의 조건이 매우 우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렵터가 그곳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경 인근의 남원(南苑)도 210평방km의 작지만 우수한 수렵터였고,¹⁶⁴⁾ 성경 일대에도 우수한 수렵터들이 있었다. 그런데도 강희제가 굳이 장성 북방의 몽고인 유목지에 있는 무란위장을 황제와 팔기가 연례적으로 방문하는 수렵터로 선택한 이유는 청조와 몽고의 관련성을 제외하고 설명할 수 없다. 부족시기이건 국가를 설립한 후이건 만주족(여진)의 역사에서 몽고는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다. 몽고는 후금(청)이 북방민족 세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복속시켜야 할 적대자였고 동시에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 협조를 받아야 할 동맹자였다.

여진이 후금을 수립하던 17세기 초에 몽고는 지리적 측면에서 남몽고, 북몽고, 서몽고로 나뉘어 있었다.¹⁶⁵⁾ 남몽고는 고비사막의 남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한어로는 막남몽고(漠南蒙古)라고 불렀고, 이를 몽고인 자신들은 ‘남몽고’라는 의미의 ‘움누트 몽골’(ömnöt monggol)이라고 했다.¹⁶⁶⁾ 남몽고에는 코르친, 내(內)칼카 5부(바린, 자루트, 웅기라트, 바유트, 오지예트), 잘라이트, 두르베트, 나이만, 무밍간, 울라트, 카라친, 우주무친, 차하르, 투메트, 오르도스 등의 부(部)가 분포해 있었다. 남몽고는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를 거치며 청에 복속되었다. 가경기(1795-1820) 이후 청은 남몽고를 만주어로 도르기 몽고(dorgi monggo. 내몽고), 한어로 내몽고(內蒙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¹⁶⁷⁾ 남몽고는 지금 중국의 내몽고자치구에 해당한다.

북몽고는 고비사막의 북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한어로는 막북몽고(漠北蒙古)라고 불렀고, 몽고인 자신들은 ‘북몽고’라는 의미의 ‘아루 몽골’(aru monggol)이라고 했다. 북몽고는 16세기까지 칼카부(部)의 유목지였고, 이들이 17세기 초기에 자삭투 칸부(部), 투시예투 칸부(部), 세첸 칸부(部), 알탄 칸부(部)로 분할되면서 네 개의 부(部)가 거주했다. 1667년에 알탄 칸부가 서몽고 오이라트에 의해 멸망당했기 때문에, 강희제 초기 청과 북몽고가 본격적으로 조우하던 시기에는 나머지 세 개의 부(部)가 있었다. 청은 북몽고

164) 馮春芳, 「從南苑行宮、喀喇河屯行宮到避暑山莊—淺析清代北方行宮產生原動力與發展基本軌跡」, 『多維視野下的清宮史研究—第十屆清宮史學術研討會論文集』(2013). p.47.

165) 몽고인은 몽고를 북, 남, 서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이 모두를 합쳐서 ‘도친 도르번’이라 통칭했다. 도친 도르번은 ‘44’의 의미이고, 동몽고(남몽고와 북몽고)의 40만戶와 서몽고(오이라트)의 4만戶를 합쳐 부르는 말이었다.

166) Patrick Taverne, *Han-Mongol Encounters and Missionary Endeavors: A History of Scheut in Ordos (Hetao), 1874-1911* (Leuven University Press, 2004). pp.26-27.

167) 이선애, 『清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장 1절 1항.

를 내몽고와 대비하여 만주어로는 툴러르기 몽고(tulergi monggo, 외몽고), 한어로는 외몽고(外蒙古)라고 불렀다. 북몽고는 지리적으로 지금의 몽골국에 해당한다.

서몽고는 오이라트 몽고를 가리키며, 고비사막의 서쪽 지역, 즉 동쪽으로 알타이산맥부터 서쪽으로 일리강[伊犁河] 유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유목했기 때문에 한어로는 막서몽고(漠西蒙古)라고 했다. 오이라트는 준가르, 호쇼트, 툴구트, 두르베트, 호이트의 부(部)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⁶⁸⁾ 승덕에 피서산장을 설치하던 강희기 중반에 남몽고(내몽고)와 북몽고(외몽고)가 이미 청에 복속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서몽고는 준가르부(部)가 주력이 되어 현재의 중국 신강성 북부의 일리강 연안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타림분지의 알티샤르(Altī Shahr, 카쉬가르, 우쉬, 악수, 양기히샤르, 야르칸트, 호탄) 지역과 북쪽으로는 카자흐 남부의 세미레체 지역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준가르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몽고는 국가를 수립하고 세계제국으로 팽창한 13세기부터 이후 16세기 말까지 내륙아시아의 최대 지배세력이었다. 부족시기 여진은 수시로 몽고의 침입을 받았다. 예컨대 1450년대 몽고의 대칸인 토퉈투카 칸의 해서여진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여진인이 학살되었다. 이 사건은 해서여진인이 흘룬강[忽喇溫江, 현재 黑龍江省 呼蘭河]와 동류(東流)송화강(松花江) 일대에서 명나라의 요동 쪽으로 대규모 민족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여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충돌이 여진과 몽고 관계의 전부는 아니었다. 여진은 때로 몽고인과 혼용하여 새로운 집단을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해서여진의 최강자였던 여허(yehe)부(部)는 몽고인과 여진인이 결합하여 형성된 집단이었다.

충돌과 민족적 융합 외에 문화의 전파와 영향도 두 집단 사이에서 발생했다. 부족시기 여진에게 몽고는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다. 일례로 여진인은 늦어도 14세기부터 몽고문자를 도입하여, 여진어를 몽고어로 번역하고 그것을 몽고문자로 기록했다. 조선인이 한문으로 중국어를 써서 문자생활을 영위한 것과 비슷한, 여진인의 이 번잡하고 불편한 문자생활은 16세기 말까지 지속되었다. 1599년에 누르하치가 몽고문자로 여진어(만주어)를 음차해서 기록하도록 명령하여 만주문자가 창제되면서, 몽고어로 번역하여 기록하는 복잡한 문자생활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문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휘들이 몽고에서 여진(만주)으로 유입되었다. 만주어의 목축업과 관련된 많은 어휘들, 예컨대 말이나 소의 색깔, 나이, 모습, 성격, 말안장 등의 이름은 80-90퍼센트가 몽고어에서 유입된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도 만주족의 기오로 씨족이 대대로 숭배한 신들 가운데 이른바 ‘몽고신’인 카툰(왕비), 노얀(귀족)은 몽고족의 조상숭배에서 기원한 것이다. 사람의 이름도

168) 宮脇淳子, 『最後の遊牧帝国 : ジューンガル部の興亡』(東京 : 講談社, 1995).(조병학 번역, 『최후의 몽고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몽고어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누르하치의 아들 더걸레이(degelei, 조끼), 조카 지르갈랑(jirgalang, 행복), 조카 아민(amin, 생명) 등이 몽고어 이름이었다. 누르하치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여진(만주)에 유입된 티베트 불교 또한 초기에는 몽고를 경유하여 유입되었다.¹⁶⁹⁾ 누르하치가 국가를 수립하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몽고의 영향은 선진적인 정치제도였다. 한(han), 타이지(taiji), 자르구치(jargūci), 바투루(baturu), 다르한(darhan), 히야(hiya) 등의 정치적 칭호나 어휘, 그리고 그에 관련한 제도가 몽고에서 여진(만주)으로 도입되었다.¹⁷⁰⁾

강국이자 문화의 시혜자인 몽고와 수세적 세력이자 수혜자인 여진(만주)의 우열관계가 역전된 것은 17세기 초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였다.¹⁷¹⁾ 이 시기에 남몽고(내몽고)가 후금에 복속되었다. 1606년 내칼카 5부의 하나인 바유티부(部)의 엉거더르 타이지는 누르하치에게 ‘쿤둘런 정기연 한(kundulen genggiyen han. 공경스러운 영명한 임금)’이라는 존호를 헌상했고, 이후 누르하치는 ‘한’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누르하치가 몽고의 ‘칸’에 해당하는 ‘한’을 칭하게 된 것은 몽고와의 관계에서 우세를 점하기 시작한 신호였다.

1635년에 차하르가 후금에 복속된 것은 후금 시기 만주와 몽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이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차하르는 칭기스 칸의 적통 후계자 즉 전체 몽고의 대칸인 립단 칸이 통치하는 부(部)였다. 후금의 공격 끝에 차하르의 립단 칸이 호호노르[青海]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자, 립단의 아들 에제이(?-1641)는 몽고 대칸의 권위를 상징하는 전국옥새(傳國玉璽)를 바치며 후금에 투항했다. 이로써 홍타이지는 칭기스 칸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차하르의 투항은 만주족의 국가인 후금이 만주와 몽고와 한인이 공존하는 다민족국가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해인 1636년 홍타이지는 기존의 아이신 구륜에서 다이칭 구륜(daicing gurn. 大清國)으로 국호 변경을 선포하고, 만주인의 한(han)이자, 몽고인의 대칸이자, 한인의 황제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시기 청에 복속된 것은 내몽고만이었고, 외몽고와 서몽고는 청과 교류했지만 지배권 밖에 있었다. 또한 청에 복속을 맹세한 내몽고의 部일지라도 그에 대한 청의 지배력이 완전히 공고한 것은 아니었다.

1675년(강희14)에 일어난 차하르의 반란은 몽고에 대한 청의 지배가 불안정함을 드러

169) 청의 티베트 불교 도입에 관해 아래 논문이 유용하다. David Farquhar,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8, No. 1 (Jun., 1978), pp. 5-34.

170) 劉小盟, 앞의 책, pp.211-218.

171) 내륙아시아의 주도권이 몽고에서 만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노기식, 「명대 몽고와 만주의 교체」, 『사총』 59, 2004. pp.45-72; 이선애, 『淸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났다. 1644년 입관한 후에 청은 남명정권(1644-1661)과 전투를 지속했고, 이어 삼번의 난(1673-1681)을 진압해야 했다. 중원의 통치가 불안정하자 외몽고와 서몽고의 부(部)들은 사절단의 파견을 중지하기도 하고, 이전에 복속된 내몽고의 부(部)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¹⁷²⁾ 차하르는 홍타이지 시기에 청에 복속되어 만주족의 협력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세력이기도 했다. 그 잠재적 위협이 표면으로 터진 것이 1675년 3월에 차하르의 주장 부르니(1654-1675)가 일으킨 반란이었다. 차하르의 반란은, 삼번을 진압하기 위해 다수의 병력을 남방으로 보내어 방어가 취약했던 북경과 차하르의 인근지역인 성경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강희제는 차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팔기 정규군과 코르친 등의 몽고군과 함께 북경 팔기의 노비와 무퇴배까지 동원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¹⁷³⁾ 차하르의 반란은 그 해에 진압되었지만 강희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했다. 반란집단인 차하르 유목민은 의주(義州) 일대로부터 서북쪽의 선화(宣化)와 대동(大同) 일대의 장성 밖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차하르의 반란이 강희제로 하여금 몽고 여러 부(部)들에 대한 통제와 친화관계를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하도록 이끌었고 무란위장과 피서산장을 설립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강희제가 처음으로 내몽고로의 복순을 시행한 것은 차하르의 반란이 일어난 다음해인 1676년(강희15)이었다. 몽고 부족에 대한 친화관계와 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차하르의 반란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이 복순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1681년(강희20) 그는 세 번째로 내몽고로 복순했고 무란위장을 설립했다.¹⁷⁴⁾ 1683년(강희22) 이후 그는 매년 무란위장에 가서 수렵하면서 내몽고 48개 호순(旗)의 수령들과 회견했다.

몽고와의 결합은 청이 준가르와 상쟁하는 과정에서 외몽고 칼카까지 확대되었다. 청은 1681년 삼번의 난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뒤이어 1688년(강희27)부터 1697년(강희36)까지 10년간 서몽고 준가르와의 전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전쟁의 최초 원인은 칼카의 내분에 있었다. 1660년대 초기에 칼카의 자삭투 칸부와 투시예투 칸부 사이에 속민의 귀속권을 두고 마찰이 일어났다.¹⁷⁵⁾ 1687년 말 투시예투 칸 차군도르지는 자삭투 칸 사라의 영지를 공격하여 그를 살해했고, 이 때 준가르의 주장 갈단의 동생인 도르지잡이 자삭투 칸의 곁에 있다가 피살되었다. 이 사건은 준가르의 갈단이 투시예투

172) 임계순, 앞의 논문, 158쪽.

173) 蘆婷婷, 『清廷平定布爾尼之亂研究』, 『甘肅聯合大學學報』第6期(社會科學版, 2011).

174) 『承德府志』卷首16「巡典」.

175) 이 시기 칼카의 내분에 대해서는 아래 논저 참조. 烏云畢力格, 白拉都格其, 『蒙古史綱要』(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達力扎布 編著, 『蒙古史綱要』(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조병학, 「할하몽골 내분 관련 인명과 연도에 대한 史的 比證」, 『몽골학』43권, 2015.

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다. 갈단은 1688년(강희27) 봄에 투시예투 칸의 영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갈단의 공격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전 차원을 벗어나 북아시아 전체의 세력 판도가 재편될 정도로 확전 일로를 달렸다. 갈단은 투시예투 칸의 영지를 공격한 지 2년 후 오르혼강과 툽강 유역까지 점령했고 더 동진하여 만주지역 쪽으로 진군해갔다. 청은 준가르군에 쫓겨 남하한 수많은 몽고인을 원조하다가 마침내 참전을 결정했다. 1690년(강희29) 북경 북방 300km에 위치한 울란부통(현재 遼寧省 赤峯市)에서 청과 준가르의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고 뚜렷한 승패 없이 끝났다. 이어 1696년(강희35)부터 1697년(강희36)까지 강희제는 세 차례의 친정에 나섰다. 1697년 청군에 쫓긴 갈단이 알타이산맥의 산중에서 사망함으로써 10년간 몽고 초원에서 벌어진 극심한 혼란은 일단락 되었다.¹⁷⁶⁾

전쟁의 와중에 청과 몽고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691년에 칼카가 승덕에서 동북쪽으로 180km 정도 떨어진 돌론노르(현재 내몽고 多倫)에서의 회맹을 통해 청에 복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칼카의 복속은 청에게 가해져왔던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이 약화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국가와 남방 농경국가가 대립해왔던 동아시아의 장구한 권력구도가 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차하르의 반란에서 보듯이 몽고가 복속을 맹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세가 변화하면 몽고는 청이 구축한 제국적 질서를 벗어나서 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었다. 청은 이를 방지하고 몽고를 동맹세력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안정망을 설치했다.

그 첫째는 혼인이었다. 혼인은 누르하치 시기부터 후금(청)이 몽고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청은 황제와 황족의 딸을 몽고의 왕공귀족과 결혼시키고, 황제와 왕공은 몽고의 공주와 혼인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해갔다. 이 방식은 양자의 동맹에 효과적이었다.¹⁷⁷⁾ 일례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를 거치며 만주에 최초로 복속된 코르친은 조기부터 이루어진 양자의 지속적인 혼인 관계로 인해 청제국의 건설과 유지에 핵심적인 집단이 되었다. 그러나 혼인이 동맹관계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차하르의 부르니는 홍타이지의 둘째 딸인 구룬 공주(gurun i gunju) 마카타(makata)의 아들이었다. 다시 말해 만주의 공주인 마카타가 차하르의 수장인 에제이와 결혼하고 에제이가 사망한 후 그의 동생인 아부나이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부르니였다. 부르니의 반란은 혼인동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이다.

176) 宮脇淳子, 『最後の遊牧帝國 : ジューンガル部の興亡』(講談社, 1995).(조병학 번역, 『최후의 몽골유목제국』,白山出版社, 2000, 32-69쪽.)

177) 華立, 『清代的滿蒙聯姻』, 『民族研究』, 1983년 제2기 (1983). pp.4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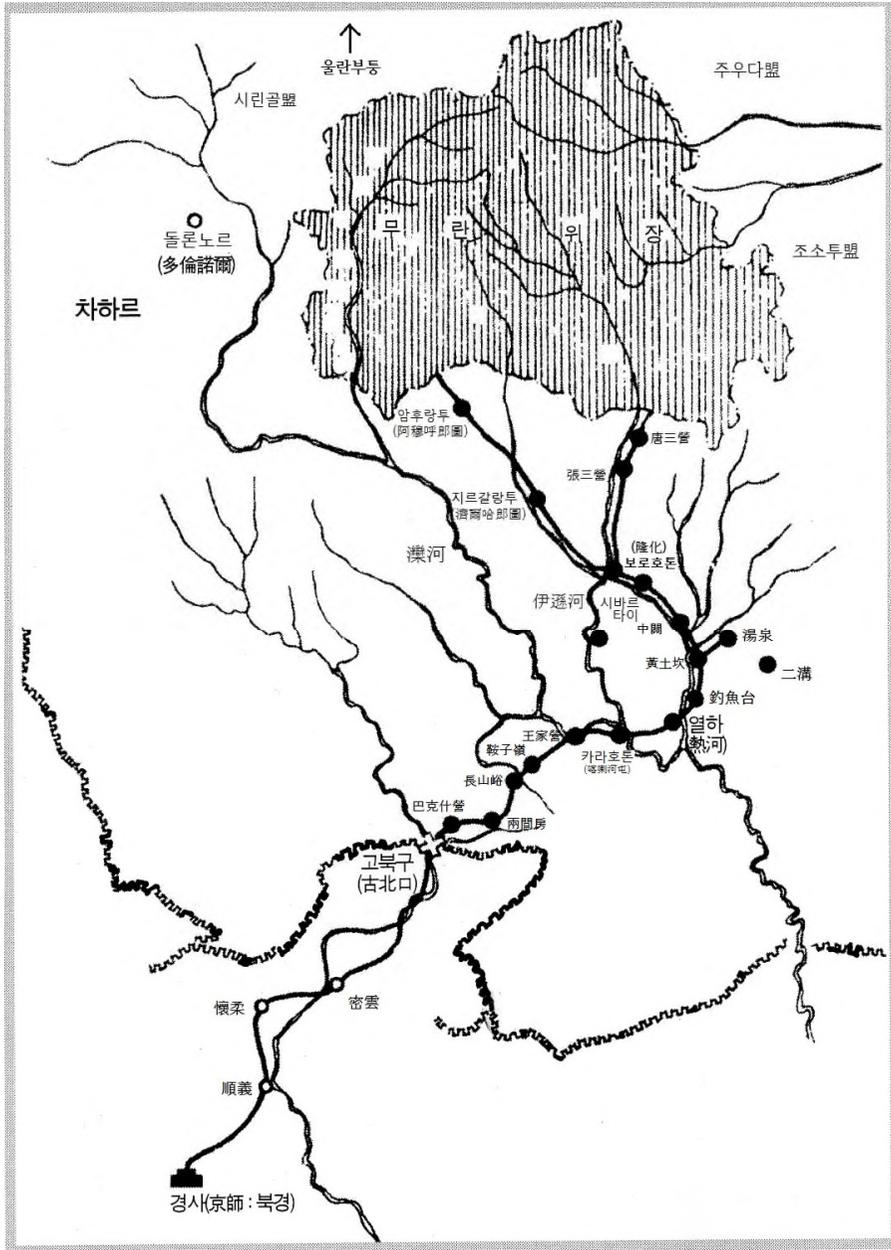
둘째는 몽고를 분산시켜서 그 세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청은 복속된 몽고를 출간(盟)과 호순(旗) 단위로 세분하고, 각각의 호순에 자삭(만주어, jakak. 몽고어 jasyak)이라는 명칭의 수장을 임명했다. 막남몽고(내몽고)는 내자삭몽고(dorgi jakak i monggo. 內札薩克蒙古)로 불렸으며, 6출간(盟) 49호순(旗)으로 분할되었다. 막북몽고(외몽고)와 막서몽고는 외자삭몽고(tulergi jakak i monggo. 外札薩克蒙古)라고 불렸으며 외몽고는 4출간 86호순으로, 막서몽고는 9출간 61호순으로 구획되었다. 자삭에게 행정과 사법상의 실권을 부여해서 기존의 아이막(部)의 수장인 칸의 통합적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자삭과 호순 설치의 핵심 목적이었다.

셋째는 몽고인 귀족층에 대한 교육이었다. 청은 몽고 왕공의 자제들을 북경으로 데려와서 만주 자제들과 함께 교육시키고 장성한 후에 현지로 돌려보내서 부친의 직을 계승시키는 방식을 활용했다. 북경에서 교육받은 몽고인 귀족은 청과 만주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강했다. 칼카 몽고의 귀족층은 북경에 와서 청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시위대신(侍衛大臣)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칼카 4부(部) 가운데 청조와 가장 관계가 긴밀했던 사인노얀 칸부의 경우, 칸부의 개창자인 체령(策稜, 1672-1750)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북경에 와서 어전대신(御前大臣, gocika amban)과 영시위내대신(領侍衛內大臣, hiya kadalara dorgi amban i ba) 등의 직을 역임했다.

넷째는 청황제가 몽고의 왕공들을 직접 만나서 위엄을 보이거나 인간적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었다. 강희제는 몽고 부족들을 제어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몽고 왕공들을 자주 접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몽고 왕공들은 천연두의 전염을 두려워하여 북경에 오는 것을 꺼렸다. 만주어로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마마(mama)라고 하는 천연두는 만주인에게도 몽고인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다. 강희제는 몽고인이 천연두에 전염될 가능성을 피해서 장성 이북에 피서산장을 설립하여 몽고 왕공들과 만났다.¹⁷⁸⁾ 몽고 왕공들과의 만남은 접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강희제 이후 가경제까지 청의 황제들은 피서산장에서 몽고 왕공들을 접견한 후에, 그들이 이끌고 온 수렵단과 함께 무란위장에 가서 수렵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씨름을 하며 친목을 도모했다. 피서산장과 무란위장에서 이루어지는 황제의 제반 행사와 활동은 몽고를 제어하고 그들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제였다.

178) 임계순, 앞의 논문, 162쪽.

제3절 피서산장과 정치중심지 승덕



〈그림 3-3〉 행궁분포도.

출처: 天津大學建築系, 承德市文物局 編著, 『承德古建築』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2), p.3.

1681년(강희21) 강희제는 몽골의 카라친과 옹니우트로부터 토지를 헌납받아서 무란위장[木蘭圍場. muran hoihan]을 건립했다. 무란위장은 북경에서 430km 정도, 승덕에서는 150km 정도 북쪽에 위치하며, 현재 행정구역상 하북성(河北省)에 속한 위장현(圍場縣)이다. 청의 황제가 북경에서 출발하여 장성의 고북구(古北口, moltosi duka)를 나가서 무란위장까지 가려면 최소한 10여일이 소요되었다. 때문에 북경에서 무란위장까지 가는 도중에 필요한 음식과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곳 사이에 다수의 행궁이 건설되었다. 강희기에 총 25개의 행궁이 세워졌고, 건륭기에 4개가 더 세워졌다.¹⁷⁹⁾ 청대의 기록과 현대 연구자들은 이 행궁들을 ‘행궁(行宮)’이라고 지칭하지만, 25개의 행궁이 실제로 행궁이라고 불릴만한 규모와 격식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궁과 정원을 갖춘 행궁다운 행궁은 카라호톤과 열하 두 곳의 행궁이었다.

1703년(강희42)에 승덕에 피서산장이 세워지기 이전, 순치기와 강희기 중반까지 황제의 북순에서 가장 중요한 행궁은 카라호톤 행궁이었다. 카라호톤[kara hoton. 喀喇河屯]은 열하의 남쪽인 현재 승덕시(承德市) 쌍란구(雙灤區) 난하진(灤河鎮)의 서북쪽의 난하(灤河)와 이손하(伊遜河)가 합류하는 지역에 있었다. 카라호톤의 ‘카라’는 ‘검다’는 의미의 몽골어이고 ‘호톤’은 ‘성(城)’ 혹은 ‘도시’를 의미하는 몽골어 ‘호트’가 만주어화한 어휘로, 청대 한문기록에서는 객라하둔(喀喇河屯)이나 객라성(喀喇城)으로 음차되어 쓰이거나 흑성(黑城)으로 의역되어 쓰였다. 카라호톤 행궁의 건설이 처음 시작된 것은 청이 입관한 후 6년이 지난 1650년(순치7)이었다. 당시 섭정왕이었던 도르곤(dorgon, 多爾袞. 1612-1650)은 “요, 금, 원나라 때에 변외에 상도(上都)가 있었던 것처럼 변외에 작은 성(城)을 건설하여 편리하게 왕래하자”고 제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¹⁸⁰⁾ 도르곤은 성(城)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해에 카라호톤에서 사망했다. 공사는 궁전 건물만 완성된 채, 남명과의 전투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공사비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1651년 친정을 시작한 순치제의 명에 의해 중지되었다.¹⁸¹⁾

179) 북경에서 무란위장까지의 사이에 설립된 행궁은 아래와 같다. 蘭溝行宮(현재 昌平縣 湯山湯泉), 石槽行宮(順義縣 石槽), 三家店行宮(順義縣 三家店), 祇園寺行宮(懷柔縣 南門 밖), 劉家莊行宮, 遙亭行宮, 羅家橋行宮, 白龍潭行宮, 柳林營門行宮(여기까지는 密雲縣 영역에 있음. 이후로는 關外), 巴克什營行宮(박시營. 灤平縣 巴克什營鎮), 兩間房行宮(灤平縣 兩間房鄉), 長山峪行宮(=常山峪. 灤平縣 長山峪鄉), 鞍子嶺行宮(灤平縣 長山峪鄉 鞍子嶺村), 王家營行宮(灤平縣 王家營子鄉), 化魚溝行宮(=化育溝·樺榆溝. 灤平縣 陳柵子鄉 樺榆溝村), 喀喇河屯行宮(카라호톤. 承德市 灤河鎮), 藍旗營行宮(灤平縣 小營鄉), 釣魚台行宮(承德縣 雙峰寺鎮), 黃土坎行宮(承德縣 東坎鄉), 二溝行宮(承德縣 二溝鄉), 湯泉行宮(承德縣 前廟鄉 湯泉村), 中關行宮(隆化縣 中關鄉), 什巴爾台行宮(시바르타이. 隆化縣 十八里汰鄉), 波羅河屯行宮(보로호톤. 隆化縣 董存瑞烈士陵園), 張三營行宮(隆化縣 張三營鎮), 唐三營行宮(隆化縣 唐三營鎮), 濟爾哈郎圖行宮(지르갈랑투. 隆化縣 牛錄鄉), 阿穆呼郎圖行宮(암후랑투. 隆化縣 步古溝鄉), 西廟宮(隆化縣 步古溝鎮 西廟宮), 東廟宮(圍場滿族蒙古族自治縣 四道河鄉 廟宮村).

180) “擬止建小城一座, 以便往來避暑.” 『정세조실록』 권49, 세조 7년 7월 乙卯조.

카라호톤 행궁은 그로부터 50여년 후인 1701년(강희40)에 확장 공사가 시작되어 1704년(강희44)에 마무리되었다. 확장된 행궁은 난하(灤河)를 사이에 두고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난하(灤河) 남안의 궁전 구역, 난하(灤河) 북안의 별서(別墅) 구역, 난하(灤河) 가운데의 섬인 소금산(小金山)의 정원 구역이 그것이었다. 카라호톤 행궁이 조성된 후에 주위에 궁람사(穹覽寺), 임소관(琳霄觀), 공묘(孔廟), 문창사(文昌祠), 용왕묘(龍王廟), 용모묘(龍母廟), 재신묘(財神廟), 박신묘(霍神廟), 약왕묘(藥王廟), 정묘사(靜妙寺), 어서사(御書寺) 등 17곳의 사묘(寺廟)가 건축되었다. 카라호톤 행궁은 열하행궁이 건설되기 전인 순치기와 강희제 중기에 북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순치제는 순치 8년 5월에 카라호톤에서 묵었고, 강희제는 확장 공사가 진행되던 강희 41년부터 46년까지 6년간 해마다 카라호톤에서 15일 정도를 묵었다. 훗날 열하행궁에서 이루어진 몽골 왕궁과의 회견이 이 시기에는 카라호톤에서 이루어졌다.¹⁸²⁾ 열하행궁이 완성된 후 강희제의 주요 숙박지 및 몽골 왕궁 회견지는 카라호톤에서 열하로 이동했고, 카라호톤은 점차 쇠퇴해갔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열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뿐, 카라호톤은 열하 인근의 주요 도시로 계속 존속했고, 옹정기와 건륭기에는 팔기병이 주둔군으로 배치되기도 했다. 카라호톤 행궁은 수렵을 위한 숙박지와 회견지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그리고 궁전과 별서와 사묘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측면에서 열하행궁의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703년(강희42) 강희제는 ‘하룬 골’에 행궁을 건설할 것을 명했다. 하룬 골은 당시 열하상영(熱河上營)이라고도 불렸으며 위치는 무열하(武烈河)의 동측이었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무열하(武烈河) 하류역은 열하하영(熱河下營)이라고 칭했다.¹⁸³⁾ 만주어로는 ‘하룬 골’의 의역된 지명이 확인되지 않고 열하(熱河)를 만주식으로 발음하여 ‘리호’(ze ho)라고 부른 경우만 확인된다. 하룬 골이 승덕(承德)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피서산장이 설립된 후 30년이 지난 1733년(옹정11)부터였다.

강희제가 열하에 행궁을 건설하기로 결심한 것은 건설을 명령하기 한 해 전인 1702년(강희41)이었다. 1702년에 강희제는 북경을 출발한 후 장성의 관문인 고북구(古北口)를 통과하여 북방을 순행하면서 열하하영에서 묵었다.¹⁸⁴⁾ 그는 1683년(강희22) 이래 여러 차례 북경에서 무란위장까지 수렵을 하기 위해 왕복했지만, 열하에서 묵기는 1702년이

181) 郝志强, 特克寒, 「清代塞外第一座行宮—喀喇河屯行宮」, 『滿族研究』, 104期 第3期(2011).

182) 馮春芳, 「從南苑行宮、喀喇河屯行宮到避暑山莊—淺析清代北方行宮產生原動力與發展基本軌跡」, 『多維視野下的清宮史研究—第十屆清宮史學術研討會論文集』(2013). pp.50-51.

183) 阮葵生, 「熱河源記」, 『小方壺齋輿地叢鈔』, 第4帙, p.974; 劉玉文, 「避暑山莊初建時間及相關史事考」, 『故宮博物院院刊』4期(2003), p.23.

184) 「甲午, 上駐蹕熱河下營.」 『聖祖仁皇帝實錄』 권208, 강희41년 윤6월 14일 갑오조.

처음이었고 그때 열하행궁 건설을 결심한 것이었다. 이후 그는 행궁 건설을 명한 1703년부터 행궁이 완공되기 전체인 1707년까지 매년 열하상영에서 묵었다. 열하상영은 피서산장이 건립되기 전에도 강희제가 묵어가는 장소였다.¹⁸⁵⁾ 행궁을 건설하라는 명이 있는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열하 일대 토지의 소유자인 카라친의 타이지 올라다이(uladai)는 강희제에게 행궁건설용 토지를 헌납했다.¹⁸⁶⁾



〈그림 3-4〉 피서산장과 외팔묘

이후 행궁의 건설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의 총책임자는 직예총독(直隸總督) 갈리(g'alii, 噶禮)였다.¹⁸⁷⁾ 열하의 행궁은 청 강희제와 건륭제 2대, 89년 동안 단속적으로 지어졌다. 89년간의 공사기간을 강희기의 2기와 건륭기의 2기, 총 4기로 나눌 수 있다. 강희기의 제1기 공사는 1703년(강희42)에서 1708년(강희47)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열하행궁의 주전(主殿)인 담박경성전(澹泊敬誠殿) 등의 주요 건물의 건설과 함께 정원의 기본적인 구조가 완성되었다. 정원구역은 땅을 파서 호수를 만들고 흙을 호수 옆에 쌓아서 동산을 만듦으로써 조성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호수는 총 8개였다. 산장을 둘러싼 10km의 담장도 세워졌다. 이 기간의 공사로 피서산장 남쪽의 궁전구역, 동남쪽의 호수구역, 동북쪽의 평지구역, 서북쪽의 산지구역으로 구성되는 행궁의 구조가 완성되었

185) 임계순, 앞의 논문, 168쪽.

186)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pp.1-2.

187)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p.2.

다. ‘열하행궁(熱河行宮)’이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 기간이었다. 행궁이 완성되면서 강희제가 무란위장에 가는 길에 묵는 경우가 많아지고 몽고 수장들의 알현을 이곳에서 받는 일도 잦아지자 행궁의 증설 공사를 시작했다. 강희제의 제2기 공사는 1709년(강희48)부터 1713년(강희52)까지 진행되었고, 이 기간에 전각들이 증설되었다. 1711년(강희50) 강희제는 열하행궁에 피서산장(避暑山莊, halhūn be jailara guring)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그림 3-5〉 피서산장도

출처: 光緒『承德府志』 권22. p.1

건륭제는 즉위 후 처음 피서산장을 방문한 1741년(건륭6)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건륭제의 제1기 공사는 1741년(건륭6)부터 1754년(건륭19)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기존의 건물들을 보수하면서, 피서산장의 여의호(如意湖) 가운데 조성된 섬인 여의주(如意洲) 내부와 주위에 다수의 건물을 신축했다. 청작방(靑雀舫)(건륭8), 송학재(松鶴齋)(건륭14) 등이 이 기간에 건설되었다. 제2기 공사는 1755년(건륭20)부터 1790년(건륭55)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 공사의 특징은 피서산장의 주변 산지구역에, 외팔묘(外八廟)라고 불린 다수의 거대한 사찰들을 축조한 것이다. 피서산장의 궁전들은 작고 소박한 반면, 이 사찰들은 규모가 거대하고 화려했다. 특히 건륭 20년대에 서몽고 준가르를 정복하고 티베트

불교 세계와의 교류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피서산장의 사찰들은 건설의 계기와 건축의 형식에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¹⁸⁸⁾

열하가 행궁의 건설지로 선정된 이유를 여러 기록들이 거론하고 있다. 『열하내속중국 급행궁주방시말기(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는 열하가 “산과 강이 둘러싸고 오행(五行)이 갖추어진, 하늘이 낳은 산성(山城)이고 흥륭(興隆)하는 길(吉)한 땅”임을 선정의 원인으로 기록했다.¹⁸⁹⁾ 다시 말해 풍수지리적인 우수함을 강조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풍경의 빼어남을 열하의 행궁 건설지 선정 이유의 하나로 거론하기도 한다. 실제로 강희제와 건륭제는 산봉우리들과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형성된 열하의 뛰어난 경관을 언급했다.¹⁹⁰⁾ 혹은 열하 지역이 미개척지역서 거주자가 적기 때문에 행궁을 건설해도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도 선정 이유의 하나로 거론된다.¹⁹¹⁾ 또는 열하의 기온이 북경보다 낮아서 여름에 황제와 황자들 그리고 몽고의 왕공들이 천연두를 피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¹⁹²⁾ 열하가 행궁 건설지로 결정된 데에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¹⁹³⁾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청이 몽고 등의 세력들을 제어하기에 유리한 곳이라는 점이었다.

강희제나 건륭제는 열하 피서산장이나 무란위장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지만, 이들의 글에서 열하의 전략적 중요성과 몽고 부족들을 ‘제어’하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을 찾기 어렵다. 이들의 글에서 묘사되는 바, 열하에서 이루어지는 청 황제와 몽고 부족들의 관계는 통제나 지배보다 화합과 화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몽고를 사실상 ‘제어’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화친’이라고 표현해야 양자의 관계를 유지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청 황제와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반면 조익(趙翼, 1727-1814)은 황제가 해마다 가을에 수렵하는 목적이 팔기병의 군사훈련에만 있지 않고 사실상 몽고 각 부(部)에게 위협감을 느끼게 하여 ‘제어’(駕馭)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다.¹⁹⁴⁾

188) 天津大學建築系, 承德市文物局 編著, 『承德古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2). pp.28-29.

189) “talin bira kūwarama tebeliyeme, sunja feten yongkiyahabi, yala abkai banjinaha alin hoton, yendere mukdere sabingga ba..”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p.2.

190) “既有群峰回合, 又有清流縈繞, 綺綰繡錯, 煙景萬狀, 蔚然深秀” 康熙 「御制避暑山莊記」.

191) “皇上時巡過此, 見而異之, 念此地舊無居人, 闢爲離宮, 無侵民田廬之害” 『欽定熱河志』 권108, 「藝文2」, p.11.

192) 袁森坡, 『論避暑山莊建立的曆史背景.位置 and 歷史地理環境—從康熙不修長城的一道諭旨談起』(河北師範學院歷史系, 1983), p.90.

193) 열하의 행궁 건설지 선정 이유에 대한 더 다양한 언급은 劉玉文의 앞의 논문, pp.24-25 참조.

194) “上每歲行獮, 非特使旗兵肄武習勞, 實以駕馭諸蒙古, 使之畏威懷德, 弭首帖伏而不敢生心也” 趙翼, 『簞曝雜記』, 권1. p.14.

열하의 지리적 중요성과 그곳에서 몽고를 제어하는 전략성에 대해 예리하게 기록한 것은 조선인 사절들이었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은 1780년(건륭45. 조선정조4) 건륭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의 일원으로 열하를 방문했다. 그는 황제가 평화 시에 장성 이북에 있는 피서산장에서 정무를 관장하는 것은 북경의 신하들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말안장에서 떠날 겨를이 없도록 하여 긴장을 유지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했다. 박지원은 열하의 위치가 몽고를 제어하기에 유리한 곳이고 열하에서 몽고를 제어하지 못하면 요동이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것은 청이 천하의 완패를 잃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황제가 열하에서 묵는 명분은 피서이지만 사실은 그 자신이 변경지역을 직접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¹⁹⁵⁾ 박지원은 열하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청 황제의 복순의 목적이 피서보다 몽고의 제어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유득공(1749-1807)은 1790년(건륭55. 조선정조14)에 건륭제의 80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열하에 다녀온 후에 이렇게 말했다. “열하의 형세를 보니, 동쪽으로 요동과 통하고 서쪽으로 이슬람과 통하며, 북쪽으로 몽고를 제압하고 남쪽으로 천하를 제어한다. 이는 강희황제가 고심한 일이었다. ‘피서산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를 언급하기 꺼려한 때문이었다.”¹⁹⁶⁾ 유득공은 ‘피서산장’이라는 명칭이 몽고의 제어를 기저에 둔 열하의 정치적 목적과 기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강희제의 수사나 위장이라고 보았다.

피서산장이 위치한 난하(灤河) 유역은 중원과 몽고초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강희제는 1681년(강희20)부터 1701년(강희40)까지 복순을 하며 무란위장에서 수렵했을 뿐만 아니라 만주지역의 기린[吉林]과 내몽고 서부 지역을 순행했다. 그 목적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준가르의 갈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강희제는 주로 열하를 경유했다. 1690년(강희29) 준가르와 청이 최초로 전투한 곳인 울란부토도 무란위장과 피서산장의 인근이었다. 1691년 칼카가 청에 복속하기로 결정한 회맹이 열린 돌론노르는 무란위장에서 불과 45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돌론노르가 회맹의 장소로 결정된 이유는 이곳이 고비사막을 둘러싼 여러 몽고 부족들이 모이기에 적당한 거리에 위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¹⁹⁷⁾

강희기 이후 승덕에 팔기병을 배치한 것은 피서산장과 무란위장 수렵장을 관리하는 일과 함께 이러한 열하의 전략적 중요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열하내속중국급행궁주방시말기(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의 기록에 의하면, 강희제가 열하로 복순할 때

195) 林趾源, 『熱河日記』 권5, 「漠北行程錄」(임기중 편, 『燕行錄全集』 54集, 동국대학교 출판부, 107쪽.)

196) “竊觀熱河形勢, 其左通遼瀋, 右引回回, 北壓蒙古, 南制天下, 此康熙皇帝之苦心。而其曰避暑山莊者, 特諱之也。” 柳得恭, 『灤陽錄』 권1 「熱河」.

197) 임계순, 앞의 논문, 170쪽.

에 화기영(火器營, tuwai agūrai kūwaran)의 조총병 1,000명이 호위했고, 이들이 열하에서 주둔했다. 아마도 이들은 영구 주둔군인 주방병(駐防兵)은 아니고 임시 주둔한 환방병(換防兵)이었던 것 같다. 열하에 주방병(駐防兵)을 처음 배치한 것은 옹정제였다. 옹정제는 즉위한 이듬해인 1725년(옹정2)에 열하의 1,000명 조총병을 철수시키고 북경에서 병사 800명을 파견하여 열하에 영구 주둔시켰다. 이들 800명을 관리하기 위해 총관(總管, uheri da) 1명, 익장(翼長, galai da) 2명, 좌령(佐領, nirui janggin) 8명, 효기교(驍騎校, funde bošokū) 8명이 설치되었다.¹⁹⁸⁾ 800명의 병력이 열하에만 배치된 것은 아니었다. 열하의 주방(駐防)은 피서산장 한 곳만이 아니고, 카라호톤[喀喇河屯], 화유구(樺榆溝), 무란위장[木蘭圍場]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800명 병사 가운데 열하에 400명, 카라호톤에 200명, 화유구(樺榆溝)에 200명이 주둔했다.¹⁹⁹⁾

1738년(건륭3)에 지휘관의 승격과 병사의 증설이 있었다. 북경에서 1,200명의 병사를 증원 파견해서 주방(駐防)했다. 기존의 800명에 더해 총 주둔군은 2,000명으로 증설되었고, 그 안에 조총병 500명 포함되었다. 주둔군의 증설에 맞추어 총관(總管) 직을 없애고 부도통(副都統, meirein i janggin) 1명을 설치하여 팔기를 통할하게 했다. 기(旗)의 니루(niru, 佐領)마다 협령(協領, gūsai da), 좌령(佐領, nirui janggin), 방어(防禦, tuwašara hafan i jergi janggin), 효기교(驍騎校, funde bošokū) 등의 관원을 설치하여 니루의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게 했다. 官馬 500필을 늘려서 500명의 조총병이 타는 데 사용하게 했다.²⁰⁰⁾ 1763년(건륭28)에 다시 총관(總管) 2명을 설치했다. 이후 계속 주둔병을 증설했다. 1767년(건륭32)에는 팔기만주 주방병이 총 1,595명이었고 몽고병사는 405명이었다. 카라호톤에는 협령(協領) 1명과 병사 400명이 주둔했다. 화유구(樺榆溝)에는 이때 협령(協領) 1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이후에 폐지되었으며, 영취마갑병(領催馬甲兵)이 200명이었다. 무란위장에는 총관(總管) 1명과 병사가 1,000명이 주둔했다. 1810년(가경3)에 열하부도통(熱河副都統) 직을 폐지하고 도통(都統, gusa be kadalara amban)을 설치했다. 열하도통의 관할지역은 승덕부(承德府)와 내몽고의 조오 우다(juu uda. 昭烏達) 맹(盟)과 조소투(josotu. 卓索圖) 맹(盟)의 2맹(盟)이었다.²⁰¹⁾

강희제는 1676년(강희15)에 최초로 복순해서 열하 일대를 순행했고, 1677년(강희17)에

198)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pp.4-5.

199) 定宜莊, 『清代八旗駐防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3). pp.85-86. p.107.

200)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pp.5-6. 1738년 증설된 병사의 수에 대해 본고에서 인용한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의 기록과 『清高宗實錄』의 기록이 약간 다르다. 『清高宗實錄』에 기록된 수치는 아래 참조. 定宜莊, 『清代八旗駐防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3). pp.85-86. p.107.

201) 定宜莊, 『清代八旗駐防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3). pp.85-86. p.107. 定宜莊이 산출한 열하의 駐防兵 수는 『清高宗實錄』의 기록에 근거한다.

는 카라호톤 일대를 순행했다. 이후 1681년(강희20) 무란위장을 설치한 해부터 사망할 때까지, 준가르 공격전에 참전한 두 해를 제외하고 매년 북순을 해서 무란위장에서 수렵을 했다. 1703년(강희42)에 승덕에 피서산장이 건설된 후에는 피서산장과 무란위장이 황제의 북순에서 하나의 연계된 활동공간으로 결합되었다. 강희제가 무란위장에 간 것은 41차례, 승덕으로의 순행을 포함하여 북순을 한 것은 총 57차례으로 추산된다. 옹정제는 13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북순을 하지 않았다. 건륭제는 북순을 재개하여 60년의 재위기와 3년간의 태상황 시기 동안 51차례 피서산장에 갔다. 그 가운데 무란위장에서 수렵한 것은 40차례였다.²⁰²⁾ 그의 아들 가경제는 25년간의 황제 재위기 동안 19차례 피서산장에 갔고, 피서산장에서 61세로 사망했다. 가경제를 마지막으로 청의 황제는 더 이상 무란위장 수렵을 하지 않았지만 승덕에 가는 것은 중단되지 않았다.

황제가 북경을 출발하는 것은 4월부터 7월 사이였다. 대개 강희제는 4월이나 5월에, 건륭제는 6월이나 7월에 북경을 출발했다. 북경으로 돌아오는 것은 9월이나 10월이었다. 황제가 피서산장과 무란위장에 머무는 기간은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였다.²⁰³⁾ 황제의 연간 활동공간 가운데 피서산장과 무란위장이 접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1780년(건륭45)에 건륭제가 머문 장소와 기간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²⁰⁴⁾ 이 해에 건륭제는 남순(南巡) 여행에서 115일, 북경에서 114일, 무란위장과 승덕에서 88일을 소요했다. 승덕에서 머문 기간에 이동 일정까지 포함하면 무려 114일이다. 거의 4개월에 육박하며 일년의 약 1/3이었다.

〈표 3-1〉 1780년(건륭45) 건륭제의 소재지와 머문 기간.

날짜 (년월일)	장소	일수
1780. 1.5 - 1.15	북경	10
1.16 - 6.10	여행(南巡)	115
6.11 - 6.15	북경(원명원)	4
6.16 - 6.20	북경(자금성)	4
6.21 - 6.22	북경(원명원)	1
6.23 - 6.29	여행(북경-승덕)	6
6.29 - 9.25	승덕	88
9.26 - 10.16	여행(승덕-북경)	20

202) 紀欣, 付際紅, 「雍正與清代承德開發」, 『河北旅遊職業學院學報』, 第2期 (2011).

203) 임계순, 앞의 논문, 173쪽.

204) Van F. Symons, Qianlong on the road, The imperial tours to Chengde,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it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p.57.

날짜 (년월일)	장소	일수
10.17 - 10.21	북경(원명원)	4
10.22 - 11.10	북경(자금성)	19
11.11 - 11.17	북경(원명원)	6
11.18 - 1781, 1,23	북경(자금성)	66

건륭제가 승덕에서 지내는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해마다 달랐다. 때로는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승덕 체류 기간을 단축시키기도 했다. 예컨대 승덕으로의 복순이 곧바로 성경(盛京)으로 가는 동순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승덕에 머무는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이기도 했다. 예컨대 1743년(건륭8)의 복순은 승덕을 거쳐 무란위장에서 수렵한 후에 곧바로 동진해서 내몽고 아오한을 거쳐 심양으로 가는 노정이었다. 즉 복순과 동순이 연결된 노정이었다. 이 순행에 소요된 기간은 총 107일이었는데, 승덕에서 머문 기간은 1743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불과 6일간이었다.²⁰⁵⁾ 복순에 연결하여 동순까지 시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에 맞추어 승덕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그러나 복순과 동순을 연계시킨 경우는 건륭 재위기 60년 동안 1743년(건륭8)과 1754년(건륭19)의 두 차례에 불과했다. 건륭제의 복순은 대부분 피서산장과 무란위장만을 목적지로 했고 그곳에서 최소 3개월 내지 최대 6개월까지 지냈다.

승덕에서 지내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건륭제가 피서산장에서 집행하는 정무의 양도 많았다. 황자들과 종친들과 문무대신들이 황제를 수행하여 피서산장에서 머무르며 정무를 집행했다. 북경의 관료는 처리해야 할 방대한 보고서와 문서를 가지고 수시로 피서산장으로 달려왔다. 정무 뿐만이 아니라 번부(藩部)와 외국에서 오는 수많은 사절들의 접견도 승덕에서 이루어졌다. 몽고의 부(部)들은 매년 여름에 승덕에서 황제와 만났고, 그 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에 티베트, 위구르, 부루트(키르키즈), 카자흐, 코칸드, 부하라, 바닷산, 아프간, 조선, 류큐 등 각지에서 오는 사절들이 이번원(理藩院,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의 주관 하에 승덕에서 황제를 알현하는 의례를 거행했고 연회가 열렸다. 특히 건륭제의 생일인 9월 25일은 그가 승덕에 머무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건륭기에 황제의 생일인 만수절(萬壽節)의 축하연회는 40여 년간 언제나 승덕에서 열렸고 수많은 축하사절들이 승덕으로 모였다. 건륭기 승덕은 청제국이 포괄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였다. 필립 포레(Philippe Forêt)와 닝차(Ning Chia)가 승덕을 지칭한 청의 “제3의 수도”라는 표현이

205) 1743년(건륭8) 건륭제의 복순과 동순의 일정과 노정에 대해서는 아래 저서 참조. 王佩環, 『清帝東巡』(遼寧大學出版社, 1991). pp.743-746.

규범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한 측면은 있다.²⁰⁶⁾ 예컨대 승덕은 국가의 수도가 보유해야 할 공식적인 요건들, 즉 국가의 강역 전체를 경영하기 위해 고정적이고 상설적으로 운용되는 행정부서와 건물과 인력, 상시적으로 국가의 다른 도시들과 연결되어 인력과 물자가 유통하는 네트워크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덕은 실질적으로 내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한 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였고 여름에 국한하여 수도의 기능이 작용하는 공간이었다.

제4절 건륭기 승덕의 발전 -외팔묘와 도시의 형성-

승덕은 건륭기에 들어서 강희기보다 더욱 내륙아시아 민족들의 정치중심지로 발전해갔다. 청은 건륭제 시기에 대규모 원정을 통해 청조 최대의 강역을 형성했다. 1750년대 후반, 즉 건륭 20년대 전반기에 서몽고 준가르를 멸망시킴으로써 청나라는 동북부(만주), 중국 내지, 몽골 고원, 동투르키스탄을 포함한 천산산맥의 남북 양측 지역(신강), 티베트로 구성된 청제국을 완성했다. 건륭기 청이 형성한 강역과 다민족국가의 면모는 승덕의 대규모 불교 사찰들로 표현되었다. 피서산장의 주위에 다수의 초대형 사찰들이 건축되었고 중국과 몽고 각지와 티베트에서 온 900여명의 승려들이 거주했다.

청의 황제는 청 초기부터 내륙아시아의 지배종교인 티베트 불교를 후원했다. 그 정치적 목적은 티베트 불교를 지원함으로써 내륙아시아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있었다.²⁰⁷⁾ 청의 황제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자신을 다양한 신민에 맞추어 여러 형태로 표현하는 데 능숙했다. 황제는 만주족의 한(han)일 뿐만 아니라 한인에 대해서는 유가적 성왕(聖王)이자 황제(皇帝)였고, 몽고에 대해서는 칭기즈칸의 정통을 계승한 대칸이었고,²⁰⁸⁾ 티베트에 대해서는 극락정토의 불법을 현세에 펼치는 차크라마틴(轉輪聖王)이었다. 청제국의 황제는 ‘다면성’(simultaneity)을 띄고 다양한 유형의 백성을 통치했다.²⁰⁹⁾ 청의 황제는 상이한 여러 정치체제의 통치 중심이자 왕중왕이었고, 하나의 국

206) Philippe Forêt, *Making an Imperial Landscape in Chengde, Jehol : The Manchu Landscape Enterprise*, University of Chicago, 1992;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 (1644-1795)*, *Late Imperial China* 14, no.1 (1993), pp. 60-92.

207) 청조의 티베트 불교 후원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 논한 고전적인 논문은 아래와 같다. David Farquhar,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8, No. 1 (Jun., 1978), pp. 5-34. 청제국이 몽고를 지배하기 위해 티베트 불교가 불가결한 요소였음은 아래에서 논하고 있다. 김선민,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사총』 88권, 2016. 16-22쪽.

208) 제임스 밀워드(James Millward)는 청황제에게 칭기즈칸의 정통성을 계승한 후계자를 표방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아래에서 강조하고 있다. James A. Millward, "Qing Inner Asian Empire and the Return of the Torghuts", pp.96-98.

가 안에 공존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한 몸에 모아서 구현했다. 황제의 다면성 가운데 승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얼굴은 몽고의 대칸과 불교의 수호자의 모습이였다.

건륭제는 ‘다면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황제였고, 불교에 가장 깊이 경도된 황제였다. 그는 판첸라마에게 수계(受戒)했고, 불교의 판테온 속에서 자신을 문수보살(文殊菩薩. bodhisattva Manjusri)의 화신으로 간주했다. 그는 일생 동안 문수신앙의 성지인 오대산을 여섯 차례나(1746, 1750, 1761, 1781, 1786, 1792) 방문했고, 방문할 때마다 한 달 넘게 머물렀다.²¹⁰⁾ 건륭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티베트 불교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신심 깊은 불교 신자였다.²¹¹⁾ 승덕의 대규모 사찰군은 청이 내륙아시아 지배를 확대해가는 과정과 건륭제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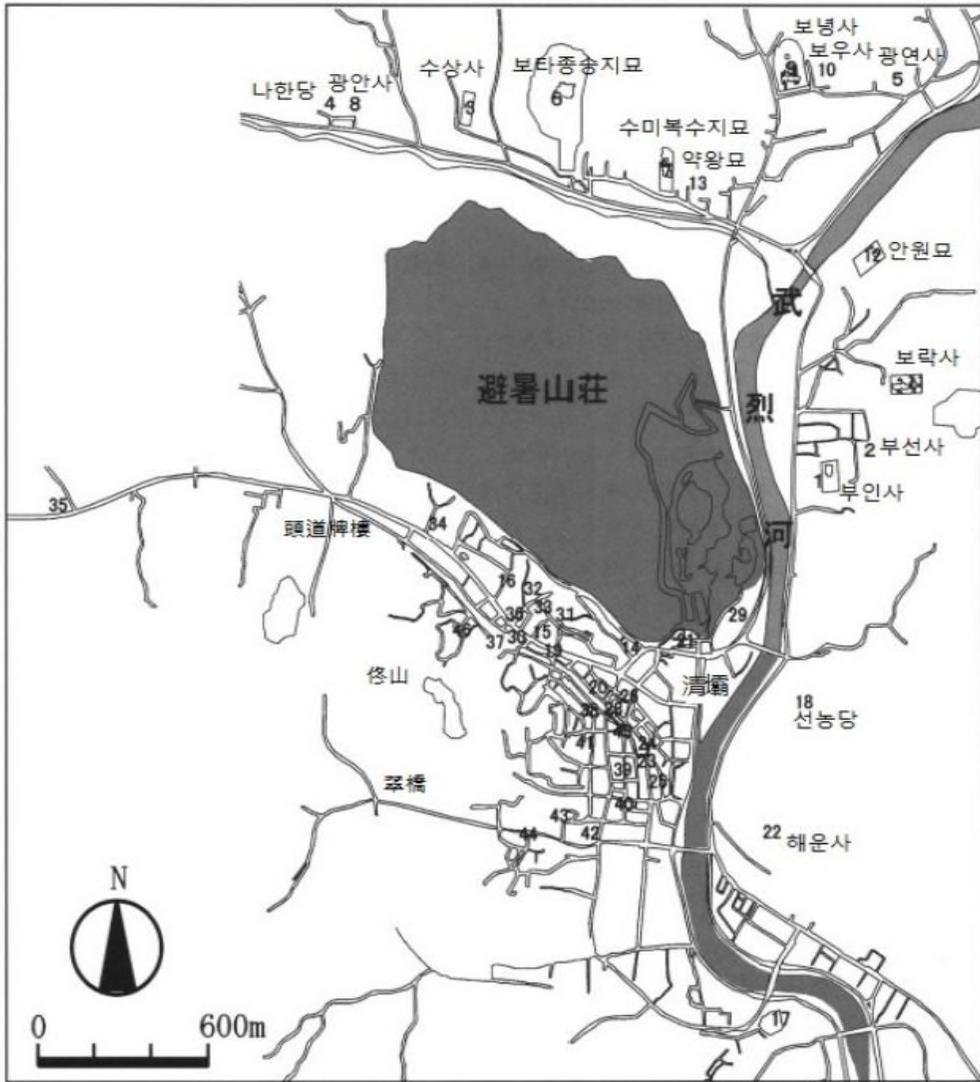
승덕의 초대형 사찰들은 모두 12곳으로, 부인사(溥仁寺), 부선사(溥善寺), 보녕사(普寧寺), 보우사(普佑寺), 안원묘(安遠廟), 보락사(普樂寺), 보타종승지묘(普陀宗乘之廟), 광안사(廣安寺), 수상사(殊像寺), 나한당(羅漢堂), 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 광연사(廣緣寺)이다. 이 사찰들은 1713년(강희52)부터 1780년(건륭45)까지 67년간에 걸쳐 피서산장 외곽의 동쪽과 북쪽 산기슭에 건설되었다. 이 가운데 부인사(溥仁寺)와 부선사(溥善寺)만 강희기에 지어졌고 나머지 10곳은 모두 건륭기에 건설되었다. 12개 사찰 가운데 8개인 부인사(溥仁寺), 부선사(溥善寺), 보녕사(普寧寺)(보우사(普佑寺)를 부속사찰로 포함), 안원묘(安遠廟), 보타종승지묘(普陀宗乘之廟), 수상사(殊像寺), 수미복수지묘(須彌福壽之廟), 광연사(廣緣寺)가 외팔묘(外八廟)였다. 그러나 때로는 광의로 12개 사찰 전부를 외팔묘라고 통칭하기도 했다. 외팔묘라는 명칭은 청 정부가 설립하고 북경의 티베트 불교 중심사

209) 피통치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청 황제의 다면적 속성을 파멜라 크로슬리는 ‘simultaneity’라는 용어로 설명했다. 크로슬리는 이 개념어를 ‘兼’이라는 한어에서 착안했다. 즉 청의 황제는 통치 하에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민 각각에 맞추어 다양한 통치자의 속성(persona)으로 대했기 때문에, 한 몸에 여러 속성을 ‘겸’했다는 것이다. 중국학계에서는 크로슬리의 ‘simultaneity’를 ‘同時性’ 등의 용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필자는 이를 ‘다면성’으로 번역한다. 크로슬리의 아래 책 참조. Pamela Kyle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서문.

210) Mark Elliott,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Pearson Longman, 2009(양희웅 번역, 『건륭제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천지인, 2011, 171쪽)

211) 연구자들은 청황제가 티베트 불교를 후원한 이유를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서 찾았고, 황제 개인의 신앙심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는 청황제, 특히 건륭제가 개인적으로 불교를 깊이 신봉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아래 논문이 유용하다. Elisabeth Benard, *The Qianlong emperor and Tibetan Buddhism*,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edited by James A. Millward,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pp.123-135. 건륭제의 정치적 권위와 불교미술의 관련성에 대한 저서는 아래와 같다. Patricia Ann Berger,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찰인 옹화궁(雍和宮. hūwaliyasun hūwaliyaka gung)에서 관리한 승덕의 8개 사찰이 장성 고북구(古北口)의 밖에 있다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었고, 북경 인근의 32개 사찰과 대비하여 칭한 이름이었다.



<그림 3-6> 승덕의 寺廟

- 1.溥仁寺 2.溥善寺 3.殊像寺 4.羅漢堂 5.廣緣寺 6.普陀宗乘之廟 7.須彌福壽之廟 8.廣安寺(戒台寺) 9.普寧寺
- 10.普佑寺 11.普樂寺 12.安遠廟 13.藥王廟 14.關帝廟(武廟) 15.文廟(孔子廟) 16.城隍廟 17.魁星樓 18.先農壇
- 19.文昌閣 20.火神廟 21.開仁寺 22.海雲寺 23.闕姥閣 24.竹林寺 25.普陀禪院(菩薩廟) 26.福山寺(鐘鼓樓) 27.土地祠
- 28.小龍王廟 29.河神廟 30.赦孤堂 31.宏濟寺 32.北馬神廟 33.隆興寺 34.西龍王廟 35.高廟 36.節孝祠
- 37.南馬神廟 38.三義廟 39.三官廟 40.夏公祠 41.酒仙廟 42.九雲頂娘娘廟 43.忠義廟 44.魯班祠 45.東清真寺
- 46.西清真寺

출처: 李海泉, 「中国河北省承德市における寺・廟の建設意圖の分析」, 『やまぐち地域社会研究』 권11호, 山口大学人文学部 山口地域社会学会, 2014, 3.)

외팔묘는 청 정부에서 승려를 파견하고 북경의 이번원 소속의 라마인무처(喇嘛印務處)에서 승려의 월급과 자금을 지급해서 운영된 일종의 국립사찰이었다. 승덕 현지에서 외팔묘 전체를 관할하는 것은 보녕사(普寧寺)에 주재하는 감포(mkhen po. 堪布)였다. 감포는 티베트 불교에서 주지를 의미했다. 감포의 관할 하에 외팔묘 각각의 사찰을 관할하는 것은 다-라마(da lama. 達喇嘛)였다. 다-라마는 수석을 의미하는 만주어 ‘다’(da)와 승려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라마’(lama)를 합쳐 만든 명칭이었다. 12개의 사찰 외에도 승덕에 건립된 소규모의 민간사찰들이 다수 있었고, 불교 사찰 외에 민간종교 시설까지 계산하면 수는 더욱 많아진다. 아래의 표는 승덕 출신의 연구자인 이해천(李海泉)이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병행하여 작성한 사묘(寺廟)의 목록이다. 원래의 목록에서 가경제 시기부터 설립된 민간신앙 시설 20곳의 목록은 생략하고 만주어명칭과 건축양식 항목을 추가했다.

〈표 3-2〉 승덕의 사찰과 기타 종교시설.

순서	명칭	별칭	만주어명칭	건설연도	神	건립계기	양식
1	竹林寺			1704 (강희43)	菩薩, 土地神		
2	火神廟		h' o enduri juktehen	1711 (강희50)	火神, 미륵불		
3	開仁寺			1711 (강희50)	觀音 등		
4	忠義廟			1713 (강희52)	유비, 관우, 장비		
5	*溥仁寺	前寺	gosin akūnara juktehen	1713 (강희52)	無量壽佛 (티베트식)	강희제 60세 기념. 몽골 귀족의 집회장소	중국식
6	*溥善寺	後寺	sain akūnara juktehen	1713 (강희52)	佛像 (티베트식)	"	중국식
7	海雲寺			1713 (강희52)	觀音 등 불교와 도교 신		
8	東清真寺			1718 (강희57)	이슬람	이주한 회족의 사원	
9	關帝廟	武廟		1732 (옹정10)	관우, 유비, 장비, 岳飛		
10	酒仙廟			1736 (건륭1)	呂洞賓, 杜康, 劉伶		
11	赦孤堂			1736 (건륭1)	孤魂 등		

순서	명칭	별칭	만주어명칭	건설연도	神	건립계기	양식
12	*普寧寺	大佛寺	gubci nikton juktehen	1755 (건륭20)	千手千眼觀音 (티베트식)	준가르 평정 기념	전반부 중국식 후반부 티베트식 티베트 삼예寺 모방
13	藥王廟			1755 (건륭20)	孫思邈, 扁鵲, 華佗, 張仲景, 王叔和		
14	三官廟			1755 (건륭20)	天官, 地官, 水官		
15	*普佑寺		gubci aisire juktehen	1760 (건륭25)	석가모니	讀誦용 건물	중국식. 普寧寺 옆에 건설
16	*安遠廟	伊犁廟	gorokingge be elhe obure muktehen	1764 (건륭29)	綠度母 (티베트식)	몽골 다쉬다와부 이주 기념	몽고식 준가르 구르차廟 모방
17	西清真寺			1765 (건륭30)	이슬람	이주한 회족의 사원	
18	普樂寺	圓亭子	gubci sebjengge juktehen	1766 (건륭31)	만다라(壇城) (티베트식)	카자흐와 키르키즈 사절단 거주	중국식과 티베트식 혼합.
19	*普陀宗 乘之廟	小布 達拉宮	budala i tob šajin i muktehen	1771 (건륭36)	촌카파	건륭제 60세 생일 축하와 툄구트부 왕공의 進貢기념	티베트식. 티베트 라사의 포탈라궁 모방
20	廣安寺	戒台寺		1771 (건륭36)	불상 (티베트식)	受戒의식을 거행하는 장소	티베트식
21	城隍廟			1772 (건륭37)	城隍		
22	*殊像寺	乾隆家廟	manjusiri lakšangga juktehen	1774 (건륭39)	文殊菩薩		중국식. 五臺山 殊像寺 모방
23	羅漢堂		argat i tanggin	1774 (건륭39)	羅漢像		浙江 海寧 安國寺 모방
24	文廟	孔子廟		1776 (건륭41) -1779 (건륭44)	孔子		
25	*廣緣寺			1780 (건륭45)	불상 (티베트식)		중국식
26	*須彌福 壽之廟	班禪 行宮	sumiri alin i adali hüturi jalafungga muktehen	1780 (건륭45)	석가모니	6세 판첸라마의 講經과 거주지	티베트식. 티베트 시가체의 타시룬포사 모방

*는 외팔묘.

출처: 李海泉, 「中国河北省承德市における寺・廟の建设意圖の分析」, 『やまぐち地域社会研究』 권11호 (山口大学 人文学部 山口地域社会学会, 2014, 3)

외팔묘 사찰들의 대부분은 청이 강희기부터 건륭기까지 내륙아시아에 대한 지배를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들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외팔묘는 중국과 북방 초원세계를 모두 지배하는 청의 제국적 성격을 상징한다. 이를 일차적으로 건물의 외형과 건물들의 배치 형식, 즉 건축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팔묘의 건축양식을 중국식, 티베트식, 양자의 혼합식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중국식이란 건물의 외형과 함께 건물군을 중국 전통의 형식에 따라 산문(山門)·천왕전(天王殿)·종루(鐘樓)·고루(鼓樓)·대웅보전(大雄寶殿)·동배전(東配殿)·서배전(西配殿)의 순서로 배치한 것을 가리킨다. 티베트식이란 건물의 외형이 티베트식인 것과 함께 건물들을 만다라의 형태로 배치한 것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부인사, 부선사, 수상사, 나한당, 광연사는 중국식 사찰로 구분되고, 보타중승지묘, 수미복수지묘, 광안사는 티베트식 사찰로 구분되며, 보녕사, 보우사, 안원사, 보락사는 중국식과 티베트식의 혼합형으로 구분되고 있다.²¹²⁾ 그러나 이 구분은 개략적인 것이다. 외팔묘 사찰의 건물 외형은 중국식이라고 해도 내부의 장식이나 불상의 배치에 티베트식이 도입되었고, 티베트식이라고 해도 순수한 티베트식이 아니고 중국적 건축양식이 혼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외팔묘라는 공간의 수많은 건물군 자체가 중국식과 티베트식을 혼용한 새로운 건축양식을 나타낸다. 외팔묘의 혼용된 새로운 건축양식은 중국과 내륙아시아를 아울러 지배하게 된 청의 제국적 지배 체제를 상징한다.

외팔묘의 건설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680년대 강희 중기부터 1758년 건륭 초기까지 약 70년간 진행된 청과 준가르의 전쟁과 준가르의 멸망, 그 결과 청이 내몽고와 외몽고에 이어 서몽고와 티베트까지 완전하게 청의 제국적 지배질서 안으로 편제한 것이었다. 강희제는 1690년대에 준가르의 갈단을 패퇴시키고 외몽고 칼카를 자진 복속시킴으로써 준가르로부터의 위협과 몽고의 통일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준가르는 갈단이 사망한 후에도, 그의 조카인 체왕 랍단(재위:1694-1727)의 지휘하에 동투르키스탄 북부의 일리강 일대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동투르키스탄 남부의 타림분지와 북쪽으로 카자흐 남부의 세미레체 지역까지 지배하는 제국을 유지하며 세력을 증강시켜갔다. 17-18세기에 중앙유라시아에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간 것은 청과 러시아만이 아니었다. 준가르도 청이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지배의 영역을 확장해갔다. 팽창해가던 제국들은 결국 충돌하게 되었다.

청의 옹정제는 준가르의 체왕 랍단이 사망하고 갈단 체렝(재위:1727-1745)이 수장 지위를 계승한 과도기를 이용하여, 1729년(옹정7)부터 준가르 공격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212) 于佩琴, 「承德外八廟建築風格及其象征意義」, 『河北民族師範學院學報』, 제1기 (2014), pp.12-14.

1731년(옹정9) 대장군 푸르단(furdan, 傅爾丹)이 이끄는 청군은 현재 몽골국 부안투 부근의 호톤 노르(Khoton noor, 和通泊)에서 준가르군에 대패했고 병력 6만이 전멸했다. 이 패배로 청은 서북부 변경의 경략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향후 20년간 준가르와의 전쟁에서 위축되었다. 호톤 노르에서의 패배 후에 옹정제는 정전(停戰) 정책을 유지했다.²¹³⁾

건륭제는 황위에 오른 후에 옹정 후기의 정전 정책을 계승하여 준가르와의 평화 기조를 유지했다. 1739년(건륭4)에 청과 준가르는 정전에 합의했고 그 후 10년간 양국 사이에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745년 갈단 체렁이 사망하자 상황이 급속히 변화했다. 준가르의 귀족층은 분열하여 상쟁했고, 그 일부는 청의 세력을 이용하여 준가르의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자 했다.²¹⁴⁾ 청은 준가르의 내분을 이용하여 1755년(건륭20) 중심부인 일리(현재 중국 新疆省 伊寧市)를 공격했다. 100여일의 전투 끝에 청은 수장인 다와치를 생포하고 준가르를 멸망시켰다. 3년 후인 1758년(건륭23)에는 동투르키스탄의 남부(回部) 위구르를 공격해서 병합했다. 다음 해에 청은 동투르키스탄을 신강(新疆)으로 명명하고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준가르를 정복한 사건은 청의 역사에서 중국을 정복한 사건에 버금가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준가르를 정복함으로써 청은 17세기 초 누르하치 시기부터 몽고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이래 약 150년 만에 내몽고와 외몽고에 이어 서몽고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청의 변강의 비한족으로 구성된 번부(藩部, tulergi golo)가 완성되었다. 청과 러시아와 준가르가 각축해오던 중앙유라시아는 이후 청과 러시아의 세력이 상충하는 장이 되었다.²¹⁵⁾

준가르를 멸망시킨 청의 업적은 책으로 만들어졌다. 준가르가 멸망한 1755년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1770년에 완수된 jung'ar i ba be necihiyeme toktobuha bodogon i bithe(준가르 지역을 평정한 방략의 글. 『평정준갈이방략(平定準噶爾方略)』)은 청이 편찬한 가장 방대한 원정사였다. 이 서적은 1700년부터 1765년까지의 기간을 총망라하여 사소한 외교적 사건에서부터 세밀한 보급상의 세부 사항까지 엄청난 분량의 문서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편찬되었다. 이 책은 승자의 입장에서 쓰였고, 중앙유라시아의 넓은 영토를

213) 호톤 노르 전투에 대해서는 아래 논저 참조. 左書鐸, 「雍正朝平准戰爭中的幾個問題」, 『青海民族學院學報』 第2期 (1987); 張傑, 「論清代靖邊右副將軍塔爾岱」, 『黑龍江民族叢刊』 第4期 (2006); 張建, 「和通泊之戰新研—以黑龍江兵丁爲中心」, 『清史研究』, 第1期 (2010);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譯, 『雍正朝滿文朱批奏摺全譯』 下冊 (黃山書社, 1998), pp.1643-1644.

214) 宮脇淳子, 『最後の遊牧帝國: ジュンガル部の興亡』 (東京: 講談社, 1995). (조병학 번역, 『최후의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262-263쪽.)

215) 청과 준가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서는 아래와 같다. Peter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공원국 번역, 『중국의 서진』, 길출판사, 2012.)

통치할 건륭제의 권리를 주장하는 도구가 되었다. 제국을 형성했던 준가르는 이 책에서 청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역도 내지 배반자 집단이 되었다. 건륭제의 역사가들은 몽고를 필연적이고 본질적으로 청에 부속되어 있고 그 일부인 것으로 묘사했다.²¹⁶⁾ 이들의 영향은 현대 중국인 학자들에게 이어졌고, 대다수의 중국인 학자들은 준가르를 청의 ‘반란(叛亂)’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준가르 정복의 서지적 기념이 『평정준같이방략』이라면, 승덕의 외팔묘는 그것을 공간에 거대한 건축물로 표상한 초대형 기념물이었다.

외팔묘 가운데 최초로 건설된 부인사(溥仁寺, gosin akūnara juktehen. 어짐이 무한한 사찰)와 부선사(溥善寺, sain akūnara juktehen. 좋음이 무한한 사찰)는 강희기에 청이 준가르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전한 후에, 칼카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건립했다. 1713년(강희52) 열하에서 열린 강희제의 60세 생일 축하연에 참석한 몽고 왕공들이 생일을 축하하며 기념 사찰을 건립하자고 건의한 것이 건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건설 비용을 제공한 것도 몽고 왕공들이었다. 두 사찰은 건립된 후에 몽고 왕공들이 회합하는 장소로 쓰였다.²¹⁷⁾

건륭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외팔묘 사찰인 보녕사(普寧寺, gubci nikton juktehen. 세상이 안녕한 사찰)는 1755년(건륭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759년(건륭24년)에 완공되었다. 건립의 계기는 1755년 청이 준가르를 멸망시킨 사건이었다. 준가르 정복전이 일단락된 1755년 10월에 건륭제는 피서산장에서 연회를 열고 전쟁에서 투항한 오이라트의 귀족들을 책봉하면서 보녕사의 건립을 지시했다. 사실 준가르를 멸망시키고 다와치를 생포했지만 준가르 정복전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었다. 청의 준가르 정복전에 협조했던 오이라트 호이트부(部)의 수장(타이시)인 아무르사나(1723-1757)가 청에게 약속받았던 준가르 칸 지위를 받지 못하자 무력저항을 시작함으로써 준가르 분지는 다시 전쟁에 휩싸였다. 또한 준가르 제국의 일부였던 동투르크스탄 남부의 알티샤르도 아직 저항중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보녕사의 건립에 지장을 주지는 못했다. 보녕사는 강희기 이래 1세기 가까이 내륙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청과 길항했던 국가의 종식을 공언하는 기념물이었고, 몽고의 대부분이 청에 복속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물이었다. 청은 중국에서 출발하여 북방의 초원세계까지 지배하게 된 초유의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북방 초원과 티베트를 지배하는 청의 제국적 성격은 보녕사의 복합적인 건축양식에 표상되었다.

216) Peter Perdue, 앞의 책, pp.607-609.

217) 『承德古建築』, p.147.



〈그림 3-7〉 보녕사



〈그림 3-8〉 보녕사의 대승지각(大乘之閣, amba kulge i asari)

보녕사는 건축양식의 측면에서 중국식과 티베트식을 연결하여 전후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는 중국식 사찰 양식을 따라, 산문(山門)·천왕전(天王殿)·종루(鐘樓)·고루(鼓樓)·대웅보전(大雄寶殿)·동배전(東配殿)·서배전(西配殿)의 일곱 건물이 배열되었다. 후반부는 티베트 최초의 사찰인 삼예사(bSam-yas, 桑耶寺)를 모방하여 만다라 건축 체제에 따랐다. 후반부 건물군의 중앙에 배치된 대승지각(大乘之閣, amba kulge i asari)은 우주의 중심인 수메르산을 상징하고, 대승지각의 양쪽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전각이 배치되었으며, 사방에는 네 대륙인 동승신주, 서우하주, 남섬부주, 북구로주를 상징하는 네 개의 전각이 배치되었다.

안원묘(安遠廟, gorokingge be elhe obure muktehen. 원지인을 평안하게 하는 사찰)는 보녕사에 이어 1764(건륭29)에 건설되었으며, 보녕사와 마찬가지로 준가르 정복의 산물이었다. 이 사찰은 준가르의 부족장이었던 다쉬다와의 부족이 청에 귀순하고 승덕으로 이주한 것을 기념하여 건설된 것이다. 다쉬다와는 갈단 체렁의 아들로, 1745년 갈단 체렁이 사망한 후 귀족층의 분열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피살되었다. 그 후 다쉬다와의 부족은 그의 부인의 인술 하에 준가르의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서 거주지인 일리강 유역을 떠났다. 1755년 말에 다쉬다와 부족은 청의 요새도시인 바르콜(Barkol. 巴里坤. 청대 鎮西府. 현재 신강 바르콜 카자흐 자치현[巴里坤哈薩克自治縣])로 이동하여 청에 투항했다. 1756년에 다쉬다와의 부인이 사망한 후, 청은 다쉬다와 부족민을 외몽고 칼카의 오르혼으로 이주시켰다가, 1759년(건륭24) 5월 승덕으로 이주시켰다. 이주민은 모두 2,136명이었다. 청은 이들을 황제에 직속한 기(旗)인 상삼기(上三旗)에 편입시키고 주택과 가축과 식량과 목장을 지급해서 정착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종교생활을 위해 정착지 인근에 일리강 북안에 있던 굴자묘(굴자도강[固爾札都綱]. 固爾扎廟. 金頂寺)을 모방해서 안원묘를 건설했다.²¹⁸⁾ 안원묘는 일리에 있는 사찰을 모방했기 때문에 일리묘[伊犁廟]라고도 불렀다. 굴자묘(廟)는 준가르의 수장 체왕 랍단(재위: 1694-1727)이 1717년에 건립한 사찰이었다. 이 사찰은 오이라트 4부가 회맹하는 장소이자 오이라트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인 일리에 건립되었고 건립한 직후부터 1750년대 청과의 전쟁 과정에서 소실되기까지 오이라트인의 종교적 성소였다.²¹⁹⁾ 승덕에 안원묘를 건립한 직접적 계기는 다쉬다와 부족의 종교생활을 위하는 데 있었을지라도, 거시적인 측면에서 안원묘는 준가르 제국의 종교적 권위를 승덕으로 이동시킨 것이었다.

218) 다쉬다와 부족의 이주에 대해 아래 논문 참조. 袁森坡, 「達什達瓦部東遷熱河」, 『渤海學刊』, 第1期 (1990), pp.100-105; 特克寒, 「厄魯特蒙古達什達瓦部東遷承德考」,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第3期 (2000), pp.61-64; 唐玉萍, 「從避暑山莊的興建看康熙乾隆的民族政策」, 『昭烏達蒙族師專學報』 第1期 (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0). pp.35-36.

219) 일설에 의하면 굴자(uyalja)는 몽골어로 '盤羊'을 의미하며, 盤羊의 뿔을 이용해서 굴자寺의 내부를 장식했기 때문에 굴자寺로 명명했다고 한다. '도강'은 몽골어로 '불경을 강설하는 강당', 즉 '講經堂'을 의미한다. 굴자寺의 大殿의 金頂이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기 때문에 金頂寺라고도 했다. 굴자寺에 대해 (乾隆)『西域圖志』 권12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림 3-9〉 안원묘



〈그림 3-10〉 보타종승지묘

1771년(건륭36)에 완공된 보타종승지묘(普陀宗乘之廟, budala i tob šajin i muktehen. 포탈라의 宗承의 사찰)는 티베트 라싸의 포탈라궁의 외형을 모방한 전형적인 티베트식 사찰이다. 한어 명칭인 보타(普陀)와 만주어 명칭인 부달라(budala) 자체가 아발로키테스바라(avalokiteśvara. 관세음보살)가 거하는 장소를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어로 부르는 포탈라(potala)의 변음이다. 그래서 보타종승지묘의 별칭은 소포달랍궁(小布達拉宮)이었다. 보타종승지묘는 규모면에서 외팔묘 가운데 최대였다. 이 사찰은 건륭제 자신의 60세 생일(1770)과 모친인 황태후의 80세 생일(1771)을 축하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²²⁰⁾ 완공되자마자 몽고 툄구트부(部)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되었다. 사찰이 완공된 1771년(건륭36) 7월 러시아의 볼가 강변에서 거주하던 툄구트부(部)가 청에 복속해 왔다. 툄구트는 원래 서몽고 오이라트의 일부로서 준가르 분지 일대에서 거주하다가 1628년경 준가르 분지를 떠나 볼가 강변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러시아의 남부 변경민으로 살아왔다. 그들이 일리 일대로부터 볼가 강변으로 떠난 지 150여년 만에 러시아의 착취를 피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다. 1771년 1월 5일 볼가 강변을 출발할 때 17만여 명이었던 툄구트 부족민은 7개월간의 강행군의 과정에서 동사하고, 아사하고, 전사하여 일리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했을 때 인원의 절반만이 남아있었다. 툄구트의 우바시 칸(1743-1775)은 일리에 부족민을 남겨두고 건륭제를 배알하기 위해 열하에 왔다. 건륭제는 툄구트를 받아들이고 우바시를 환대했다. 우바시와 동행한 툄구트의 고위 승려에게 건륭제는 막 완공된 보타종승지묘에서 예배를 보게 했다.²²¹⁾

툄구트의 귀환은 세계의 군주를 자임하던 건륭제의 자존감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 청의 국력과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건륭제는 직접 「툄구트 전 부족 귀순기」(土爾扈特全部歸順記)와 「툄구트 부족 구휼기」(優恤土爾扈特部眾記)를 짓고, 두 글을 만주문, 한문, 몽고문, 티베트문의 네 종류 문자로 비석에 새겨서 보타종승지묘 앞에 세웠다. 「툄구트 전 부족 귀순기」에서 건륭제는 툄구트의 귀순으로 인해 몽고에 속하는 모든 부족이 대청(大清)에 복속했음을 선언했다. 보타종승지묘는 건륭제가 몽고의 모든 부족이 대청제국에 복속했음을 선포하고 각인한 장소였다.

수상사(殊像寺, manjusiri lakšangga juktehen. 문수보살의상이 있는 사찰)는 1774년(건륭39)에 건축되었고 문수보살을 본존으로 모셨다. 문수보살은 청의 황제를 상징했

220) 董旭, 『承德普陀宗乘之廟歷史與建築研究』, 河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5). pp.25-26.

221) Michael Khodarkovsky, *Where Two Worlds Met: The Russian State and the Kalmyk Nomads, 1600-1771*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James A. Millward, *Qing Inner Asian empire and the return of the Torghuts,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and Philippe Forê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다. 순치제는 달라이 라마 5세로부터 문수보살화신대황제(文殊菩薩化身大皇帝)라는 호칭을 받았고, 건륭제는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자처했으며 불법을 현세에 펼치는 차크라바틴(轉輪聖王)임을 표방했다. 그러므로 수상사는 외팔묘라는 티베트 불교 세계 속에, 문수보살의 화신인 청의 한(han)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²²²⁾



〈그림 3-11〉 수상사



〈그림 3-12〉 수미복수지묘

222) 石橋崇雄, 앞의 책, p.226.

보타중승지묘와 함께 전형적인 티베트식 사찰인 수미복수지묘(sumiri alin i adali hüturi jalafungga muktehen. 수메르산 같은 福과 壽의 사찰)는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에 있는 판첸라마의 거처인 타쉬룬포사를 모방하여 건설했다. 건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6대 판첸라마인 립짱 팔단 이시(Blo-bzang Dpal-ldan Ye-shes, 羅桑華丹益希. 1738-1780)의 방문을 환영하고 그의 거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찰은 판첸행궁(班禪行宮)이라고도 불렸다. 보타중승지묘가 티베트 최고의 정교합일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의 궁전의 복제품이라면, 수미복수지묘는 티베트 제2의 지도자인 판첸라마의 궁전의 변형된 복사본이었다.

외팔묘의 사찰들은 티베트 불교 세계의 주요한 사찰들의 변형된 모방품이었다. 보녕사는 티베트 최초의 사찰인 삼예사를 모방했고, 안원묘는 준가르 제국의 중심지인 일리의 굴자寺를 모방했으며, 보타중승지묘는 티베트의 중심지인 라싸의 포탈라궁을, 수미복수지묘는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의 타쉬룬포사를 모방했다. 그러나 외팔묘는 단순히 건축물의 모방품이 아니고, 라싸와 시가체와 일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권위들을 가져와서 승덕이라는 공간에 재배치한 만다라였다. 승덕 만다라에서 청 황제는 피서산장과 수상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표상했다.

1703년(강희42) 피서산장이 건설되기 전에 ‘하룬 골’ 혹은 ‘열하상영(熱河上營)’으로 불리던 훗날의 승덕은 20-30호(戶)가 거주하는 소규모 촌락이었고, 일대는 몽고인이 유목하는 초지였다. 피서산장이 건설되면서 피서산장의 남서부에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거주지의 규모가 확대되어갔으며, 촌락에서 도시로 발전해갔다. 피서산장을 건설하면서 민간인이 거주하는 도시를 계획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도로의 구조가 무질서한 형태임을 보면 도시계획이 부재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대 승덕 도시부의 정확한 규모나 도시계획에 대한 사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현지 조사에 의해 개략적인 규모와 범위를 추정할 수는 있다. 승덕시의 1993년 현지 조사 보고에 의하면 청대 승덕 도시부의 범위는 피서산장의 동쪽의 무열하(武烈河)의 제방인 청파(淸壩)부터 서쪽의 동산(修山)까지, 서북쪽의 두도패루(頭道牌樓)부터 남쪽의 취교(翠橋)까지, 북쪽의 피서산장 담장까지이다. 승덕에서 왕부(王府)의 저택과 평민의 거주지 구역에 뚜렷한 구분은 없었다. 도시의 변화가는 서대가(西大街), 양시(糧市), 마시(馬市), 화신묘(火神廟), 태평교(太平橋), 이선거(二仙居), 남영자(南營子) 등지였다.²²³⁾

승덕의 도시부에서 민간인만 거주한 것은 아니었다. 황제를 수행하는 왕공대신들도 승덕 도시부에 저택을 건설했다. 강희제 이래 청의 황제들은 수렵을 하기 위해 무란위장에

223) 陳寶森 主編, 承德市城鄉建設志編纂委員會 編, 『承德市城鄉建設志』(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3), p.19.

오가면서 피서산장에서 2-3개월을 머물렀다. 이 때문에 왕공대신들은 승덕에 저택을 건설했다. 예컨대 동산(修山)에는 강희제의 외삼촌 동국유(修國維, 1643-1719)의 저택이 있었고, 동부(修府)라고 불렸다. 동산(修山)이라는 지명 자체가 동국유(修國維)의 성을 딴 지명이었다.²²⁴⁾ 피서산장의 입구인 여정문(麗正門, genggiyen tob duka)의 동남쪽 거리 맞은편에는 제왕부(齊王府)와 정왕부(鄭王府)가 있었고, 문묘(文廟) 인근에는 장왕부(莊王府)가 있었다.

강희제는 1711년(강희50)에 승덕에 대해 “농업과 양잠으로 먹고 사는 거주민이 만가(萬家)”라고 말했다. ‘만가(萬家)’라는 표현이 당시 승덕 도시부의 인구를 정확히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많다’는 의미인지 모호하지만, 피서산장을 건설한지 10년만에 승덕 도시부의 인구집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된 것은 확실하다. 도시에는 만주인, 한인, 몽골인, 티베트인이 잡거했다. 표에서 보듯이 강희 40-50년대에 한인의 민간종교 시설인 죽림사(竹林寺), 화신묘(火神廟), 개인사(開仁寺), 충의묘(忠義廟), 해운사(海雲寺)가 건설되었다는 것은 승덕으로의 한인 유입이 피서산장 건설 직후부터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한인이 내지에서 출발하여 곧바로 승덕으로 온 경우도 있겠지만, 카라친의 유목지를 개간하고 경작하며 살던 한인 빈민이 승덕으로 이동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지의 한인 빈민은 순치기 이래 장성을 넘어 내몽고의 유목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각 민족별로 거주 지역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인과 몽고인은 장성을 구분선으로 거주지가 엄격히 구분되었다. 그러나 순치기와 강희기를 거치며 내지의 인구압이 증가하고 농경지가 부족해져서 한인의 생계문제가 심각해지자, 1681년(강희20)부터 제한적으로 장성 북쪽으로 한인이 이주하여 개간하는 것을 허가했다. 1년에 호부(戶部)에서 발급하는 이주허가증은 800장 정도였다. 승덕 일대를 영유한 카라친부는 이주한 한인이 개간을 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한인의 이주를 환영했다. 이 때문에 피서산장이 건립되기 이전에 장성부터 승덕까지 몽고인의 유목지 사이에 한인 농경민들이 상당수 거주했고, 이들이 피서산장의 건설과 함께 승덕 도시부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부류의 한인은 피서산장을 건립할 때 대규모로 동원된 내지의 한인들이다. 이들은 주로 내지의 빈민들과 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피서산장이 완공된 후에 내지로 돌아가지 않고 승덕 도시부와 그 일대에 영구 거주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승덕 도시민 가운데 일부는 회족, 즉 무슬림이었다. 피서산장이 건립된지 15년 후인

224) 紀欣, 「承德修王府與修氏家族」, 『承德民族師專學報』第4期(1999), pp.55-61.

1718년(강희57)에 이슬람사원인 청진사(淸眞寺)가 승덕 도시부의 동쪽과 서쪽에 두 곳 세워졌다. 이슬람사원이 두 곳이나 세워진 것은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회족 역시 한인과 마찬가지로 피서산장이 건립되기 전부터 승덕 일대로 유입했다. 회족이 승덕의 남쪽에 있는 카라호톤으로 이주한 것이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1677년(강희16)이다. 이 해에 강희제가 희봉구(喜峰口)를 나가서 새외를 순행하면서 카라호톤에서 나흘간 머물 때, 강희제를 수행한 무슬림 시위가 카라호톤에서 무슬림들이 번성하고 있다고 말했다.²²⁵⁾ 회족도 카라친 유목지에서 거주하다가 한인처럼 피서산장이 건립된 후에 승덕으로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증가하고 시장이 번성하면서 승덕은 도시로 변모하여 행정조직이 필요하게 되었다. 1723년(옹정1) 열하청(熱河廳)을 설치하고 관할관원으로 이사동지(理事同知, weile beidere tungiy) 1명을 배치했다. 청대 이사동지의 주요 임무는 “기인과 한인이 인접해서 사는 지역에서 기인의 이익이 침탈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동지는 본질적으로 기인이 법적 분규에 부적절하게 얽히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주방장군의 대리였다.²²⁶⁾ 그러므로 옹정 초년에 열하의 관할관원으로 이사동지가 배치되고, 민정관원인 지현(知縣)이나 지주(知州) 혹은 지부(知府)가 배치되지 않은 것은 승덕이 아직 민정지역보다 군정지역의 성격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1733년(옹정11)에 열하청(熱河廳)을 승덕부(承德府)로 개칭했다. 이때 처음으로 승덕(承德)이라는 명칭이 제정되었다. 승덕은 ‘조상의 은덕을 이어 받는다’는 의미의 ‘승수선조덕택(承受先祖德澤)’에서 취한 명칭이었다. 민정 행정구역인 부(府)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승덕의 민간인이 증가했고 민정지역적 성격이 강해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승덕은 1742년(건륭7) 다시 열하청(熱河廳)으로 개칭되었다가 1778년(건륭43) 다시 승덕부(承德府)로 승격되어 직예성(直隸省)에 예속되었다. 이후 승덕부(承德府)는 1개 주(州)와 5개 현(縣) 즉 평천주(平泉州), 난평현(灤平縣), 풍녕현(豊寧縣), 건창현(建昌縣), 조양현(朝陽縣), 적봉현(赤峯縣)을 관할했다.²²⁷⁾

225) 胡汝波, 劉宗和, 「承德回族起源初探」, 『承德師專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1991), p.21. 이외에 승덕의 회족에 대해 아래 논문이 유용하다. 李景瑞, 張達池, 「承德回族及其生活習俗探源」, 『承德民族師專學報』 19권 第4期 (1999). pp.30-34.

226) 定宜莊, 「清代理事同知考略」, 『慶祝王鍾翰先生八十壽辰學術論文集』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pp.267-269.

227) 임계순, 앞의 논문, 173쪽; 付際紅, 「清朝前期承德府, 廳, 州, 縣的設置及原因」, 『承德民族師專學報』 28권 第1期 (2008), pp.66-69.

제5절 맺음말

1703년(강희42) 청의 황제 강희제는 장성의 북쪽 몽고 카라친부(部)의 영역인 승덕에 피서산장을 건립했다. 건립의 목적은 22년 전인 1681년에 승덕의 북방에 설립된 무란위장과 연계하여 수렵을 통해 팔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 여러 몽고 부족들을 제어하거나 그들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수렵은 부족시기부터 만주족의 생산 활동이자 군사훈련이었다. 만주족이 1644년 중국으로 이동한 후에 시간이 흐르며 팔기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감지되자 강희제는 수렵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 결과 무란위장과 피서산장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몽고는 청이 북방민족 세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 복속시켜야 할 적대자였고 동시에 제국을 경영하기 위해 협조를 받아야 할 동맹자였다. 승덕은 내몽고의 중심부에 위치했고 중국 내지나 요동과의 거리도 가까웠다. 따라서 승덕은 몽고를 제어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회견과 합동수렵을 통해 친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피서산장이 건립된 후 몽고를 비롯한 내륙아시아의 여러 민족들과의 교류가 승덕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란위장에서 몽고인들과 함께 대규모의 물이사냥을 진행한 후에 화합의 연회를 베푸는 곳도 승덕이었다. 승덕은 피서산장이 건립된 후에 내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한 청제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로 발전해갔다.

승덕의 내륙 아시아적 정치중심지로서의 위상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청의 전성기인 건륭제 시기였다. 건륭제는 아버지인 옹정제 재위기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무란위장과 승덕으로의 복순을 다시 재개했고 피서산장의 건물들을 증설했다. 건륭기에 주로 건설된 건물들은 불교사찰인 외팔묘였다. 총12곳의 외팔묘 가운데 10곳이 건륭기에 건설되었다. 승덕의 대규모 사찰군은 청이 내륙아시아 지배를 확대해가는 과정과 건륭제의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었다. 건륭기 승덕의 사찰을 증설했던 것은 준가르 제국을 멸망시킨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건륭기에 들어서 최초로 건립된 보녕사는 준가르 정복을 기념하여 세운 사찰이었다. 뒤이어 건립한 안원묘는 준가르의 일부였던 다쉬다와부(部)의 투항을 기념한 것이었다. 보타중승지묘는 건륭제의 60세 생일을 기념하여 건립되었지만 몽고 툄구트부(部)의 귀환과 복속의 기념물이기도 했다.

건축양식에 있어 외팔묘의 사찰들은 티베트 불교 세계의 주요한 사찰들의 변형된 모방품이었다. 보녕사는 티베트 최초의 사찰인 삼예사를 모방했고, 안원묘는 준가르 제국의 중심지인 일리의 굴자사(寺)를 모방했으며, 보타중승지묘는 티베트의 중심지인 라싸의 포탈라궁을, 수미복수지묘는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의 타쉬룬포사를 모방했다. 그

러나 외팔묘는 단순히 건축물의 모방품이 아니고, 라싸와 시가체와 일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권위들을 가져와서 승덕이라는 공간에 재배치한 만다라였다. 청 황제는 승덕 만다라에서 피서산장과 청황제를 상징하는 수상사를 통해 자신의 위상을 표상했다.

건륭기 승덕은 청제국이 포괄하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였다. 구미의 일부 연구자들이 승덕을 지칭하는 청의 “제3의 수도”라는 표현이 규정적 측면에서 부적합할 수는 있다. 예컨대 승덕은 국가의 수도가 보유해야 할 규정적인 요건들, 즉 국가의 강역 전체를 경영하기 위해 고정적이고 상설적으로 운용되는 행정부서와 건물과 인력, 상시적으로 국가의 다른 도시들과 연결되어 인력과 물자가 유통하는 네트워크 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승덕은 실질적으로 내륙아시아의 민족들에 대한 청의 지배를 확인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중심지였고 여름에 국한하여 수도의 기능이 작용하는 공간이었다.

4장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구상

최성환 (수원학연구센터)

제1절 서론

제2절 정조대의 시대 상황과 수원 화성 건설의 정치적 목적

제3절 수원 화성의 도시 위상과 건설 이념

1. 수원 화성의 위상 - 양경 체제를 목표로 한 별경(別京)
2. 별경의 도시 이념 - 정치·경제 개혁의 모범 지역

제4절 화성 신도시의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특징

제5절 정조 사후 화성 신도시의 쇠퇴와 그 의미

제6절 결론 : 수원과 관련된 시사점

제4장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구상

제1절 서론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에 대해서는 여러 부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정조의 탕평 정치와 그 전후 시기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제출되었다. 더불어 정조의 현릉원(顯隆園) 행차로 촉발된 조선후기 국왕의 능원(陵園) 행차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는 별개로 조선후기의 독특한 성제인 수원 화성의 군사적 특징에 대한 분석, 화성 축성과 행궁 건설 등을 포함한 신읍치=‘신도시’ 화성 건설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정조대 수원 화성과 관련된 연구는 정치·경제·군사·건축·행차 등 각 부면에서 꾸준히 축적될 수 있었다.²²⁸⁾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성과들을 종합한다고 하여도 수원 화성 건설의 목적과 위상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수원 화성 건설의 목적이 무엇인지, 수원 화성이 왕경인 한양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명확히 구명하지 않은 채 각 분야의 세부 연구를 진행한 데에 있다. 그 결과 수원 화성 건설의 목적과 위상에 대해서는 정조가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성·평양 등에 버금가는 변화한 ‘계획 신도시’를 건설하였다는 초기의 시각²²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물론 근래에는 정조의 화성 건설을 개혁·첨단·실학의 ‘신도시’ 혹은 ‘대도회’ 건설 차원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도시 건설의 이념성을 특정하여 보완한 것일 뿐 초기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²³⁰⁾

근래에는 정조의 갑자년 상왕(上王) 구상을 사실로 확정하면서, 정조대 후반 정조의 왕권 강화가 상왕 실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되었다. 정조가 화성에 상왕으로 거주할 공간을 건설하여 국왕권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개혁 사업을 실험하였다는 것이다.²³¹⁾ 이는 화성 신도시의 공간 구성과 도시 위상을 좀 더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조가 추진한 개혁 사업이 국왕권

228) 수원시사편찬위원회는 2014년에 수원시사의 17권으로 『수원화성』를 편찬하여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충실하게 종합하였다.

229) 손정목, 「세계 최고(最古)의 계획된 신도시」,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402쪽, 435쪽.

230)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2005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231)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192-193쪽.

강화 및 이를 뒷받침할 생산력 증진과 군사력 집중을 목표로 하였고 설명하기 때문에, 화성 건설의 목적 역시 국왕권 강화를 위한 신도시 건설에 있었다는 기존 시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 연구는 화성을 ‘상왕의 신도시’, 곧 상왕이 거주할 신도시로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왕이 거주할 신도시’의 정확한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된 연구가 없었다. 상왕 거주지 신도시는 한양 도성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베르사유와 페테르부르크는 파리와 모스크바를 대체하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는 데 비하여, 승덕(承德)은 부(府)이지만 북경(北京)·성경(盛京, 심양)과 더불어 삼경(三京)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²³²⁾ 화성에 대해서는 한때 화성 천도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기도 하였으나,²³³⁾ 현재 천도설은 부정되고 상왕 거주설이 분명한 사실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왕의 신도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화성을 4도 우수부체제의 하나로 규정하는 설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²³⁴⁾ 이는 상왕의 신도시설 역시 상왕의 거주가 우수부인 화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이다. 우수부는 곧 배도(陪都)·배경(陪京)이라고도 불리웠으므로, 이는 한양과 수원의 관계를 왕경과 배도·배경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다. 배도·배경은 수원 뿐 아니라, 강화·개성·남한산성등 우수부가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필자는 정조가 구상한 화성의 위상이 여타의 배도·배경보다는 한 단계 높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화성을 정조의 양경제(兩京制) 구상으로 설명하는 연구도 제출된 바 있다.²³⁵⁾ 양경제 개념을 연구의 전제로 활용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²³⁶⁾ 그러나 아직까지 양경제설은 화성에 대한 정조와 신하들의 각종 ‘화려한 비유들’에 근거한 추론일 뿐, 화성 신도시의 각종 시설물이나 직제와 관련하여 그 위상이 실질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양경제 주장자들 역시 화성을 ‘양경에 어울릴 법한 특별한 우수부로 생각하였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화성을 우수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²³⁷⁾ 이 때문에 양경제설은 아직 정설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추론의 수준에

232) 조영현, 「원·명·청 시대 수도 북경과 배도의 변천」, 『역사학보』 209, 2011, 98-99쪽.

233) 김성운,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8, 247-252쪽. 물론 김성운이 화성 천도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화성으로 천도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국 운영에 활용하였다고 해석한 점에서 엄밀하게는 ‘화성 천도 가능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천도설의 범주라 할 수 있겠다.

234) 유봉학, 앞의 책, 1996, 95-96쪽.

235) 배우성, 「정조의 우수부 경영과 화성인식」, 『한국사연구』127, 2004 ; 고통환, 「조선후기 한양의 수도성」, 『역사학보』 209, 2011, 51쪽.

236) 김준혁,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 168, 2015, 102쪽.

237) 배우성, 앞의 논문, 2004, 205쪽.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화성이 적어도 정조 19년을 전후한 시점에서는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別京)으로서 양경제의 경영 구상 하에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국과 조선의 역사적 경험과 정조와 신하들의 언설, 그리고 각종 도시 시설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양경제 구상 역시 정조가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하나의 추론에 불과하다. 그러나 왕경인 한양과 관계 속에서 수원 화성의 위상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화성 건설의 목적 역시 단지 왕권 강화의 차원이 아니라 상왕이 주도하는 정치·사회 개혁의 모범 도시 건설의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여타의 유수부들보다는 한 단계 높고 왕경인 한양에 버금갔던 수원 화성의 위상과 도시 건설의 이념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제2절 정조대의 시대 상황과 수원 화성 건설의 정치적 목적

국왕이 주도하는 신도시 건설에는 대개 정치·군사적 목적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신도시 건설의 과정에는 당시 사회가 도달한 경제적 수준과 기술적 역량이 발휘되기 마련이다. 정조가 처한 시대는 봉당정치 체제를 종식하고 탕평정치를 시도하였던 영조를 이어서 조선의 중흥을 이끌고자 했던 시기였다. 재위 기간 내내 정치·군사·경제 분야에 걸친 여러 개혁 사업을 구상·진행하였던 정조는 구읍치 수원에 현릉원을 옮기면서 신읍치에 화성을 건설한 후 상왕으로 물러나 신도시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정치 개혁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왕경에 있는 순조가 경영할 조선에 국가·사회적 개혁의 비전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읍치 수원은 현릉원 천장에 따른 새 도호부(都護府)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화성 건설로 인하여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된 후, 정조의 전위 및 상왕 거주를 계기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될 계획이었다.

왕조국가 조선의 역사에서 국왕의 전위(傳位)와 새로운 궁궐 영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태종은 상왕이 됨으로써 세종에게 전위하고 창경궁 옆 수강궁 → 대산 이궁(臺山離宮) → 풍양 이궁(豐壤離宮)으로 이어한 바 있었다.²³⁸⁾ 부친이 창업한 조선의 멸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부친과 형제들까지 물리치고 즉위한 태종은 자신의 행위가 사육이 아닌 대의(大義)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택현(擇賢)’이라는 공정한 방식으로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였다. 상왕이 되어 거처하기 위해 건설한 풍양 이궁의 입

238) 김윤주, 「조선초기 천도와 이어의 정치사」, 『서울학연구』45, 2011.

지는 태종 정통성의 근원인 태조의 건원릉(健元陵) 인근이며, 건원릉 주변의 능역은 훗날 동구릉으로 조성되어 조선 왕실의 각별한 존중을 받았다.²³⁹⁾ 정조 역시 영조에서 생부를 건너뛰고 자신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전위를 생각하였다. 이 때 새로운 정통의 근원은 훗날 왕으로 추송될 생부 사도세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에서 사심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혹은 후계자에게 안정된 기반을 물려주기 위하여 전위는 간혹 활용된 일이 있었다. 경종 독살 의혹에 시달렸던 선왕 영조 역시 이 방식을 시도하곤 하였다. 영조는 자신의 즉위에는 하등의 사육도 개재되어 있지 않으며 왕위에 어떠한 미련도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하여 재위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사도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전위(傳位)를 하겠다고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로 인하여 전위 표명은 세자 대리청정(代理聽政)으로 결정되었다. 이 실험은 대리청정하던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임오화변으로 귀결되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정조는 후계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기 쉬운 대리청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즉 군주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했던 생부가 위태로운 환경에서 대리청정을 하다가 간신들의 이간질로 인하여 시달리다가 질병을 얻어 결국 폐위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조는 영조와 생부가 겪었던 정치적 갈등을 왕조 국가 체제에서 저군(儲君, 장래의 군주)의 지위가 미약함에서 발생하는 전수(傳受) 절차 차원의 문제로 진단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재평가하여 추왕 문제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상왕에 의한 전위 제도를 실험해 보고자 하였다. 대리청정보다는 전위에 의한 상왕제가 저군의 지위 확보와 추왕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관철시키기에는 넘어야 할 난관들이 많았다. 무엇보다 영조에 의해 정해져서 국시(國是)로 여겨졌던 처분 때문이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결국 광병(狂病)에 걸려서 여러 과오를 저질러 결국 세자의 자질을 잃었기 때문에 세자를 폐위하고 그 후사까지 계통을 바꾸어 종통을 잇게 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었다. 이것이 ‘영조의 임오의리’에 기반한 갑신처분(甲申處分)이다. 정조는 영조와 신하들에게 갑신처분을 변경하지 않겠노라고 수차례 다짐한 뒤에야 비로소 즉위할 수 있었다.

정조는 즉위 후 10여 년간 국왕권을 안정시키고, 13년에는 현릉원 천장을 단행하는 것

239) 윤정, 「세종초 상왕의 궁궐경영과 그 정치적 의미」, 『서울학연구』41, 2011, 124-128쪽.

을 계기로 하여 사도세자의 공과 덕을 재평가하여 결국은 사도세자를 비판했던 노·소론 정치 세력의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정조 18년에는 국왕의 존호에 못지않은 형식으로 생부의 존호를 올리는 데 성공하였고, 그 여세를 이어서 19년에는 을묘년 화성 행차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정조는 끝내 추왕은 자신의 시대에 할 수 없고 후대 군신들의 공정한 논의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의 시대를 끝내기 위하여 정조가 택한 것은 상왕제였다.

상왕제는 조선의 태종이 시도하여 정통성이 미약했던 세종을 성군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든 제도였다. 상황제(上皇制)는 조선 국정의 정치적 모델이었던 남송대에도 자주 시행되었던 바이며, 그 가운데 고종(高宗)~광종(光宗) 당시 황제가 상황을 효(孝)로써 섬기는 것은 주자도 거론했던 주제여서 조선의 군신들도 상왕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²⁴⁰⁾ 마침 정조 19년에는 청나라에서 건륭제(乾隆帝)가 황위를 물려주고 상황(上皇)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다.²⁴¹⁾ 정조대 후반 정조가 가장 주력하던 것은 새로운 군신 의리의 확립 문제였는데, 이는 상왕제에 의한 전위 구상, 즉 갑자년 상왕 구상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수원 화성은 이를 실험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태종이 이궁(離宮)만 건설하여 상왕으로 거주했던 것과는 달리, 정조는 수원에 새로운 원침을 조성하고 행궁과 성곽을 중심으로 신도시까지 건설하였다. 순조가 성년이 되면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에 거주하면서 순조의 안정된 계승을 돕고, 그렇게 성장한 순조가 통치하는 새 시대에 새로운 군신들이 공정한 의리에 따라 추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영조 및 신하들과 약속하였던 ‘추왕은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지키되,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공정한 의리에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수시변역(隨時變易)의 의리론’이었다.²⁴²⁾ 생부의 추왕을 군주의 사적 독단이 아니라 후대 군신의 공정한 결정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조의 갑자년 상왕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화성 건설은 조선후기의 성리학 군주가 정치의 영역에서 견지한 공정(公正)·공공(公共)한 의리를 상징한다. 이를 단순히 정조의 왕권강화책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정조대 후반부의 화성 건설은 사업을 생부를 위한 사적 효심을 충족하기 위한 일시적 사육 차원으로 자리매김하는

240) 남송대 고종-효종-광종 시기에 있었던 상황제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여영시, 이원석 옮김, 『황권과 황극』, 『주희의 역사세계(하)』, 글항아리, 2015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정조는 송대의 국가 규모가 조선과 가장 유사한데 중국에서 편찬된 『송사』가 허술하게 편찬되었다고 하여 새롭게 『송사전(宋史箋)』을 편찬할 정도였다(『정조실록』 정조 4년 10월 10일). 정조는 『송사』를 유생들에게 배껴 올리도록 하는 것이 고례(古例)라고도 하였다(『홍재전서』권163, 「일득록」3).

241) 『정조실록』 정조 19년 11월 19일.

242)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281-282쪽.

것이므로, 정조의 정책적 지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조가 상왕으로서 거처하기 위하여 만든 화성 신도시는 정치적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이상에서 탄생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수원 화성의 도시 위상과 건설 이념

1. 수원 화성의 위상 - 양경 체제를 목표로 한 별경(別京)

기존의 연구에서 수원 화성은 유수부(留守府)의 위상이었다고 설명된다. 공식적으로 이 설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조선전기 이래 수원은 도호부였다가 정조 17년에 화성 유수부로 승격되었고, 그 다음 해에 화성 축성이 시작되고 이와 더불어 화성 신도시의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수부 체제는 수원 화성의 위상 승격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화성유수부는 그 전부터 유수부였던 개성·강화 및 화성 이후 승격된 광주와 더불어 4도 유수부체제로 설명되었다. 그런데 화성유수부는 여타의 유수부와는 달리 정조가 매년 1회씩 원행(園行)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그 위상을 강화시키던 곳이었다. 화성은 유수부라는 공식적 표명과는 달리 더 높은 위상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고 경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수가 관할하는 부(府)와 왕경(王京)이 설치된 부(府)는 외형상의 행정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화성 유수부와 왕경 한양 및 여타 유수부의 위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던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앞서 살펴본 대로 몇몇 연구자들은 화성 유수부와 관련된 정조의 언급과 주요 조치, 화성의 각종 전각 상량문 등을 분석하여, 화성이 정조의 양경제 구상 하에 경영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수원 화성을 양경제의 틀로 설명하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여 정설로 인정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화성은 여전히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국왕이 만든 ‘신도시’ 혹은 개혁 ‘시범도시’ ‘실학도시’ 등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애매한 개념 규정은 도리어 수원 화성의 특이한 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한다. 수원 화성에는 단지 신도시 혹은 유수부 차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화성의 이러한 특별함은 화성을 별경(別京)으로 경영하려는 정조의 양경제(兩京制) 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양경제의 의미는 도성인 왕경 이외에 별경(別京)을 갖춘 체제이다. 양경은 조선에서 정종~태종대에 걸쳐 운용되었다가²⁴³⁾ 세종대 이후로 쇠퇴한 경험

이 있었다.²⁴⁴⁾ 그 후 광해군대에 양경이 실험된 적이 있었으나, 별경 건설을 천도 시도로 규정한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 있었다. 수원을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승격하는 조치는 정조 17년에 공식으로 선포되었으나, 그 이후에 화성 유수부가 별경이라고 선언된 적은 없다. 광해군대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정조 역시 별경 건설은 흔히 천도로 오해되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상을 공개리에 밝히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수원 화성이 왕경(王京) 한양에 버금가는 별경의 지위를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다고 판단한다.

화성을 행도(行都)라고 설명한 것은 정조대 후반 벽파의 지도자이자 화성의 기능 축소에 앞장섰던 심환지(沈煥之)이다. 통상 사전적 설명에서 행도, 배도, 배경 등은 모두 같은 말로 정의된다. 그러나 조선에서 별경=행도와 배경(陪京)=배도(陪都)는 용례상 그 기능과 지위가 다른 것으로 이해된 듯하다. 하나의 왕경에 익숙했던 조선에서도 별경=행도의 용례가 다수 등장하지는 않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광해군대 교하(交河) 천도 논쟁에서 심층 논의된 적이 있었다.²⁴⁵⁾

성상의 하교에서 ‘예부터 별경(別京)을 건설한 제왕들이 많았으니, 이것은 본래의 도성을 영영 버려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왕이 행도(行都)를 둔 것은 오직 주나라의 낙읍(洛邑)과 금·원나라의 상도(上都)와 명나라의 북경(北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은 행도를 건설함으로써 국중에 머물러 다스림을 도모하거나, 자신들의 본래 도성을 다스리거나, 오랑캐를 진압하기도 하였습니다.²⁴⁶⁾

조선의 신료들은 광해군이 건설하려는 별경을 행도라고 이해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별경=행도는 통치상의 목적이나 외적 제압 등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왕경 이외에 별도로 경을 더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례로는 중국의 한족(漢族) 계열이 시행하였던 서경과 동경의 양경제나 유목 민족 정권이 선호했던 상도(上都)와 중도(中都)

243) 『태종실록』 태종 11년 1월 21일 ; 태종 11년 2월 25일 ; 태종 18년 6월 7일 등.

244) 세종은 신하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경 순행을 끝내 거부하였다(『세종실록』 세종 27년 1월 27일).

245) 이 때의 논의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광해군일기』 광해 4년 11월 15일 기사 참조. 광해군은 교하에 개부(開府)하거나 경(京)을 두려는 계획에 대하여 2품 이상 관원들의 찬반을 물었다. 이수광도 이 논의에 참여하여 반대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 무렵의 사정에 대해서는 이수광, 『芝峯先生集』 권22, 「玉堂筍子-壬子」 참조.

246) 崔暉, 『訥齋先生文集』 권4, 「玉堂筍-壬子」 ‘聖批曰, 自古帝王建別京者多矣, 此非永棄本都之意也. 帝王之別置行都, 惟周之洛邑, 金元之上都, 皇明之北京, 而或以宅中圖治, 或以經理本都, 或以鎮壓胡戎.’ 같은 사안에 대해 올린 차자에서 이수광은 별경이 무슨 경[何京]을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최현과 같이 행도 건설의 사례를 들어서 광해군의 별경 건설을 반대하였다(이수광, 위의 문집, 위의 글).

등의 다경제를 거론하고 있다. 한국사에서는 고려가 시행한 서경, 개경, 동경 혹은 남경의 삼경제(三京制)를 거론하였다.²⁴⁷⁾ 이때의 논의에 따르면, 행도(行都)는 국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행차하여 머무르는 별도 혹은 임시의 도성(都城)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별경이다. 반면 배경=배도는 도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 기능을 대신하는 예비 도성의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양경제나 삼경제는 주된 왕경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밖에 별경을 두는 형태였다.

조선의 역사상 ‘양경(兩京)’이 제도로서 시행 또는 시도되었던 것은 태종과 고종대였다. 조선 초창기의 위기 상황으로서 왕경 한양의 지위가 안정되지 못한 태종대에 개경이 또 하나의 왕경이었고,²⁴⁸⁾ 조선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고종대에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²⁴⁹⁾ 조선사에서 양경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의 차원에서 시도되었던 것이다. 태종대의 양경제는 세종대에 이르러 개경의 지위 하락으로 인하여 지속되지 못했고, 고종대의 양경제 시도는 단기간의 해프닝으로 귀결되었다. 제후국을 자처할 뿐 아니라 성리학의 강력한 영향력까지 더해져서 국왕이 주도하는 능동적 정국 변동을 꺼려했던 조선후기에는 양경제보다는 단일한 왕경의 제도가 더욱 익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조선후기 정조의 화성 건설과 경영을 양경제 구상 차원에서 적극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어쨌든 광해군대의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별경=행도는 왕경에 준하므로 국가 대계의 차원에서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별경=행도는 단순히 전왕조의 옛 도읍이나 왕실의 보장처를 중시하여 유수부를 설치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별경=행도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면, 화성을 사도(四都) 유수부,²⁵⁰⁾ 즉 네 개의 배경=배도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정조의 화성 건설 구상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 아니다. 배경=배도는 옛 왕조의 수도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선왕이 전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머물며 수도의 기능을 하였거나, 아니면 장래의 불우한 시기를 대비하여 수도의 기능을 하도록 건설된 곳을 말한다. 조선은 이에 해당하는 개성, 강화, 화성, 광주에 유수부를 순차적으로 두고 배경=배도라 호칭하였다. 공식적으로는 화성 역시 유수부였다.

그러나 정조의 상왕 구상을 염두에 둔다면 화성은 유수부가 아닌 별경=행도를 염두에

247) 『성종실록』 성종 16년 2월 1일 ; 『영조실록』 영조 32년 4월 14일 ; 『순조실록』 순조 12년 6월 10일

248) 배우성, 앞의 논문, 2004, 263-264쪽. ; 고동환, 앞의 논문, 2011, 46-47쪽.

249)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7.

250) 조선왕조실록에는 유수부 설치 시기에 따라 양도(兩都), 삼도(三都), 사도(四都)라는 호칭이 수시로 등장한다.

두고 건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사에서 남경이 수도일 때 북경을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궁궐을 새로 짓고, 숙위 군사를 배치하고, 유학(儒學) 가문을 끌어들이기 위해 과거 시험의 특혜를 주거나 부민(富民)을 이주시키며, 생산 증대를 위하여 각종 세제 혜택과 둔전 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전조 28년 8월 10일. 이 과정에서 황제는 잦은 남경에서 북경으로 잦은 순행을 하면서 북경의 건설을 촉진·지휘하였다.²⁵¹⁾ 이러한 과정은 화성 신도시 건설과 매우 유사하다. 조선사에서도 고종이 중국과 조선에서 시행된 양경제의 경험을 거론하면서 평양에 풍경궁을 건설하여 서경으로 삼으려 할 때에, 내탕금 50만 냥을 내려서 자금을 확보하고 풍경궁 정리사를 두고 수위군을 배치하며 어진을 봉안하게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²⁵²⁾ 고종이 서경에 풍경궁을 짓고 서경을 건설할 때에는 정조대 화성 건설의 경험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정조는 단지 하나의 새로운 유수부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는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을 건설하려 했다고 판단된다. 이런 의미에서 화성은 ‘상왕경(上王京)’이라 할 수 있다. 별경=행도는 국왕이 실제로 거주하므로 배경=배도보다 그 지위가 높으며, 중국의 서경(西京)·동경(東京)이나 상도(上都)·하도(下都)와 같이 실제로 도성의 기능을 분담하였다. 정조는 한양을 왕경, 화성을 별경=행도로 하는 양경제를 구상하면서 화성을 축성하고 도시 시설들을 건설하였던 것이다. 정조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심환지는 화성을 ‘행도(行都)’라고 규정하였다.²⁵³⁾ 화성이 배경=배도에 그치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비슷한 시기에 정조가 사도세자의 충신이라고 인정했던 윤숙(尹塾)은 을묘년 진찬연을 ‘화경(華京)’에서 행해진 잔치라고 하였다.²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정조가 23년에 있었던 원행길에 헌릉을 경유하면서 태종의 업적은 ‘오제 삼왕(五帝三王)을 이어 황극을 세우고, 이경(二京, 왕경과 개경)과 팔도(八道)를 어루만져 한 가정으로 만들었다.’면서 자신이 양경 운영과 상왕 정치를 통하여 황극을 수립하여 수성의 기틀을 공고히 하였던 태종의 정치를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²⁵⁵⁾ 이는 정조가 화성을 별경으로 삼아 황극 탕평의 과업

251) 新宮學, 전순동·임대회 역, 『북경 천도 연구-근세 중국의 수도이전-』, 서경문화사, 2016, 494-499쪽.

252) 『고종실록』 광무 6년 5월 6일 ; 광무 6년 5월 14일 ; 광무 7년 11월 18일.

253)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 『家狀』‘行都에는 異日을 대비하여 兵衛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皇明의 親軍制를 본떠서 一軍을 설치하여 內營이라 명명하고…’

254)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5월 26일. ‘判敦寧府事尹塾疏曰, 伏以華京進爵, 壽添萬壽, 沛殿躋享, 慶流百世.’

255) 『정조실록』 정조 23년 8월 19일. 敎曰, ‘恭惟我獻陵朝聖神文武, 繼五帝三王而立極, 撫二京八域而爲家. … 鞏基我萬億年悠久無疆之福. … 於戲不忘, 思戡用光’

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경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왕이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또는 순행(巡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사에서 유목 민족계 왕조들은 대개 다경제(多京制)를 한족계(漢族系) 왕조들은 양경제를 시행하였다. 다경제든 양경제든 왕경과 별경 간 순행이 다경제 혹은 양경제 작동의 실질적 관건이라 할 수 있다.²⁵⁶⁾ 다만, 중국의 양경제 혹은 다경제는 국왕이 왕경들을 오가는 데 비하여, 한양과 화성은 국왕과 상왕의 거주처가 별개의 도성(都城)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사의 경우에 양경제가 실시되었던 시기에 상왕이 별경에 거주했던 사례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왕 역시 국왕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의례상 국왕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며 존재이므로 상왕의 거주 자체가 양경 운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재위 기간 정조의 잦은 화성 행차 역시 단순히 현릉원 원행(園行)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별경 경영을 위한 순행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선왕의 능행에는 많아야 4-5년에 한 번 정도이고, 국왕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능행길에 잠시 들르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다.²⁵⁷⁾ 그렇다면 현릉원행의 목적은 단지 원행에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상왕이 거주하게 되면 국왕이 문안차 잦은 순행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²⁵⁸⁾ 상왕이 도성 쪽으로 자주 행차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상왕의 별경으로서는 왕경과 마찬가지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으면서, 왕경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리고 상왕과 그 친속, 친위군(親衛軍), 분사(分司) 등의 관청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대읍(大邑)이 가장 적합한 입지였다. 또한 조선후기에 신하들이 반대할 수 없는 왕실 행차는 능행이었다. 마침 도성에서 가까운 왕릉의 봉표처(封標處)들도 대부분 소진된 터이므로, 별경의 주변에 새로운 왕릉들을 조성한다면 별경은 왕실의 능읍으로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었기에 더욱 바람직했다. 경기 남부의 수원 읍치는 이에 부합하는 입지였다. 이곳은 자고로 물산이 풍부하고 영역이 넓으며 본래 ‘7천갑병’의 주둔지라고 일컬어졌듯 경기 남부 최대의 웅진(雄鎭)이자 삼남으로 통하는 요충의 읍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軍民)의 강제 이주가 동반되는 능침(陵寢) 후보지에서 여러 차례 배제된 경력이 있던 고을이었다.²⁵⁹⁾ 그러나 정조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곳에 생부의 원침을 조성하여 궁극에는 별경으로 육성하고자

256) 김호동, 「몽골제국 군주들의 양도순행과 유목적 습속」, 『중앙아시아연구』7, 2002 ; 조영현, 앞의 논문, 2011.

257)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76, 2016, 132-133쪽의 도표 참조.

258) 김윤주, 앞의 논문, 2015.

259) 『현종실록』 현종 즉위년 6월 16일 ; 『영조실록』 영조 7년 5월 18일.

하였다.

정조가 현릉원 전배를 명분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씩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한 생부의 원침에 행행하였던 것은 조선시대에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행위였다. 현릉원은 공식적으로 왕릉도 아니었을 뿐더러, 설사 한양 인근에 있는 선왕의 능침이라 하더라도 매년 행행하는 경우는 없었다.²⁶⁰⁾ 정조의 이러한 행위는 물론 수원 화성 신도시와 축성을 지휘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한양과 화성을 지속적인 순행으로 연결함으로써 수원 화성의 위상을 도호부 수원 → 유수부 화성 → 별경 화경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정된다.

정조는 수원 화성에 머물기 위하여 행궁을 왕경에 있는 궁궐의 축소판으로 건축하였다. 그리고 국왕일 때 뿐 아니라 상왕이 되고 난 후에도 수원과 한양을 수시로 오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창덕궁 곁에 새로이 수강재(壽康齋)를 건축해 두기도 하였다. 수강재는 태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 머물던 수강궁의 옛 터이기도 하고, 사도세자가 동궁으로 사용하던 저승전(儲承殿)의 옛 터이기도 하다.²⁶¹⁾ 상왕이 될 정조와는 여러 모로 인연이 있던 장소였다. 따라서 왕경=한양과 별경=화성의 양경제 구상을 전제로 해야 수원 화성에 들어선 각종 건물과 정조 시절의 잦은 행차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화성의 도시체계와 각종 건축물 역시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別京)의 지위에 걸맞게 조성되었다. 수원 화성 신도시가 도호부에서 출발하여 장차 별경의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는 것은 아래에 제시하는 상량문들에 잘 표현되어 있다. 이들 상량문은 신하들이 정조의 뜻을 참작하여 초안을 잡으면 정조가 검토한 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정조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었다.²⁶²⁾

〈표 4-1〉 화성 각 건물의 상량문 중 수원 화성에 대한 표현

목적	표현
기초의 중진·거진	경기의 중진(重鎭)〈득중정〉, 경기의 웅진(雄鎭)〈팔달문〉, 거진(巨鎭)〈경룡관〉, 조선의 관방(關防)〈서장대〉, 나라의 울타리[大邦維屏]〈서장대〉, 한양의 울타리[漢京藩屏], 경기좌도의 웅부[畿左雄府]〈화양루〉, 경기의 중요한 지역[畿甸重地]〈복내당〉, 경기의 우뚝한 고을[邦甸峙都會]〈경룡관〉, 주거(舟車)의 대도회[舟車之大都會]〈낙남헌〉

260) 최성환, 앞의 논문, 2016, 132-133쪽.

261) 최성환, 앞의 박사학위논문, 2009, 285쪽.

262) 예컨대 정조는 황승원이 경룡관(景龍觀)의 전거를 몰라 상량문을 짓지 못하고 있자, 이는 당 태종의 궁명(宮名)에서 따온 것이라고 알려 주며 글을 짓도록 하였다(『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16일). 정조는 친히 화성 주요 건물명의 유래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홍재전서』 177권, 「일득록」 17).

목적	표현
삼남의 요충	삼남의 요충<득중정>, 영남·호서를 제어하고 사방으로 통하는 곳<控嶺扼湖 據孔道四達之會>[장안문], 경기와 호서의 수레와 배 모이는 곳<湖畿之舟車相交>[장안문], 삼남의 수레와 배 함께 모이는 곳<三南之舟車竝臻>[서장대], 한강 남쪽과 충청도의 요충지<성신사>, 삼도의 요충지<각건대>, 호서를 제어하는 요충지<방화수류정>, 호서와 영남을 제하는 관방<關防>[控制湖嶺, 形便仍是關防]<화양루>
선친의 원침호위	탕목군(湯沐郡)<동장대>, 선침(先寢)을 모시는 정성이 깃든 곳<팔달문>, 풍읍(豊邑)을 옮긴 효성이 깃든 곳<팔달문>, 선침을 호위하는 고을<낙남헌>, 선침 호위하는 곳<장락당> 탕목읍<장락당>, 탕목읍을 모방하여 설치한 곳<각건대>, 선침의 의관을 보관하기 위한 곳<각건대>, 탕목읍과 같은 곳<화양루>, 원침(園寢)을 받드는 정성이 깃든 곳<영화관>, 한(漢)나라의 신평(新豊)<영화관>, 명나라의 봉양(鳳陽)<방화수류정>, 패현(沛新)의 신평읍<장안문>, 한나라 풍읍<복내당>, 한나라 옛 풍읍<강무당>, 한나라 풍읍<경룡관>, 신평(新豊)<화흥문>, 한나라의 풍읍<신평루>
선왕의 능읍 조성	한나라의 우부풍(右扶風)<장안문>, 우부풍<팔달문>, 서경(西京, 長安)의 좌풍익(左馮翊)<경룡관>, 한나라 삼보(三輔)의 좌풍익<방화수류정>, 한나라의 삼보<낙남헌>, 장안(長安)의 삼보<창룡문>, 한나라 삼보의 우부풍<각건대>, 삼보<영화관>, 한나라 삼보의 좌풍익<방화수류정>, 한나라의 삼보<복내당>
왕실의 보장처	대도회의 보장(保障)<득중정>, 보장(保障)<화양루>, 보장(保障)<경룡관>, 진양(晉陽)의 성궐(城闕)<화흥문>, 진양<동장대>, 진양 같은 보장의 진(鎭)<장안문>, 경기의 보장(保障)<영화관>
왕경에 필적, 동도(東都), 낙양(洛陽)	성첩(城堞)은 왕경(王京)에 짝함<경룡관>, 장려함이 경사(京師)에 필적함[匹壯麗於京師]<영화관>, 낙양에 비견되니 송도(松都)와 강도(江都)보다 특별함[比周洛邑 體貌別於松都沁都]<화양루>, 낙양[西瀛東澗]<장안문>, 낙양[西瀛東澗]<영화정>, 거북 점괘에 수원이 낙양 자리로 나옴[龜食澗甸之墨]<낙남헌>, 낙양 남궁(南宮)에서 잔치를 베푸는 자리<낙남헌>, 동도(東都)에서 제후들에게 홀을 나누어 주는 궁정<낙남헌>, 사방이 우러르는 상도(上都)[四方觀上都之美]<팔달문>, 상도(上都)처럼 응성하리[必比隆於上都]<동장대>, 화성은 한나라의 삼보 같은 지역에 주나라처럼 양경(兩京)을 갖춘 곳[華之爲城據漢三輔 備周二京]<성신사>, 상도(上都)를 드높여 원침(園寢)을 호위함[隆上都而拱園寢]<장락당>, 두 번째 왕경의 귀한 지체로 원침을 호위함[貳京之體勢自尊 蓋爲拱護於園寢]<복내당>, 이 호경(鎬京)에 거주하심[宅是鎬京]<화서문>, 동주(東周)의 낙양(洛陽)과 비견됨[體勢頡頏於東洛]<화서문>, 동도(東都)의 유후(留後)로 승격됨[陞東都之留後]<동장대>, 동도와 서도처럼 사방을 진압함[東西都之鎭坤維]<서장대>, 상도(上都)를 호위함[衛上都]<각건대>, 상도(上都)를 드높여 원침(園寢)을 호위함[隆上都而拱園寢]<장락당>, 삼보(三輔)에 성을 쌓아 상도를 드높임[隆上都於兩漢三輔]<화서문>, 주나라 성왕이 만든 낙읍(洛邑)[周王作洛之圖]<팔달문>, 주나라의 낙읍(洛邑)을 얻었네[乃有周王之圖洛]<장락당>

위에서 제시된 상량문에는 삼남의 요충이자 경기 남부의 중진(重鎭)이었던 과거의 수원 지역에 선친의 원침(園寢)인 현릉원을 모시게 되었던 것과, 이를 계기로 한나라의 풍읍 혹은 삼보(三輔)와 같은 능읍(陵邑)을 새롭게 조성하여 배도·배경으로 승격한 현재의 화성, 그리고 장래에는 중국의 양경과 같이 별경으로 성장하게 될 미래의 화성까지 상징하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물론 현란한 문학적 수사의 차원이어서 실상과는 다소 거리

가 있겠지만, 이는 수원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표현들로서 자못 의미가 있다. 정조 역시 화성행궁에서 벌어지는 대규모의 대외 행사가 열리는 낙남軒(洛南軒)의 명칭이 한나라 고조(高祖)가 주나라 이래 동도(東都)인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서 문·무의 인재를 얻고 잔치를 베풀었던 데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²⁶³⁾ 이는 행궁을 설치한 의도가 화성을 중국 양경 체제의 동도, 곧 왕경인 한양 외외에 별경으로 키우고자 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정조는 조선 왕조의 중흥(中興)을 위하여 사도세자에서 재차 출발하는 왕조의 새로운 능침(陵寢) 구역을 수원 경내에 설정하고자 하였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나 화성에 거주하면서 중흥을 위한 각종 개혁 사업을 주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상왕이 거주하는 화성은 유수부 보다는 한 단계 높은 별경, 곧 화경(華京)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정조는 별경에서 진행되는 각종 조선 중흥 사업으로 조선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사왕(嗣王)인 순조의 정국 주도를 뒷받침한다면, 순조의 시대에는 그 군신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도세자 추왕 문제도 성사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던 것이다.

2. 별경의 도시 이념 - 정치·경제 개혁의 모범 지역

수원 화성은 현릉원 천장에서 갑자년 상왕 구상에 이르는 정조의 계획과 더불어 입안되고 그 뜻에 부응했던 뛰어난 신하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신도시는 계획성과 이상성을 본질로 한다.²⁶⁴⁾ 지금까지 수원 화성이 지향하거나 성취한 신도시의 이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있었다. 효의 도시에서 시작하여 실학의 도시, 개혁의 모범 도시, 법고창신의 신도시, 상왕의 신도시 등 도시 건설의 이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개념들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이 화성 건설이 정조의 주도로 개혁성과 첨단성을 갖추었다는 점을 드러내기에 적절할 수는 있다. 그러나 화성을 정조 개인의 염원과 이상의 차원으로만 국한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화성이 정조의 개인적 염원이 담긴 도시에 불과하다면, 정조의 사망 이후 화성의 쇠퇴 역시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조 사후 정조가 이룩한 개혁의 성과와 체제를 부정하는 데 앞장섰던 심환지와 같은 이들은 화성의 핵심인 장용영을 한 때의 '일시적 제도[權宜]'라고 폄하하여 해체하고 화성의 위상 역시 격하시켰다.²⁶⁵⁾

263) 『홍재전서』권177, 「일득록」 17, '華城扁額, 皆有意義. … 洛南軒. 漢高之置酒洛陽南宮也.'

264) 손정목, 「세계 최고(最古)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건설의 이념과 수법」,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그러나 화성과 그를 호위하는 장용영으로 대표되는 정조 일생의 사업이 정체되어 있는 조선의 부흥을 위한 장구한 개혁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를 인정한다면 정조의 화성 건설 역시 일시적 관심이나 개인의 염원 차원에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정조는 화성을 ‘사방의 표준(標準)’으로 만들기 위하여 장용영으로 대표되는 군제개혁을 ‘영구히 준행할’ 제도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²⁶⁵⁾ 필자가 화성을 별경의 위상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화성의 지위를 과장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 화성이 정조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경제제 하 별경의 위상을 확보해야 했다. 정조는 이러한 위상을 목표로 화성을 건설했던 것이다.

따라서 화성의 건설 이념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화성이 별경을 목표로 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화성 성곽으로 대표되는 각종 시설물들의 개혁성과 첨단성 등은 화성이 별경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화성은 여타의 평범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상왕이 거주할 별경으로 계획되었다. 그렇기에 국왕의 국정 개혁 의지와 첨단 정보력이 결합될 수 있었다. 정조는 자신의 생전에 화성에 별경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상왕의 사후에도 이 도시가 양경의 하나로 대우받고 국왕의 순행도 지속되면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정조가 화성 신도시에 구현하고자 했던 이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조의 평생 과제는 ‘영조의 임오의리’를 수정하여 ‘정조의 임오의리’를 확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생부 사도세자를 추왕(追王)하는 것이었다. 추왕은 단지 생부를 영광되게 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이는 붕당정치의 극성으로 인하여 변질되었던 군신의리를 재정립하여 탕평정치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에는 조선의 중흥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정조는 상왕으로서 수원 화성에 머물러 별경을 경영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제 부문에 걸친 개혁과 선진 모범 사업을 실험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 전역에 그 표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화성은 정조의 이러한 구상을 지원해 줄 문·무 사대부와 군사들이 거주하고, 별경의 지위에 걸맞는 사회 경제적 개발 사업을 담당할 상공인과 농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정조가 대표하는 왕실과 국가는 화성 사민(士民)의 안정과 번영과 더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국과 강병과 부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었다. 정조는 즉위 직후부터 민산(民産)·인재(人材)·용정(戎政)·재용(財用)의 4대 분야에서 국가적 경장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이상적 제도들을 다소 거칠게 제시한 바 있었는데,²⁶⁷⁾

265) 『순조실록』 순조 2년 1월 20일.

266) 『정조실록』 정조 22년 10월 19일. ‘兒弱簽丁，自是禁法，況本府標準於四方者乎，謬規特爲永罷.’ ‘大臣諸臣，奉承聖教，… 撰出節目 … 以爲永久遵行之地’

화성을 건설할 무렵에는 이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다.

하고하기를, “사람들은 부국강병(富國強兵)을 패도(霸道)라고 말한다. 만약 제선왕처럼 영토를 넓혀 진(秦)·초(楚)의 조회를 받으려 한다면 이는 왕도(王道)가 아니지만, 제 영토에서 재물을 여유 있게 하고 백성을 부유하게 만들며 병사를 훈련시켜 외침을 막는 것이야 어찌 왕도니 패도니 따질 것이 있겠는가? 고 상신 유성룡이 병사 1만을 훈련시켜 5천명은 상번(上番)하여 왕경에 있게 하고 5천명은 비번(非番)으로 둔전에 보내 둔전에서 나는 곡식으로 상번한 병사들을 부양하게 하였다. 태평한 때는 돌아가며 쉬게 하고 유사 시에는 징발해 쓰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옛사람들이 병사를 농민 속에 붙여 두는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 국가 재정에서 쓸모없는 비용을 줄이는 점으로 볼 때 어찌 보탬이 적겠는가? 그러나 당시 당쟁이 거세게 일어나 그 의견이 저지되어 시행되지 않았고, 금위영을 처음 설치하자 또 쓸데없는 경비만 더 들게 되었다. 후세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았다.”²⁶⁸⁾

정조는 조선에서 최고 수준의 성리학자였지만, 부국강병과 부민의 과제가 왕도정치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정조는 화성에서 탕평정치의 과업을 완수하고 부국강병과 부민의 구상을 실현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화성을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의 수준에 걸맞는 도시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였다.

첫째, 사대부 가문 유입 정책이다. 정조가 제시하는 새로운 군신의리, 즉 ‘정조의 임오의리’에 호응하는 충의(忠義) 가문을 적극 유치하였다. 그 중심은 사도세자가 반(反)세자 세력의 비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충성을 다했던 가문들이었다. 채제공, 이병정(李秉鼎), 한광조(韓光肇), 임성(任城) 등의 가문이 이에 해당한다.²⁶⁹⁾ 당초에는 유력 가문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듯하나, 정조 19년 당시 화성 내에는 새로 정착하고자 마련한 경화(京華)의 재상급 가문들의 주택이 많았다고 한다.²⁷⁰⁾ 또한 정조는 수원을 효종의 능침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윤선도 가문 인사들, 세조에 의해 국왕에서 강등된 노산군(魯

267) 『정조실록』 정조 2년 6월 4일

268) 『정조실록』 정조 15년 7월 17일. “人皆以富國強兵爲霸道，而如欲闢土地朝秦·楚，則固非王者當務，至於疆場之內，裕財而阜民，訓兵而禦暴，豈有王霸之可論乎？故相柳成龍請鍊兵一萬，五千上番，在京師，五千休番，就屯田，以屯田之穀，養入番之兵，無事時遞休，有虞則徵用。此古人兵寓農之美制。如此則資保可減也，放料可除也，在國計爲汰冗食，亦豈小補？其時因黨論橫生，格而不行，禁營之創置，又添無益之費。後人謀國，類皆如此。”

269) 정혜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270) 이희평, 『華城日記』「2월 초9일」

山君)을 복위시켜 다시 국왕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공헌한 신규(申奎) 등 수원의 위상을 높이고 추왕에 공헌한 인물들을 현창하며 이주를 유도하였다. 이 밖에도 정조는 사대부 유생 가문들을 유치하고자 친림 문과 시험과 유생 시취(試取)를 자주 실행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 그 결과 이전에는 무향(武鄕)으로 유명했던 수원에 과거 급제자들이 증가하였다.

둘째, 강병 정책이다. 강병 정책은 조선후기 훈련도감에서 채택한 병농분리의 급료병제도를 개혁하여 중국 고대 이래 조선전기의 이상적 제도로 인식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를 시행하고, 무기와 성곽 방어체계 역시 조선의 전통을 기반으로 중국·서양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군제 개혁의 핵심은 5위제 실험이었다. 화성의 행궁에는 상왕이 거주함에 따라 상왕을 호위할 친위군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한양의 장용내영과 화성의 장용외영을 구축하였다. 이는 새로운 군영의 창설이었지만, 기존에 있던 5군영들을 재편·개혁한 것이므로 효율적인 군사 재정을 위한 결단이었다. 특히 장용영 외영은 화성 유수부에 상주하는 친위군을 핵심으로 하여 화성 인근의 향군(鄕軍)이 결합하는 편제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친위군을 조선전기 5위제(五衛制)의 편제 방식으로 조직하였다.

정조의 군사 제도 개혁 방향은 동아시아에서 이상으로 여겼던 병농일치에 있었는데, 조선전기의 5위제는 당나라의 부병제(府兵制) 원리를 바탕으로 한 병농일치를 실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5위제는 병농분리의 오군영 제도로 상당 부분 대체되어 조선후기에는 그 편제만 남아 있던 상태였으나, 정조는 5위제를 화성에서 재현하였던 것이다. 그 경제적 기반은 둔전제였다. 조선전기의 5위제는 과전법이라는 수조권 분급 제도와 짝하는 것이었는데, 과전법이 이미 붕괴됨에 따라 수조권 분급 방식 대신 왕실이 소유한 둔전을 활용하여 정병(正兵)을 양성함으로써 병농일치의 경제적 기반을 복구한 것이다. 정조는 화성에서 5위제와 그 기반으로서 둔전제를 실험하고, 그 성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²⁷¹⁾

선진 기술 도입은 화성 성곽의 건설 과정에서 적극 시도되었다. 정조는 화성 건설을 위하여 중국과 한국 고대 이래의 이상적 성곽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당시의 조선이 파악할 수 있는 최신의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조선이 습득한 정보의 수준이란 17세기에 이미 정리되었던 모원의(茅元儀)의 『무비지(武備志)』 등에 실려 있는 중국의 성곽 제도, 그리고 서양식 도르래를 재현한 거중기와 같은 건설 기구 및 서양에서 개발되어 임진왜란 이후 유입·보급된 총포의 위력에 대비한 방어 시설들이었다.²⁷²⁾

271) 『정조실록』 정조 24년 6월 1일 ‘敎曰, 重農之政, 豈有過於勸闢. 本府爲諸路之所取則, 而三百六十餘日耕之起墾於別諭之後者, 極爲可嘉.’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정보라도 조선의 전통적 기술과 접목시켜 실제로 구현하려 했던 것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셋째, 부국·부민을 위한 농상공업 진흥책이다. 이 과정에서도 선진 기술 도입은 적극 시도되었다. 국왕의 주도로 왕실의 재원을 동원하거나 민간의 잉여 자본을 끌어들이며 실행하는 산업 진흥·개발과 부민(富民) 정책이다. 화성 인근에서 개척된 둔전은 장용영 군사들과 이속(吏屬)들에게 우선 지급하여 군사 재정으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1/3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지급하여 그 참여 지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작하게 하였다. 정조는 새로 확보한 둔전과 민전에 수리(水利)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창작품 수갑(水閘)을 갖춘 제언을 축조하게 하고 수차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최신의 농업 기술을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영농 실적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는 방식으로 농업 생산을 독려하기도 하였다.²⁷³⁾ 사실 둔전 개발 그 자체는 조선시대에 황무지 개발에 흔히 활용되는 방식이었으나, 정조는 이를 군제 개혁에 따른 재정 확보책과 백성들의 산업 개발에 적극 활용한 것이었다. 이는 왕실과 국가가 주도하는 농업 개발의 이상적 양상으로서, 정약용·서유구 등 실학자들의 농업 개혁론에도 반영될 만큼 조선후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아울러 정조는 화성에 정착할 상·공업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베풀으로써 상·공업 진흥을 유도하였다. 우선 신도시에는 신읍치 이전 직후부터 시전(市廛) 설치를 허용하였다. 시전체제에 입각한 상업 질서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한양과 개성 이외에 별도로 시전을 인정한 것은 수원뿐이었다. 시전은 본래 왕실과 관청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역(市役)과 물품 공급의 대가로 발매권이나 금난전권과 같은 다양한 특혜를 제공받았으므로, 일반 상인과 백성들이 참여하는 장시(場市)와는 다른 대우를 받았다. 시전이 설치된 도시의 위상은 일반 고을보다 높았던 것이다. 수원의 시전은 종루(鐘樓) 십자가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자리를 잡았는데,²⁷⁴⁾ 한양의 시전과 같이 독점적 발매권과 금난전권을 누렸다는 것이 확인된다.²⁷⁵⁾ 이는 수원의 시전 상인들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식목(植木)에 기여한다든지²⁷⁶⁾ 행궁 운영과 유지에 소요되는 각종 시역을 제공하고, 정조는 왕

272)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169, 2001 ;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91, 2001.

273) 화성 도시 기반 시설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서는 『華城城役儀軌』附編2에 실린 「大有屯設置節目」과 「을묘년 12월 20일 조심태 장계」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 의의에 대해서는 유몽학, 『화성-꿈의 문화유산-』, 신구문화사, 1996, 182-191쪽 ; 염정섭, 「정조대 수원화성 수리 시설의 특징과 수리사적 의의」, 『역사민속학』51, 2016 참조.

274) 이희평, 『華城日記』(강한영 주해, 신구문화사, 1997), 76-77쪽.

275)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192쪽 ; 정해득, 앞의 책, 신구문화사, 2009, 300쪽 ; 『비변사등록』 정조 14년 12월 14일 ;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21일.

276) 『수원하지초록』, 63쪽.

경과 마찬가지로 수원에서도 시전을 중심으로 상업을 진흥하고 수원과 그 인근 고을에 설치된 민간의 장시도 관리하는 정책을 펼쳤음을 의미한다.

화성의 수공업 진흥책도 특기할 만하다. 정조는 균역청의 돈 4,000냥을 구획하여 광교산 입구에 지소(紙所)를 설치하고 외정리소의 자금 중 1,000냥을 주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지장 승려와 인근 고을의 지장인들을 모집·지원하였다. 당시 한양의 조지서(造紙署)가 운영체계의 붕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대신하여 수도권에 공급할 종이 산업의 기지를 수원에 육성하고자 한 것이었다.²⁷⁷⁾

이렇듯 화성 별경은 상왕을 비롯한 왕실과, 이들을 호위·보좌할 문무 사대부, 그리고 농공상의 백성들이 거주할 공간이었다. 이를 조성하는 기회에 정조는 국왕이 주도하여 개혁과 첨단 기술의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하였다. 조선과 같은 집권 전통의 왕조 체제에서 왕실은 그 문물과 정보의 수준이 일국에서 가장 첨단을 걸었고, 군주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이러한 최신의 문물과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개혁 사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보았을 때 당시 조선의 문명과 정보 수준이 첨단은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낙후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이 도달했던 내적 잣대를 기준으로 보면 화성 별경의 각종 시설물에 적용된 기술 수준은 첨단이었다. 어떤 국가·사회든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준은 그 국가·사회의 내적 역량에 좌우되는데, 정조는 조선 최고의 역량을 화성에 투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조선의 전통에 기반하되 새로운 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이념을 화성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정조대 실학의 시대정신이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이후 서양은 이미 총포의 수준을 뛰어넘어 파괴력이 월등한 대포를 활용한 총력전 단계에 도달해 있었고, 그에 걸맞게 더욱 견고한 성곽제도와 군사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상공업의 발전 역시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과 격차가 점점 현격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서양의 발전에 비추어 보면 정조가 화성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기술의 수준이 결코 높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의 내적 역량에 비추어 본다면 정조의 실험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화성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혁 실험이 성공하여 전국으로 파급된다면 조선의 문명 수준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적 역량은 한 단계 더 향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성은 조선이 성취할 수 있는 첨단과 개혁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도시였다.

정조는 화성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조선의 문명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으로 가득한 군주였다. 정조가 삼대 성왕(聖王)의 정치와 공자·주자의 학문

277) 수원의 지소에 대해서는 정해득, 위의 책, 2009, 302-307쪽.

을 잇는 중화 문물의 계승자임을 자부하면서도,²⁷⁸⁾ 동시에 중국·서양의 최신 기술을 흡수하려 노력하였던 것은 이러한 문명의식의 소산이기도 하였다. 이는 정조라는 군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권 국가인 조선 후기 왕조 체제에서 시도되는 개혁 사업의 특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조선의 군주는 군신공치(君臣共治)를 존중하면서 이상적 정치 실현을 주도하도록 교육 받았고, 그 가운데 뛰어난 군주는 신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국가 체제의 경장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영조 역시 그러한 의지로 조선 후기 최대의 세계 개혁 가운데 하나인 균역법을 시행하였고, 정조는 영조보다도 훨씬 주도면밀하게 정치·경제·군사제도 개혁을 이끌어 나갔다. 조선 후기 왕조 체제에서 개혁의 중심은 군주였다. 정조는 화성 건설을 계기로 하여 개혁 사업의 전기를 확보하였고, 화성으로 물러나 이 사업을 완성하여 조선 팔도에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²⁷⁹⁾ 화성은 조선 군주가 주도하는 정치·경제·군사 개혁의 공적(公的) 모범장으로 설계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정조가 구상한 수원 화성의 위상과 도시 건설의 이념을 살펴보았다. 정조는 화성 건설의 과정에서 조선 사회가 도달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의 이상을 내세웠고 민간의 역량 역시 충분히 존중하면서 수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백성들 역시 화성 건설에 대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반발하지 않았고 도리어 새로운 일 자리를 찾아 화성으로 이주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다.

물론 그 와중에 일부에서 화성 건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기는 하였다. 이는 새롭게 건설된 화성의 장려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관원의 상소나 유언비어의 형태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한 것이다. 대체적인 내용은 화성이 수원과 실제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친(私親)의 무덤을 호위하기 위한 사치·낭비이므로 잘못된 사업이라거나, 심지어는 성역을 진시황의 축성에 비유한 유언비어까지 퍼지기도 하였다.²⁸⁰⁾ 특히 전직 관료인 임장원은 화성 건설이 영조의 유지에도 없었던 일이고, 화성을 주나라의 낙양에 견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도세자가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다고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 고조의 신평(新豐) 고사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정조가 부여한 화성 성역의 명분을 전면 부정하며 비판하였다.²⁸¹⁾

278) 이만수는 「행장」(『정조실록』권1)에서 정조를 ‘王以孔·朱之學，任堯·舜之道，大啓斯文.’이라 총평하였다.

279) 이러한 의지는 여러 차례 피력되었다. 『정조실록』 정조 22년 10월 19일. ‘군제(軍制)는 ... 먼저 외영부터 초(哨)·사(司)의 호칭을 없애고 위(衛)·부(部)의 규례를 본받음으로써 한 고을에서부터 정전법(井田法)을 시험해 보려는 뜻을 부쳤습니다.’ ; 정조 24년 6월 1일. ‘중문의 정치는 ... 화성이 여러 지방에서 취하는 모범이다[本府爲諸路之所取]’

280) 『정조실록』 정조 19년 10월 21일 ; 정조 20년 7월 3일.

281) 『정조실록』 정조 22년 8월 26일.

정조는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일의 사정에 어두운 지방 사람들의 풍문에 불과하다고 하여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가 곧이곧대로 말하는 신하라고 하여 승지로 제수하는 등 넉넉히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²⁸²⁾ 정조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비판적 공론까지 권장·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하였고, 군주의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론·소론·남인 등 여러 당파의 실력자들을 임명하여 신하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수원 화성은 사대부와 백성들의 공론을 존중하는 성리학으로 단련된 조선의 국왕이 신도시 건설과 같은 개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제4절 화성 신도시의 공간 구성과 건축물의 특징

동아시아에서 왕경(王京)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왕 거주를 위한 궁궐과 성곽 시설, 관료들을 수용할 시설, 군사들의 호위와 주둔을 위한 시설, 제향 시설, 사·농·공·상인으로 구분되는 백성들의 주택과 생산의 터전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²⁸³⁾ 특히 국왕이 거주하는 궁궐과, 국왕을 보좌할 관료를 수용할 시설, 이를 지키기 위한 군사의 주둔 및 성곽 시설은 왕경과 여타의 도시를 구분하는 핵심 시설이다.

양경제는 왕경 외에 별경을 더 두는 것이므로, 왕경에 준하는 정궁 혹은 이궁에 국왕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왕경을 오가는 순행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궁과 같은 임시 거처와는 달리,²⁸⁴⁾ 국왕의 장기 거주가 가능한 정궁(正宮) 혹은 이궁(離宮) 건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화성 행궁을 행궁의 범주에서 설명하면서, 화성 행궁이 여타의 행궁들과는 달리 매우 웅대하고 장려하게 건축되었음을 강조하였다.²⁸⁵⁾ 이는 국왕이 왕경인 한양에 거주하다가 2~3일간 행차하고 돌아갔던 정조대에 국한해서 본다면 문제가 없는 설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성이 갑자년에 단행될 상왕의 별경을 목표로 설계·건설된 것이라면, 화성 행궁 역시 상왕이 거처할 정궁(正宮) 혹은

282) 『정조실록』 정조 22년 9월 1일.

283) 応地利明, 『都城の系譜』(京都大學出版會, 2011).

284) 궁궐에는 법궁, 정궁, 이궁, 별궁, 행궁 등 격식과 규모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정궁·이궁은 법궁에 비하여 격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피방(避方)·피병(避病)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거처하는 궁궐이다. 반면 행궁은 능행·휴양·강무 등을 위하여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노정에 일시 숙박하기 위한 임시 거처이다. 당초에 화성 행궁은 정조가 국왕으로서 현릉원을 참배하는 행차 기간에 잠시 머물기 위하여 조성되었으므로 행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정조가 한양에서 물러나 상왕으로서 장기 거주하게 된다면 행궁의 지위와 명칭에도 변경이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285) 『수원화성』(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에 실려 있는 여러 필자들의 설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있다.

이궁(離宮)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행궁을 지칭하는 말로 ‘화궁(華宮)’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조실록』에는 (화성) ‘행궁’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지만, 때로 ‘화궁’이라는 용어도 등장한다.²⁸⁶⁾ 행궁이라는 용어 대신 ‘화궁’을 선택한 것은 단지 화성행궁의 줄임 말이라기보다는 화성에 있는 정궁 혹은 이궁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때 ‘화궁’이라는 명칭은 은퇴한 상왕이 평소에 거처하는 궁궐의 이름으로도 적절했을 것이다. 송나라 고종은 상황이 된 후 덕수궁(德壽宮)에 머물렀고, 송나라 효종과 청나라 건륭제는 상황이 된 후에 중화궁(重華宮)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²⁸⁷⁾ 중국사에서 덕수궁과 중화궁은 은퇴한 왕이 거처하던 궁궐로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이러한 명칭을 준용했을 것이다. ‘화궁’은 은퇴한 상왕이 화성(華城)에 퇴거하여 머물 정궁 혹은 이궁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명칭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화성행궁은 ‘화궁’이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성행궁의 규모와 용도를 여타의 행궁들과 비교해 살펴보자.

〈표 4-2〉 조선시대 주요 행궁의 규모

행궁명	건립연대	총칸수	주요 건물	비고	출전	고을위상
남한산성 행궁	인조 2년 (1624)	227칸	상궐[내전] 총 72.5칸 하궐[외전] 총 154칸 좌전[종묘 대비] 26칸 우실[사직 대비] 4칸	숙종 37년(1711) 좌우 증축	광주 부읍 지	보장처 (배도)
강화행궁	인조 9년 (1631)	83칸	행궁 총 42칸 외규장각 9칸 장녕전[종묘 대비] 24칸	숙종 37년(1711) 좌우 증축 만녕전[숙종39, 1713] 장녕전[경종2, 1722] 봉선전[철종9, 1858]	강화 부궁 전고	보장처 (배도)
북한산성 행궁	숙종 37년 (1711)	124칸	내정전 28칸 외정전 28칸 보각(譜閣)	보각: 1897년경 사고(史庫)로 전용	북한 지 만기 요람	보장처

286) 『정조실록』 정조 19년 6월 18일. ‘上俯伏興, … 代致詞曰, 華宮餘祝, 花甲深樽 …’ ; 『정조실록』 권1, 「행장」 ‘養群老於華宮, 而慈恩覃.’

287) 『세종실록』 세종 1년 7월 7일 ; 『인조실록』 인조 2년 3월 26일 ; 『정조실록』 정조 23년 1월 22일. 참고로 송의 효종은 재위 16년에 광종에게 제위(帝位)를 물려준 후 중화궁으로 퇴거(退居)하였다.

행궁명	건립연대	총칸수	주요 건물	비고	출전	고을위상
운양행궁	현종 6년 (1665)경	135칸 (영조 26년 기준)	내정전 16칸 외정전 12칸 탕실(湯室) 12칸 행궁의 각사(各司)	행궁의 각사(各司) : 승정원, 병조빈청, 사간원, 한림원, 홍문관, 선전관청, 오위장도총부, 상서원, 사복시, 상의원, 약방, 무예별감청, 대전별감청 등	증보 문헌 비고	휴양처
화성행궁	정조 13년 (1789) ~정조20 년 (1796)	199.5칸 → 576칸 (정조 18년 이후 증축)	장락당·복내당[내전] 33칸 유여택·봉수당[외전] 29칸 행궁의 각사 187칸 낙남헌[대외 행사] 14.5칸	행궁의 각사 : 외정리소, 남·북군영, 비장청, 서리청, 집사청 등	화성 성역 의궤	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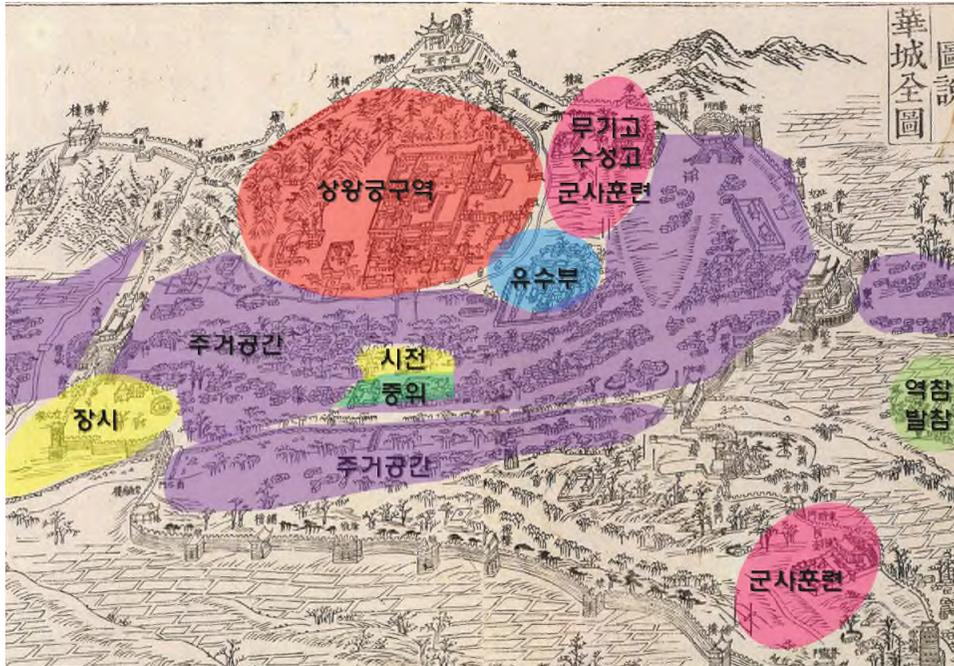
정조 18년 이후 증축된 화성 행궁의 규모는 강화·남한산성·북한산성 등 동시기 유수 부의 행궁들 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건물의 구성도 자못 다르다. 정조 18년 이후 증축 혹은 신축된 화성 행궁 건물의 규모는 370여 칸인데, 이는 정조 13년 읍치 이전 당시의 건물들보다 훨씬 규모가 커진 것이다. 증축 건물들은 대부분 혜경궁과 정조가 거주할 건물, 외정리소와 서리청 등 향후 상왕의 거주에 대비하여 필요한 실무자들의 업무용 건물들이 주를 이룬다.²⁸⁸⁾

대체로 활용성의 측면에서 화성 행궁은 운양 행궁의 건물 구성과 비슷하다. 다만, 운양 행궁에 비하여 관서의 종류나 숫자가 현저히 적은 점이 다르다. 이는 상왕과 왕의 업무 분담에 따라 국정 비중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운양 행궁을 제외하고 여타의 행궁들은 전란을 대비한 건물들이 많은 데서 알 수 있듯 일상생활과 업무를 염두에 두고 건물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 화성 행궁은 운양 행궁이 국왕의 일상생활과 업무를 위하여 설계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왕과 혜경궁의 거주와 화성 경영을 위하여 건물들이 구성·배치되어 있다. 정조가 밝힌 대로 곧 다가올 갑자년에 화성 행궁에 내려와 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건물 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갑자년 이후 화성 행궁은 더 이상 행궁이 아니라 상왕의 정궁이나 이궁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미 화성행궁의 정당(正堂) 건물의 이름도 장남헌(壯南軒, 정조 13년) → 화성행궁(華城行宮, 정조 17년) → 봉수당(奉壽堂, 정조 20년)으로 명칭의 변경이

288) 최성환, 앞의 논문, 2016, 152-15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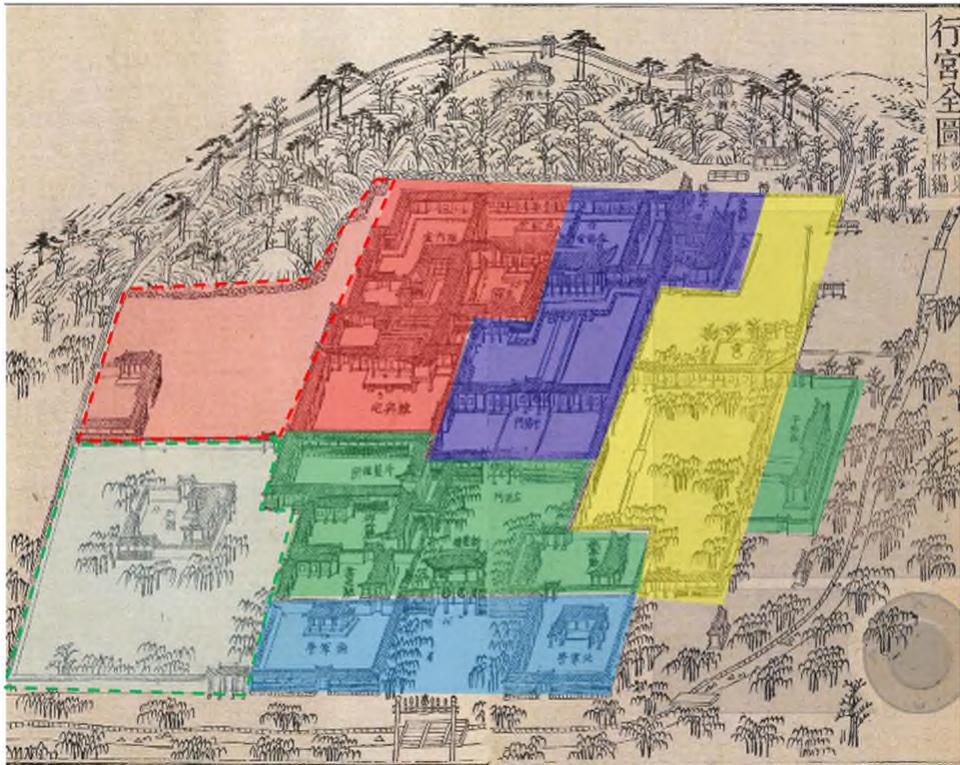
있었던 터였다. 행궁은 단지 을묘년 원행의 잔치라는 한 때의 목표가 아니라, 갑자년 이후 상왕의 정궁(正宮) 혹은 이궁(離宮)을 염두에 두고 증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화성 행궁의 공간은 왕경의 정궁 혹은 이궁보다 규모는 작지만, 구역의 설정과 건물 배치는 왕경의 그것과 같다. 마치 화성 별경이 한양 왕경보다 규모는 작지만 공간 구성은 유사한 것과 같다.



〈그림 4-1〉 수원 화성의 주요 공간 구성

한양에 있는 궁궐의 공간은 통상 내전(內殿), 외전(外殿), 후원(後苑), 궐내·궐외의 각사(各司)로 구성된다.²⁸⁹⁾ 화성 역시 별경의 상왕 궁궐 곧 ‘화궁’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상왕과 관련 인물들의 일상생활과 국정 업무를 보장하기 위한 호위·방어·교통·통신 기구, 그리고 생산·유통·주택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이를 기준으로 ‘화궁’과 화성의 공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화궁’에 머물 상왕은 현직의 국왕에 비하여 보좌할 관료·궁인들이 현저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궁궐의 규모도 적고 궐외 각사 영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화궁’의 각종 구역과 건물 배치, 그리고 화성의 주요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4-1>, <그림 4-2>와 같다.²⁹⁰⁾

289) 홍순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그림 4-2〉 화성 행궁의 주요 구역 배치

1) 상왕궁 구역²⁹¹⁾

(1) 내·외전과 후원

상왕궁에서 가장 중심되는 공간은 정조와 혜경궁이 주인으로서 운용할 내전, 정조를 보좌할 신하들을 대면하고 사민(士民)들과 접촉하는 외전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내전에는 혜경궁의 침전(寢殿)인 장락당(長樂堂)과 정조의 침전인 복내당(福內堂)이 있다. 외전에는 정조의 편전(便殿)인 해당하는 유여택(維與宅)과 화성 행궁의 법전인 봉수당(奉壽堂)이 있다. 유여택의 오른쪽으로 연결된 경룡관(景龍觀)은 ‘등영주(登瀛洲)의 학사들이 임금의 시에 화답한 것을 본뜬 것’²⁹²⁾이라는 정조의 설명으로 미루어 보건대 상왕의

290) 『화성성역의궤』에 따르면 화성의 각종 건축물들은 행궁(行宮), 공해(公廡), 단묘(壇廟), 정거(亭渠), 역관(驛館)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토대로 왕정에 준하는 별경이 구비해야 할 도시 시설물이라는 재분류해 본 것이다.

291) 화성 행궁 주요 건물들의 기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화성성역의궤』 등 공식 기록을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 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3, 2010 ; 이상해,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화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등 참조.

오랜 근신(近臣)들이 머물며 강학이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공간인 듯하다. 내전 구역의 왼편은 빈 터인데, 이는 장래 상왕의 실제 거주 시에 증축될 건물 터를 예비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내·외전과는 연결되지만 별도의 구역으로서 상왕의 휴식과 사민(士民) 접촉 공간도 궁궐 경영의 차원에서 필요했다. 한양의 동궐(東闕)에서 후원 및 영화당(映花堂) 동편 너른 공간과 같은 기능이라 하겠다. 행궁 뒤편의 한적한 후원(後苑) 구역에는 장춘각(藏春閣)과 미로한정(未老閒亭)을 두었다. 득중정(得中亭)은 정조의 활쏘기 터로, 노래당(老來堂)은 외전과 대민 접촉 공간 사이에 잠시 머물기 위한 용도로 조성되었다. 그 외곽은 사민(士民)과 접촉하는 공간이다. 정조는 화성 행궁에서 사대부는 물론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무과는 낙남헌(落南軒) 건물을 문과는 우화관(于華館) 건물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뿐 아니라 간혹 백성들을 대상으로 잔치까지 벌였기 때문에 이들 건물 주위에 광장의 기능을 하는 너른 공간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2) 궐내외 각사 구역

궁궐에서 궐 내외에 설치된 각사(各司)는 국왕을 보좌하고 국왕의 조정에 출사하는 관원들의 집무 공간이다. 화성 행궁에도 상왕과 혜경궁을 보좌할 궁인(宮人) 및 분사(分司) 소속 관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들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왕이 실제로 머물게 될 때 궐내외 각사 구역에 어떠한 건물이 어떻게 배치될지 정확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조대에 화성 행궁은 국왕의 행차 시에만 궁궐 조직에 준하여 운영되었지만, 평소에는 화성 유수가 장용외사(壯勇外使) 및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직하면서 유수부를 다스리는 곳이기도 하였다. 『화성성역의궤』는 을묘년 원행을 대비한 유수부 운영을 전제로 화성 행궁의 각 건물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구역의 건물들은 상왕의 거주에 따라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실제로 을묘년 원행 당시 정조는 총관(總管), 병조 당상(堂上), 약원(藥院) 도제조 및 관원, 승지와 사관(史官)은 특별히 행궁 안에 머물게 하였는데, 승지가 봉수당에서 숙직 한 것은 확인되지만 여타 관원들이 어느 건물에서 머물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²⁹²⁾ 한 해 전에 정조가 행궁에 머물렀을 때, 유수가 이아에서 대기하였고 배종한 대신들을 이아

292) 『홍재전서』권177, 「일득록」17, 李晩秀 丁巳錄. 등영주의 학사는 당 태종이 즉위 전부터 문학관(文學館)을 지어 놓고 방현령(房玄齡) 등 18학사를 모아 교대로 강학하고 자문을 받으며 극진히 대우한 고사를 이른다(『舊唐書』권72, 「褚亮列傳」).

293)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0일 ; 정조 19년 윤2월 11일.

에서 접견하였다는 기사²⁹⁴)로 보건대, 행궁 밖 별도의 건물을 이용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행궁에는 상왕전의 신하들을 위한 공간은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왕이 장기간 거주하게 될 때 상왕의 조정은 국왕의 그것보다는 규모가 작겠지만 분사(分司) 운영은 필수적이었다. 이는 태종과 세종이 상왕전과 주상전을 별도로 운영한 사례로서 충분히 확인된다.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난 후에도 한동안 인사권과 병권을 행사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종에게 이양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병조를 상왕전의 직속 기구로 운영하기도 하였다.²⁹⁵)

정조 역시 상왕이 된다고 해도 그 즉시 전권을 어린 국왕에게 이양할 리는 없을 것이다. 정조가 상왕의 조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하려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상왕전에 속하는 분사와 그에 따른 별도의 건물 증축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화성 행궁의 왼편 너른 터에는 궁궐의 음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별주(別廚)가 덩그렇게 자리하였는데, 이 터는 상왕이 실제 거주할 때 있을 건축물의 증축을 예비한 것이라 추정된다.

『화성성역의궤』는 유수부 운영을 전제로 각 건물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서는 이에 의거하여 이 구역의 건물들을 일별해 본다.

궐내외 각사의 중심은 군사와 재정 담당 기구이다. 상왕의 친위군영이 될 장용외영과 재정을 관할할 외정리소(外整理所)는 궐내 각사의 중심 건물이다. 이는 정조가 상왕으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왕 권력의 최소 근거는 상왕전의 친위 군사와 상왕실을 지탱할 재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조가 구상하는 상왕 권력의 크기에 따라 상왕전 직속 기구들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수가 관리하던 각 관청을 상왕이 직접 관할하게 됨에 따라 각사의 위상과 규모는 더 높고 커지는 방향으로 변동할 것이다.

유수를 보좌하는 비장들이 근무하는 비장청(裨將廳), 유수부의 서리들이 근무하는 서리청(書吏廳)과 제반 사무를 담당하는 집사청(執事廳)이 행궁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공간과 약간의 거리를 둔 채 화성을 방문하는 관원들의 객사인 우화관(于華館)을 배치하여 행궁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궐 밖에 별도로 설치된 유수부의 주요 관청은 이아(貳衙)이다. 평소에 행궁이 유수가 주재하는 상아(上衙) 역할을 하는 데 비하여, 이아는 유수를 대행하여 지방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판관(判官)이 주재하는 관청이다. 이아에

294) 『일성록』 정조 18년 1월15일.

295) 유재리, 「세종초 兩上 統治期の 국정운영」, 『조선시대사학보』36, 2006, 25-28쪽. 상왕-왕의 이원적 운영은 兩上 혹은 兩王 체제라 명명한다. 이 시기 상왕권의 실체와 그 이양에 대해서는 최승희, 「세종조의 왕권과 국정운영체제」, 『한국사연구』 87, 1994 ; 민현구, 「조선 세종대 초영의 양왕체제와 국정운영」, 『역사민속학』11, 2006 등 참조.

동헌(東軒)과 서리청이 설치된 것으로 보건대,²⁹⁶⁾ 행궁에 있는 서리청과 집사청은 행궁의 사무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숙위와 호위 시설

정조는 한나라의 남북군 제도를 본떠서 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수원 화성을 여타의 지방 도시와 구별하여 별경의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이 상왕, 그리고 상왕의 호위를 위한 숙위군(宿衛軍)의 존재이다. 정조는 한양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기 위하여 창경궁의 명정전(明政殿) 남쪽 행랑에 장용위(壯勇衛)를 두어 장용내사(壯勇內使)가 지휘하게 하였고, 화성 행궁의 숙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 행궁의 신평루(新豐樓) 좌우에 친군위(親軍衛)를 별도로 두어 장용외사(壯勇外使)가 지휘하게 하였다.²⁹⁷⁾ 한양과 수원에 장용영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의 체제를 마련하고, 각각 내사=용대장(龍大將)과 외사=호대장(虎大將)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한 것이다.

화성 행궁의 친군위 군사는 신평루 좌우에 있는 남군영(南軍營)과 북군영(北軍營)에 100명씩 분산 배치되었다.²⁹⁸⁾ 더 나아가 장용영의 설치에 행궁을 위한 것이므로 외영이 주가 되고 내영은 이에 딸린 부용(附庸)이 된다고도 하였으니,²⁹⁹⁾ 이는 장용영의 숙위군이 장차 상왕이 직접 지휘하는 군사가 되어 왕경에 있는 국왕의 숙위군과는 별도로 운영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2) 군사구역 시설

(1) 방어·훈련 시설

화성에는 성곽 내 주요 시설물과 성곽을 지키는 장용외영 군사들의 훈련·방어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정조는 장용외영의 친군위와는 별개로 장용외영 향군(鄉軍)의 분번(分番)에 의한 도성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전기 5위체제를 복구하여 전위(前衛)=팔달위, 좌위(左衛)=창룡위, 중위(中衛)=신평위, 우위(右衛)=화서위, 후위(後衛)=장안위를 편제하고, 각 위에 소속된 정병(正兵)과 성정군(城丁軍)으로 하여금 사방의 성문과 신평루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 구역을 설정하여 지키게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전란이 발생해도 도성을 떠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지키는 도성 방어전

296) 『일성록』 정조 17년 1월24일 ; 정조 17년 8월11일.

297) 『정조실록』 정조 17년 1월 12일.

298) 『화성성역의궤』부편1, 「公廡」南北軍營 行閣.

299) 『장용영고사』권2, 병진(정조 20년) 2월 7일. ‘壯營之設, 專爲行宮, 則外營爲主人, 內營爲附庸.’ 이에 대해서는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164쪽 참조.

략에 따라 한양에 5군영 군사들의 방어 구역을 설정하였던 바, 별경으로 구상된 화성 역시 수원과 인근 진위, 용인, 안산, 시흥, 과천을 속읍(屬邑)으로 거느리며 방어하게 한 것이다. 다만, 화성을 장용외영 소속 향군(鄉軍) 5위(衛)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체제는 병농일치를 전제한 것으로서, 병농분리에 입각한 중앙의 5군영 군사들로 한양을 지켰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는 정조의 군제개혁안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는 화성에서 유일하게 시도된 실험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구성된 장용외영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화성 내에는 강무당(講武堂)과 동장대(東將臺) 앞 너른 뜰을 이용하였고, 이들을 주둔시켜 화성 성곽과 행궁 등의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곽과 행궁의 요처마다 각종 방어 시설물과 포사(鋪舍)를 두었다. 또한 화성 방어를 쓰일 각종 시설물 보수와 무구(武具) 관리를 위하여 수성고(修城庫)와 무고(武庫) 등을 두었다.

(2) 교통·통신 시설

화성은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이 될 것이므로 별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통신 시설을 재편하거나 별도로 구축하여 화성의 행정적·군사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역참(驛站)으로는 장안문 밖에 영화역(迎華驛)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는 도호부 시절부터 있었던 수원의 기존 역참을 통폐합하여 영화역을 신설하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던 역도(驛道)를 영화역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한양에서 가장 가까운 양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화역을 중심으로 재편한 것은 별경의 위상을 갖게 될 화성 중심의 역참 수요가 많아지는 것에 따른 것이다.

발참(撥站)의 신설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본래 조선의 파발제는 북발(北撥), 남발(南撥), 서발(西撥)만 운영되었으나,³⁰⁰⁾ 정조 19년에 한양-화성을 직통으로 잇는 별도의 파발을 신설한 것이다.³⁰¹⁾ 이는 한양-화성의 원행로와 일치하는 구간이기도 하다. 파발제도는 행정 명령의 전달과 사신 접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역참 제도 운영과는 별도의 체계로서 시급을 요하는 왕명과 주요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만든 것이므로, 행정 구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역참제와는 달리 국왕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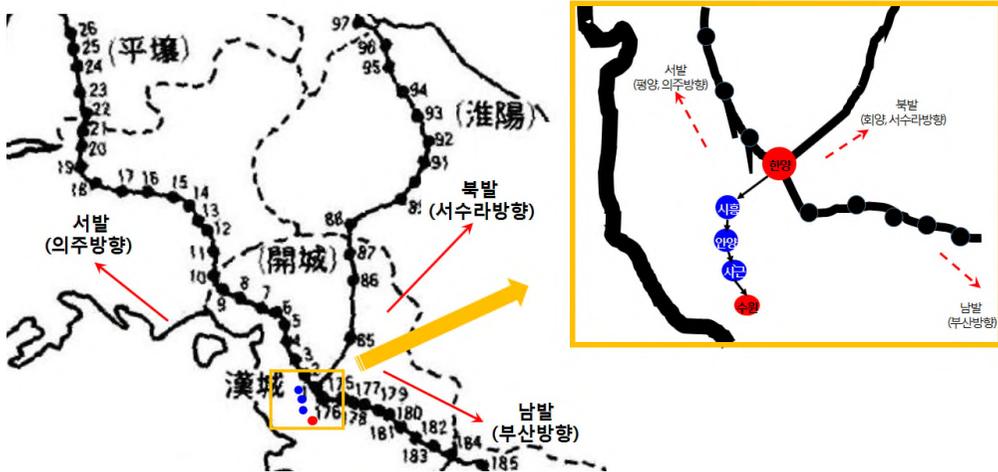
화성에 파발참이 설치된 것은 정조 19년의 을묘 원행 당시였지만, 그 후에는 파발제가 제도로서 공식 시행되었다.³⁰²⁾ 정조의 잦은 원행 뿐 아니라, 정조가 상왕으로 물러나 장

300) 남상호, 『擺撥制考』, 『경주사학』 8, 1989, 79-81쪽.

301) 『화성성역의례』에는 영화역에 척후(斥候)의 군사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영화역에서 발참의 기능까지 겸한 것이다.

302) 『일성록』 정조 19년 4월 16일, 『華城撥站節目』. 이에 대해서는 조병로, 「수원 화성의 축성과 교통」,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관방과 교통』, 국학자료원, 2013, 232-234쪽 참조.

차 화성에 거주하게 되면 한양-화성간 긴급 연락 사향이 급증할 것은 당연하였다. 이를 대비하여 정조는 한양-화성간 발참을 제도화한 것이라 판단된다. 발참의 최종 목적지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화성행궁이다. 그러나 정조 서거 후에 한양-화성간 과발제도는 폐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순조대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4-3〉 한양-수원 간 발참 노선

(남상호, 위의 논문, 1989, 106쪽의 과발도를 수정·보완)

3) 생산과 유통 구역

(1) 농업 시설

화성이 건설되기 전, 광활한 평원이었던 이 지역은 저습과 범람, 염기(鹽氣)로 인하여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황무지가 많았다. 정조는 화성 건설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내탕금을 활용하여 새롭게 물길을 내거나 저수지를 만드는 등의 공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왕실 소유의 새로운 농지를 다수 확보하였다. 물론 기존의 민간 소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 건설은 양질의 농업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화성 인근에 조성한 둔전과 제언을 활용하여 농업 진흥과 개혁의 모범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³⁰³⁾ 장안문 밖 북둔(北屯)과 만석거(萬石渠), 서호 인근의 서둔(西屯)과 축만제(祝萬堤), 현릉원 인근의 둔전과 만년제(萬年堤) 등은 화성 인구를 부양할 농업 생산의 기지로 건설된 것이었다. 새로 축조한 제언에는 최신식 수갑(水閘)까지 갖춘 수문

303) 이하의 내용은 유봉학, 『화성, 꿈의 문화유산』, 신구문화사, 1996, 206-213쪽을 참조.

을 설치하여 농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였다.

(2) 상업 시설

화성은 여느 지방 도시와는 달리 별경의 위상에 부합하는 상업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시전에는 왕실과 관공서의 수요와 수리·보수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권을 부여했다. 입색전(立色廩), 어물전(魚物廩), 목포전(木布廩), 염상전(鹽床廩), 미곡전, 관곽전(棺槨廩), 지혜전(紙鞋廩)이 성곽내 가로외의 중심인 종루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유철전(鑰鐵廩)은 장안문 인근의 북리점(北里店)에 위치하였다.³⁰⁴⁾ 장시(場市)는 시전과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유통과 상업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팔달문 곁 남암문(南暗門) 주변에 설치되었다.

4) 주거 구역

화성에는 대개 행궁과 유수부의 관원과 아전·노비, 장용외영의 장교·군인, 농업·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민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구읍치의 이주민 뿐 아니라, 정조의 장려책에 따라 새로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다. 장용영 군사들은 병농일치의 이상에 따라 둔전을 지급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대로 번을 드는 형태로 복무하였기 때문에,³⁰⁵⁾ 성 안팎 주거 구역은 상당수 장용외영의 군사들이 차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조는 화성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사대부와 유생의 이주도 장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화성에서 문·무과에 걸쳐 별시(別試)나 시취(試取)를 기회 있을 때마다 설행하고 화성 거주민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책을 시행하였다. 그 효과로 화성 내에 이름난 재상가를 비롯하여 사대부와 유생의 주택이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아직은 상황이 상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실제 거주 여부도 확실치가 않은 상황이었다.³⁰⁶⁾ 이들의 이주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에만 눈속임으로 거주하는 작태도 많았던 것이다.

어쨌든 정조의 적극적 진흥책의 결과 화성 내외의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었다. 정조는 『반계수록』에서 거론된 대로 화성을 1만호 정도 수용 가능한 신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³⁰⁷⁾ 정조 13년 당시 한양의 호구수가 43,900여 호이고 광주 유수부 읍치의 호구수가 1천여 호³⁰⁸⁾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한양의 1/5의 규모이지만 광주보다는

304) 정혜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2009, 300쪽.

305) 『華城城役儀軌』附編2, 「을묘년 12월 20일 조심태 장계」

306)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4월 6일.

307) 『정조실록』 정조 17년 12월 10일.

308) 『정조실록』 정조 3년 8월 3일.

훨씬 많은 호구수를 예상하고 건설된 것이다. 물론 이는 기대치에 불과하지만, 여타 유수부와는 다른 화성 별경의 번성에 대한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5) 제향 공간

왕경을 상징하는 제향 시설은 종묘이다. 화성은 별경으로 구상되어 어느 지방보다 위상은 높았으나, 화성에 종묘는 없고 지방 사직단만 설치되었다. 양경제체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종묘와 국가 사직은 그대로 한양에 있게 될 것이다. 종묘의 존재 여부를 화성을 별경의 위상으로 경영하는 데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조선 전기 한양-개경의 양경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종묘와 사직은 그대로 한양에 있었기 때문이다.³⁰⁹⁾

화성의 위상과 직결되는 제향 공간은 왕릉과 그에 딸린 제향 건물들이다. 당초에 수원 화성이 원침인 현릉원의 제향을 관리하기 위한 고을로 출발하였고, 훗날 사도세자의 자손들이 문힐 능읍(陵邑)이 될 것임을 상기해 본다면 화성에서 제향의 비중은 매우 높았다. 현릉원을 바라보는 인근에 정조가 자신의 어진(御眞)을 봉안하는 건물을 별도로 건축해 두었던 것도 현릉원을 매우 중시하는 특별한 조치였다.

정조의 사후에 현릉원 인근에 왕릉을 조성한 것은 정조의 뜻을 이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어서 순조는 화전(華寧殿)을 세워 정조의 어진을 옮겨서 화성의 주요 제향 시설로 만들었다. 이는 왕경에 영희전(永禧殿)을 세워 선왕들의 어진을 모셔두고 제향을 올렸던 것과 같은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³¹⁰⁾ 비록 순조가 화성을 별경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정조의 구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정조의 뜻만은 일부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라 판단된다.

제5절 정조 사후 화성 신도시의 쇠퇴와 그 의미

지금까지는 화성 신도시 건설의 목적을 국왕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왕권 강화 차원의 설명은 화성 건설과 연계된 여러 개혁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결정적 한계를 지닌다. 정조 사후에 왕권은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장용영은 해체되었으며, 화성의 위상도 다시 저하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의 연구대로 화성과 장용영이 왕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린 왕의 즉위로 왕권이 약화된 현실에서 화성의 위상 저하와 장용영 해체도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성은 단순히 왕권 강화를 위한 건설된 것이 아니라, 정조가 공의

309) 『태종실록』 태종 2년 7월 11일.

310) 김지영, 「19세기 진전 및 어진봉안처 운영에 관한 연구」, 『장서각』26, 2011, 165-167쪽.

에 입각하여 황극 탕평의 이상을 완수하기 위하여 상왕으로 물러나 정치·경제·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실험하고 지속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이다. 화성은 본래 상왕이 거주하는 양경의 지위로 구상되었으므로, 이러한 양경제제가 정착하였다면 상왕이 사망한 후라도 후대의 국왕이 순행을 지속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장용영 역시 조선후기 최대의 과제였던 군제 개혁의 성과로서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도였으므로, 왕권의 강약이라는 일시적인 형세 변화로 쉽게 해체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었다.

화성과 장용영은 조선후기까지 국정운영과 개혁의 중심 역할을 했던 왕실 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때 정조가 구상했던 상왕-왕의 제도는 사도세자 대리청정 문제로 불거진 조선후기 왕위 계승제의 불안정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조가 고안한 새로운 시도였다. 정조는 상왕이 되어 조선후기 왕위 계승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회로 국정 운영의 역할 분담과 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시도까지 해 보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가 왕권 강화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선후기 왕조 국가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공공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죽음과 더불어 세도정치 세력은 화성 별경과 장용영을 핵심으로 하는 정조의 구상을 ‘일시(一時)의 권의(權宜)’라는 명목으로 혁파하고 다시 영조대의 5군영 제도로 되돌리는 결정을 내렸다.³¹¹⁾ 이는 정조가 계획했던 상왕 구상과 화성 별경 구상의 공공성, 즉 ‘영구준행(永久遵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세도정치 세력은 정조의 구상을 왕권 강화를 위한 일시적 변통으로 규정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정상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조의 상왕 구상과 화성 건설과 관련된 개혁의 성과들은 일거에 부정되었다. 화성은 행궁과 성곽만 덩그러니 남고, 그 지위 역시 경기지역 유수부의 하나로 격하되었다. 이를 확인하는 상징적 조치가 바로 장용영과 정리소의 해체였다. 노론 벽파가 정조의 구상을 해체하는 데 앞장섰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시과 정권에 이르러서도 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다. 벽파든 시파든 세도정권의 이해관계는 일치했다.

장용영 내영 소속 군사들은 본래 소속된 5군영으로 복귀하여 군영 자체가 해체되고, 장용영 외영은 총리영(摠理營)으로 격하·재편되었다. 화성유수가 겸직하던 장용외사 겸 정리사의 직책도 사라졌다. 이때에 강화도에 진무영(鎭撫營), 개성에 관리영(管理營), 남한산성에 수어청이라는 각각의 유수영(留守營)이 있었는데, 화성의 총리영도 그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 이후 세도정권 하에서는 흉년이나 민란·기근과 같은 온갖 사회·경제적 구실로 왕실과 5군영의 영역이나마 현상 유지 내지 축소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311)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家狀」, 205쪽.

는 한말에 이르러 조선 국가 호위라는 자존·자위의 영역마저 외국의 군사에 맡겨야 하는 처지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종은 전대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 결과는 국망이었다. 그렇다면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장용영 구축의 성과를 부정할 결정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에 입각한 엄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 중국을 비롯한 조선의 역사 평가는 춘추 필법에 의한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를 언제나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6절 결론 : 수원과 관련된 시사점

수원 화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나, 아직까지 수원 화성의 도시 위상을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었다. 이는 화성 유수부라고 하는 공식 명칭에 얽매어 화성을 4도 유수부 체제의 하나로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조대에 수원이 도호부에서 유수부로 승격한 양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효하나, 정조가 구상한 수원 화성의 위상과 그에 따라 구현된 수원 화성의 도시 시설들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원 화성은 여타의 유수부보다 규모가 장려할 뿐 아니라 당시 조선의 수준에서는 첨단의 정보와 최선의 국력이 투입된 도시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 화성은 상왕이 거주할 별경의 위상으로 구상·건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별경은 국왕이 거주하는 왕경에 버금가는 도시이다. 이를 한양과 수원의 양경체제 구상이라 규정할 수 있다. 조선 초기에 가동되었던 한양-개경의 양경체제는 태종대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하였다. 그러나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난 뒤에는 풍양 등 한양 인근의 궁궐을 전전했을 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지는 않았고, 세종대 이후로는 양경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조선전기의 양경제 운영은 점차 잊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는 중국의 한족계 주요 왕조들과 조선 태종대 양경체제를 모델로 하여 한양-화성의 양경체제에 입각하여 화성 신도시를 구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화성은 유수부보다 한 단계 높은, 상왕이 거주하는 ‘별경(別京)’ 곧 화경(華京)으로 구상되었다. 정조는 상왕으로 화성에 거주하며 별경을 경영하면서 왕경인 한양에도 때때로 오가고자 하였다. 한양과 화성을 양경체제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단지 화성을 영광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조가 구현하려 했던 화성의 가치를 개인의 일시적 관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조선 국가 차원으로 영속화할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대에 필요한 각종 개혁 정책을 실험하였다. 현릉원 천장과 짝을 이루는 화성 건설은 단지 자신의 사친(私親)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공공의 군신의리를 확립하고 공의(公義)의 주인 군주가 주관하는 국가 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정조의 구상은 정조 사후 세도 정치세력에 의해 전면 부정당하였고, 별경의 지위로 향하던 화성의 위상도 4도유수부의 하나로 하락하였다. 세도정치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조선은 19세기 후반 개혁의 방향을 둘러싸고 무기력하게 세월을 허비하다가 끝내 국망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양과 화성의 양경 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국왕이 주도하는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서 화성 신도시 건설의 이념과 그 지위의 변화를 설명해 보았다. 집권적 봉건제인 조선에서 국왕 주도의 개혁 사업은 왕권 강화책으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정조의 개혁 사업을 단순히 왕권 강화책의 차원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 정조는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 걸쳐 난관에 봉착한 조선 왕조의 부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즉 공공성=공의(公義)을 기준으로 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국가 혹은 관료 주도의 각종 개혁 정책을 평가할 때에도 그것이 공의에 근거한 것인지 사의(私義)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조선 왕실이 주도한 국가 개혁 사업의 모범으로서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은 오늘날 국가 혹은 관료 주도 개혁 사업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5장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한동수 (한양대학교)

제1절 서언

제2절 도시와 신도시

제3절 신도시 건설의 보편적 논리, 격자형 계획이론

제4절 수원 화성 신도시의 성격과 위상

제5절 맺음말

제5장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제1절 서언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도시는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삶의 궤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는 가장 심원하고 지속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자연 환경을 새롭게 바꿀 줄 아는 인류의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도시라는 거대한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만들어낸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을 호모 “우르바누스(Homo Urbanus)”라고도 한다.

문명의 발생과 더불어 세계 각 지역의 문명권에서는 원시적인 개념의 도시가 탄생했으며, 이러한 도시 들은 각각 자신이 이룩한 고급문화의 정수를 일정하게 구획된 공간 속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시는 인류활동의 결정체이며 공간의 투영을 통해서 시대정신과 지역특성을 부단히 반영해 왔다. 그러나 동서양의 문화적 배경과 사고의 체계는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상호 영향 속에서 각기 특색 있는 발전의 길을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고에서는 세계 도시의 발전사 속에서 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신도시의 탄생 배경과 공통적이면서도 차별화된 계획이론을 간략히 규명하며, 그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질서로 자리를 잡아 지속되었는지, 나아가 그 생명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유효한지, 만일 유효하다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주목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18세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획도시의 하나로 건설된 수원 화성의 본질에 대하여 재평가해 봄으로서 세계 도시의 발전 맥락 속에서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도시와 신도시

도시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건축도시역사학자로 유명한 코스토프(S. Kostof)는 워스(L. Wirth)와 뎀포드(L. Mumford)의 말을 인용하여 도시는 “상대적으로 크고 밀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개인들이 영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며 공동체의 권력과 문화가 최대로 집중된 곳”이라고 했다.³¹²⁾ 그리고 그리스의 시인 알카이오스

312)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 2009, 37쪽.

(Alcaeus)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집도, 아름답게 꾸민 지붕도, 석벽도, 수로도, 조선소도 아니다. 인간들이 주어진 기회를 십분 활용해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다.³¹³⁾ 한편, 현대 사회과학이 제시한 도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소로 압축되는데 첫째는 인구밀도와 인구 크기로 개념화된 인구학적 요소, 둘째는 생산의 다양성을 포함한 경제적 기능의 다양성, 그리고 고용과 노동력의 다양성이 내재된 도시의 경제적 요소, 셋째는 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도시의 거주자³¹⁴⁾이다. 이러한 견해를 통해 우리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물리적인 실체의 전제조건이 필요하지만 버겔(E. E. Bergel)의 지적대로 통계학적인 요구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는 사람의 문제로 귀착되어 인간의 야심과 비전을 담는 곳이며 꿈을 꾸고 욕망을 실현하는 곳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도시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유혹해 왔다. 그것은 아마도 경제, 정치, 과학, 종교 등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도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도시는 늘 처음에는 신들의 보금자리로 시작되었지만 중국에는 인류가 이상향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는 곳이 되었다.³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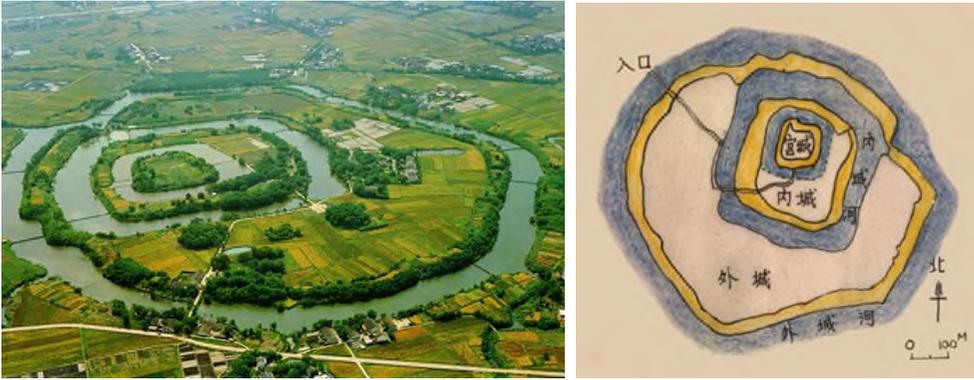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경우, 도시는 방어적, 행정적, 군사적 관점이 입지의 선정을 비롯한 주요한 계획이론에 영향을 주어 성곽과 성문, 성루 등이 도시를 상징하는 기본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는가 하면, 서양의 경우는 시민의 권리와 문화적 소양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적인 측면의 도시 사회적인 의미가 중시되었다.

이러한 점은 벽(Wall)과 도시(City)를 나타내는 중국의 한자 성(城)과 우르비스(Urbis), 시티(City)라고 하는 용어에서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관자(管子)의 도지편(度地篇)에는 “내위지성, 외위지곽(內爲之城, 外爲之郭)”이라 하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곽에서 성은 내성을 의미하며, 곽이 외성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는 “축성이위군, 조곽이수민(築城以衛君, 造郭以守民)”이라고 하여 임금을 보위하기 위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곽을 쌓는다고 하여, 성과 곽은 각각 그 목적을 달리 하여 구축되고 있다.(그림 5-1) 여기에 시(市), 즉 유통과 생산을 담당하는 시장이 함께 결합되어 이른바 도시 개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교역과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초기에 주로 통치계층만을 위한 독점적인 공간이었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도시는 정치와 군사적인 목적에서 출발하여 물리적인 시설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른바 경제 도시의 개념은 부차적인 것이었으며 발전의 양상이 비교적 늦었다.

313)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71쪽

314) 김성도, 『도시의 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75-76쪽

315)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71-72쪽



〈그림 5-1〉 성과 밖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중국 강소성 무진시 춘추전국 시대의 엄성(淹城)

서양의 경우, 영어의 타운(Town)은 울타리처럼 둘러싸는 것을 뜻하는 게르만어에서 유래되었고 옛날 네덜란드에서 튜인(Tuin)이라는 말은 담을 뜻하며 옛날 표준 독일어의 준(Zun)은 성벽을 뜻한다.³¹⁶⁾ 이밖에도 그리스어의 폴리스(Polis), 라틴어의 우르브스(Urbs)도 역시 둥근모양의 울타리와 말뚝, 성벽을 두른 도시를 의미한다. 특히 라틴어의 우르브스(Urbs)는 물적 집적체로서의 도시공간을 의미하며 또 다른 라틴어 키비타스(Civitas)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특정 인구집단이 도시의 고정된 공간에 서로 묶이는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측면을 기호학자 김성도는 “도시는 구체적이면서도 특수한 방식으로 인간 세계의 윤곽을 그려내는 울타리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³¹⁷⁾

세계 각 지역의 초기 도시를 살펴보면 이집트는 종교에 초점을 맞춘 문명이라는 점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과 공통점을 가지며 이와 유사하게 파키스탄의 신드와 편자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설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중심부에 기념비적인 종교적 건물들을 배치했다. 반면 고대 중국 역사의 대부분을 통틀어 “우주를 본뜬 형태”를 향한 집착은 거대도시를 지배하는 한편, 신과 조상들을 모신 사원은 통치자들의 궁전과 더불어 도시의 중심부에 세워졌다. 그리고 멕시코와 페루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초기 문명들이 세운 도시들도 앞서 언급한 지역의 도시들과 비슷하게 종교적 구조물을 메트로폴리스의 중심에 배치했다.³¹⁸⁾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상업과 교역, 군사적인 방어를 핵심에 두고 대규모의 식민지를 개척했으며 시러큐스나 로도스처럼 이들은 대규모의 도시로 성장을 하고 고전적인 계획도시의 모델이 되었다.³¹⁹⁾ 헬레니즘 도시 문화와 상업 문화를

316)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형태』, 공간사, 2011, 11쪽

317) 김성도, 『도시의 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106쪽

318)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28-30쪽

예전의 세력권 너머 심지어 인도로까지 전파한 알렉산드로스의 위대한 도시 유산은 예전의 그리스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합리적인 건설 원칙들을 채택한 신안티오크, 셀레우키아,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도시에서 발견된다.³²⁰⁾

이러한 도시들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쪽으로 진화해 가는데 신도시 뉴타운(New Town)은 독일어로 노이에 슈타트(Neur Stadt), 이탈리아어로는 시타 누오바(Cita Nuova)라고 하며 새끼 새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 탄생한다.³²¹⁾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확장을 하는 방식은 신구의 도시공간을 형성하며 서로가 연속성을 갖고 메가 시티(Mega City)로 발전을 하는 모델과 주변에 필요에 따라 크고 작은 신도시, 즉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하나의 거대한 도시 네트워크(Network of City)를 형성하는 모델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³²²⁾

유럽에서는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특징적인 도시가 발달했다. 벤스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과정을 가리켜 “군주의 도시와 상인의 도시”라는 하는 양극단이 존재한다고 표현했다. 군주의 수도란 권세자들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도시를 통해 물리적으로 표현하려다보니 탄생한 도시이다. 반면 상인의 도시는 상업, 산업,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라난 도시이다.³²³⁾ 그 결과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거리의 길이, 건물의 볼륨, 가로수 등과 같이 개인적인 편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도시의 일반적인 특징³²⁴⁾에서도 큰 차이를 갖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군주가 개입을 한 곳에서는 경제가 주춤했고 상인이 득세를 한 곳에서는 도시가 번영하기 마련이었다.³²⁵⁾

또한 상류층의 사교계와 사교계 인사들의 여흥문화는 유럽 사회의 도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를 도입했지만 도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였는데 아메리카와 동방항로의 개척으로 인한 교역의 현저한 증가, 유럽인구의 꾸준한 성장, 도시국가의 쇠퇴와 국민국가의 증

319)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52쪽

320)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53-55쪽

321)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84쪽

322)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시의 명칭이 있으며 그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참고로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도시의 명칭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창의도시, 산업도시, 경제도시, 무역도시, 항구도시, 물류도시, 군사도시, 철강도시, 유흥도시, 행정도시, 정치도시, 공업도시, 배후도시, 위성도시, 관광도시, 신도시, 구도시, 유적도시, 지속가능도시, 자족도시, 해안도시, 내륙도시, 기생도시, 우주도시, 녹색도시, 전원도시, 광역도시, 거대도시, 우주도시, 녹색도시, 전원도시, 광역도시, 생태도시, 소비도시, 생산도시, 첨단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디지털도시, 식민도시, 정보도시, 지하도시, 고대도시, 중세도시, 근대도시, 현대도시 등등이 있다.

323) 존 리더, 김명남 역,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지호, 2006, 195쪽

324) 이득채, 『도스토예프스키 도시에 가다』, 문화과학사, 2001, 20쪽

325) 존 리더, 김명남 역,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지호, 2006, 202쪽

대되는 힘이 결합되어 더 거대한 도시와 건물을 낳았다. 가장 이득을 많이 본 곳은 각국의 수도였다. 국가의 인구와 부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수도에서의 법률, 정치, 재정, 업무도 늘어났다. 그리고 이는 수도의 사회적 위신, 자체적인 상업거래,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도의 인구를 야기시켰다.³²⁶⁾ 런던과 파리의 경쟁은 18세기 중반부터 다른 수도들이 좀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이 경쟁에 합류했는데 정력적인 신흥 왕국인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 더 높은 명성을 열망하는 오래된 국가의 새로운 수도 샹트페테르부르크, 투르크의 위협이 있었던 옛 도시 빈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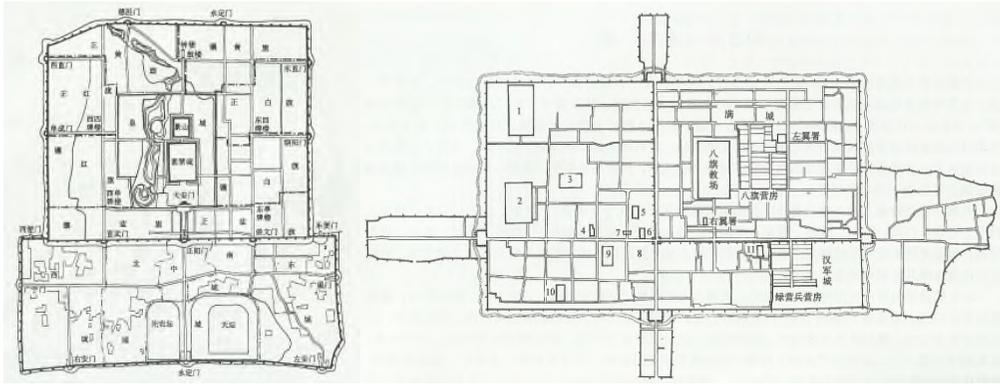
반면 중국의 경우는 서구 세계와 달리 상업적인 측면의 도시는 매우 늦은 시기에 출현할 뿐만 아니라 비중도 매우 낮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도시는 대부분 정치, 행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이며 군사, 방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적인 거점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한다. 특히 왕조의 교체는 바로 신도시, 즉 새로운 도성의 건설을 촉발시켰으며 전 왕조의 도성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 몰락하거나 배도(陪都) 또는 부도(副都)라고 하는 제2의 도성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인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다만 요와 금 같은 이민족의 왕조가 쌍둥이의 도시 유형을 사용한 것은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였는데 도시 한쪽은 한족이 살고 다른 한쪽은 왕조를 통치하는 원주민들이 거주했다. 그리고 청과 같은 이민족의 왕조는 만한(滿漢) 분리 정책을 동원함으로써 기존의 도시를 분할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만들거나 별도의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했다.³²⁷⁾

이러한 만성에는 만주족의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인 당자(堂子)를 비롯한 관련 시설이 자리를 잡았으며 특히 새로운 성벽을 쌓아 도시 내부의 공간을 분리시킴으로써 상호 접촉과 교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구획을 하였다. 물론 청대 후기로 접어들면서 만한 분리 정책은 완화가 되어 점차 혼재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인을 지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만청(滿城)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탄생하였으며 청대 도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예를 들면 북경성의 경우, 기존의 내성과 외성은 청대 이후 이러한 정책에 따라 내성을 만족들만의 거주지인 만성으로 전용하게 되었으며 서안부 역시 도시 내부의 동북쪽 일부 지역을 구획하여 축성을 함으로서 만성을 설치하였다.(그림 5-2)

326) 마크 기로워드, 민유기 역, 『도시와 인간』, 책과함께, 2013, 335-337쪽

327) 특히 만성은 전국 각지의 전력 요충 도시에 팔기를 주둔 시키면서 한족으로의 동화를 방지하고 왕래를 저지하며 한족 및 기타 민족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팔기와 그 가족들의 거주를 위해 만든 도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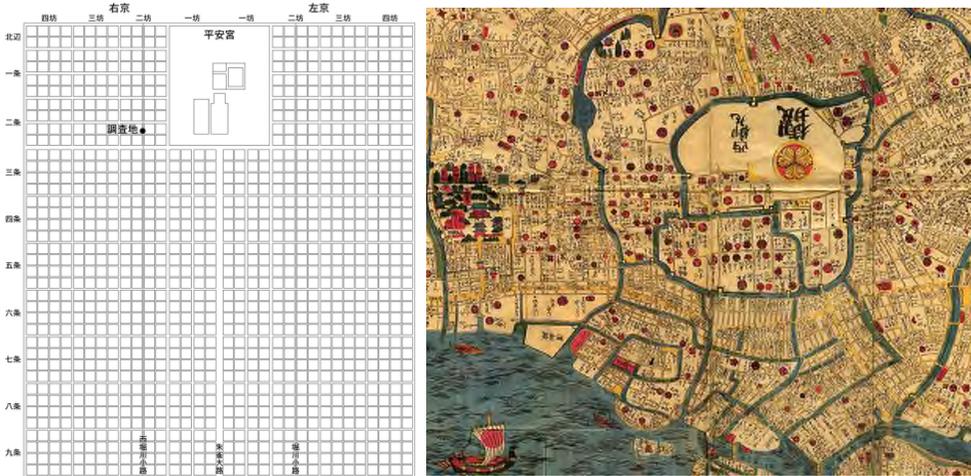
〈그림 5-2〉 청대 초기 만성으로 바뀐 북경 내성의 팔기 분포도(좌)와 서안부 만성(우)

한편, 일본의 경우는 고대의 격자형 도성이라고 하는 획일적인 형태에서 중세를 거치면서 다양한 권력 요소가 대두되어 변화를 이끌었고, 근세로 접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지배 권력인 다이묘가 지배하는 성하정(城下町)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도성과 성하정 모두 지배 권력이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과 계획적인 도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도시, 즉 평성경(平城京), 평안경(平安京), 등원경(藤原京) 등과 같은 도시는 남과 북을 축으로 하는 방위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비교적 획일적인 계획이 적용된 도시라고 하면, 근세 이후 영주의 거점 도시로서 성하정은 강호(江戶)를 비롯한 대판(大阪), 명고옥(名古屋), 광도(廣島) 등 그 지역 고유의 자연조건이나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지역성에 기초하여 정치적 기능과 상공업의 중심으로서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³²⁸⁾(그림 5-3)

물론 이러한 도시들은 그 이전의 고대 도시에 비하여 인위적인 계획의 출발점과 경영의 수준에 있어서 거리가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신도시라고 지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일종의 집락(集落)과 같은 작은 규모의 거주 단위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거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의 위계와 기능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면서 하나의 조직적인 틀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성곽의 기능은 거의 취소되어 이를 대신한 가로 체계가 도시 공간의 구획을 담당하는 한편, 중심 영역에 해당하는 영주의 거점을 에워싸 보호하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도시는 외곽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이 용이하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매우 복잡한 형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낯선 시선은 이러한 도시 공간을 미로처럼 느

328) 玉井哲雄의 논문 “日本 中近世都市의 特質”을 참조하였음(『동양도시사 속의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1994).

끼지만 내부의 거주자들은 익숙한 생활공간으로 침입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유리한 측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림 5-3〉 일본의 고대 도시 평안경 평면도(좌)와 성하정에 기반을 둔 도시 강호 고지도(우)

이처럼 신도시의 출현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목적에 따라 개략적으로 유형화 해 본다면 왕조 교체에 따른 천도 정책, 안전 확보에 따른 군사 정책, 생산 유통에 따른 경제 정책, 이동 분배에 따른 교통 정책 그리고 제국의 경영을 위한 식민 정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이것을 좀 더 간략화 하면 군사정치적인 신도시, 대도시문제해결의 신도시, 국토지역개발의 신도시로 압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류를 형성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왕조의 교체에 따른 군사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지는 신도시, 즉 국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삼국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현상에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 중국은 중원 지역에 출발하여 점차 동진을 한 다음 다시 남진을 했다가 다시 북진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이동의 배경에는 물론 군사적인 방어에 대한 측면의 고려가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남의 풍부한 물산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운하의 건설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림 5-4) 우리의 경우도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각자 군사, 교통, 생산의 거점을 중심으로 국도가 건설되었고 최종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서울로 귀착되었다. 이와 달리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고대 도시의 거점이었던 내량(奈良), 대판(大阪) 등 관서 지방을 중심으로 여러 국도가 만들어졌으며 794년 경도(京

都)로 천도한 이후 19세기 동경(東京)으로 천도를 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변화가 크게 없었다. 물론 동경은 17세기 강호 막부의 중심이 되면서 경도가 명목상, 정신적 국도가 되면서 실질적 국도의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국도 경영의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5-4〉 대표적인 신도시 건설인 왕조 교체에 따른 국도의 위치 변천(중국)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권력을 잡은 지배자의 존재는 전통시대에 필요조건으로 이들이 도시에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왕이 시골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처럼 도시는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대신 그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소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발달된 권력구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들이 머무는 통치구역이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은 통치자의 권위와 안전이다. 제국이 위대해지면 도시는 커지기 마련이며, 왕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대해지며 사람들은 도시를 매우 자랑스러워한다.³²⁹⁾

또한 도시는 정치권력에 탁월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독립 소도시에서 오늘날의 민족 국가의 수도에 이르기까지 권력 중심지의 도시적 특징은 거의 예외가 없으며 통치하는 기술을 출현하게 만든 인간적 삶의 형태를 실현한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³³⁰⁾ 이와 더불어 도시는 인류사의 풍부한 보고로서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에서도 초기 도시의 구조와 함께 언덕 위의 찬란한 도시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엿볼 수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뿌리 깊은 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다.³³¹⁾ 그래서 몽터스키외는

329)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형태』, 공간사, 2011, 74-75쪽

330) 김성도, 『도시의 인간학』, 안그래픽스, 2014, 109-110쪽

331)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16쪽

“속박된 국가는 성취하기보다 유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반면 자유국가는 유지하기보다는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다.³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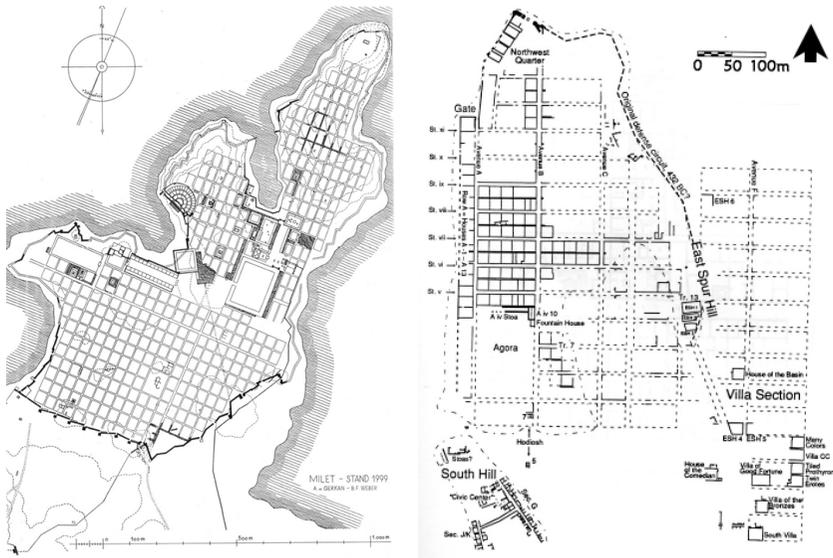
제3절 신도시 건설의 보편적 논리, 격자형 계획이론

격자형 도시건설방식은 처음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널리 애용되는 방식이었다. 거리를 가로세로로 형행하게 짓는 격자형 방식은 4000년전 모헨조다로에서부터 고대 그리스의 밀레투스, 중국 당나라의 국도 장안이나 신계계의 필라델피아에서는 물론 1860년 바르셀로나의 확장공사에도 적용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자주 이용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선구적인 건축가이자 도시설계자인 히포다모스[또는 무]스(Hippodamus 또는 Hippodamos)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에 의해 이러한 도시계획의 고안자로 평가 받았는데 그는 도시의 구조와 배열이 사회질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기도 했다.³³³⁾ 그는 소아시아 이오니아 지방의 대표적 도시국가였던 밀레투스 출신으로 기존의 비정형적이고 비기능적인 도시 구성 대신에 격자형의 도로망과 지역계획을 통해 규칙적이고 기능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계획 방법론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시를 단순화하고 규칙성을 통해 기능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효율성이 높아져서 이후의 그리스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의 여러 도시 유적 중에서 초기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Athens)에서는 격자형의 도시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아테네는 외부 세력과의 전쟁을 반복하면서 성곽을 통한 방어 위주의 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었고, 자연발생적으로 주요 시설의 연계를 통해 도시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히포다모스가 도시계획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밀레투스(Miletus)와 올린투스(Olynthus)의 도시계획에서 격자형 도시로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난다.(그림5-5)

332) 존 리더, 김명남 역,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지호, 2006, 199-200쪽

333)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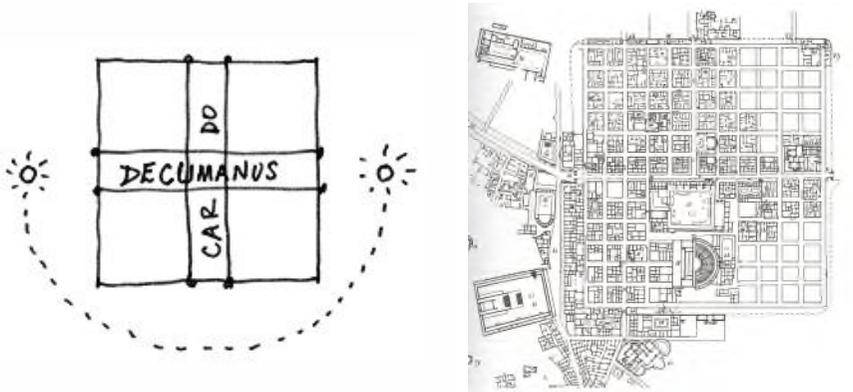
〈그림 5-5〉 대표적인 격자도시 밀레투스의 도시 평면도(좌)와 올린투스의 도시 평면도(우)

일반적으로 도시의 내부 공간을 격자형의 패턴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공간의 크기 즉, 모듈이 마련해야 하며 그것은 결국 가로 체계의 정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와 가로를 어떻게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크기의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과 동아시아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왕도의 계획이론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도시 전체의 형상에 있다.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공간의 형상에 대한 동아시아의 인식과 달리 그리스 식민도시에 표출된 격자도시의 외곽 형상은 최대한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규정형과 비정형의 모습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스에서 확립된 격자형 도시체계는 로마를 거치며, 한 층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자연발생적인 도시를 격자형 체계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존 도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식민지에 건설하는 신도시나 재건도시를 중심으로 격자형의 도시 형태가 적극적으로 채용되었다. 로마가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였던 만큼, 군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격자형 도시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로마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도시계획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로마의 도시들은 폼페이(Pompeii), 오스티아(Ostia), 나폴리(Napoli), 트리어(Trier), 랩티스 마그나(Leptis Magna) 등과 같이 실용성과 기능이 강조된 격자형 도시로서 그리스의 도시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후 로마가 제국으로서의 군사제도가 근간을 이루면서, 로마의 병영계획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도시 전체가 군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서로 데쿠마누스

(Decumanus)라고 하는 중심도로를 뚫고, 남북으로 카르도(Cardo)라는 대형 도로를 설치하여 그 교차점에 광장을 만들고 도시 주요 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그리스식 격자도시와 비교하면 보다 정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예로는 팀가드(Timgad), 아오스타(Aosta) 등이 대표적이며, 피렌체(Firenze), 토리노(Torino), 베로나(Verona), 파비아(Pavia), 코모(Como) 등의 도시에서도 그 흔적이 확연히 발견된다.(그림 5-6)



〈그림 5-6〉 동서 방향의 도로인 데쿠마누스와 남북 방향의 도로인 카르토를 기반으로 한 로마 병영 도시의 가로 체계 개념도(좌)와 이를 반영한 대표적인 도시 팀가드 평면도(우)

또한 새로운 도시의 건설 보편적 형식으로 정착된 격자형 도시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세계의 문화교류사가 유목민의 이주사라는 점이다. 유목민의 이동이 세계사에서 많은 사건을 만들었음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쉽게 확인된다. 세계 최초의 교역로라 할 수 있는 초원의 길을 비롯해 비단길을 열고 동서교류를 통해 역사를 발전시킨 것도 유목민이었으며, 서로마제국을 멸망시킨 고트족의 남하도 흉노라고 불리는 훈족에 의한 것이었고, 유사 이래 가장 큰 제국을 경영하였던 것도 몽고라는 유목민족이었다.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은 도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메르 인 이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등의 국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들 왕국은 모두 유목민족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고 도시를 세운 것으로 바빌로니아의 바빌론(Babylon), 아시리아의 코르사바드(Khorsabad)와 니네베(Nineveh), 페르시아의 페르세폴리스(Persepolis) 등이 대표적인 실례이다. 이들 도시는 그리스와 비교해도 이른 시기에 등장한 격자형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도시 유적은 상대의 은허(殷墟)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는 명확히 격자형을 기본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왕궁의 유적과 성벽 및 해

자의 유적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도시의 방어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격자형 계획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다. 격자형의 계획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제(濟)의 임치(臨淄)와 조(趙)의 한단(邯鄲)이라고 볼 수 있다. 임치는 기원전 5세기 이전, 한단은 기원전 3세기 이전의 유적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격자형의 도시계획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례 고공기가 한대(漢代)의 기록이므로 기원전 2세기 무렵에는 이미 격자형 도시 계획이 체계가 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례 고공기의 장안영국에 나오는 “장인영국방구리방삼문(匠人營國方九里旁三門), 국중구경구위경도구궤(國中九經九緯經塗九軌), 좌조우사면조후시(左祖右社面朝後市), 시조일부(市朝一夫)”의 내용으로 히포다모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격자형 도시계획과 가로 체계의 체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형식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시 내부공간의 구성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 그것은 중국의 도시가 천문사상과 유가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격자형 도시계획의 이론 외에도 또 다른 이론이 제창되고 있는데 그것은 관자(管子)와 상군서(商君書) 등에 잘 나타난다. 관자 제4편 입정(立政) 부분에는 정부의 주요한 사항을 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복제(服制)를 언급하면서 의식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작위의 높고 낮음을 헤아려 의복을 다르게 제정하고 녹봉의 많고 적음을 따져 필요한 재물을 규정한다. 음식에 정량이 있고 의복에 규정이 있으며 가옥에 법도가 있다.....현명하고 귀해도 그 작위가 없으면 감히 해당 작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집이 부유하고 재산이 많아도 그 녹봉이 없으면 해당 작위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³³⁴⁾

또한 관자 제5편 승마(乘馬) 부분에서는 국가 기본정책의 수립을 논하며 도성을 건설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대개 도읍은 큰 산 아래나 아니면 큰 강가에 세워야 한다. 지대가 높으면 물이 부족한 곳을 피해야 물을 충분히 쓸 수 있고 지대가 낮으면 물 근처를 피해야 도랑과 제방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천연자원이 풍족하여 지리가 편한 곳을 택해야 하기 때문에 성곽이 반드시 직사각형일 필요는 없고 도로가 반드시 평탄하고 곧을 필요는 없다.....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며 조정은 의법(儀法)의 원칙에 따라 다스리는 곳이며 시장은 재화 유통의 중심지이며 황금은 재정을 계산하는 척도다. 제후의 영토에 천승의 병력을 두는 것은 군비 제도다.

334)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관자』, 소나무, 2012, 68-69쪽

토지는 정치의 근본이다. 따라서 토지로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토지가 공평하고 조화롭지 못하면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없으며 정치가 바르지 못하면 생산 활동을 제어할 수 없다. 춘하추동은 음양의 변화며 계절의 길고 짧음은 음양의 상호 작용이며 밤과 낮의 바뀜은 음양의 바뀜이다. 그래서 음양이 바른 것이다. 설사 음양이 바르지 않더라도 남은 것을 덜어낼 수 없고 모자라는 것을 더할 수 없다. 이것은 하늘의 원리로 덜거나 더할 수 없다.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구획이기 때문에 바르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를 바르게 구획하려면 토지의 실제 상황을 살펴 바르게 해야 한다..... “335)

다음으로 관자 제57편 탁지(度地) 부분에서는 토목공사와 치수방법을 논하며 도성의 건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폐업과 왕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의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나라의 도움을 받드시 지세가 안전하고 견실하고, 땅이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좌우로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고 성안에 건설된 배수로를 따라 물이 강으로 잘 빠지는 곳에 정합니다. 이에 그 천연 자원과 땅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백성을 먹여 살리고 여러 가축을 기릅니다.....천자는 한 가운데 도움을 정하니 이를 천하의 자원을 이용하고 모든 토지의 재화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도성에는 내성을 건설하고 성 밖에는 곽을 건설하며 곽 바깥쪽에는 해자를 팝니다. 땅이 높으면 골을 파고 땅이 낮으면 독을 쌓습니다. 그것을 견고한 성곽이라고 합니다. 성 곽 주변에 가시덤불을 심어 오르기 어렵게 하면 더욱 견고해집니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수리하고 철마다 튼튼하게 수리하면 복이 자손에 미치니 이를 백성의 생명과 영원한 이익을 도모하여 군주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신하는 충성을 다함 군주를 돕고 군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천하를 다스리기 때문에 천하의 백성이 우선시 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상의 책임이며 신하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반드시 다섯 가지 해악을 제거하여 백성이 죽을 때까지 재해에서 벗어나 효성스럽고 자애롭게 합니다. “336)

그리고 상군서(商君書)를 살펴보면 권2 제6편 산지(算地)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35)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관자』, 소나무, 2012년, 73-74쪽

336)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관자』, 소나무, 2012년, 685쪽

“백성의 본성인 만성은 길이를 재 긴 것을 취하고 무게를 달아 무거운 것을 취하고 득실을 헤아려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밝은 군주가 이들 세 가지를 신중히 관찰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고 백성의 능력인 민능(民能)도 얻을 수 있다.....성인은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로 하여금 기본 자산을 땅에 간직하게 했다. 기본 자신이 땅에 있는데 외지로 나가는 것은 곧 어디를 가든 위태로운 곳에 몸을 맡기는 셈이 된다. 백성들이 기본 자산을 땅은 간직하면 순박해지고 외지에서 위태로운 곳에 의탁하면 미혹된다.....”³³⁷⁾

또한 상군서 권4 제15편 내민(徠民) 부분에서는 토지 구획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토가 사방 1백리인 나라는 산과 구릉이 10에 1, 늪과 호수가 10에 1, 계곡과 하천이 10에 1, 성읍과 도로가 10에 1을 차지한다. 또 척박한 농지가 10에 2, 비옥한 농지가 10에 4를 차지한다. 이 정도의 경지라면 민호 5만호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또 산과 구릉, 늪과 호수, 계곡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할 수 있고 성읍과 도로는 백성들을 안주시킬 수 있다. 이는 선왕이 토지를 구획하고 안배한 규율이다.”³³⁸⁾

이것은 주례 고공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이상적인 형상을 추구하는 형식 개념과 달리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기반을 둔 인지제의, 인지취재(因地制宜, 因地取材)의 개념을 강조한 것으로 신도시의 계획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 코스토프(S. Kostof)는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며 도시의 형태는 질서와 질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규제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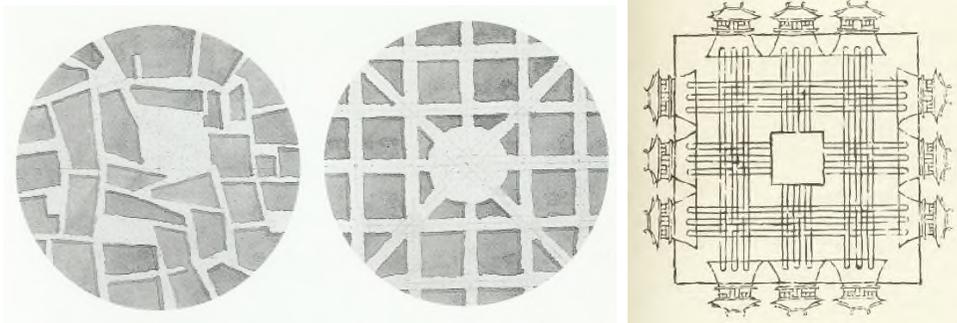
“도시 형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도시와 원래 그대로의 도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것은 계획된 또 설계된 또는 창조된 도시이다. 이러한 도시는 어떤 권력이 한 순간에 만들어내며 도시의 패턴이 한 번에 만들어져서 영원히 유지된다. 19세기까지 이 패턴은 잘 정리된 기하학적 도형으로 변함없이 자리 잡아왔다. 형태만으로 볼 때 이런 도시는 격자 혹은 또 다른 중심이 있는 계획안이 되었을 것이다.....다른 한 종류는 자연발생적인 도시로 자라난, 우연히 생겨난, 생성된 도시라고도 한다. 그 양식을 결정하는 뚜렷한 요인 중의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 지형적이라고도 한다. 종합계획은 없지만 시간의

337) 상양, 신동준 역주, 『상군서』, 인간사랑, 2013, 110-111쪽

338) 상양, 신동준 역주, 『상군서』, 인간사랑, 2013, 184쪽

흐름과 땅의 생김새에 따라 설계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을 위해 도시를 발전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그 모습은 유기적 형태로 불규칙적이며 기하학적 형태가 아니다.”³³⁹⁾

이것은 결국 도시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토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의 역사를 토지의 역사라고 인식하며 이에 따른 제도와 계획의 자취를 추적하고 토지에 축적된 과거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³⁴⁰⁾ 따라서 우리는 비록 동양과 서양의 발전양상과 지리적 거리가 가져오는 다양한 차이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시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본 원칙은 암묵적으로 공통된 점이 존재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격자 도시의 기틀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영향이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지고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의 영향을 받은 중국은 다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나아가 버마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의 도시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그리스와 로마의 격자 도시는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기에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를 통해 새로운 이상도시로 재현이 되고 이는 제국주의를 통해 전 세계 각지의 식민 도시 형태로 또다시 자리 잡아 오늘날의 신도시 계획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³⁴¹⁾



〈그림 5-7〉 불규칙한 구성의 자연발생적인 도시와 질서 있게 만들어진 기하학적 도시 개념도 및 주례 고공기에 언급된 장인영국 부분을 표현한 왕성도

출처: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 2009년, 44쪽

339)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 2009, 43쪽

340) 히로시 스즈키, 「도시의 표현-현대도시의 문제」, 『18세기 신도시 20세기 신도시』, 발언, 1996, 257쪽

341) 한동수 외, 「세계의 격자형 도시변천-2」, 『POAR』, 2003년 2월호, 114쪽

여기서 잠시 격자형 도시 계획의 측면에서 전개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도시 건설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두 차례 시기가 있다. 하나는 7세기말부터 8세기에 걸친 시기로 중국고대의 도시 형태인 도성제가 도입되어 당시 일본열도의 중앙부에 있는 근기(近畿) 지방에 등원경(藤原京)과 평성경(平城京) 등이 건설된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근세에 해당하는 16세기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친 시기로 일본 전역에 걸쳐 거의 일제히 도성이 건설되었다. 이 근세 도성은 중세의 혼란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성곽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 색채가 강한 것이지만 정치, 경제의 거점이 되었다.³⁴²⁾

일본 국왕은 6세기말부터 점차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거지역이 좁혀지는 형국을 보인다. 6세기말이 되어도 여전히 왕이 여러 처소를 움직이며 생활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593년에 즉위한 추고 천황(推古天皇)을 기점으로 여전히 재위 기간 동안 여러 번 거주지를 옮기는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장소가 아스카지역으로 국한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옮기는 횟수도 줄어드는 양상이 보인다. 이렇게 왕이 그 전에 비해 정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읍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또한 일본열도의 세력 기반이 아스카 지역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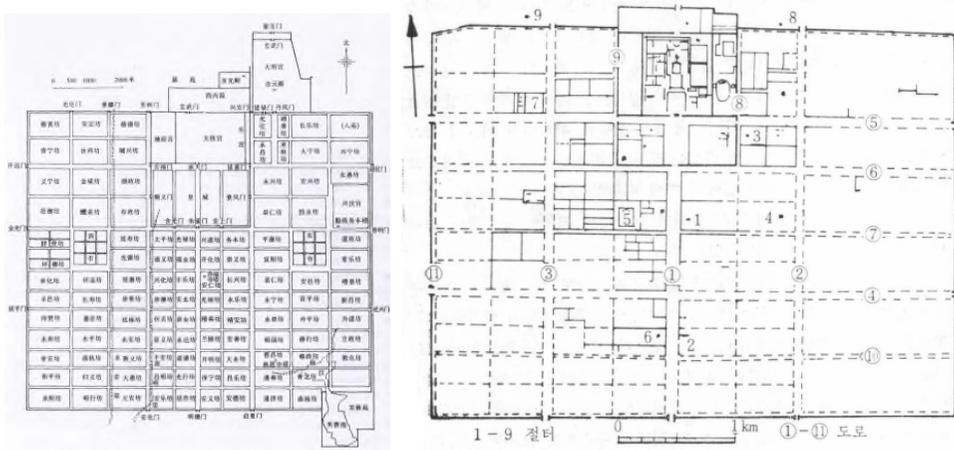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694년에 비로소 일본 최초의 도읍이라 할 수 있는 등원경(藤原京)이 건설된다. 등원경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중국과 한국에서는 정착된 도성건설 체계인 격자형 도시계획이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몇 가지 이질적인 부분이 보인다. 일단 도시 외부를 감싸는 성곽, 즉 외성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일본의 국도에 성곽이 없는 것은 성곽을 짓고 도읍으로서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왕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정도로 왕의 권력이 압도적이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도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례 고공기(周禮考工記)에는 좌조우사, 전조후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 이 시기 일본의 국도는 조(祖)나 사(社)를 갖추지 않았고, 조(朝)와 시(市)도 명확하지 않았다³⁴³⁾. 일본에서 조(祖)나 사(社)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신사(神社)라고 할 수 있는데, 신사는 도읍 권역에서 벗어난 곳에만 조성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관직체계는 갖추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귀족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조(朝)를 갖추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위치와 요소에 사찰을 두고 사찰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등

342) 다마이 데쓰오, 「일본의 역사적 신도시-근세도성건설을 중심으로」, 『18세기의 신도시 20세기의 신도시』, 발인, 1996, 310쪽

343) 시(市)의 경우, 다른 도읍에서는 시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평안경에서는 도성 남부에 양쪽으로 동시(東市)와 서시(西市)를 조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관영 시장인 만큼 도성계획 시부터 의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경에는 본약사사(本藥師寺), 소산폐사(小山廢寺), 대관대사(大官大寺) 등이 중심에 있었고, 평성경에는 약사사(藥師寺), 대안사(大安寺), 건흥사(元興寺) 등이 있었으며, 평안경에는 궁성에서 마주보는 끝에 동사(東寺)와 서사(西寺)가 있었다³⁴⁴⁾. 또한 궁성의 위치도 등원경만 정 중앙에 가깝고 다른 국도는 모두 후방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주례 고공기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점은 당의 장안에서도 보이는 점이므로, 장안을 참고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³⁴⁵⁾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처음부터 주례 고공기의 기본 개념인 격자 도시의 형식과 방형의 도시 형상을 갖는 것은 그다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도시의 형상과 구조로 볼 때 적어도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라든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의 주요 도시에서 그 가능성 내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³⁴⁶⁾ 특히 주로 평지에 도시가 건설된 발해의 주요 도시에서는 격자 도시의 흔적이 쉽게 확인된다. 그 가운데 상경용천부는 당의 국도 장안과 가로 체계의 구성, 궁궐의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유사한 점이 있다.³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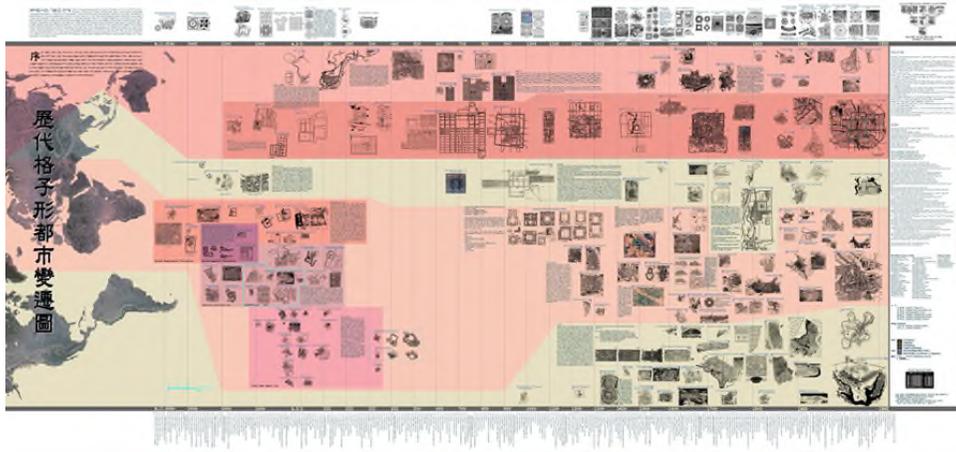
〈그림 5-8〉 당의 수도 장안(좌)과 발해 상경용천부 평면도(우)

344) 이전 도시와 비교하여 평안경에서는 사찰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평안 시대 초기에는 도읍 안에는 딱 두 사찰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버려진 평성경은 평안경에 자리 잡을 수 없게 된 사찰들이 점령하여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도 당시 평성경 구역 안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남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대사(東大寺)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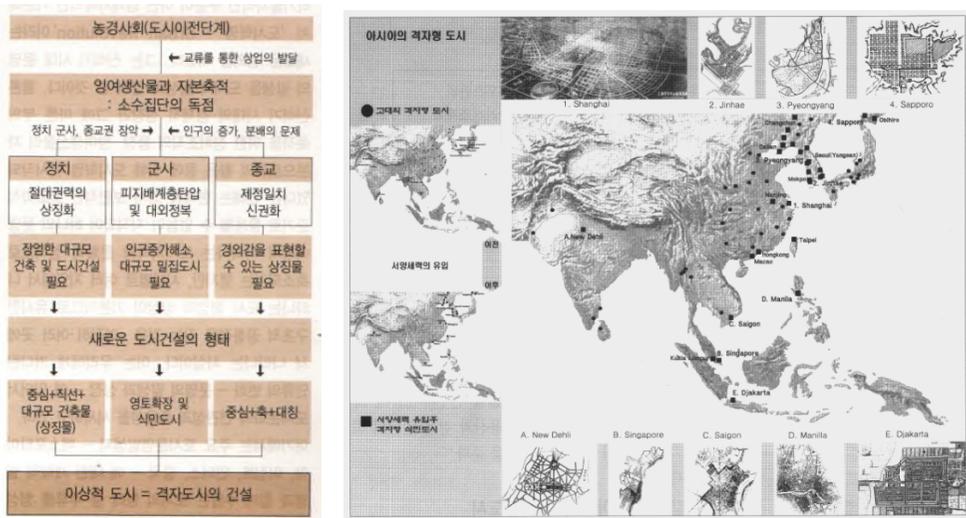
345) 이 부분의 내용은 서동천 박사의 2015년 한양대 대학원 건축학과 도시사 수업 강의노트에서 일부 인용을 하였음.

346) 이밖에도 원광대 이경찬 교수의 논문에서 백제 시대 익산 왕궁리나 조선시대 남원 지역 등지에서도 격자 도시의 형식을 확인하여 논증 한 바 있다.(이경찬, 『백제 후기 익산도성 조영계획 모델에 대한 도성계획사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4권 3호, 2015)

347)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200쪽



〈그림 5-9〉 세계 각 지역 역대 격자형 도시의 변천과 개념도 및 주요 사건 연표



〈그림 5-10〉 신도시의 탄생 메카니즘과 아시아 격자 도시의 분포

물론 그 외에도 도시가 급격히 확장되어 통제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도시의 내부를 격자 도시의 형식으로 변화 시킨 삼국 통일 이후의 경주라든가 고구려의 마지막 국도였던 장안성과 같은 사례가 있으나 이는 출발 자체가 자연발생적인 도시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을 띤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완벽하게 격자 도시의 형식을 적용한 신도시 계획의 출발이 늦은 이유는 국도의 입지를 선택할 때 평지보다 방어에 유리한 분지형, 즉 배산임수의 지형을 선호하였으며 거주를 위한 성곽과 전투를 위한 산성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한 우리나라만의 독

특한 도시 운영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에서 산성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하천과 산맥의 흐름 속에서 방어와 공격이라고는 거대한 군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제4절 수원 화성 신도시의 성격과 위상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도시가 성스러운 장소라는 관념 없이 발달할 수는 없었으며 성벽 너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치 영역 너머의 땅에 정착을 하고 여행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³⁴⁸⁾ 중국은 도시건설에서 제국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가장 영구적인 사례로서 각각의 도시가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의 변동은 통치하는 군주가 자리하는 곳이 어디냐에 달려 있다. 유교의 고전인 주례는 “군주 혼자서 수도를 건설한다.”라고 단언을 한다. 이와 유사하게 조선의 수도로 건설된 한양은 거의 500년간 “목가적인 중국식 수도”로 이바지를 했으며 전형적인 중국식 모델을 따라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왕실의 관료들이 지배하는 행정으로 중심지로 설계되었다.³⁴⁹⁾

그러나 18세기 수원 화성의 건설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도시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³⁵⁰⁾ 그러므로 역사학은 물론 도시학, 건축학, 사회학, 정치학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화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남해안의 상권을 견제하고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흥 상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점도시의 조성이라든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부흥책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전적으로 사도세자와 정조의 관계에 치우친 충과 효의 전당으로서 유교적인 실천 도구라는 견해도 있다. 또 화성의 축조과정과 이후의 자료정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건설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한 모범적인 실사구시의 현장으로서 바라보기도 한다. 모두가 화성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해석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금까지 화성을 단순히 새로운 도시, 즉 앞서 논의한 도시의 개념과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측면에서 조명을 해 왔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화성

348)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31쪽

349)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36-37쪽

350) 이 시기를 전후로 서양에서는 방사형 가로 형식이 적용된 바로크 도시 계획이 성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에서는 강희, 건륭 황제로 이어지는 청대 문화의 절정기로서 강남지방의 새로운 시진(市鎮)이 다수 건설되어 상공업이 활발해지는 한편, 일본 역시 국내의 생산량과 유통이 활발해져 도시 문화가 번성하는 시기였다. 이와 더불어 조선을 중심으로 중국에는 연행사, 일본에는 통신사가 각각 파견되었다. 물론 화성의 건설과 직접 관련된 정조대에는 통신사의 파견은 없었으나 선대인 영조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통신사의 파견이 있었다.

(華城)³⁵¹⁾은 성시의 호칭인 동시에 성곽의 이름이기도 하다.³⁵²⁾ 1793년 1월 정조는 원행에서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그 명칭을 화성으로 바꾸었고 이 도시는 유수부의 행정지위를 얻으면서 화성유수부라는 명칭으로 조선의 역사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1년 뒤 1794년 1월 7일 이곳에서는 신도시 건설의 웅대한 서막이 열리면서 화성은 성곽의 이름으로도 명명 되었다. 또 다시 이로부터 2년 9개월이 되는 1796년 10월 16일에는 그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낙성연과 더불어 화성유수부는 도시 공간을 에워싸는 성벽과 행궁이 갖추어진 성곽도시(城郭都市)로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화성 건설과정에서 도시의 성격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도세자의 천장과 관련하여 능묘의 유지와 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자신의 활동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면 중국의 한나라 시기에 형성된 능읍제(陵邑制)와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능읍제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각지의 귀족과 부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나라의 장안 부근 황제의 능묘가 있는 곳에 능성(陵城)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능성은 소비성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능읍제는 강본약지(強本弱枝)와 방어흉노(防禦匈奴)의 두 가지 임무를 담당했으며 정치와 군사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했다. 특히 능읍의 설치는 주로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실제로 능읍의 전통은 중국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이미 황제의 능묘를 축조하고 생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능읍을 축조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진시황의 능묘뿐만 아니라 역대 황제들은 자신의 능묘 축조와 더불어 능읍의 건설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능읍제는 한나라의 고조가 위하 남북 하안에 분포하는 능묘뿐만 아니라 7개 도시구역의 부중심 주변 구역을 조직화하여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다수 부호를 이곳으로 이주하게 한 것에 비롯되었다. 능읍(陵邑, Mausoleum Feid)은 재화능원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읍지(邑地)로 제왕능묘의 소재지를 지칭하기도 한다.

당나라 시기 및 그 이후의 인산위릉(因山爲陵)과 달리 한나라의 능묘는 대부분 평지위총(平地爲塚)³⁵³⁾으로 복두식의 규범과 형태를 형성하였다. 봉토의 하부와 정상은 방형의 평면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높이는 46-66.5m, 민변의 길이는 240-260m, 폭은 60-85m으로 높고 웅장하여 묘주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상징했다. 황제의 능묘 주변에는

351) 화성의 별칭으로는 화영(華營)이 있는데 이는 한양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설정했던 4곳의 유수영 즉 개성, 강화, 광주, 수원 중 수원을 가리킨다. 이러한 별칭은 군사도시로서 화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데 서유구의 행정일기인 화영일록(華營日錄)이나 19세기 후반 수원부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화영사례(華營事例) 등에서 볼 수 있다.

352)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두 번째 기사와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5일 계묘 첫 번째 기사를 참조할 것.

353) 이와 같은 능묘의 조성 방식을 축토위총(築土爲塚)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배장묘가 있는데 한나라 경제의 양릉(陽陵)에 대한 고고 발굴에 따르면 배장묘원 내에는 이미 확인된 대중소의 묘장이 5000여개나 존재했다.

한 고조 9년(B.C.198년) 유방은 낭중 유경(劉敬)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동 동쪽 지역에 2000명의 대관과 부호 및 호걸 그리고 권속들을 대량으로 관중으로 이주시켜 장릉(長陵)에 시봉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능원 부근에는 장릉의 현읍(縣邑)을 수건하여 이주자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 혜제(惠帝) 유영(劉盈)은 안릉(安陵)을, 경제(景帝)는 양릉(陽陵)을, 한 무제(武帝)는 무릉(茂陵)을, 한 소제(昭帝)는 평릉(平陵)을 각각 수건할 때 모두 서로 답습하여 능원 부근에 안릉읍, 양릉읍, 무릉읍, 그리고 평릉읍을 조성했다. 이후 황제들은 부단히 귀족을 이곳에 이주시켜 오릉(五陵)은 부호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자제를 오릉소년이라고까지 불렀다. 서한이 들어서고 난 이후 도읍은 함양에서 위하 이남의 장안성으로 천도 되었으나 오릉은 장안과 위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관계가 되었다. 이로서 두 도시 사이에는 정치와 군사 중심으로 큰 역할을 했으며 수당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할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처럼 능읍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단순히 황제의 무덤을 수호하고 받드는 기능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시였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수원 화성의 조성과 그 경위와 닮은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우선 정조의 화성에 대한 생각을 실록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정조는 수원부의 명칭을 화성으로 바꾸고 어필로 현판을 써서 장남현에 거는 한편 부사를 유수로 승격시키면서 전교하는 내용 가운데 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듯한 좋은 자리를 잡아 영원토록 천억만년 끝없는 큰 운세를 정하였으니, 이 땅의 소중함은 실로 주(周)나라의 풍(豐)이나 한(漢)나라의 폐(沛)와 같이 융성할 것이다. 오직 이 곳을 잘 수호할 방도를 더욱 애써 치밀하게 하여 체모가 존엄하고 제도가 엄숙하여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 소자(小子)의 정리로나 예법으로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 비유하자면 마치 종묘의 예절을 두고 먼저 백관(百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이곳 수원부는 <현릉원> 자리를 마련한 뒤로부터 관방(關防)이 더욱 중하여졌다. 아름다운 이 자연의 요해처에 달마다 꺼내 볼 <사도세자> 의 의관(衣冠)들을 길이 봉안하리라. 미리 행궁을 세워 먼저 우러르고 의지하는 생각을 붙였고, 영정을 그려 걸어서 혼정 신성의 정성을 대신하니.....”³⁵⁴⁾

다음으로 정조가 채제공에게 하유하는 말 가운데 화성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언급한 내

354)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1월 12일 병오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화성(華城)은 바로 선침(仙寢)을 받들어 모신 지방이며 부(府)로 승격된 초기이기에 원로를 얻어 그의 성망(聲望)을 빌어 그 곳을 격상시키려는 생각에서 부득불 번거롭게 경을 한번 내보냈던 것이다.....”³⁵⁵⁾

또한 용인, 안산, 진위 등 3읍을 화성의 속읍으로 삼았는데 총리사 채제공에게 아뢰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부(本府)는 평소 경기 지방 중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만, 모든 것이 초창기일 뿐더러 당초부터 성원을 받을 만한 의지처가 없어 요새지로 삼는 측면에서 논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부와 경계를 나란히 하여 땅을 맞대고 있는 곳으로는 바로 용인과 안산이 있고 진위 역시 40리(里)의 거리 안에 있으니 이를 속읍으로 삼아 성을 지키도록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사체(事體)로 보아도 원만해지고 절제(節制)하는 면에서도 편해질 터인데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장차 남한산성(南漢山城)과 서로 구원하는 형세를 이루고 서로 도우며 의지하는 관계를 맺게 한다면 엄연히 억만년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니.....”³⁵⁶⁾

화성에 대한 성격을 정조가 언급한 또 다른 기록을 살펴보자.

“화성(華城)은 바로 탕목읍(湯沐邑)이자 고굉(股肱)처럼 믿고 중하게 여기는 고을이니 군대와 식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인화(人和)를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다.....”³⁵⁷⁾

“주(周) 문왕(文王)이 기읍(岐邑)을 다스릴 때 토지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조세를 정하는 법을 세웠고 한나라 고제(高帝)는 관중(關中)을 안정시킨 뒤에 조세에 관한 법을 만들었는데, 조정이 화성(華城)을 보는 비중도 주나라의 기읍이나 한나라의 관중과 다름없으니... “³⁵⁸⁾

비록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정조 사후, 순조시기 조세의 문제를 가지고 화성의

355)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5월 25일 병진
356) 『정조실록』 42권, 정조 19년 윤2월 7일 기축
357) 『정조실록』 49권, 정조 22년 9월 24일 갑신
358)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 6월 1일 임자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광주(廣州)는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지방이고, 강화(江華)는 심도(沁都)의 지방이며, 수원(水原)은 화성(華城)의 지방이고 보면, 송도의 지방은 개성입니다. 또 같은 분사이지만 특히 더 중한데도 화성은 처음 설치할 때부터 재부(財賦)를 신중히 하여 지방의 세수(稅收)를 전부 이속시키지 않고 호조에 내던 것을 넘겨서 교환하게만 하였습니다.....”³⁵⁹⁾

이 뿐만 아니라 능읍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도 보이는데 일성록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삼보(三輔)의 능읍(陵邑)에서처럼 줄기를 강하게 하고 지엽을 약하게 하는 좋은 계획이 이에 달려 있고, 만년릉(萬年陵)의 탕목읍(湯沐邑)에서처럼 요역(徭役)을 가볍게 하고 부세(賦稅)를 적게 매길 훌륭한 본보기가 이에 달려 있으며.....”³⁶⁰⁾

“둘레에 1백 치(雉)의 성과 1천 채의 집을 지을 터를 마련했으니 그 큰 규모는 한(漢)나라 능읍(陵邑)의 포치(鋪置)를 본받았고, 형승(形勝)이 나는 용과 춤추는 봉황의 형세에 의거했으니 비결(秘訣)은 고려조의 도교와 불교의 정신을 발휘하였네. 군비(軍備)를 정비하고 군량을 쌓아 둔 것은 어찌 국가 남쪽 근기(近畿)의 국방을 위한 뜻만 있겠으며, 제향을 받들기 위해 어가가 임어(臨御)하시니 한 해에 한 번 임어하시는 고을로 삼기 위함이네.”³⁶¹⁾

단편적인 인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화성은 제2의 수도로서 부도나 군사적인 방어 전략의 군도의 목적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부친의 능묘를 수호하고 관련 행사를 거행하며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한 측면은 일종의 능읍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화성은 정조에게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관료 사회를 향한 통치의 견고함을 드러내고 외부적으로는 백성들을 향해 충과 효의 본보기가 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표본으로 삼았다. 결국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기능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읍으로서 화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현종 2년

359) 『순조실록』 26권, 순조 23년 8월 16일 임자

360) 『일성록』, 정조 22년 10월 19일

361) 『일성록』, 정조 20년 9월

(1836년) 4월 12일 서유구의 장계에 대하여 대왕대비전이 답을 하며 “화성은 곧 능원의 침소를 받드는 곳이다.”³⁶²⁾라고 하였음에서도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수원성의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그 형태와 내부의 가로계획에 대한 일련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성제와는 전혀 다른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릉원이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부(府)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임금에게 세 가지를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화(花)자와 화(華)자는 통용된다.....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이 조금 길게 하여 마치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어제 화성과 유천의 뜻을 이미 영부사에게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성을 좁고 길게 하여 이미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고 나면 북쪽 모퉁이의 인가들이 서로 어울려 있는 곳에 세 굽이로 꺾이어 천(川) 자를 상징한 것이 더욱 유천에 꼭 들어맞지 않겠는가.....성지(城池)의 남쪽과 북쪽 사이의 거리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까운 결점이 있으니, 먼 장래를 생각하는 방도에 있어 더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산과 유천이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억만 년 유구한 태평 시대를 여는 기 업이 될 것이다. 성을 쌓을 때 버들잎 모양을 본뜨고 내천 자의 형태를 모방하여 구불구 불 돌아서 기초를 정하고 인가들도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해야 할 터인데.....일자문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 더욱 두겹고 공고한 기상을 보겠고, 용연의 기슭이 용의 머리로 되어 있고 석벽이 웅크린 것처럼 솟아 있으니 풍기(風氣)가 응결되어 매우 활기찬 기상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겹하여 수해(水害)를 막는 공이 있게 되었으니 마치 이 성 쌓는 역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인 듯하다.....”³⁶³⁾

이처럼 신도시 계획의 확고한 중국의 전통인 주례 고공기 장인영국의 부분은 여기에는 적합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관자나 상군서에서 지적하는 바가 화성의 조영에 있어서 보다 더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청대 지방 성곽 도시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성성(省城)의 평균보다는 작고 부성(府城)의 평균보다는 큰 수원 화성의 성제에서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는 성문의 위치와 방향이다.³⁶⁴⁾ 대개 하나의 성곽 도시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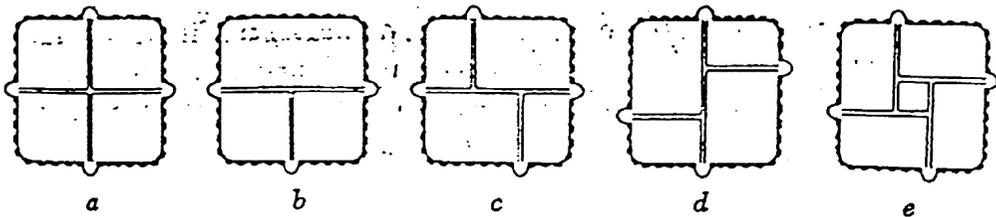
362) 서유구, 『화영일록』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2004), 79쪽

363) 『정조실록』 39권, 정조 18년 1월 15일 계묘

364) 중국 청대 지방 성곽 도시의 규모는 省城의 평균이 39290척이고 府城의 평균이 12712척이 라서 27600척인 화성의 경우는 규모가 큰 부성 정도에 해당한다.(한동수, 「清代府城의城制與

동서남북에 각각 1개소의 성문을 여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곽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그 위치는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³⁶⁵⁾ 이와 동시에 성문의 방향은 외부와 연결되는 통행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성곽의 형상이 비교적 규칙적일 경우는 성문의 방향성이 명확한 반면 그렇지 않으면 성곽의 형상이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 교통로의 설정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산지와 구릉지가 많고 대부분 분지형의 공간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보인다. 장생도(章生道)는 자신의 연구에서 중국 성곽 도시의 도로와 성문의 상호관계를 기본적으로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였다.³⁶⁶⁾



〈그림 5-11〉 중국 도시를 사례로 본 성곽의 도로와 성문의 상호 관계

또한 성문의 위치와 방향은 심지어 전통적인 민간신앙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본의 도시사학자 굴입헌이(堀入憲二)나 중국의 도시사학자 장생도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성시의 성곽 통로는 두 개의 성문이 직통하는 길을 피하는데 이는 귀신이 직선으로 다닌다는 민간의 속설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⁶⁷⁾ 그 결과 정남북이나 동서 방향으로 직교하는 위치에 성문이 설치되기보다는 서로 어긋나는 방향을 갖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보인다.

수원 화성은 지형상 동서, 남북의 문이 서로 직교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도성 한양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성곽 도시들이 북문을 보편적으로 개설하지 않고 개설한다 하더라도 거의 통행이 되지 않는 것과 달리 남북의 성문과 가로가 강조되었고 북문이 매우 활성화 되었다.

「營建活動之研究」(國立臺灣大學碩士學位論文, 1994), 60쪽)

365) 馬先醒, 『中國古代城市論集』, (臺北: 簡牘學會, 1980), 206쪽.

366) Sen-Dou Chang(章生道), 『The Morphology of Walled Capitals,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p.97~98.

367) 堀入憲二의 風水思想と都市の構造(思想, 1990.12, pp.91~92)이나 章生道の The Morphology of Walled Capitals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pp.75~100)을 참조할 것

제5절 맺음말

이상으로 격자 도시의 계획이념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 신도시의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도시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사료의 검토와 보완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매우 많기는 하지만 신도시의 경영에 주된 계획개념으로 격자형이라는 도시계획의 원리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역과 장소, 시대에 따라 다소간의 오차와 한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질서로 안착을 하고 있는 점은 정치권력의 표현과 통제와 분배, 즉 관리의 측면에서 고도로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수원 화성은 일반적인 신도시 계획의 보편적 논리와 개념에서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부합한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인지체의, 인지취재(因地制宜, 因地取材)의 정신이 돋보이는 매우 독특한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인 시설과 규모, 도구와 재료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원 화성은 세계적인 수준과는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대 또는 그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범주에서는 획기적이고 전대미문의 사업으로 기억될 수는 있어도 세계 도시사의 흐름에서는 평가 절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개국 초기 신도시성 한양 건설 이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화성은 정조의 회한과 욕망이 뒤섞여 표출된, 당시 다른 어떤 지방 행정도시와도 구별되는 독특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였다. 권력의 주체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치되고 운영된 도시공간은 일반 백성을 교화시키고 국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사용되었으며, 지배 계층에게는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화성은 한양의 뒤를 이어 조선왕조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했던 유교의 근본 덕목인 효와 충의 이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실천 현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⁶⁸⁾

그렇기 때문에 수원 화성의 당시에만 그러했지만 정조 사후에도 중요한 기능은 바로 능읍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도시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원 화성은 무엇보다도 용건릉이라는 왕릉과 용주사라는 원찰, 그리고 화령전이라는 사묘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유지된 조선시대 전대미문의 능읍도시로서 그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상은 화성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적용되기보다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상을 읽어내는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368) 한동수, 「화성도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인식과 표현」, 『화성박물관 수원 화성 완공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2016년 11월 17일

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이 신도시 발전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빛나는 또 다른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도시의 계획과 건설의 과정에도 담겨 있다. 신도시의 건설은 한 두 사람의 독선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다. 과거에는 일부 지배계층의 논리에 의해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화성의 경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논의된 점, 일단 조성된 도시를 5년간 준비하여 불완전한 면을 보완하고자 한 것은 다른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도시의 건설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적지 않은 교훈으로 연결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수원 화성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도시 문제를 넘어서 역사 도시의 보존과 활용 문제를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과거의 교훈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대의 어떤 선택과 기준들이 과거와의 접점을 연결할 수 있는지 인식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총결

총결

1장에서는 국왕도시였던 베르사유 성과 시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오늘날 베르사유 성과 시는 분리되었지만, 베르사유의 정체성은 여전히 부르봉 왕조의 국왕도시라는 강력한 이미지에 지배되고 있다. 1661년, 태양왕 루이 14세는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황량한 늪지대에 베르사유 성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베르사유 성과 시의 운명은 부르봉 왕가와 흥망과 부침을 같이했다. 1682년 5월, 루이 14세가 궁정을 옮기면서 베르사유 성은 프랑스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주하면서 베르사유 시도 부흥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궁정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베르사유 성과 시의 위상은 추락했다. 그러다 1790년에 베르사유 시가 도청소재지로 선정되었고, “행정 도시”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게 되었다. 이로써 왕의 궁전은 국민의 궁전으로 바뀌어 베르사유 성은 국립 역사박물관(musée de l'histoire de France)으로 바뀐다(1837년). 곧이어 파리와 베르사유를 연결하는 철도가 부설되며 베르사유 시의 관광업과 상업은 성장하게 되었다.

2장은 러시아의 왕도로서 페테르부르크가 건설된 목적과 과정, 그리고 도시 건설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 북서 변방의 열악한 늪지대에 ‘황제의 도시’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제국 러시아의 수도로 삼았다.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가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치·경제·군사·문화 모든 면에서 서구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표트르 대제의 부국강병의 이상이 현실에 반영된 공간이었다. 당대의 현실에서 표트르의 개혁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너무나도 급진적이었고 강압적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무수한 농민, 상인, 변화에 뒤처진 일부 귀족들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 또한 페테르부르크의 서구화는 러시아 귀족들만의 서구화였다. 러시아가 귀족들만의 국가가 되면서 농민 대중은 철저히 배제되고 점차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다.

3장은 청제국 북방의 정치 중심지인 승덕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검토하였다. ‘피서산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승덕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공식 수도였다. 청조는 만주족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름철이면 승덕 인근의 무관위장에서 대규모의 수렵을 행했다. 또한 제국을 경영하기 위하여 적대자이자 동맹자인 몽골 지역의 여러 부족들에 대한 지배 및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승덕을 그들과 함께 사냥하고 연회를 베푸는 근거지로 삼았다. 승덕의 피서산장은 강회기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청제국이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과 발맞추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외팔묘의 형성으로 대변되듯,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행궁으로서 승덕의 기능은 점차 증대되어 청제국이

포괄하는 모든 민족에 대한 청의 지배를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 중심지가 되었다.

4장과 5장에서는 수원 화성의 건설과 도시로서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4장은 화성과 왕경인 한양의 관계에 주목하여, 수원 화성이 배도(陪都)인 유수부의 수준이 아니라 ‘별경(別京)’으로서 건설되었음을 논증하였다. 화성 건설은 단순히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다. 정조는 갑자년 상왕 구상에 따라 조선 왕조를 중흥하기 위하여 상왕이 주도하는 정치·사회 개혁의 모범 도시이자 정치 실험장으로서 화성을 건립하였다. 당시의 공공적 과제였던 부국강병과 부민을 위한 군사 개혁, 첨단 기술의 도입, 상공업 진흥책 등은 오히려 정조 사후에 ‘일시적인 권의(權宜)’라는 명목으로 혁파되었다. 그와 함께 화성의 위상도 유수부의 수준으로 격하되고 말았다.

5장에서는 세계 도시의 발전사 속에서 도시의 개념을 살펴보고, 세계 도시의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였다. 격자형 도시 계획은 정치권력의 표현과 통제·분배의 측면에서 고도로 발전된 것으로서, 신도시 건설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화성은 조선 후기의 시대상 및 당시의 조건에 부합한 매우 독특한 사례로서, 도시 공간을 에워싸는 성벽과 행궁을 갖춘 성곽도시이다. 또한 화성의 도시 공간은 다른 행정도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모습도 보인다. 이는 정조의 개인적인 회한이 투영된 것으로, 정조는 화성에서 부친의 능묘를 수호하고 관련 행사를 거행하는 화성을 효와 충의 이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실천 현장으로 삼았다.

이상의 네 도시는 모두 비슷한 시기(17-18세기)에 국왕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였다. 네 도시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과정의 구체적인 양상에는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먼저 네 신도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권력이 확대·관철되는 시기에 건설되었다. 새로운 도시는 베르사유와 같이 강력한 왕권과 강력한 국왕권을 바탕으로 건설될 수 있었다. 베르사유는 중앙집권화를 이룩한 군주가 국가 권력이 집중된 정치적 공간으로서 ‘수도’를 건설한 것으로, 국가 권력과 전제군주권을 드러내는 보편사적 성격을 지닌다.

경제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보급할 수 있다는 중앙집권국가의 이점은 다른 도시의 건설 과정에도 중요했다. 도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페테르부르크는 농민을 부역에 동원했지만, 다른 세 도시는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건설비용과 물자를 국민에게서 수취한 세금에서 마련하였다. 새롭게 건설된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여들게 되었고, 국왕이 면세 특권 등을 부여하면서 상공업도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들은 부국강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포르트 대제는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여 기존 수도의 지배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서구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 군사적으로도 스웨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되어 안정을 이루었다. 청제국의 강희제와 건륭제도 승덕을 전략적 요충지이자 몽고 부족들을 제어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정치적 장으로 활용하여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주 팔기군을 훈련시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정조는 조선왕조의 통치를 영속시키기 위해 왕위 계승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화성을 상왕경으로 건설하여서 저군의 지위를 강화하려 했고,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개혁하여 군사력을 증강하려 했다.

각 도시들이 수행한 역할이 상이한 까닭은 도시를 건설한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베르사유 성 건설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정치적인 목적보다는 루이 14세의 개인적인 동기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었다. 포르트 대제도 루이 14세와 같이 기존의 수도에서 정신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모스크바를 버리고 새로운 수도를 옮기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화성 건설에는 생부인 사도세자 추왕(追王) 문제와 연관된 정조의 염원이 화성의 도시 공간을 상왕경으로 구상하되 능읍의 기능이 중시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승덕 건설에는 환경적·지정학적 요인과 정치적 목적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였다.

한편, 네 도시는 위상과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베르사유와 페테르부르크는 각 나라의 수도이고, 승덕과 화성은 행궁으로서 왕경에 대비되는 ‘제 3의 수도’와 ‘별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성은 ‘별경’을 계획되었을 뿐, 별경으로 운영되기 전에 정조가 사망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사유와 페테르부르크, 승덕이 왕조가 몰락할 때까지 유지된 것과 달리, 화성은 정조 사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쇠퇴하였다. 도시의 규모는 페테르부르크가 가장 크고, 베르사유가 가장 작다.

구체적인 건설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승덕은 건륭기에서 강희기까지 100여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었다. 베르사유는 루이 14세가 점차 건설의 범위를 확장하며 외연을 확대해나갔다. 페테르부르크도 토끼섬의 군사 요새에서 제국 러시아의 수도가 되기까지 몇 단계를 거쳤지만, 포르트 대제가 강압적이고 독재적으로 일시에 건설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화성은 정조와 신료들의 건설 과정을 5년 동안 논의한 끝에 조성되었다.

또한, 오늘날 네 도시에는 모두 국왕이 건설한 관광 자원이 남아있다. 베르사유 성은 물론이고,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 귀족들이 수용한 다채로운 서유럽 건축 양식의 변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승덕에는 피서산장과 함께 외팔묘를 비롯한 30여 개의 사

원이 남아있으며, 수원에도 화성과 수원 행궁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신도시 건설의 특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이후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베르사유 성과 시의 이중주

- 생시몽, 『루이 14세와 베르사유 궁정』, 이영림 옮김, 나남, 2009.
- 이멜파르, 엘렌, 「베르사유, 그 기능과 신화」, 『기억의 장소 2』, 이영림 옮김, 나남, 2010.
- 이영림,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09.
- Castex, J. P. Céleste et P. Panerai, Versailles, lecture d'une ville (Paris: Editions dues Moniteur, 1980).
- Damien, A. et Jean Lagny, Versailles. Deux siècles de vie municipale (Paris: L'Univers du Livre, 1980).
- Dauphin, Noëlle, "Versailles, le chateau et la ville. Deux patrimoines distincts, deux memoires antagonistes a l'epoque contemporaine?" Histoire Urbaine, no. 9(2004), pp. 79-96.
- Leclercq, Pierre-Robert, Versailles (Paris: Editions Champ Vallon, 1991).
- H. Lemoine, Versailles, cité royale (Paris: Editeur Quillet, 1955).
- Lepetit, Bernard, "Une création urbaine: Versailles de 1661 à 1722", Revue d'histoire moderne et contemporaine, no. 1(1978), pp. 604-618.
- Maral, Alexandre, Versailles côté ville, côté jardins (Lepassage, 2014).
- Maroteaux, Vencent, Versailles, le Roi et son domaine (Paris: Picard, 2000).
- Michaux, Monique, "Le développement de Versailles en fonction du Château: aperçu sur les marchands et artisans de 1661 à 1688", Actes du 84e Congrès national des Savantes (Dijon, 1959.7).
- Newton, W. R., L'Espace du roi : la cour de France au château de Versailles 1682-1789 (Paris: Fayard, 2000).
- Pierre de Nolhac, La Résurrection de Versailles. Souvenirs d'un conservateur 1887-1920 (Paris, 1937).
- Thiberghien, F., Versailles, le chantier de Louis XIV (Paris: Perrin, 2002).
- Houth, E. et M. Versailles aux trois visages (Versailles: Lefebvre, 1980).

2. 러시아의 왕도 페테르부르크의 건설과 그 의미

<사료>

Ведомости времени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Вып.1. 1703-1707 гг. (Москва, 1903).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зак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Т.4, 5, 7, 8. (Петербург, 1830).
Письма и бумаги императора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Т.3 (Петербург, 1893).
Дневник камер-юнкера Берхгольца, веденный им в России в царствовани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с 1721-го по 1725 год. Ч.2 (Москва, 1858), p.102.

<연구서>

라자놉스키 니콜라이(조호연 역), 『러시아의 역사』 (까치, 2012).
박지배, 「근대 초 러시아 국가의 군사개혁과 동서양의 영향」, 『서양사론』 121호 (2014년 6월).
박지배, 『포트리 대체』 (살림, 2009).
방일권, 「페테르부르크의 발전과 도시 건축」, 『외대사학』 제9집 (1999년 2월).
크라크라프트 제임스(이주엽 역), 『포트리 대체』 (살림, 2008).
페이지스 올렌도(채계병 역), 『나타샤 댄스』 (이카루스미디어, 2005).
Анисимов Е. В. и д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300 лет истории (Петербург, 2003).
Анисимов Е. В. Императорская Россия (Петербург, 2011).
Бернадский В. Н., Любименко И. И. “Просвещение и наука,”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 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Веселаго Ф. Ф. Очерк русской морской истории. Ч.1 (Петербург, 1875).
Витязева В. А., Кириков Б. М. Ленинград (Ленинград, 1986).
Гегелло А. И., Шилков В. Ф. “Архитектура и планировка Петербурга до 6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Ерошкин Н. П. Истор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осква, 1968).
Кафенгауз Б. Б., Лебедев В. 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жизнь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осквы. Т. 2.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I в. (Москва, 1953).
Киреев Н. В., Вяткин М. П.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2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7).

- Кулишер И. Д. История рус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3-изд (Челябинск, 2008).
- Копанев А. И. “Население Петербурга от конца XVIII в. до 1861 г.,”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 Луппов С. П. Истор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тербурга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VIII века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7).
- Любименко И. И., Тонкова Р. М. “Культурн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Ленинград, 1948).
- Любименко И. И. “Торговля в Петербурге,” Предтеченский А. В.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 Макаров В.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60–9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 Миронов Б. Н. “Время величия. Военные победы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россиян в XVIII столетии,” Родина (сентября 2001).
- Павленко Н. И. “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ая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VIII в.,” История СССР. №. 3 (1978).
- Овсянников Ю. М. Великий зодчи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Петербург, 1996).
- Павленко Н. И. Петр Великий (Москва, 1994).
- Предтеченский А. В.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 Предтеченский А. В. “Население и быт Петербурга,” А. В. Предтеченский (ред.), Петербург петровских времен (Ленинград, 1948).
- Предтеченский А. В. “Основание Петербурга.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жизнь города в 1703–1725 гг.,”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 Пузырев В. П. и др. Под флагом России. История зарожд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морского торгового флота (Москва, 1995).
- Решин Н. 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оссии в XVIII в. (Архангелогородский и Петербургский порты) (Омск, 1989).
- Решин Н. 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России через Архангельск и Петербург в 1700–начале 60-х годов XVIII в.,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 учен. степени Доктор. истор.

- наук. (Москва, 1985).
- Сербина К. Н.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рай она Петербурга до основания города,”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Москва, 1955).
- Сивков К. В. “Территория и население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соквы. Т.3 (Москва, 1954).
- Слицан Б. Г., Лебедев В. И. “Управление и благоустрой ство Москвы,” История Москвы. Т. 2.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XVIII в. (Москва, 1953).
- Сукновалов А. Е. “Экономическая жизнь Петербурга до 60-х годов XVIII в.,” Очерк и истории Ленинграда. Т.1. Период феодализма (1703-1861 гг.) (Москва-Ленинград, 1955).
- Тельпуховский Б. С. Северная вой на (Москва, 1946).
- Тимофеев А. Г. История С.-Петербургской Биржи (Петербург, 1903).
- Успенский Б. А. Царь и император: Помазание на царство и сематика монарших титулов (Москва, 2000).
- Филюшкин А. И. Титулы русских государей (Москва, Петербург, 2006).
- Чельцов-Бебутов М. А. Курс советского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права (Москва, 1995).
- Чехов А. “Злоумышленник,”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писем в тридцати томах. Т.4. 1885-1886 (Москва, 1984).
- Чижикова Л. Н., Будина О. Р. “Жилая, хозяй ственная и общественная застрой ка,” Русские (Москва, 1997).
- Park J. B. “Russian Exports to Western Europe with Special Focus on Trade with Great Britain (1761-1800),” Western History Essay of Kansai University. Vol.7 (2004).

3. 청제국 북방의 정치중심지 승덕

<사료>

že ho i dorgi babe kadalame jung gurun i ba tatara gurun ni seremšeme tehe daci tetele isibume ejehe arahabi.(열하 안의 땅을 관리하기 위해 중국의 땅과 행궁을 駐防한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함.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 저자 미상, 道光1年.)

- 柳得恭, 「灤陽錄」(叢書集成續編,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4.)
- 朴趾源, 「熱河日記」(임기중 編, 『燕行錄全集』 54集, 동국대학교 출판부.)
- 李民賓, 「建州聞見錄」(중세사료강독회 번역, 『책중일록』, 서해문집, 2014.)
- 趙翼, 『簞曝雜記』(清代筆記小說. 周光培 編,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6.)
- 『滿文老檔』(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 (일역본 『滿文老檔』2. 태조 권2. 東洋文庫, 1961.)
- 『滿洲實錄』(Manju i yargiyan kooli), 北京: 中華書局, 1986.(『만주실록역주』 권6,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실록역주회, 소명출판, 2014.)
- 『承德府志』(光緒) (中國方志叢書, 塞外地方. 第17號, 臺北: 成文出版社, 1968.)
- 『清實錄』, 中華書局 編, 北京: 中華書局, 1986.
- 『欽定熱河志』, 和珅 主編, 120卷, 1781. (臺北: 商務印書館, 1986.)
- 『欽定八旗通志』 1796(嘉慶元年) (李洵 主校點,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2.)

<논저>

- 김선민, 「청 제국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 『사총』 88권, 2016.
- 노기식, 「명대 몽고와 만주의 교체」, 『사총』 59, 2004.
- 이선애, 『清 初期 外藩(tulergi golo) 형성과정과 理藩院』,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임계순, 「18세기 청조 제2의 정치중심지, 승덕 피서산장」, 『명청사연구』 21집, 2004.
- 紀欣, 「承德佟王府與佟氏家族」, 『承德民族師專學報』 第4期 (1999).
- 紀欣, 付際紅, 「雍正與清代承德開發」, 『河北旅遊職業學院學報』 第2期 (2011).
- 達力扎布 編著, 『蒙古史綱要』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6).
- 唐玉萍, 「從避暑山莊的興建看康熙乾隆的民族政策」, 『昭烏達蒙族師專學報』 第1期 (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0).
- 董旭, 『承德普陀宗乘之廟歷史與建築研究』, 河北師範大學 박사학위논문, 2015.
- 羅運治, 『清代木蘭圍場的探討』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9).
- 蘆婷婷, 「清廷平定布爾尼之亂研究」, 『甘肅聯合大學學報』 第6期(社會科學版, 2011).
- 劉小盟,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이훈, 김선민, 이선애 번역,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3.)
- 劉玉文, 「避暑山莊初建時間及相關史事考」, 『故宮博物院院刊』 第4期 (2003).
- 李景瑞, 張達池, 「承德回族及其生活習俗探源」, 『承德民族師專學報』 19권, 第4期 (1999).

- 半憂, 「外八廟與清代政治」, 『山莊文化』, 承德大學, 1996.
- 別廷峰, 「乾隆御製《避暑山莊詩後序》注譯」, 『承德民族師專學報』 3期 (1985).
- 付際紅, 「清朝前期承德府, 廳, 州, 縣的設置及原因」, 『承德民族師專學報』 28권 第1期 (2008).
- 承德避暑山莊研究會編, 『避暑山莊論叢』(北京: 紫禁城出版社, 1986).
- 烏云畢力格, 白拉都格其, 『蒙古史綱要』(內蒙古人民出版社, 2006).
- 王穎, 「二十年避暑山莊研究綜述」, 『承德民族師專學報』 27권, 第3期 (2007).
- 王佩環, 『清帝東巡』(遼寧大學出版社, 1991).
- 于佩琴, 「承德外八廟建築風格及其象征意義」, 『河北民族師範學院學報』, 第1期 (2014).
- 袁森坡, 「達什達瓦部東遷熱河」, 『渤海學刊』, 第1期 (1990).
- 袁森坡, 『論避暑山莊建立的曆史背景.位置和歷史地理環境—從康熙不修長城的一道諭旨談起』(河北師範學院歷史系, 1983).
- 定宜莊, 「清代理事同知考略」, 『慶祝王鍾翰先生八十壽辰學術論文集』(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 定宜莊, 『清代八旗駐防研究』(遼寧民族出版社, 2003).
- 鄭天挺, 『探微集』(中華書局, 1980).
- 陳寶森 主編, 承德市城鄉建設志編纂委員會 編, 『承德市城鄉建設志』(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93).
- 天津大學建築系, 承德市文物局 編著, 『承德古建築』(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2).
- 特克寒, 「厄魯特蒙古達什達瓦部東遷承德考」, 『內蒙古社會科學(漢文版)』 第3期 (2000).
- 馮春芳, 「從南苑行宮、喀喇河屯行宮到避暑山莊—淺析清代北方行宮產生原動力與發展基本軌跡」, 『多維視野下的清宮史研究—第十屆清宮史學術研討會論文集』, 2013.
- 畢梅雪, 侯錦郎(Michele Pirazzoli), 『木蘭圖—與乾隆秋季大獵之研究—』(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2).
- 郝志強, 特克寒, 「清代塞外第一座行宮—喀喇河屯行宮」, 『滿族研究』 104期, 第3期 (2011).
- 許富翔, 「『熱河內屬中國及行宮駐防始末記』校注」, 『東吳歷史學報』 第28期 (2012).
- 胡汝波, 劉宗和, 「承德回族起源初探」, 『承德師專學報(社會科學版)』 第1期(1991).
- 華立, 「清代的滿蒙聯姻」, 『民族研究』 第2期 (1983).
- 李海泉, 「中国河北省承德市における寺・廟の建設意圖の分析」, 『やまぐち地域社会研究』 (2014).

- 浦廉一, 「清朝の木蘭行圍に就て」, 『山下先生還曆記念東洋史論文集』 (六盟館, 1938).
- 宮脇淳子, 『最後の遊牧帝国 : ジューンガル部の興亡』 (東京 : 講談社, 1995) (조병학 번역, 『최후의 몽고유목제국』, 백산출판사, 2000.)
- David Farquhar, Emperor as Bodhisatt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38, No. 1 (Jun., 1978), pp. 5-34.
- Evelyn S.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구범진 번역, 『최후의 황제들 - 청황실의 사회사』, 까치, 2010. p.41).
-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마크 엘리엇 저, 이훈·김선민 번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p.271.).
- Mark Elliott, Emperor Qianlong: Son of Heaven, Man of the World, (Pearson Longman, 2009) (양휘웅 번역, 『건륭제 하늘의 아들 현세의 인간』, 천지인, 2011. p.171).
- Michael Khodarkovsky, Where Two Worlds Met: The Russian State and the Kalmyk Nomads, 1600-1771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Ning Chia, The Lifanyuan and the Inner Asian Rituals in the Early Qing (1644-1795), Late Imperial China 14, no.1 (1993), pp. 60-92.
- Pamela Kyle Crossley,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서문.
- Patricia Ann Berger, Empire of Emptiness: Buddhist Art and Political Authority in Qing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 Peter Perdue,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공원국 번역, 『중국의 서진』, 길출판사, 2012.)
- Philippe Forêt, Making an Imperial Landscape in Chengde, Jehol : The Manchu Landscape Enterprise (University of Chicago, 1992).
- Philippe Forêt, Making an Imperial Landscape in Chengde, Jehol : The Manchu Landscape Enterprise (University of Chicago, 1992).
- Ruth W. Dunnell, Mark C. Elliott, Philippe Foret, James A Millward, New Qing Imperial History: The Making of Inner Asian Empire at Qing Chengd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4).

4. 정조의 수원 화성 건설과 양경(兩京)

<사료>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홍재전서』
『수원하지초록』, 『수정국역 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1), 『장용영고사』
이만수, 「행장」(『정조실록』권1)
이수광, 『芝峯先生集』
이희평, 『華城日記』 (강한영 주해, 신구문화사, 1997)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
崔峴, 『訥齋先生文集』

<논저>

- 김동욱, 『실학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김성윤, 『조선후기 탕평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8
김준혁, 『조선 정조대 장용영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변광석, 『조선후기 시전상인 연구』, 혜안, 200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화성』, 2014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996
정해득,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의 수원』, 신구문화사, 2009
최성환,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최홍규, 『정조의 화성 경영 연구』, 일지사, 2005
최홍규, 『정조의 화성건설』, 일지사, 2001
홍순민, 『조선왕조 궁궐 경영과 ‘양궐체제’의 변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新宮學, 전순동·임대희 옮김, 『북경 천도 연구-근세 중국의 수도이전-』, 서경문화사, 2016
여영시, 이원석 옮김, 「황권과 황극」, 『주희의 역사세계(하)』, 글항아리, 2015
고동환, 「조선시대 한양의 수도성」, 『역사학보』 209, 2011
김선희, 「화성행궁 주요 건물의 배치와 기능」, 『고궁문화』 3, 2010
김윤주, 「조선초기 천도와 이어의 정치사」, 『서울학연구』 45, 2011
김윤정, 「평양 풍경궁의 영건과 전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7
김준혁,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168, 2015

- 김지영, 「19세기 진전 및 어진봉안처 운영에 관한 연구」, 『장서각』 26, 2011
- 김호동, 「몽골제국 군주들의 양도순행과 유목적 습속」, 『중앙아시아연구』 7, 2002
- 남상호, 「擺撥制考」, 『경주사학』 8, 1989
- 민현구, 「조선 세종대 초영의 양왕체제와 국정운영」, 『역사민속학』 11, 2006
- 배우성, 「정조의 유수부 경영과 화성인식」, 『한국사연구』 127, 2004
- 손정목, 「세계 최고(最古)의 계획된 신도시-화성 건설의 이념과 수법」,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 염정섭, 「정조대 수원화성 수리 시설의 특징과 수리사적 의의」, 『역사민속학』 51, 2016
- 유재리, 「세종초 兩上 統治期の 국정운영」,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 윤 정, 「세종초 상왕의 궁궐경영과 그 정치적 의미」, 『서울학연구』 41, 2011
- 이상해, 「화성행궁의 주요 건물」, 『수원화성』,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 정연식, 「화성 공심돈의 유래와 기능」, 『역사학보』 169, 2001
- 정연식, 「화성의 방어시설과 총포」, 『진단학보』 91, 2001
- 조병로, 「수원 화성의 축성과 교통」, 『조선시대 경기지역의 관방과 교통』, 국학자료원, 2013
- 조영현, 「원·명·청 시대 수도 북경과 배도의 변천」, 『역사학보』 209, 2011
- 최성환,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시 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6, 2016
- 최승희, 「세종조의 왕권과 국정운영체제」, 『한국사연구』 87, 1994
- 応地利明, 『都城の系譜』(京都大學出版會, 2011)

5. 신도시 건설의 맥락과 수원 화성의 위상

-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 『관자』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역, 소나무, 2012.)
- 상양, 『상군서』 (신동준 역주, 인간사랑, 2013.)
- 서유구, 『화영일록』 (경기도박물관 학술총서, 2004.)
- 김성도, 『도시의 인간학』, 안그라픽스, 2014.
-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통사』, 기문당, 2014.
- 민족건축미학연구회, 『18세기 신도시 20세기 신도시』, 발언, 1996.
- 이득채, 『도스토예프스키 도시에 가다』, 문화과학사, 2001.
- 마크 기로워드, 민유기 역, 『도시와 인간』, 책과함께, 2013.
-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모습』, 공간사, 2009.

- 스피로 코스토프, 양윤재 역, 『역사로 본 도시의 형태』, 공간사, 2011.
- 조엘 코르킨 저, 윤철의 역, 『도시 역사를 바꾸다』, 을유문화사, 2013.
- 존 리더, 김명남 역,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지호, 2006.
- 中國古代建築史編纂委員會, 『中國古代建築史』 1-5卷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6).
- P.D. 스미스, 엄성수 역, 『도시의 탄생』, 도서출판 옥당, 2015.
- 다마이 데쓰오, 「일본의 역사적 신도시-근세도성건설을 중심으로」, 『18세기의 신도시 20세기의 신도시』, 발언, 1996.
- 玉井哲雄, 「日本 中近世都市の特質」, 『동양도시사 속의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1994.
- 이경찬, 「백제 후기 익산도성 조영계획모델에 대한 도성계획사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24권 3호, 2015
- 한동수, 「화성도를 통해 본 도시 공간의 인식과 표현」, ‘화성박물관 수원 화성 완공 2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 2016
- 한동수 외, 「세계의 격자형 도시변천-2」, 『POAR』, 2003.
- 한동수, 「清代府城的城制與營建活動之研究」 (國立臺灣大學碩士學位論文, 1994).
- 히로시 스즈키, 「도시의 표현-현대도시의 문제」, 『18세기 신도시 20세기 신도시』, 발언, 1996.
- 馬先醒, 『中國古代城市論集』 (臺北: 簡牘學會, 1980)
- Sen-Dou Chang(章生道), The Morphology of Walled Capitals,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堀入憲二, 「風水思想と都市の構造」, 『思想』, 1990

| 저자 약력 |

최성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문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현)
E-mail : choevet@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수원 화성 행차시 정조의 활동과 그 의미」, 『동아시아 군주의 능행 전통과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 수원시정연구원, 2015.
『정조대 국정에서 공공성(公共性)의 구현』, 수원시정연구원, 2014.
『正祖代 蕩平政局의 君臣義理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영림

고려대학교 사학과 문학박사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현)
E-mail : leeylim@suwon.ac.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루소와 후원-자립과 의존의 모순」, 『서양사론』 128호, 2016.
「결투의 문화사에서 폭력의 정치사로-칼싸움, 16-8세기 프랑스에서의 폭력과 검의 문화」, 『프랑스사 연구』 33호, 2015.
『루이 14세는 없다』 푸른역사, 2009.

박지배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국립학술원 역사연구소 박사
한국의국어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현)
E-mail : ji-bae@hanmail.net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1801-1825년의 경제 변화와 러시아 정부의 관세정책」, 『서양사론』 130호, 2016.
「군주 칭호를 통해 본 러시아 국가의 다원성」, 『다문화콘텐츠연구』 18집, 2015.
「표트르 시기 러시아 절대국가의 형성과 귀족 및 농민 신분의 제도화」, 『역사학보』 208집, 2010.

이훈

고려대학교 사학과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현)

E-mail : hun1116@hanmail.net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청 초기 장백산 탐사와 황제권」, 『東洋史學研究』 第126輯, 2014.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 : 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근본지지(根本之地) 만들기 -경사(京師) 기인(旗人)의 이주와 만주의 봉금(封禁)을 중심으로-」, 『사총』 72집, 2011.

한동수

중국 칭화대학 건축학원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현)

E-mail : dsharn@hanyang.ac.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일제강점기 길장지구 한인 관련 건축 활동과 시설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15

「Topography Restoration of Historic City Research」, 『ISPRS』, 2015.

「문헌 및 회화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모정에 대한 인식과 건축적 특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